

부산지역 청년층 실업대책에 관한 종합연구

2004. 1. 6

부 산 광 역 시

연 구 진

정인수(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 연구총괄)

전병유(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임상훈(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남재량(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김종한(경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균승(군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상수(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목 차 〉

| | | |
|--------------------------------------|-------|-----|
| I. 서론 | | 1 |
| II. 부산지역 산업구조 변화와 특징 | | 4 |
| 제 1 절 부산의 산업구조 | | 4 |
| 제 2 절 부산발전 전략과 전략산업의 특성 | | 20 |
| 제 3 절 요약 | | 32 |
| <참고문헌> | | 35 |
| III. 부산지역 청년층 노동수요 현황·전망·실태조사 결과 | | 37 |
| 1. 부산지역 청년층 실업현황 | | 37 |
| 2. 청년층 취업자 현황과 추이 | | 42 |
| 3. 부산지역 청년층의 산업별, 직종별 노동 수요 전망 | | 58 |
| 4. 부산지역 청년층 노동수요 실태 조사 결과 | | 68 |
| 5. 요약 | | 77 |
| <참고문헌> | | 80 |
| IV. 부산지역 청년층 노동공급 현황·전망·실태조사 결과 | | 81 |
| 제1절 서론 | | 81 |
| 제2절 부산지역 청년층 인구구조와 청년 경제활동 전망 | | 83 |
| 제3절 부산지역 청년층 실태조사 I :대학 취업보도실 방문자 조사 | | 109 |
| 제4절 부산지역 청년층 실태조사Ⅱ : 고용안정센터 방문 청년 조사 | | 142 |
| 제5절 요약과 시사점 | | 178 |
| <참고문헌> | | 181 |

| | |
|---|-----|
| V. 지역노동시장 분석과 부산지역특징 | 182 |
| 1. 지역별 실업기간분석(Kaplan-Meier 위험도 모형 분석) | 182 |
| 2. 지역별 일자리 창출 및 소멸 분석 | 183 |
| <참고문헌> | 189 |
| | |
| VI. 부산지역 산업고도화와 노동시장정책과제 | 194 |
| 1. 부산지역의 산업구조고도화 전망 및 산업정책과제 | 194 |
| 2. 부산시 청년실업 대책 평가 | 200 |
| 3. 부산시 청년실업 정책방향 | 202 |
| 4. 구체 정책과제 | 206 |
| <참 고 문 헌> | 221 |
| | |
| <부 록> | 222 |
| | |
| 1. 3장 부록 | 222 |
| 2. 4장 부록 | 259 |
| 3. 6장 부록 | 260 |
| | |
| <설 문 지> | |
| 부산지역 청년층 인력수급 실태 및 수요전망 조사 | 269 |
| 부산지역 청년층 고용촉진을 위한 실태조사(취업보도실 조사) | 279 |
| 부산지역 청년층 고용촉진을 위한 실태조사(고용안정센터 조사)..... | 287 |

<표 목 차>

| | |
|---|----|
| <표 2-1> 부산경제 총괄지표 | 5 |
| <표 2-2> 부산지역 경제규모의 전국대비 비중(경상가격 기준)..... | 6 |
| <표 2-3> 산업구조 변화 추이 | 6 |
| <표 2-4> 산업별 취업구조 | 7 |
| <표 2-5> 매출액, 순이익 1,000대 기업 중 부산기업 현황(2001년 기준) | 8 |
| <표 2-6> 산업중분류별 제조업 구성비 추이 I | 9 |
| <표 2-7> 산업중분류별 제조업 구성비 추이 II | 11 |
| <표 2-8> 산업중분류별 제조업 전국 비중 | 12 |
| <표 2-9> 부산 제조업의 기술수준별 산업구조 | 13 |
| <표 2-10> 전국 대비 평균 임금의 비중추이 | 15 |
| <표 2-11> 부산의 평균 임금 | 16 |
| <표 2-12> 산업중분류별 월평균종사자수 증감률 추이 | 17 |
| <표 2-13> 부산 산업별 고용구조 변화 | 18 |
| <표 2-14> 부산서비스산업의 고용구조 변화 | 19 |
| <표 2-15> 10대 전략산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추이 | 20 |
| <표 2-16> 전략산업별 세부단위사업수 및 총투자계획 | 22 |
| <표 2-17> 10대 전략산업 재원별 연도별 투자계획 및 투자실적(2003. 8. 31 현재) | 23 |
| <표 2-18> 성장유망산업의 투자계획 대비 투자실적 | 24 |
| <표 2-19> 구조고도화산업의 투자계획 대비 투자실적 | 25 |
| <표 2-20> 10대 전략산업의 2003년 필요인력수요 | 29 |
| <표 2-21> 조사결과만으로 본 2003년도 10대 전략산업 필요인원 예측치 | 29 |
| <표 2-22> Dream MAP21의 세부사업계획 | 30 |
| | |
| <표 3-1> 부산지역 청년층 실업률 추이 | 38 |
| <표 3-2> 전국 청년층 실업률 추이 | 38 |
| <표 3-3> 부산지역 청년층의 유희화율 | 40 |
| <표 3-4> 전국 청년층의 유희화율 | 40 |
| <표 3-5> 지역별 청년층 실업률 | 41 |
| <표 3-6> 남녀별 취업자 추이 | 43 |
| <표 3-7> 부산 청년층 종사상 지위별 남녀 취업자 비중 | 45 |
| <표 3-8> 학력별 취업자 추이(대학원 제외) | 48 |
| <표 3-9> 학력별 전체대비 비중 | 48 |
| <표 3-10> 부산 청년층 직종별 남녀 취업자 비중 | 50 |
| <표 3-11> 부산 청년층 업종별 취업자 비중 | 52 |
| <표 3-12> 총생산액과 취업계수의 추세선의 함수 | 61 |
| <표 3-13> 총생산액과 취업계수의 추세선의 함수 | 61 |
| <표 3-14> 부산지역 취업자의 취업계수 추이 및 전망 | 63 |
| <표 3-15> 부산지역 청년 취업자의 취업계수 추이 및 전망 | 63 |
| <표 3-16> 부산지역 업종별 취업자 추이 및 전망 | 65 |
| <표 3-17> 부산지역 업종별 청년층 취업자 추이 및 전망 | 65 |

| | |
|--|-----|
| <표 3-18> 부산지역 직종별 취업자 추이 및 전망 | 67 |
| <표 3-19> 부산지역 직종별 청년층 취업자 추이 및 전망 | 67 |
| <표 3-20> 정시채용 비율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 | 71 |
| <표 3-21> 향후 채용계획에 대한 업종별, 규모별 현황 | 72 |
| <표 3-22> 전체 예상 채용인원 계획에서 청년층 채용인원의 비중 | 72 |
| <표 3-23> 사업체별 대졸청년층 초임 비율 | 73 |
| <표 3-24> 향후 3년간 종사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 | 74 |
| <표 3-25> 교육훈련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 정도 | 75 |
| <표 3-26>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과정과 선호하는 직업훈련 형태 | 75 |
| <표 3-27> 노조와 기존인력이 인력조정과 청년층 채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가에 대한 설문 결과..... | 76 |
| | |
| <표 4-1> 성별 인구추계 : 부산 및 전국 | 85 |
| <표 4-2> 15세 이상 인구 | 87 |
| <표 4-3> 청년인구 | 89 |
| <표 4-4> 청년 신규 노동공급 규모 | 92 |
| <표 4-5> 일반계 고등학교 신규 노동공급 규모 | 93 |
| <표 4-6> 실업계 고등학교 신규 노동공급 규모 | 93 |
| <표 4-7> 대학(전문대학 포함) 신규 졸업자 노동공급 | 94 |
| <표 4-8> 전문대학 신규 졸업자 노동공급 | 95 |
| <표 4-9> 시도간 인구이동 (1년전, 2000년) | 96 |
| <표 4-10> 시도간 인구이동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이동) | 97 |
| <표 4-11> 시도간 청년(15-29세) 인구이동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이동) | 98 |
| <표 4-12> 추정결과 | 103 |
| <표 4-13> 청년층 연령계층별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 104 |
| <표 4-14> 학교별 실태조사 응답수 | 110 |
| <표 4-15> 성별 실태조사 응답수 | 111 |
| <표 4-16> 연령별 실태조사 응답수 | 112 |
| <표 4-17> 주요 구직 경로 | 113 |
| <표 4-18>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채용사이트 | 114 |
| <표 4-19> 취업선택 시 선호 업종 | 115 |
| <표 4-20> 취업선택 시 선호 직종 | 116 |
| <표 4-21> 취업 희망지역 | 117 |
| <표 4-22> 타 지역 선택 사유 | 118 |
| <표 4-23> 청년층 고용확대를 위해 부산에 개발 혹은 유치해야 되는 업종 | 119 |
| <표 4-24> 희망 기업 규모 | 120 |
| <표 4-25> 학교 등급별 희망기업 규모 | 121 |
| <표 4-26> 희망연봉수준 | 122 |
| <표 4-27> 학교 등급별 희망연봉수준 | 122 |
| <표 4-28> 업체 선택 시 가장 먼저 고려하는 사항 | 123 |
| <표 4-29> 하향 취업 의사 여부 | 124 |
| <표 4-30> 학교 등급별 하향 취업 의사 여부 | 125 |
| <표 4-31> 비정규직 취업 의사 여부 | 125 |

| | |
|--|-----|
| <표 4-32> 학교 등급별 비정규직 취업 의사 여부 | 126 |
| <표 4-33> 지방대생 취업촉진을 위하여 대학 및 공공취업알선기관에서 개최해야 될 행사는?..... | 127 |
| <표 4-34> 청년 고용촉진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정책과제는? | 128 |
| <표 4-35> 직업훈련 희망 유무 | 129 |
| <표 4-36> 학교 등급별 직업훈련 희망 여부 | 130 |
| <표 4-37> 직업훈련 경험 유무 | 130 |
| <표 4-38> 직업훈련을 받지 않고 있는 이유는? | 131 |
| <표 4-39> 직업훈련 경험분야 | 132 |
| <표 4-40> 직업훈련 받기 전 적합성 상담 여부 | 134 |
| <표 4-41> 직업훈련 분야와 자신의 최종학교 커리큘럼과의 관련성 | 134 |
| <표 4-42> 교육비용 부담 주체 | 135 |
| <표 4-43> 직업훈련 교육과정 이수 후 1년 내 취업가능성 | 135 |
| <표 4-44>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직업훈련의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 136 |
| <표 4-45> 설문조사 결과 및 유효응답자 | 144 |
| <표 4-46> 응답자의 연령 및 성별 분포 | 144 |
| <표 4-47> 응답자의 학력분포 | 145 |
| <표 4-48> 응답자의 혼인상태 분포 | 145 |
| <표 4-49> 응답자의 병역상태 분포 | 146 |
| <표 4-50> 응답자의 최종학교 졸업/중퇴/휴학(예정)연도 분포 | 146 |
| <표 4-51> 응답자의 가구소득 분포 | 147 |
| <표 4-52> 응답자의 현재상태 | 149 |
| <표 4-53> 취업경험 구직자의 연령별 학력별 분포 | 149 |
| <표 4-54> 취업경험자의 이전 직장 규모 및 월평균 급여 수준 | 150 |
| <표 4-55> 취업경험자의 이전 직장 규모 및 직종 | 150 |
| <표 4-56> 취업경험자의 이전 직장 업종 | 151 |
| <표 4-57> 구직급여 수급 여부 | 152 |
| <표 4-58> 구직급여 수급기간 | 152 |
| <표 4-59> 구직경로 | 153 |
| <표 4-60>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채용 사이트 | 153 |
| <표 4-61> 취업 희망 업종 | 154 |
| <표 4-62> 응답자의 현재상태와 취업 희망업종..... | 156 |
| <표 4-63> 취업 희망직종 | 156 |
| <표 4-64> 응답자의 현재상태와 취업 희망직종 | 157 |
| <표 4-65> 취업 희망지역 | 157 |
| <표 4-66> 현재상태별 취업 희망지역 | 158 |
| <표 4-67> 부산지역 외의 타 지역 취업 희망 이유 | 158 |
| <표 4-68> 희망 기업규모 | 159 |
| <표 4-69> 현재상태별 희망 기업규모 | 159 |
| <표 4-70> 적정 연봉 | 160 |
| <표 4-71> 현재상태와 적정 연봉 | 161 |
| <표 4-72> 성별과 적정 연봉 | 161 |
| <표 4-73> 연령과 적정 연봉 | 161 |
| <표 4-74> 학력과 적정 연봉 | 161 |

| | |
|--|-----|
| <표 4-75> 업체 선택기준 | 162 |
| <표 4-76> 현재상태와 업체 선택기준 | 162 |
| <표 4-77> 성별과 업체 선택기준 | 163 |
| <표 4-78> 연령과 업체 선택기준 | 163 |
| <표 4-79> 학력과 업체 선택기준 | 163 |
| <표 4-80> 취업 희망사항 수정 의사 유무 | 164 |
| <표 4-81> 현재상태와 취업 희망사항 수정 의사 유무 | 165 |
| <표 4-82> 성별과 취업 희망사항 수정 의사 유무 | 165 |
| <표 4-83> 연령과 취업 희망사항 수정 의사 유무 | 166 |
| <표 4-84> 학력과 취업 희망사항 수정 의사 유무 | 166 |
| <표 4-85> 재학 중 근로경험 유무와 취업 희망사항 수정 의사 유무 | 167 |
| <표 4-86> 취업 희망사항 수정의사 유무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 168 |
| <표 4-87> 직업훈련 수강 희망 및 경험 여부 | 169 |
| <표 4-88> 직업훈련 받은 분야와 최종 학교 커리큘럼과 관련성 | 169 |
| <표 4-89>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 | 169 |
| <표 4-90> 훈련의 적합성에 대한 상담 여부 및 취업 가능성 | 170 |
| <표 4-91> 현행 직업훈련의 문제점 | 171 |
| <표 4-92> 청년층 고용촉진을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정책과제 | 171 |
| <표 4-93> 채용박람회와 지방대생 취업촉진효과 | 172 |
| | |
| <표 5-1> 주요 도시의 실업탈출확률 및 실업기간 | 182 |
| <표 5-2> 지역별 일자리 변동 지표 | 187 |
| | |
| <표 6-1> 부산지역 산업특성과 고도화 및 고용변화 | 195 |
| <표 6-2> 부산 10대 전략산업 취업자 변화 | 196 |
| <표 6-3> 전국대비 취업자 비중 및 연도별 증가율 | 197 |
| <표 6-4 > 고용창출을 위한 부문별 장단기 정책과제 | 197 |
| <표 6-5> 일자리 창출과 주체별 관심도 | 198 |
| <표 6-6> 일자리 창출 방안별 기준 비교 | 198 |
| <표 6-7> 직업능력개발 관련 직장-직업훈련-학교간 협력방안 | 209 |
| <표 6-8> 산업구조고도화와 고용확대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 | 219 |

<그 립 목 차>

| | |
|---|-----|
| [그림 2-1] 시외이전·전입업체 추이 및 배율 | 8 |
| [그림 2-2] 성장유망산업과 나머지 서비스업 종사자수 지수변화(1995=100) | 26 |
| [그림 2-3] 성장유망산업과 나머지 서비스업 종사자수 지수변화(1995=100) | 26 |
| [그림 2-4] 성장유망산업의 산업별 종사자수 지수변화(1995년=100) | 27 |
| [그림 2-5] 구조고도화산업의 산업별 종사자수 지수변화(1995년=100) | 28 |
| | |
| [그림 3-1] 부산지역 청년층의 학력별 유희화율(1997-2002) | 39 |
| [그림 3-2] 전국 청년층의 학력별 유희화율(1997-2002) | 39 |
| [그림 3-3] 전국 대비 부산지역 취업자의 비중 | 43 |
| [그림 3-4] 자영업자 비율 추이(비농가 기준) | 46 |
| [그림 3-5] 비정규직 비율 추이 | 46 |
| [그림 3-6] 전문대졸 이상 취업자 비율 추이 | 49 |
| [그림 3-7] 고숙련직종(관리전문직) 취업자 비율 추이 | 49 |
| [그림 3-8] 제조업 취업자 비율 추이 | 52 |
| [그림 3-9] 3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의 비율 | 54 |
| [그림 3-10] 5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의 비율 | 54 |
| [그림 3-11] 부산지역 청년층의 주요 부문별 취업자 비중 | 56 |
| [그림 3-12] 전국 청년층의 주요 부문별 취업자 비중 | 56 |
| [그림 3-13] 부산지역 전체 연령층의 주요 부문별 취업자 비중 | 57 |
| [그림 3-14] 전국 전체 연령층의 주요 부문별 취업자 비중 | 57 |
| [그림 3-15] 부산지역총생산에의 추세선 | 59 |
| [그림 3-16] 부산지역 전체 취업자 기준 취업계수의 추세선 | 60 |
| [그림 3-17] 부산지역 청년층 기준 취업계수의 추세선 | 60 |
| | |
| [그림 4-1] 부산지역 인구추이 | 84 |
| [그림 4-2] 15세 이상 인구 추이 | 86 |
| [그림 4-3] 부산지역 청년층 인구 추계 | 88 |
| [그림 4-4] 부산지역 청년 인구의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비율 (청년비율) | 90 |
| [그림 4-5] 시도간 순 인구이동 (5년전) | 96 |
| [그림 4-6]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 99 |
| [그림 4-7] 부산지역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 | 100 |
| [그림 4-8] 부산지역 청년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 104 |
| [그림 4-9] 경제활동인구 전망 | 105 |
| [그림 4-10] 학교별 실태조사 응답수 | 110 |
| [그림 4-11] 성별 실태조사 응답비율 | 111 |
| [그림 4-12] 성별 실태조사 응답비율 | 112 |
| [그림 4-13] 하향 취업 의사 여부 | 124 |
| [그림 4-14] 비정규직 취업 의사 여부 | 126 |

| | |
|-------------------------------------|-----|
| [그림 5-1] 지역별 취업자 증가율의 기간별 분포 | 183 |
| [그림 5-2] 지역별 실업률 차이의 기간별 분포 | 185 |
| [그림 5-3] 부산지역 일자리 증가율(최근 4년간) | 187 |
| | |
| [그림 6-1] 산업구조고도화와 고용창출량의 관계 | 194 |
| [그림 6-2] 청년 실업대책 관리체제 | 218 |

I. 서론

- 부산의 면적은 전국토의 0.8%로서 7대 광역시 가운데 4위이며, 인구는 2002년 현재 370만 1천명으로 2위의 거대 도시임.
- 실업자수는 2002년 현재 6만 4천명으로서 실업률은 2000년에 6.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나, 2002년에 3.6%로 7대 광역시 중에서도 4위로 호전되었음.
 - 2003년 3/4분기 현재 실업자수는 6만 2천명, 실업률 3.8%를 보이고 있음.
- 지역내총생산(GRDP) 역시 전국의 6.1%를 차지하여 2위를 나타내고 있으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7대 광역시중 5위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지역내총생산규모로 볼 때 1985년 전국비중이 8.1%에서 2001년에는 6.1%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 1인당 GRDP도 동기간 중 전국 평균의 91.3%에서 2000년에 75.8%로 15.5%p 하락하였고, 2001년에 이르러 78.1%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아직 1995년 수준보다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음.
- 부산지역의 산업구조의 변화는 전국에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가장 빠르게 이동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에서는 전통의 경공업이 급속히 붕괴하고 있음.
 - 서비스 산업의 팽창이라 하더라도 운수창고업과 같은 항만물류업을 제외하고는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부산시 10대 성장전략산업이 아닌 산업에서의 고용증가에 기인하고 있어서 부가가치 및 앞으로의 고용창출 가능성 등에서 문제점을 보이고 있음.
- 부산의 청년층 실업률은 2003년 3/4분기 현재 8.0%로서 전국의 7.0%에 비하여 1% 포인트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난 6년간을 비교할 때에도 부산지역 청년층 실업

률은 전국평균보다 매년 1 - 3% 높게 나타나 부산지역의 청년층 실업이 전국수준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됨.

- 부산 인력의 고학력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에도 고숙련 일자리의 증가속도는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어서 인력 수급간의 불균형이 커지고 있으며,
- 제조업에서 청년층의 일자리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으며, 서비스업에서의 청년층 일자리는 전문직과 단순서비스판매직으로 크게 양극화되는 현상이 나타남.
- 한편 공급측면에서는 15세 이상 인구가 이미 감소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전국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음.
 -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것은 부산지역의 성장동력인 주력산업의 부재에 의한 고용창출부족으로 인한 실망실업효과가 주요요인으로 판단되므로 경제성장에 대한 지역차원의 특단의 노력이 요구됨.
 - 인구의 유출이 계속되고 있다는 특징 또한 지역에서의 중요 대기업의 역외이동과 무관하지 않음.
- 본 보고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각 장에서 자료분석을 통하여 부각시키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먼저 제 2 장에서 부산지역의 산업구조 변화와 특징 그리고 10대 전략산업의 추진경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
 - 제 3 장에서 부산지역 청년층 일자리 현황과 노동수요 전망을 살핀 후 부산지역 720개 사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을 통하여 부산지역의 노동수요 현황을 파악함.
 - 제 4 장에서는 부산지역의 노동공급의 변화와 특징, 노동공급 전망을 살핀 후, 부산지역 14개 대학 졸업예정자들에 대한 취업보도실을 통한 실태조사결과와 부산노동청 관할 고용안정센터 8개를 방문한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통하여 부산지역의 청년층 노동공급 특징과 정책시사점을 파악함.

- 제 5 장에서는 지역노동시장을 계량경제적 분석 방법으로 비교함으로써 부산지역의 산업과 노동시장의 특징을 파악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제 6 장에서는 앞에서 나타난 산업 및 노동시장에서의 문제점과 특징 그리고 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난 현실적 노동수요와 공급측의 요구에 기초하여, 부산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10대 성장 전략산업을 고려한 노동시장정책의 밑그림과 청년층 실업대책의 방향과 구체적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음.

Ⅱ. 부산지역 산업구조 변화와 특징

제 1 절 부산의 산업구조

1. 산업구조 개관

○ 부산경제의 위상을 살펴보면 <표 2-1>과 같음

- 면적은 전국토의 0.8%이며, 7대 광역시 가운데 4위이며, 인구는 2002년 현재 370만 1천명으로 2위임.
- 실업자수는 2002년 현재 6만 4천명임. 실업률은 2000년에 6.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나, 2002년에 3.6%로 7대 광역시 중에서도 4위로 호전되었음.
- 지역내총생산(GRDP) 역시 전국의 6.1%를 차지하여 2위를 나타내고 있으나, 1인당 GRDP는 7대 광역시중 5위로 매우 낮은 수준임.

○ 경제규모(GRDP: 지역내총생산)는 85년 전국비중이 8.1%에서 2001년에는 6.1%로 하락.(<표 2-2> 참조)

- 1인당 GRDP도 동기간 중 전국 평균의 91.3%에서 2000년에 75.8%로 15.5%p하락하였고, 2001년에 이르러 78.1%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아직 1995년 수준보다 낮은 상태임.

○ 부산은 전국적 추세보다 훨씬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를 보이고 있음.(<표 2-3> 참조)

- 제조업 (광공업)의 비중은 2001년 현재 단지 21.4%를 차지한 반면, 서비스업은 무려 76.9%를 차지하고 있음. (전국 서비스업 비중은 71.5%)
- 전국적으로 1990년과 2001년 사이에 제조업(광공업)의 비중이 2% 증가하였으나 부산의 제조업은 12.1% 하락한 반면,
- 서비스업의 경우 동일기간 중 전국적으로 그 비중이 단지 2% 증가하였으나 부산의 경우 무려 12.5%나 증가하였음.
- 제조업은 사업체수로는 증가세이지만 생산액 규모는 그에 비해 훨씬 증가 폭이 적어 사업체당 부가가치생산은 감소한다고 볼 수 있음.

<표 2-1> 부산경제 총괄지표

| 구분 | 부산 | 서울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전국 | 순위 | |
|--------------------------------|------------------|-------------------|------------------|------------------|-----------------|-----------------|-------------------|----------------------|------|----|
| 면적 (km ² , 2002) | 763 (0.8) | 606 (0.6) | 886 (0.9) | 986 (1.0) | 501 (0.5) | 540 (0.5) | 1,056 (1.1) | 99,585 (100.0) | 4위 | |
| 인구1) (천명,2002) | 3,701 (7.8) | 10,042 (21.1) | 2,542 (5.3) | 2,587 (5.4) | 1,414 (3.0) | 1,441 (3.0) | 1,056 (2.2) | 47,640 (100.0) | 2위 | |
| 경제활동인구 (천명, 2002) | 1,768 (7.7) | 4,992 (21.8) | 1,203 (5.3) | 1,224 (5.4) | 625 (2.7) | 665 (2.9) | 484 (2.1) | 22,877 (100.0) | 2위 | |
| 실업자수 (천명,2002) | 64 (9.0) | 209 (29.5) | 48 (6.8) | 46 (6.5) | 22 (3.1) | 23 (3.2) | 11 (1.6) | 708 (100.0) | 2위 | |
| 실업률(%) | | | | | | | | | | |
| 2000년 | 6.5 | 4.8 | 4.7 | 4.9 | 5.6 | 4.5 | 4.0 | 4.1 | 1위 | |
| 2002년 | 3.6 | 4.2 | 4.0 | 3.8 | 3.5 | 3.5 | 2.3 | 3.1 | 4위 | |
| 지역내2) 총생산 (10억,2001) | 32,752 (6.1) | 114,362 (21.4) | 18,375 (3.4) | 25,548 (4.8) | 12,277 (2.3) | 12,751 (2.4) | 27,076 (5.1) | 534,720 (100.0) | 2위 | |
| 1인당 GRDP2) (천원,2001) | 8,811 (78.0) | 11,368 (100.6) | 7,246 (64.2) | 9,991 (88.5) | 8,776 (77.7) | 8,980 (79.5) | 25,861 (229.0) | 11,295 (100.0) | 5위 | |
| 산업 구조 (%, 2001) | 1차 | 2.1 | 0.4 | 0.8 | 1.5 | 2.5 | 0.5 | 0.6 | 4.4 | 2위 |
| | 2차 | 18.2 | 8.3 | 22.9 | 37.9 | 27.9 | 21.9 | 75.3 | 33.8 | 6위 |
| | 3차 | 79.7 | 91.3 | 76.3 | 60.6 | 69.6 | 77.6 | 24.1 | 61.8 | 2위 |
| 사업체수3) (개,2001) | 9,818 (9.2) | 19,400 (18.2) | 6,776 (6.4) | 9,050 (8.5) | 1,623 (1.5) | 1,264 (1.2) | 1,451 (1.4) | 106,550 (100.0) | 2위 | |
| 종사자수3) (월평균,명, 2001) | 183,560 (6.9) | 276,294 (10.4) | 126,570 (4.7) | 201,271 (7.6) | 49,563 (1.9) | 36,379 (1.4) | 135,363 (5.1) | 2,665,603 (100.0) | 3위 | |
| 수출4) (백만달러, 2001) | 4,567 (3.0) | 29,155 (19.4) | 2,432 (1.6) | 6,026 (4.0) | 3,095 (2.1) | 818 (0.5) | 19,951 (13.3) | 150,439 (100.0) | 4위 | |
| 수입4) (백만달러, 2001) | 4,309 (3.1) | 32,888 (23.3) | 1,266 (0.9) | 8,819 (6.3) | 1,710 (1.2) | 1,260 (8.9) | 18,272 (12.9) | 141,098 (100.0) | 5위 | |
| 금융기관 총수신 (십억원,2001) | 61,312 (5.9) | 539,213 (52.3) | 37,674 (3.7) | 31,433 (3.1) | 21,067 (2.0) | 23,518 (2.3) | 13,167 (1.3) | 103,049 (100.0) | 2위 | |
| 금융기관 총여신 (십억원,2001) | 33,477 (6.2) | 230,497 (42.6) | 21,478 (4.0) | 22,721 (4.2) | 12,736 (2.4) | 10,656 (2.0) | 7,623 (1.4) | 540,862 (100.0) | 2위 | |

주 : 1) 추계인구 기준

2) 경상가격 기준, 인구는 추계인구를 적용, 1인당 GDRP의 ()내는 전국=100으로 환산

3) 종사자 5인 이상(광공업통계조사)

4) 우편번호 기준

5) ()내는 전국대비 비중

<표 2-2> 부산지역 경제규모의 전국대비 비중(경상가격 기준)

| | 85 | 90 | 95 | 98 | 99 | 2000 | 2001 |
|----------------|-------|--------|--------|--------|--------|--------|--------|
| GRDP(10억원) | 6,527 | 13,846 | 24,135 | 27,225 | 29,366 | 30,305 | 32,752 |
| 전국비중(%) | 8.1 | 7.8 | 6.7 | 6.4 | 6.2 | 6.0 | 6.1 |
| 1인당1) GRDP(천원) | 1,799 | 3,640 | 6,265 | 7,212 | 7,826 | 8,119 | 8,811 |
| 전국비중2)(%) | 91.3 | 88.1 | 79.0 | 78.6 | 77.6 | 75.8 | 78.0 |

주 : 1) 추계인구기준 2) 전국=100으로 환산, 자료 : 통계청(KOSIS)

<표 2-3> 산업구조 변화 추이

(단위 : %)

| 연도별 | 농림어업 | | 광공업 | | 서비스업 | | 건설 및 전기가스 수도업 | | 서비스업 및 기타 | |
|------|------|-----|------|------|------|------|------------------|------|--------------|------|
| | 부산 | 전국 | 부산 | 전국 | 부산 | 전국 | 부산 | 전국 | 부산 | 전국 |
| | 1990 | 2.5 | 8.4 | 30.3 | 31.8 | 67.2 | 59.8 | 12.5 | 13.8 | 54.7 |
| 1995 | 2.6 | 6.4 | 21.8 | 30.6 | 75.6 | 63.0 | 13.9 | 14.3 | 61.7 | 48.7 |
| 1996 | 2.7 | 5.9 | 20.1 | 30.7 | 77.2 | 63.4 | 15.2 | 14.6 | 62.0 | 48.8 |
| 1997 | 3.4 | 5.3 | 18.5 | 31.2 | 78.1 | 63.5 | 14.7 | 14.8 | 63.4 | 48.7 |
| 1998 | 2.8 | 5.2 | 18.1 | 32.8 | 79.1 | 62.0 | 13.5 | 13.4 | 65.6 | 48.6 |
| 1999 | 2.6 | 5.3 | 18.5 | 33.8 | 78.9 | 60.9 | 11.7 | 11.9 | 67.2 | 49.0 |
| 2000 | 2.2 | 4.5 | 18.3 | 35.0 | 79.6 | 60.5 | 11.6 | 11.6 | 68.0 | 48.9 |
| 2001 | 2.1 | 4.4 | 18.2 | 33.8 | 79.7 | 61.8 | 11.9 | 11.8 | 67.8 | 50.0 |

자료: 통계청, 2001년 지역내총생산, 2002. 12.

주: 당해연도 경상가격 기준임.

1) 산업구조의 고도화 미흡

- 전기·가스·수도사업을 제외하고는 부산의 각 부문별 GRDP 전국비중이 낮아지고 있음.
-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구조 지속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미흡.
 - 2001년 현재 부산의 취업자수 기준 제조업 비중은 22.6%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2001년 GRDP 기준 비중 18.2%보다 높은 수준.
 - 이에 반해 2002년 현재 전국의 취업자수 기준 제조업 비중은 19.1%임에 반해 2001년 GRDP 기준 비중은 <표 2-3>에서 보듯이 33.8%임.

- 따라서 부산의 산업구조는 전국 평균에 비해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구조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줌.

<표 2-4> 산업별 취업구조

(단위 : %)

| 연도별 | 농림어업 | | 광공업(제조업) |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 |
|------|------|------|------------|------------|-----------------|------|
| | 부산 | 전국 | 부산 | 전국 | 부산 | 전국 |
| 1992 | 1.5 | 14.0 | 34.5(34.3) | 26.5(26.2) | 64.0 | 59.5 |
| 1993 | 2.1 | 13.5 | 31.0(31.0) | 24.8(24.5) | 66.9 | 61.7 |
| 1994 | 2.2 | 12.6 | 28.6(28.6) | 24.2(24.0) | 69.1 | 63.3 |
| 1995 | 3.2 | 11.8 | 26.6(26.5) | 23.7(23.5) | 70.3 | 64.5 |
| 1996 | 2.9 | 11.1 | 25.1(25.1) | 22.8(24.0) | 72.0 | 66.1 |
| 1997 | 2.8 | 10.8 | 23.7(23.7) | 21.5(21.4) | 73.4 | 67.7 |
| 1998 | 2.4 | 12.0 | 23.5(23.5) | 19.7(19.6) | 74.1 | 68.2 |
| 1999 | 2.5 | 11.3 | 24.2(24.2) | 19.9(19.8) | 73.3 | 68.7 |
| 2000 | 2.4 | 10.6 | 23.5(23.5) | 20.4(20.3) | 74.1 | 69.0 |
| 2001 | 1.9 | 10.0 | 22.6(22.6) | 19.9(19.8) | 75.4 | 70.2 |
| 2002 | 1.7 | 9.3 | 21.4(21.4) | 19.2(19.1) | 76.9 | 71.5 |

자료: 통계청(kosis), 각 연도

주: ()는 제조업 비중

2) 기업 영세성으로 경쟁력 취약

- 전체기업의 대부분을 영세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대기업의 하청기업으로서 경기대응능력이 취약.
- 2002년 중 전국 매출액 1,000대 기업 중 부산에 본사가 있는 기업의 매출액 및 순이익 비중은 각각 1.3% 및 1.2%에 불과함.
 - 매출액 순위로는 르노삼성자동차(주)가 전국 96위로 부산에서는 유일하게 전국 100위권내 기업에 진입. (주)한진중공업은 전국 103위 기록. 부산2위.
 - 업종별로는 철강, 신발 등 전통 제조업체 비중이 61%를 차지하였으나 41개 부산기업체의 매출액순위 10위까지의 업체중 제조업체는 5개체에 불과.
 - (주)부산은행의 순이익이 1,480억원으로 전국 60위를 기록, 부산지역에서 1위를 차지함. 그외 (주)세정 198위, (주)파크랜드 257위, 대선주조(주) 278위 순.

- 업종별로는 철강, 화학 등 전통 제조업체 비중이 60%(27개)를 차지.

<표 2-5> 매출액, 순이익 1,000대 기업 중 부산기업 현황(200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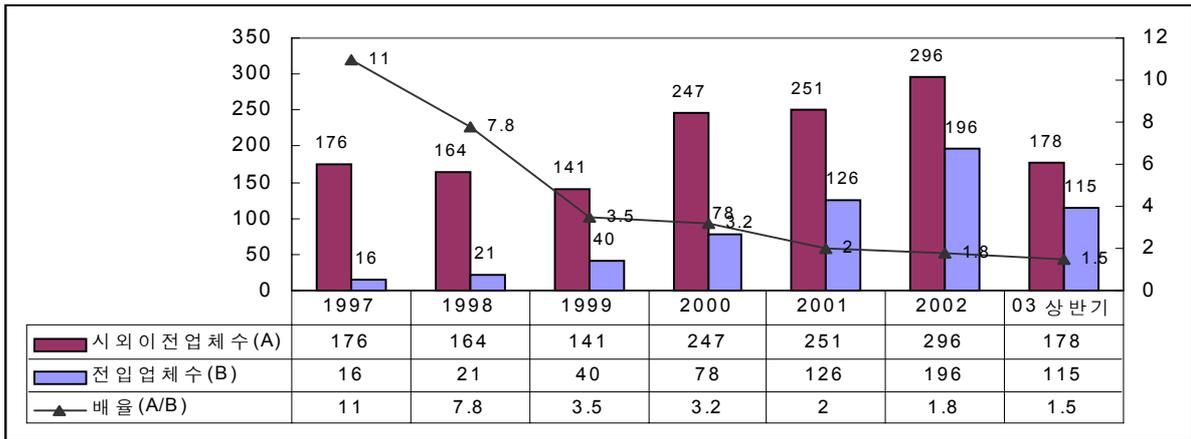
| | 매출액 | | 순이익 | |
|---------|--------------|--------------|-------------|-------------|
| | 2001년 | 2002년 | 2001년 | 2002년 |
| 전국(A) | 911조 4,317억원 | 961조 8,964억원 | 38조 4,755억원 | 76조 2,381억원 |
| 부산(B) | 10조 3,354억원 | 12조 4,483억원 | 5,562억원 | 9,038억원 |
| 부산업체수 | 40개 | 41개 | 46개 | 45개 |
| 비중(B/A) | 1.1% | 1.3% | 1.5% | 1.2% |

자료 : 매일경제신문 '2001년 한국 1,000대 기업'(2002.4: 2003.4), 부산상공회의소 '2002년 매출액 · 순이익 1000대 기업중 부산기업현황(2003. 8)

3) 전입업체에 대한 시외이전업체 배율의 지속적 감소추세와 낮은 고용창출효과

[그림 2-1] 시외이전 · 전입업체 추이 및 배율

(단위: 개, 배)



자료: 부산상공회의소(2003)

○ 1997년에 전입업체에 대한 시외이전업체의 배율이 11.0이었으나 2003년 상반기에는 1.5로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 이는 1997년 이후 시외이전업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으로 전입하는 업체수도 2000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기인함.

○ 이전지역은 양산 · 김해가 121개(68.0%)로 다수 차지.

- 부산지역 중견기업의 시외이전도 포함(평화유지공업(주), 대상(주) 부산공장, (주) 유니크, 벅스(주) 등)되어 있어서 낮은 고용창출의 한 요인으로 작용.

4) 전통산업 의존형 제조업 구조 지속과 불투명한 성장엔진 산업

<표 2-6> 산업중분류별 제조업 구성비 추이 I

(단위 : %)

| 구분 | 사업체수 | | | | 종사자수 | | | |
|-------------------|-------|-------|-------|-------|-------|-------|-------|-------|
| | 1995 | 1997 | 1999 | 2001 | 1995 | 1997 | 1999 | 2001 |
| 음식료제조업 | 4.6 | 4.6 | 5.2 | 5.0 | 6.5 | 6.3 | 6.5 | 6.5 |
| 섬유제품제조업 | 7.1 | 6.8 | 7.3 | 7.2 | 10.4 | 10.3 | 10.4 | 9.4 |
|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제조업 | 8.7 | 8.9 | 9.1 | 9.3 | 10.8 | 11.4 | 12.6 | 12.1 |
|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 | 10.6 | 10.0 | 11.2 | 10.4 | 14.9 | 11.2 | 11.9 | 10.0 |
|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 2.5 | 2.1 | 1.9 | 2.0 | 1.9 | 1.7 | 1.4 | 1.4 |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 2.3 | 2.2 | 2.1 | 2.1 | 1.3 | 1.3 | 1.3 | 1.4 |
|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 2.1 | 2.2 | 2.4 | 2.9 | 1.4 | 1.4 | 1.6 | 1.8 |
|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 0.1 | 0.1 | 0.1 | 0.1 | 0.2 | 0.2 | 0.2 | 0.1 |
|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 1.9 | 1.7 | 1.8 | 1.7 | 2.4 | 2.9 | 2.4 | 2.4 |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 6.5 | 7.2 | 7.0 | 7.1 | 4.6 | 4.8 | 4.7 | 5.0 |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 1.6 | 1.5 | 1.3 | 1.2 | 1.5 | 1.3 | 1.0 | 1.0 |
| 제1차금속산업 | 2.9 | 3.2 | 4.1 | 3.7 | 5.4 | 5.3 | 5.7 | 5.7 |
| 조립금속제품제조업 | 14.5 | 14.3 | 13.2 | 13.8 | 9.5 | 9.6 | 8.8 | 9.3 |
|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 18.4 | 18.8 | 16.6 | 15.9 | 12.7 | 13.1 | 11.3 | 12.4 |
|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제조업 | 0.1 | 0.2 | 0.2 | 0.1 | 0.2 | 0.1 | 0.1 | 0.1 |
|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 4.3 | 4.4 | 3.9 | 4.4 | 3.3 | 3.7 | 4.1 | 4.1 |
|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 1.2 | 1.1 | 1.2 | 1.1 | 1.5 | 1.5 | 2.4 | 2.9 |
| 의료,정밀,광학기계 및 시계 | 1.1 | 1.1 | 1.1 | 1.5 | 0.9 | 1.0 | 1.0 | 1.1 |
|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 1.9 | 2.4 | 2.8 | 3.2 | 3.1 | 5.9 | 4.2 | 5.8 |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1.6 | 1.7 | 1.8 | 1.5 | 3.8 | 3.6 | 4.9 | 4.0 |
| 가구 및 기타제품제조업 | 5.9 | 5.4 | 5.4 | 5.4 | 3.6 | 3.3 | 3.6 | 3.5 |
|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 0.2 | 0.2 | 0.2 | 0.3 | 0.1 | 0.1 | 0.1 | 0.1 |
| 전체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통계청

○ 사업체수 기준

- 2001년 현재 산업중분류별로 10% 이상의 사업체수 비중을 나타내는 업종은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15.9%), 조립금속제품제조업(13.8%),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10.4%)의 순으로 나타남.
- 1995년에 비해 사업체수의 비중이 1% 이상 증가한 업종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이 유일하며, 나머지는 정체 내지는 오히려 저하하였음.

○ 종사자수 기준

- 2001년 현재 산업중분류별로 10% 이상의 종사자수 비중을 나타내는 업종은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12.4%),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제조업(12.1%),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10.0%)의 순으로 나타났음.
- 1995년에 비해 종사자수의 비중이 1% 이상 증가하는 업종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2.7%)와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1.5%)이며, 나머지는 정체 내지는 오히려 저하되었음.
- 특히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의 경우는 1995년에 비해 무려 4.9%나 감소.

○ 생산액 기준

- 2001년 현재 산업중분류별로 10% 이상의 생산액 비중을 나타내는 업종은 제1차 금속산업(1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11.9%),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10.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공업부문의 생산액 비중은 사업체수나 종사자수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1995년에 비해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의 생산액 비중이 6.3%나 증가하였는데, 이는 르노-삼성자동차를 비롯한 부산·울산지역의 자동차산업 호황에 따른 것으로 보임.
-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역시 동기간에 1.5% 증가한 것이 주목됨.

○ 부가가치 기준

- 2001년 현재 산업중분류별로 부가가치 비중을 보면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12.7%), 제1차금속산업(9.9%), 섬유제품제조업(9.4%), 조립금속제품제조업(8.6%),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8.3%)의 순으로 나타났음.
- 동 기간 부가가치의 비중 증가 역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3.1%나 증가하였고,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역시 2.9%나 증가하여, 이들 업종이 부산 제조업분야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으나 현재로는 불투명함.

<표 2-7> 산업중분류별 제조업 구성비 추이 II

(단위 : %)

| 구분 | 생산액 | | | | 부가가치 | | | |
|--------------------------|------------|------------|------------|------------|------------|------------|------------|------------|
| | 1995 | 1997 | 1999 | 2001 | 1995 | 1997 | 1999 | 2001 |
| 음식료제조업 | 7.8 | 7.9 | 7.8 | 8.0 | 8.1 | 8.3 | 7.9 | 7.7 |
| 섬유제품제조업 | 9.3 | 8.5 | 9.8 | 8.3 | 9.6 | 9.3 | 11.2 | 9.4 |
|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제조업 | 5.0 | 4.9 | 4.1 | 5.0 | 5.7 | 6.4 | 5.2 | 6.7 |
|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 | 8.8 | 7.3 | 8.0 | 6.1 | 8.4 | 7.2 | 7.0 | 6.0 |
|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 2.1 | 2.1 | 1.6 | 1.4 | 1.6 | 1.7 | 1.4 | 1.0 |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 1.4 | 1.1 | 1.2 | 1.1 | 1.3 | 1.2 | 1.2 | 1.2 |
|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 1.2 | 1.2 | 1.2 | 1.3 | 1.9 | 1.9 | 1.6 | 1.8 |
|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 0.9 | 0.7 | 0.6 | 0.7 | 0.5 | 0.6 | 0.5 | 0.5 |
|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 4.3 | 4.8 | 4.3 | 3.9 | 4.5 | 4.5 | 4.1 | 3.6 |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 3.8 | 3.9 | 3.9 | 3.7 | 4.3 | 4.5 | 3.8 | 3.8 |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 2.3 | 2.2 | 1.9 | 1.7 | 2.4 | 2.4 | 2.1 | 1.7 |
| 제1차금속산업 | 14.7 | 14.5 | 14.0 | 12.9 | 10.8 | 10.3 | 11.6 | 9.9 |
| 조립금속제품제조업 | 8.6 | 8.5 | 7.9 | 7.5 | 9.5 | 9.7 | 8.3 | 8.6 |
|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 12.3 | 12.8 | 10.5 | 11.9 | 13.2 | 13.0 | 11.4 | 12.7 |
|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제조업 | 0.1 | 0.1 | 0.1 | 0.0 | 0.1 | 0.1 | 0.1 | 0.0 |
|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 3.0 | 3.2 | 4.9 | 3.5 | 3.1 | 3.6 | 5.2 | 3.5 |
|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 1.3 | 1.3 | 1.8 | 2.8 | 1.2 | 1.4 | 1.8 | 4.1 |
| 의료,정밀,광학기계 및 시계 | 0.6 | 0.9 | 0.8 | 0.7 | 0.7 | 1.0 | 0.8 | 0.8 |
|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 4.4 | 6.0 | 3.9 | 10.7 | 5.2 | 5.3 | 3.4 | 8.3 |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5.8 | 5.9 | 9.4 | 6.6 | 5.1 | 5.0 | 8.8 | 5.3 |
| 가구 및 기타제품제조업 | 2.2 | 2.2 | 2.3 | 1.9 | 1.5 | 2.7 | 2.6 | 2.4 |
|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 0.2 | 0.1 | 0.2 | 0.2 | 0.2 | 0.1 | 0.1 | 0.3 |
| 전체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통계청

- 부산 제조업 쇠퇴의 구조적 원인으로는 중화학공업을 비롯한 고부가가치 산업분야에서 핵심 성장산업을 선택하지 못한 공업구조에서 발생.
 - <표 2-7>에서 보았듯이 2001년 현재 부산에서 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산업을 보면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12.7%), 제1차금속산업(9.9%), 섬유제품제조업(9.4%), 조립금속제품제조업(8.6%),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8.3%)의 순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표 2-8>에서 보듯이 산업별 부가가치의 전국비중이 모두 10%이하일 뿐만 아니라 1995년에 비해 전국비중이 모두 하락함으로써 핵심 성장산업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음.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경우 최근 부산 제조업에서 급신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부가가치의 전국비중으로 보면 핵심 성장산업으로 나아가는

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경공업 가운데 부가가치 기준 전국 점유율이 10%를 넘는 산업은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22.3%)과 봉제 의복 및 모피제품제조업(11.8%)임.
- 그러나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의 경우 사업체수, 종업원수, 생산액, 부가가치 기준 모두에서 1995년에 비해 전국 비중이 감소하였음.
- 오히려 봉제 의복 및 모피제품제조업의 경우 1995년에 비해 모든 항목에서 전국 비중이 미약하게나마 증가하고 있음.
- 결국 부산 제조업에서는 성장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 성장산업이 사실상 부재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업구조가 부산 제조업의 쇠퇴와 불안정성을 가속화시키고 있음.

<표 2-8> 산업중분류별 제조업 전국 비중

(단위 : %)

| 구분 | 사업체수 | | 종사자수 | | 생산액 | | 부가가치 | |
|--------------------------|------------|------------|------------|------------|------------|------------|------------|------------|
| | 1995 | 2001 | 1995 | 2001 | 1995 | 2001 | 1995 | 2001 |
| 음식료제조업 | 7.0 | 7.0 | 7.3 | 6.5 | 5.1 | 4.2 | 5.8 | 4.3 |
| 섬유제품제조업 | 4.5 | 7.1 | 8.6 | 8.0 | 8.2 | 6.9 | 8.5 | 8.0 |
|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제조업 | 9.5 | 10.0 | 12.6 | 15.2 | 8.0 | 9.6 | 8.5 | 11.8 |
|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 | 33.5 | 38.8 | 42.7 | 38.8 | 28.2 | 21.6 | 30.3 | 22.3 |
|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 9.6 | 9.6 | 11.0 | 9.7 | 11.5 | 8.7 | 9.8 | 7.6 |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 8.2 | 7.2 | 4.5 | 4.3 | 2.5 | 1.8 | 2.7 | 2.0 |
|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 4.1 | 5.3 | 3.5 | 3.6 | 3.2 | 2.7 | 3.6 | 2.7 |
|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 7.1 | 5.2 | 4.2 | 2.0 | 1.0 | 0.4 | 0.7 | 0.7 |
|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 6.3 | 5.1 | 3.7 | 3.2 | 2.2 | 1.4 | 2.4 | 1.5 |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 11.0 | 9.1 | 7.5 | 5.5 | 4.7 | 3.2 | 5.3 | 3.4 |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 3.3 | 3.2 | 2.6 | 2.1 | 2.6 | 1.9 | 2.4 | 1.6 |
| 제1차금속산업 | 13.2 | 15.2 | 10.3 | 10.1 | 8.3 | 6.0 | 7.7 | 5.8 |
| 조립금속제품제조업 | 14.4 | 11.6 | 11.2 | 9.0 | 8.9 | 7.5 | 10.0 | 8.3 |
|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 14.2 | 11.3 | 9.8 | 8.1 | 6.9 | 5.6 | 8.0 | 6.1 |
|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제조업 | 2.1 | 1.1 | 1.1 | 0.3 | 0.2 | 0.0 | 0.4 | 0.0 |
|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 9.1 | 7.8 | 5.8 | 5.3 | 4.2 | 3.2 | 4.8 | 3.7 |
|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 3.1 | 2.5 | 1.3 | 2.0 | 0.5 | 0.8 | 0.4 | 1.1 |
| 의료,정밀,광학기계 및 시계 | 5.2 | 5.9 | 3.9 | 4.3 | 2.9 | 2.7 | 3.3 | 2.9 |
|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 5.8 | 9.0 | 3.2 | 5.3 | 2.2 | 3.6 | 3.1 | 2.9 |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15.6 | 12.4 | 9.8 | 7.1 | 9.2 | 6.1 | 8.0 | 5.4 |
| 가구 및 기타제품제조업 | 9.1 | 9.0 | 7.5 | 7.3 | 5.4 | 4.6 | 5.5 | 5.5 |
|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 11.1 | 6.8 | 8.7 | 4.3 | 8.9 | 5.6 | 11.6 | 7.7 |
| 제조업 전체 | 9.9 | 9.3 | 7.9 | 6.9 | 4.8 | 3.6 | 4.9 | 3.9 |

자료: 통계청

5) 기술집약적 산업의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산업구조

- Hatzichronoglou(1997)가 추정한 산업별 기술집약도 순위를 적절하게 재조정 한 후에 활용하여 부산 제조업의 경쟁력을 서울 및 전국의 평균수준과 비교하여 분석.
- 우선 부산과 전국평균을 비교하면 고도기술산업의 비중이 부산에서 매우 작음.
 - 2001년 현재 전국적으로 고도기술산업의 고용과 부가가치의 비중이 각각 12.0%와 17.9%에 이르고 있으나 부산에서는 그 비중이 각각 3.0%와 4.12%에 불과한 실정.
 - 이는 컴퓨터 사무용기기 및 전자통신기기의 비중이 부산에는 매우 낮은데 기인.
 -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고도기술산업의 비중이 부산에서 늘어나고 있지만 그 증가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 전국평균과의 격차가 축소되고 있지 않다는 점임.

<표 2-9> 부산 제조업의 기술수준별 산업구조

| 구분 | 부산 | | | | 서울 | | | | 전국평균 | | | | |
|----|---------|------|------|------|------|------|------|------|------|------|------|------|------|
| | 고용 | | 부가가치 | | 고용 | | 부가가치 | | 고용 | | 부가가치 | | |
| | 1991 | 2001 | 1991 | 2001 | 1991 | 2001 | 1991 | 2001 | 1991 | 2001 | 1991 | 2001 | |
| 합계 | 고도기술산업 | 1.2 | 3.0 | 0.9 | 4.1 | 11.9 | 9.5 | 12.2 | 15.0 | 10.3 | 12.0 | 10.6 | 17.9 |
| | 중상위기술산업 | 18.6 | 29.8 | 26.6 | 34.7 | 16.9 | 14.7 | 17.7 | 12.9 | 28.0 | 34.5 | 32.4 | 37.4 |
| | 중하위기술산업 | 17.9 | 24.7 | 26.2 | 27.2 | 13.9 | 9.7 | 14.2 | 7.5 | 23.4 | 24.5 | 27.4 | 23.3 |
| | 하위기술산업 | 62.3 | 42.6 | 46.3 | 33.9 | 57.2 | 66.3 | 55.8 | 64.6 | 38.4 | 29.0 | 29.6 | 21.2 |

자료: 통계청(KOSIS), 광업·제조업통계조사 DB 및 박성익(2001) <표 3>을 수정보완

- 반면 중상위기술산업 및 중하위기술산업의 비중은 전국과 대체적으로 유사한 수준이고, 부산의 하위기술산업의 비중은 전국의 평균수준과 비교할 때 매우 큼.
 - 업종별로 보면 중상위기술산업의 비전기기계장비와 중하위기술산업의 조립금속제품의 비중이 전국과 대비하여 비교적 큰 편이지만 화학제품과 비금속광물제품의 비중이 비교적 작은편임.
 - 이는 결국 부산제조업의 기술집약도가 전국 평균의 그것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을 시사.

○ 결국 부산의 제조업은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약할 뿐 아니라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경쟁력도 취약함.

- 그 이유는 고도기술산업으로서 전국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는 전자,통신기기 제조업의 발달이 부산에는 미약한 데다가, 하위기술산업인 섬유,의복,신발산업의 비중이 아직 너무 높기 때문.

6) 기술집약적서비스업의 취약과 전국대비 평균임금수준 하락

○ 부산의 서비스업이 지역경제성장의 주도적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집약적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함.

- Young(1997)은 OECD 서베이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통신업, 컴퓨터관련서비스업 그리고 연구개발관련업이 기술집약적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음.

- 기술집약서비스업의 부산, 서울, 전국간 고용편차는 1993년에는 크지 않았으나 시간이 갈수록 부산이 상대적으로 서울이나 전국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2-10> 전국 대비 평균 임금의 비중추이

(단위: 천원)

| |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
| | 전국 | 91.9 | 93.8 | 92.8 | 91.0 | 89.7 | 90.6 | 89.6 | 90.3 | 85.5 |
| 남녀별 | 남 | 95.3 | 95.8 | 93.1 | 94.1 | 91.2 | 93.3 | 94.1 | 93.4 | 88.1 |
| | 여 | 91.7 | 91.8 | 90.1 | 90.0 | 90.5 | 88.7 | 87.0 | 85.3 | 82.6 |
| 학력별 | 고졸이하 | 95.4 | 96.1 | 96.0 | 91.6 | 88.8 | 88.6 | 91.2 | 93.5 | 86.2 |
| | 대졸 | 96.9 | 96.2 | 94.5 | 93.3 | 95.1 | 96.4 | 92.5 | 95.5 | 92.4 |
| | 대졸이상 | 105.6 | 108.2 | 102.1 | 99.1 | 100.3 | 102.9 | 98.9 | 96.6 | 96.0 |
| 산업별 | 농림어업광업 | . | . | . | 125.9 | . | 0.0 | 109.7 | 111.8 | 119.7 |
| | 제조업 | 85.4 | 86.8 | 90.2 | 87.1 | 82.6 | 81.1 | 78.6 | 81.1 | 73.7 |
|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 | . | . | 97.1 | 97.6 | 98.8 | 84.8 | 79.6 | 94.7 |
| | 건설업 | 89.8 | 92.8 | 94.5 | 89.6 | 95.2 | 100.4 | 92.0 | 95.6 | 87.6 |
| | 도소매수리숙박 음식접업 | 92.8 | 98.0 | 101.2 | 90.0 | 92.4 | 93.1 | 91.6 | 83.5 | 95.1 |
| | 운수, 창고 및 통신업 | 106.3 | 101.9 | 95.8 | 106.3 | 105.3 | 102.2 | 116.8 | 128.7 | 113.7 |
| | 금융 및 보험업 | 112.4 | 114.7 | 115.8 | 92.8 | 101.3 | 100.0 | 82.0 | 99.3 | 82.7 |
| |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 89.7 | 84.2 | 77.2 | 73.8 | 74.6 | 81.3 | 72.6 | 59.2 | 60.5 |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 | . | . | . | . | . | . | . | . |
| | 교육 서비스업 | 114.0 | 123.0 | 110.0 | 109.1 | 104.3 | 109.0 | 114.9 | 114.0 | 121.2 |
|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121.5 | 117.8 | 117.7 | 97.8 | 98.7 | 101.5 | 99.3 | 102.5 | 98.8 |
| | 기타 | 139.0 | 105.8 | 108.6 | 106.8 | 81.6 | 78.8 | 81.0 | 108.8 | 69.7 |
| | 직종별 |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 101.7 | 93.0 | 95.0 | 89.3 | 96.5 | 104.2 | 92.0 | 88.0 |
| 전문가 | | 112.3 | 114.3 | 103.0 | 96.7 | 99.4 | 103.4 | 114.2 | 109.2 | 103.6 |
| 기술공 및 준전문가 | | 89.8 | 97.7 | 105.5 | 97.5 | 96.6 | 99.7 | 92.8 | 92.5 | 88.9 |
| 사무직 | | 98.9 | 98.2 | 91.0 | 96.2 | 99.9 | 96.7 | 88.4 | 91.5 | 89.2 |
|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 | | 99.9 | 110.9 | 105.8 | 87.5 | 91.3 | 91.1 | 92.2 | 108.0 | 107.1 |
|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 | 86.2 | 70.2 | 87.8 | 121.1 | 76.0 | 80.1 | 123.6 | 98.8 | 167.2 |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 90.2 | 89.2 | 85.1 | 90.6 | 82.3 | 81.2 | 74.4 | 73.8 | 74.3 |
|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 95.8 | 94.7 | 102.9 | 95.7 | 91.7 | 94.1 | 101.7 | 104.1 | 92.5 |
| 단순노무 종사자 | | 106.1 | 103.4 | 100.9 | 96.9 | 88.1 | 87.4 | 100.1 | 87.9 | 91.2 |

자료: 통계청

- 부산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 서비스산업구조를 기술집약적서비스업의 비중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의 발전전략수립이 긴요함.
- 임금구조를 살펴보면, 부산지역의 평균임금(월정액급여+월특별급여)은 2001년 현재 142만 5천원 수준으로 전국평균 166만7천원의 85.5%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전반적으로 90년대 초에 비해서 부산지역의 평균임금 수준이 하락한 상태임. 이는 일자리의 구조 변화가 상대적으로 열악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판단됨.

- 이러한 현상은 대출자의 전국 대비 평균임금 수준의 지속적인 하락에서도 나타난다고 판단됨.

<표 2-11> 부산의 평균 임금

(단위: 천원)

| |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
| 남녀별 | 전체 | 792 | 886 | 1,004 | 1,123 | 1,213 | 1,261 | 1,272 | 1,382 | 1,425 |
| | 남 | 946 | 1,031 | 1,142 | 1,306 | 1,377 | 1,444 | 1,489 | 1,600 | 1,636 |
| | 여 | 502 | 565 | 651 | 754 | 848 | 860 | 887 | 940 | 999 |
| 학력별 | 고졸이하 | 702 | 782 | 883 | 952 | 1,009 | 1,021 | 1,050 | 1,165 | 1,166 |
| | 대졸 | 874 | 941 | 1,050 | 1,160 | 1,280 | 1,308 | 1,255 | 1,382 | 1,446 |
| | 대졸이상 | 1,455 | 1,595 | 1,701 | 1,857 | 2,039 | 2,119 | 2,094 | 2,228 | 2,365 |
| 산업별 | 농림어업광업 | . | . | . | 1,551 | . | . | 1,625 | 1,696 | 2,002 |
| | 제조업 | 661 | 738 | 880 | 970 | 1,013 | 1,011 | 973 | 1,083 | 1,079 |
|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 | . | . | 1,490 | 1,638 | 1,714 | 1,608 | 1,607 | 2,121 |
| | 건설업 | 956 | 1,085 | 1,228 | 1,255 | 1,502 | 1,534 | 1,395 | 1,574 | 1,626 |
| | 도소매수리숙박 음식접업 | 774 | 890 | 1,057 | 1,088 | 1,219 | 1,253 | 1,233 | 1,206 | 1,489 |
| | 운수, 창고 및 통신업 | 813 | 866 | 924 | 1,197 | 1,262 | 1,268 | 1,549 | 1,956 | 1,878 |
| | 금융 및 보험업 | 1,436 | 1,588 | 1,874 | 1,656 | 1,941 | 1,948 | 1,598 | 2,197 | 2,040 |
| |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 720 | 721 | 782 | 835 | 934 | 1,058 | 987 | 860 | 996 |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 | . | . | . | . | . | . | . | . |
| | 교육 서비스업 | 1,632 | 1,939 | 1,934 | 2,199 | 2,230 | 2,462 | 2,631 | 2,445 | 2,762 |
|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1,076 | 1,132 | 1,224 | 1,207 | 1,314 | 1,430 | 1,462 | 1,798 | 1,817 |
| | 기타 | 1,632 | 1,256 | 1,430 | 1,588 | 1,361 | 1,332 | 1,341 | 1,811 | 1,278 |
| | 직종별 |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 1,859 | 1,796 | 2,107 | 2,310 | 2,662 | 2,795 | 2,440 | 2,669 |
| 전문가 | | 1,432 | 1,624 | 1,645 | 1,738 | 1,940 | 2,092 | 2,514 | 2,550 | 2,614 |
| 기술공 및 준전문가 | | 1,036 | 1,134 | 1,399 | 1,493 | 1,602 | 1,697 | 1,557 | 1,726 | 1,824 |
| 사무직 | | 889 | 965 | 1,022 | 1,222 | 1,340 | 1,323 | 1,214 | 1,352 | 1,411 |
|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 | | 652 | 796 | 898 | 833 | 930 | 938 | 932 | 1,209 | 1,261 |
|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 | 601 | 576 | 807 | 1,427 | 1,157 | 1,257 | 1,455 | 1,287 | 2,310 |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 615 | 711 | 747 | 939 | 952 | 959 | 871 | 948 | 1,030 |
|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 659 | 713 | 889 | 921 | 946 | 984 | 1,077 | 1,187 | 1,170 |
| 단순노무 종사자 | | 592 | 636 | 693 | 714 | 707 | 692 | 814 | 738 | 782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2. 제조업 노동수요

○ 제조업 종사자수의 매우 급격한 감소.

- 1991년이래 2001년까지를 보면 제조업 사업체수는 40.19%나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제조업 종사자수는 오히려 동기간 동안 41.3%나 감소하였음.

- 동기간 동안 전국 제조업 종사자수가 10.5% 감소한 것에 비하면 매우 급격한 감소이며, 지난 10년간 부산 제조업종사수 감소인원(129,325명)은 전국 제조업종사자수 감소인원(313,395명)의 무려 41.3%를 차지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급격한 감소의 주된 원인은 부산의 주력산업이었던 신발산업 종사자수가 지난 10년간에 무려 9만 1,360명이나 감소한데 기인함.

<표 2-12> 산업중분류별 월평균종사자수 증감률 추이

| 구분 | 월평균종사자수(명) | | | | | | | 증감률(%) |
|---------------------------|------------|-----------|-----------|-----------|-----------|-----------|----------|--------|
| | 1991(A) | 1993 | 1995 | 1997 | 1999 | 2001(B) | 증감(B-A) | |
| 음식료제조업 | 15,671 | 15,332 | 15,096 | 12,631 | 12,060 | 11,838 | -3,833 | -24.5 |
| 섬유제품제조업 | 27,040 | 29,481 | 24,193 | 20,529 | 19,312 | 17,223 | -9,817 | -36.3 |
|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 31,265 | 29,452 | 25,142 | 22,632 | 23,384 | 22,218 | -9,047 | -28.9 |
|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 | 109,755 | 58,410 | 34,766 | 22,354 | 22,111 | 18,395 | -91,360 | -83.2 |
|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 5,013 | 4,774 | 4,466 | 3,294 | 2,606 | 2,598 | -2,415 | -48.2 |
|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 3,504 | 3,293 | 3,112 | 2,561 | 2,409 | 2,492 | -1,012 | -28.9 |
|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 2,716 | 3,179 | 3,268 | 2,736 | 2,879 | 3,357 | 641 | 23.6 |
|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 675 | 559 | 517 | 301 | 337 | 231 | -444 | -65.8 |
|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 7,046 | 7,381 | 5,632 | 5,807 | 4,429 | 4,396 | -2,650 | -37.6 |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 13,454 | 12,676 | 10,648 | 9,513 | 8,692 | 9,125 | -4,329 | -32.2 |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 3,167 | 2,944 | 3,382 | 2,675 | 1,899 | 1,816 | -1,351 | -42.7 |
| 제1차금속산업 | 14,978 | 13,966 | 12,618 | 10,480 | 10,509 | 10,374 | -4,604 | -30.7 |
| 조립금속제품제조업 | 14,933 | 19,744 | 22,074 | 19,073 | 16,367 | 17,117 | 2,184 | 14.6 |
|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 26,860 | 29,392 | 29,441 | 26,070 | 20,930 | 22,755 | -4,105 | -15.3 |
|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제조업 | 84 | 193 | 370 | 268 | 235 | 127 | 43 | 51.2 |
| 기타전기기계,전기변환장치 | 5,047 | 6,428 | 7,700 | 7,307 | 7,553 | 7,469 | 2,422 | 48.0 |
| 전자부품,영상,음향및통신장비 | 3,518 | 3,275 | 3,479 | 3,066 | 4,446 | 5,343 | 1,825 | 51.9 |
| 의료,정밀,광학기계 및 시계 | 1,663 | 1,815 | 1,983 | 1,994 | 1,886 | 2,015 | 352 | 21.2 |
|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 7,089 | 5,365 | 7,101 | 11,706 | 7,743 | 10,662 | 3,573 | 50.4 |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10,613 | 8,476 | 8,892 | 7,230 | 9,054 | 7,356 | -3,257 | -30.7 |
| 가구 및 기타제품제조업 | 8,605 | 8,603 | 8,486 | 6,504 | 6,641 | 6,353 | -2,252 | -26.2 |
|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 123 | 241 | 200 | 132 | 130 | 234 | 111 | 90.2 |
| 부산 제조업종사자수 합계(A) | 312,819 | 264,979 | 232,566 | 198,863 | 185,612 | 183,494 | -129,325 | -41.3 |
| 전국 제조업종사자수 합계(B) | 2,978,998 | 2,930,895 | 2,981,813 | 2,721,857 | 2,527,053 | 2,665,603 | -313,395 | -10.5 |
| 부산 제조업종사자수 전국 비중(A/B : %) | 10.5 | 9.0 | 7.9 | 7.3 | 7.3 | 6.9 | 41.3 | |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 연도

주: 증감률은 1991년 월평균노동자수에 대한 2001년 노동자수의 증감비율임.

○ 경공업부문 종사자수의 대폭감소와 전기, 전자부품, 자동차부문 종사자수의 소폭 증가.

- 산업중분류별로 종사자수 증감을 보면,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 종사자수가 9만

1,360명이나 감소하여 전체 감소인원의 7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섬유제품제조업(9,817명),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제조업(9,047명) 등으로 주로 경공업부문에 있어서 대폭감소가 이루어졌음.

- 이처럼 경공업부문의 종사자수 대폭감소의 주요 원인은 이들 산업의 대부분이 노동집약적 산업으로서 임금상승에 따른 사업장의 중국 등 동남아지역으로의 해외 이전과 업종전환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중화학공업부문에서도 제1차금속산업(4,604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4,329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4,105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257명) 등에서 종사자수 감소가 이루어졌음에 반해,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3,573명), 기타전기 기계 및 전기변환장치제조업(2,422명), 조립금속제품제조업(2,184명), 전자부품,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1,825명) 등에서 소폭의 종사자수 증가가 이루어졌음.

3. 서비스업 노동수요

○ 부산은 서울에 비해 서비스산업 중에도 음식숙박업과 운수창고업만이 종사자수 비중이 큰 편임.

- 그 이유로는 해양관광 및 국제물류 도시로서의 특성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표 2-13> 부산 산업별 고용구조 변화

(단위: %)

| 구분 | 부산 | | 서울 | | 전국 | |
|-----------|------|------|------|------|------|------|
| | 1993 | 2001 | 1993 | 2001 | 1993 | 2001 |
| 전기가스수도사업 | 0.3 | 0.4 | 0.1 | 0.3 | 0.3 | 0.5 |
| 건설업 | 3.7 | 3.8 | 6.9 | 5.4 | 5.3 | 4.5 |
| 도소매업 | 19.7 | 19.9 | 22.5 | 21.3 | 18.6 | 17.6 |
| 음식숙박업 | 9.5 | 12.2 | 8.1 | 10.2 | 9.0 | 11.6 |
| 운수창고업 | 8.3 | 8.4 | 4.9 | 6.9 | 4.7 | 5.9 |
| 통신업 | 0.7 | 1.0 | 0.6 | 1.4 | 0.6 | 1.1 |
| 금융보험업 | 5.3 | 4.4 | 7.4 | 6.2 | 5.7 | 4.5 |
| 부동산사업서비스업 | 1.5 | 2.4 | 2.4 | 3.3 | 1.7 | 2.5 |
| 기타서비스업 | 21.4 | 26.1 | 18.4 | 28.7 | 21.7 | 27.2 |

자료: 통계청(KOSIS),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각 연도 및 박성익(2001)

○ 서비스산업 중 기술집약적 서비스산업에 대한 잠재적 노동수요가 존재함.

- Young (1997) 분류에 따른 <표 2-14>의 기술집약서비스업 항목을 보면 부산과 서울 및 전국의 고용비중을 알 수 있음.
- 기술집약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이 1993년에는 각각의 비중이 0.8%, 1.1%, 0.9%로 지역간 편차가 크지 않았으나, 2001년에는 그 비중이 각각 1.5%, 4.4%, 2.4%로 나타나 부산이 상대적으로 서울이나 전국평균에 비해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박성익: 2001),
-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부산지역에서의 기술집약적 산업에서의 노동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잠재적 노동수요가 큰 것으로 보임.

<표 2-14> 부산서비스산업의 고용구조 변화

(단위: %)

| 구분 | 부산 | | 서울 | | 전국 | |
|------------|------|------|------|------|------|------|
| | 1993 | 2001 | 1993 | 2001 | 1993 | 2001 |
| 제조업 | 29.3 | 21.0 | 28.3 | 16.3 | 31.7 | 24.4 |
| 서비스업전체 | 70.4 | 78.6 | 71.3 | 83.7 | 67.6 | 75.1 |
| 기술집약적 서비스업 | 0.8 | 1.5 | 1.1 | 4.4 | 0.9 | 2.4 |

자료: 통계청(KOSIS),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각 연도 및 박성익(2001)

주: 기술집약적서비스업은 통신업,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연구관련개발업을 의미함

제 2 절 부산발전 전략과 전략산업의 특성

1. 부산발전전략과 전략산업의 기본특성

○ 10대 전략산업의 추진 경과.

- 부산경제는 70년대 후반부터 신발, 섬유, 합판 등 주종산업의 침체와 산업구조 낙후로 지역경제 침체현상이 지속됨.
- 지방자치시대와 더불어 21세기 성장가능성이 높고, 부산경제를 선도할 지역전략산업 육성의 필요성 인식.
- 용역결과에 기초하여 1994년 4월 10대 전략산업 선정.
 - 성장유망산업(5개): 항만물류,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영상
 - 구조고도화산업(5개):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신발, 섬유·패션, 수산·가공

○ 10대 전략산업 내 102개 세부단위사업 선정 및 투자계획 확정.

- 2001년 제3차 전략산업육성위원회에서 10대 전략산업 정책우선순위 결정 심의를 거쳐 2002년에 최종 102개 세부산업단위와 투자계획이 확정됨.
- 전략산업별로 세부사업수의 비중을 보면 성장유망산업의 사업수가 40.2%이고 구조고도화산업의 사업수는 59.8%를 차지.
- 부산신항건설사업의 투자계획 총액이 7조 4,979억으로서 10대 전략사업 투자계획 총액의 50.2%를 차지하고 있음.

○ 10대 전략산업 중 구조고도화 산업은 성장유망산업과는 상반되는 양상을 보임.

<표 2-15> 10대 전략산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추이

(단위: 개, 명)

| 구분 | 사업체수 | | | | 종사자수 | | | |
|-------------|--------|--------|--------|--------|---------|---------|---------|---------|
| | 1995 | 1997 | 1999 | 2001 | 1995 | 1997 | 1999 | 2001 |
| 성장유망산업 | 64,542 | 73,500 | 76,375 | 80,383 | 252,289 | 254,747 | 241,672 | 265,329 |
| 구조고도화산업 | 8,786 | 7,652 | 6,912 | 8,006 | 120,096 | 97,664 | 93,926 | 90,993 |
| 10대 전략산업 합계 | 73,328 | 81,152 | 83,287 | 88,389 | 372,370 | 352,411 | 335,601 | 356,322 |

- <표 2-15>에서 10대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수는 1995년에 7만 3,328개에서 2001년에 8만 8,389개로 20.5% 증가하였음에 반해, 종사자수는 37만 2,370명에서 35만 6,322명으로 4.3% 감소.
- 10대 전략산업 전체의 사업체수는 20.5%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조고도화산업의 경우 사업체수가 1995년 8,786개에서 8,006개로 오히려 9.9% 감소하였으며, 성장유망산업의 사업체수가 동기간에 24.5% 증가.
- 동기간에 성장유망산업의 종사자수는 5.2% 증가하였음에 반해, 구조고도화산업의 종사자수는 24.2% 감소.

○ 2001년부터 10대 전략산업 중 일부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회복 현상을 보임.

- 성장유망산업 가운데 소프트웨어산업의 성장이 두드러짐.
- 성장유망산업 가운데 관광산업의 비중이 가장 크며, 1995년 이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모두 지속적인 증가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 향만물류산업의 경우 운송업 분야는 사업체수와 종사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반해 화물취급 및 창고업의 경우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모두 감소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 금융 산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감소현상의 주된 원인은 보험업임.
- 1995년에 비해 부산제조업 중 구조고도화산업의 비중이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모두 감소.
- 구조고도화산업 사업체수 감소의 주된 원인은 섬유패션산업(봉제의복 및 모피제품제조업)임.
- 신발산업과 섬유산업이 구조고도화산업의 종사자수 감소를 주도.

○ 성장유망서비스업은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는 반면 구조고도화산업은 미미함.

- 2001년 현재 10대 전략산업의 연관산업 사업체수는 96,089개이고, 종사자수는 42만 4,689명임.
- 1999년에 비해 연관산업사업체수는 6.3%(5,689개) 증가하였고, 종사자수는 8.9%(34,76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성장유망서비스업에서는 금융연관산업의 사업체수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종사자수로는 향만물류 연관산업의 종사자수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음.
- 구조고도화산업 연관산업의 경우 1999년에 비해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의 증가가 매우 미미함.

2. 총투자계획 및 투자실적에 나타난 10대 전략산업의 특성

○ 성장유망산업에 투자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짐.

- <표 2-16>에서 투자계획 총액대비 10대 전략산업별 투자금액 비중만으로 보면 향만물류산업, 관광산업 등 성장유망산업에 80.1%의 투자가 이루어졌음.
- 과연 이들 산업이 향후 부산의 산업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성장엔진 산업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됨.

<표 2-16> 전략산업별 세부단위사업수 및 총투자계획

| 구분 | 세부단위사업 | | 총투자계획 | | |
|-------------|--------|-------|---------|---------|------|
| | 사업수(개) | 비중(%) | 총액(억원) | 비중(%) | |
| 성장 유망산업 | 향만물류 | 6 | 5.9 | 83,600 | 56.0 |
| | 소프트웨어 | 11 | 10.8 | 1,622 | 1.1 |
| | 금융 | 2 | 2.0 | 16,44 | 1.1 |
| | 관광 | 14 | 13.7 | 30,022 | 20.1 |
| | 영상 | 8 | 7.8 | 2,652 | 1.8 |
| | 소계 | 41 | 40.2 | 119,580 | 80.1 |
| 구조 고도화산업 | 자동차부품 | 10 | 9.8 | 2,379 | 1.6 |
| | 조선기자재 | 15 | 14.7 | 5,326 | 3.6 |
| | 신발 | 16 | 15.7 | 3,941 | 2.6 |
| | 섬유패션 | 11 | 10.7 | 5,404 | 3.6 |
| | 수산가공 | 9 | 8.8 | 12,630 | 8.5 |
| | 소계 | 61 | 59.8 | 29,680 | 19.9 |
| 전체 | 102 | 100.0 | 149,260 | 100.0 | |

자료: 부산광역시 내부자료

○ 민자와 국비주도로 투자계획이 이루어졌음.

- 10대 전략산업의 투자계획 총액을 재원별로 보면 민자가 59.4%, 국비가36.4%, 시비 4.2%로 나타남.

- 10대 전략산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매우 구체적인 민자 및 유치방안의 마련이 중요.

○ 후반기에 투자계획이 집중되어 있음.

- 투자계획 총액의 64.9%가 2005년 이후에 투자되어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 이처럼 후반기에 투자계획이 집중되어 있는 사업일수록 계획의 성공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음.

○ 상대적으로 민자유치 투자실적이 저조함.

- 2003년 8월까지 투자계획 총액 대비 투자실적은 22.1%이고, 2002년까지 투자계획 대비 투자실적률은 90.2%를 나타내고 있음. (<표 2-17>참조)
- 투자실적을 재원별로 보면 국비의 투자실적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민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조한 투자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 투자계획 총액대비 투자실적률이 낮게 나타나는 까닭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2005년 이후 하반기 투자계획이 전체 투자계획 총액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임.

<표 2-17> 10대 전략산업 재원별 연도별 투자계획 및 투자실적(2003. 8. 31 현재)

(단위: 억원, %)

| | 재원별 | 연도별 투자계획 (투자실적) <비중:%> | | | | | | |
|------------|------|---------------------------|------------------|-----------------|----------------|-----------------|-----------------|------------------|
| | | 계 | 2000 까지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이후 |
| 총계(102개사업) | 국비 | 54,423 <36.4> | 9,033 | 2,781 | 3,729 | 4,312 | 5,070 | 29,512 |
| | (실적) | (19,211) | (10,113) | (2,557) | (3,362) | (3,179) | () | () |
| | 시비 | 6,247 <4.2> | 800 | 363 | 505 | 428 | 637 | 3,515 |
| | (실적) | (1,521) | (700) | (332) | (377) | (112) | () | () |
| | 민자 | 88,590 <59.4> | 6,133 | 1,127 | 3,478 | 6,449 | 7,614 | 63,797 |
| | (실적) | (12,216) | (3,737) | (910) | (3,133) | (4,436) | () | () |
| | 계 | 149,260 <100.0> | 15,965 <10.7> | 4,271 <<2.9> | 7,712 <5.2> | 11,189 <7.5> | 13,321 <8.9> | 96,824 <64.9> |
| | (실적) | (32,948) | (14,550) | (3,799) | (6,872) | (7,727) | () | () |

자료: 부산광역시 내부자료

3. 10대 전략산업별 투자계획 및 투자실적에 나타난 특성

○ 성장유망산업의 투자계획 대비 투자실적.

- 2003년 8월 말 현재 성장유망산업의 총투자계획 대비 투자 실적률은 22.3%이고, 2002년까지 투자계획 대비 투자 실적률은 94.6%를 나타내고 있음. (<표 2-18>참조)

<표 2-18> 성장유망산업의 투자계획 대비 투자실적

(단위: 억원, %)

| 구분 | 투자계획 총액대비 실적 (2003. 8. 31 현재) | | | 2002년까지 총투자계획 대비 실적 | | |
|-------|----------------------------------|--------|------|---------------------|--------|-------|
| | 투자계획 | 투자실적 | 실적률 | 투자계획 | 투자실적 | 실적률 |
| 항만물류 | 83,600 | 23,648 | 28.3 | 16,876 | 16,876 | 100.0 |
| 소프트웨어 | 1,662 | 340 | 20.5 | 446 | 313 | 70.2 |
| 금융 | 1,644 | 20 | 1.2 | 978 | 20 | 2.0 |
| 관광 | 30,022 | 2,372 | 7.9 | 2,423 | 2,372 | 97.9 |
| 영상 | 2,652 | 305 | 11.5 | 257 | 257 | 100.0 |
| 계 | 119,580 | 26,685 | 22.3 | 20,980 | 19,838 | 94.6 |

자료: 부산광역시 내부자료

○ 구조고도화산업의 투자계획 대비 투자실적.

- 2003년 8월 말 현재 구조고도화산업의 총투자계획 대비 투자 실적률은 21.1%이고, 2002년까지 투자계획 대비 투자 실적률은 77.5%를 나타내고 있음. (<표 2-19>참조)
- 조선기자재산업의 투자계획 및 투자실적은 2004년 이후 국비 및 시비 투자계획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나, 10대 전략산업 가운데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투자계획안으로 판단됨.
- 10대 전략산업 가운데 신발산업의 투자계획은 2003년에 마무리되는 유일한 전략산업임.
- 향후 동일하게 민간단체가 주도하면서도 조선기자재산업에서는 민자유치가 잘되고, 신발산업에서는 잘 되지 않는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일단 객관적 수치로 볼 때 섬유산업은 10대 전략산업 투자계획 가운데 가장 투자

실적률이 저조한 산업으로 나타남.

<표 2-19> 구조고도화산업의 투자계획 대비 투자실적

(단위: 억원, %)

| 구분 | 투자계획 총액대비 실적 (2003. 8. 31 현재) | | | 2002년까지 총투자계획 대비 실적 | | |
|-------|----------------------------------|-------|------|---------------------|-------|-------|
| | 투자계획 | 투자실적 | 실적율 | 투자계획 | 투자실적 | 실적율 |
| 자동차부품 | 2,379 | 342 | 14.4 | 248 | 248 | 100.0 |
| 조선기자재 | 5,326 | 2,226 | 41.8 | 1,583 | 1,583 | 100.0 |
| 신발 | 3,941 | 1,660 | 42.1 | 2,902 | 1,603 | 55.2 |
| 섬유패션 | 5,403 | 15 | 0.3 | 156 | 12 | 7.7 |
| 수산가공업 | 12,630 | 2,020 | 16.0 | 2,061 | 1,937 | 94.0 |
| 계 | 29,679 | 6,263 | 21.1 | 6,950 | 5,383 | 77.5 |

자료: 부산광역시 내부자료

○ 10대 전략산업 투자계획 및 투자실적 분석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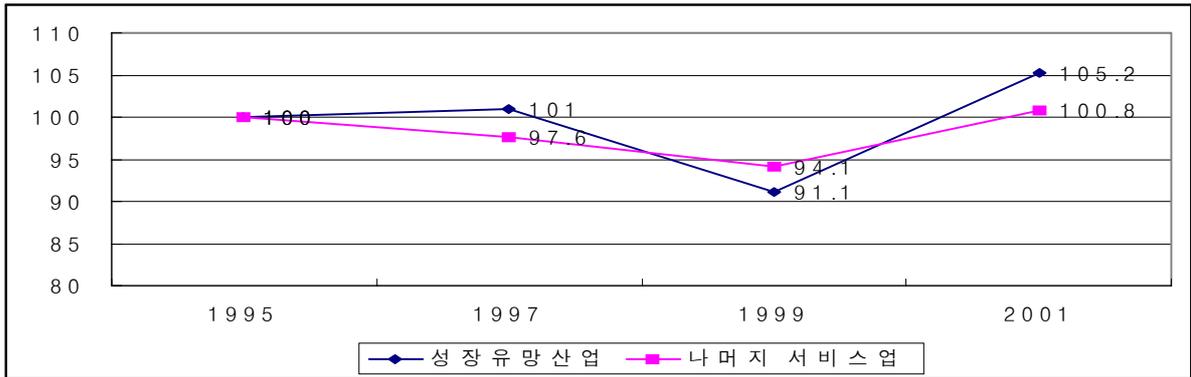
- 지나치게 성장유망산업, 특히 부산신항만 건설사업에 집중된 투자계획안임.
- 추진주체인 부산광역시의 시비 비중이 낮고, 국비 및 민자 비중이 비대한 투자계획안임.
- 2005년 이후 투자계획의 비중이 높은 투자계획안임.
- 기술집약형 및 지식집약형 산업육성에 대한 집중적 투자가 결여된 계획안임.

4. 부산발전전략에 기초한 취업확대 잠재력 전망

○ 성장유망산업의 인력수요가 서비스업 인력수요보다 경기변동에 상대적으로 민감함.

- 성장유망산업의 종사자수 변동 폭이 나머지 서비스업 종사자 변동 폭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2-2] 참조)
- 성장유망산업의 인력수요는 나머지 서비스업에 비해 호경기에는 취업확대 잠재력이 더 크지만 불경기의 경우에는 실업확대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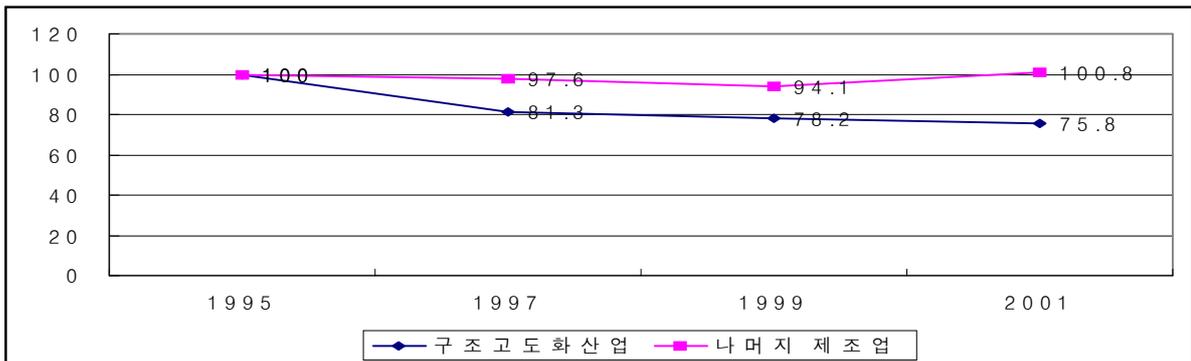
[그림 2-2] 성장유망산업과 나머지 서비스업 종사자수 지수변화(1995=100)



자료: 통계청(KOSIS)

○ 구조고도화 산업의 인력수요 증가 가능성은 희박함.

[그림 2-3] 구조고도화산업과 나머지 제조업 종사자수 지수변화(1995=100)



자료: 통계청(KOSIS)

- 구조고도화산업의 경우 1995년 종사자수를 100으로 할 때 2001년에 75.8로서 지속적으로 지수가 감소하고 있음. ([그림 2-3]) 참조
 - 이에 반해 나머지 제조업의 경우 1999년까지 종사자수가 감소하다가 2001년에는 1995년 수준을 회복.
 - 이는 구조고도화산업이 나머지 제조업에 비해 인력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희박함을 시사함.
- 결국 10대 전략산업에서는 성장유망산업이 구조고도화산업 보다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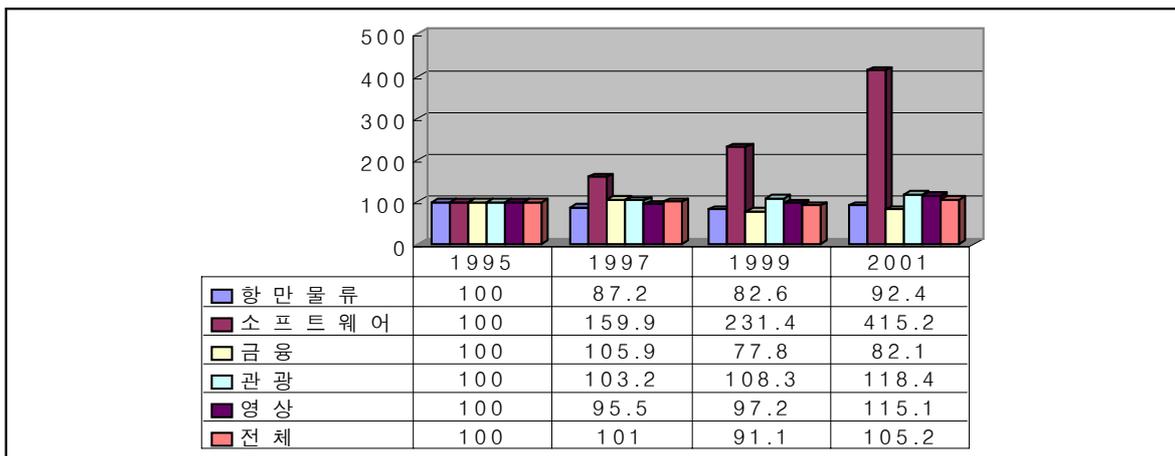
5. 10대 전략산업의 산업별 종사자수 지수변화 비교

○ 성장유망산업 내에도 산업별로 종사자수 지수 변동폭이 상이함.

- 지수변화만으로 볼 경우 소프트웨어 산업의 취업확대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2001년 이후 IT 및 벤처기업의 침체로 향후 지속적인 종사자수 증가가 일어날지는 의문임.

○ 성장유망산업의 실질적 취업확대 잠재력은 관광산업임.

[그림 2-4] 성장유망산업의 산업별 종사자수 지수변화(1995년=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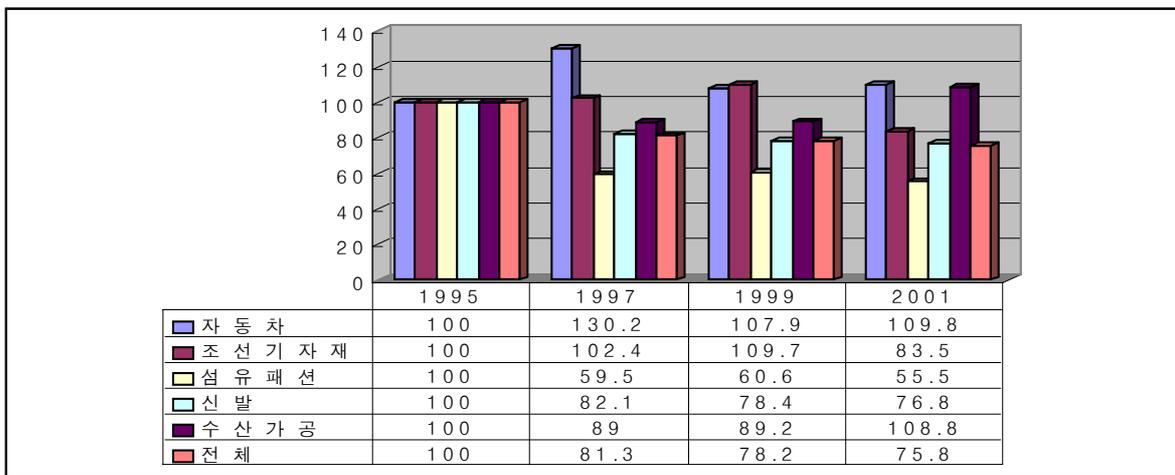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KOSIS)

- [그림 2-4]를 보면 관광산업의 종사자수 지수가 1995년부터 완만하게나마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성장유망산업 전체 종사자수 증가의 실질적인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
- 따라서 성장유망산업의 실질적 취업확대 잠재력은 관광산업임을 시사하고 있음.
- 금융산업과 항만물류산업 역시 1999년까지는 감소하다가 2001년부터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 취업확대 잠재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영상산업의 경우 종사자수 절대수가 수천명에 불과하지만 향후 영상산업의 발달에 비추어 취업확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구조고도화산업의 종사자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그림 2-5]에서 구조고도화산업의 종사자수 지수가 2001년에 75.8로 지속적인 감소를 나타내게 된 주요원인은 섬유패션산업과 신발산업의 종사자수가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급감한데 기인함.
- 구조고도화산업내에서는 자동차산업과 수산가공산업에서 상대적으로 취업확대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2-5] 구조고도화산업의 산업별 종사자수 지수변화(1995년=100)



자료: 통계청(KOSIS)

6. 2003년 10대 전략산업의 인력수요 전망 조사 결과

- 부산광역시에서는 2002년 12월에 (재)부산지역인재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부산 10대 전략산업 인력수요에 대해 조사하였음.
- 10대 전략산업의 1,040개 기업에서 2003년 한해동안 수요하려는 인력은 2,086명임.
 - 학력별로는 대졸이 965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고졸, 전문대졸 순서로 나타남.
 - 직종별로는 기술/생산직이 825명, 마케팅/영업직이 678명으로 전체 인력수요의 72.1%를 차지하고 있음. (<표 2-20>)참조

<표 2-20> 10대 전략산업의 2003년 필요인력수요

(단위: 명)

| 구분 | 고졸이하 | 전문대졸 | 대졸 | 대학원 이상 | 합계 |
|---------|------|------|-----|--------|-------|
| 기술/생산직 | 550 | 176 | 94 | 6 | 826 |
| 연구직 | 6 | 8 | 49 | 9 | 72 |
| 마케팅/영업직 | 19 | 68 | 575 | 16 | 678 |
| 총무/관리직 | 19 | 52 | 38 | 0 | 109 |
| 경리직 | 18 | 29 | 13 | 1 | 61 |
| 기타직군 | 35 | 52 | 196 | 57 | 340 |
| 필요인원 누계 | 647 | 385 | 965 | 89 | 2,086 |

자료: 부산광역시, 산업인력수요조사-부산10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2002. 12

주: 원자료에는 고졸이하의 필요인원 누계가 147명으로 오기되어 있어 647명으로 바로잡음

- 조사결과만으로 본 2003년도 10대 전략산업의 인력수요를 예측해보면 1만 7,667명 ±a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2001년 현재 10대 전략산업 전체 종업원수(35만 6,322명)의 5%에 해당함. (<표 2-21>)참조

<표 2-21> 조사결과만으로 본 2003년도 10대 전략산업 필요인원 예측치

(단위:개, 명)

| 구분 | 전체기업수 | 조사대상 기업수 | 채용의사 | 실제 채용 예상 (8,808개 기업대비) 17,667명 ± a |
|--------------|-------|----------|-------|--|
| 10대 전략산업 기업수 | 8,808 | 1,040 | 2,086 | |

자료: 부산광역시, 산업인력수요조사-부산10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2002. 12

- 만약 조사결과 예측대로 10대 전략산업에서 신규채용이 이루어진다면 부산지역 청년 실업 해소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됨.

7. 부산의 새로운 발전전략사업 - Dream MAP21 사업계획

- 10대 전략산업육성계획의 뒤를 잇는 Dream MAP21 사업계획.

- 2001년에 확정된 부산 10대 전략산업육성계획에 이어서 2003년에 중앙정부가 추구하는 산업클러스터에 기반한 이른바 Dream-MAP21 사업계획(2004-2008년)을 제시.

- 이는 부산의 주력산업인 소재(Material)와 부품(Parts)산업의 혁신을 통하여 부산이 21세기 아시아·태평양 시대의 중심도시(Maga-Hub-City of Asian and Pacific era)로 도약하는 꿈(Dream)을 이루어 보자는 뜻을 담고 있음.

<표 2-22> Dream MAP21의 세부사업계획

(단위: 억원)

| 구분 | 분야 | 사업명 | 2004년 | 총사업비 | 비고 | | | |
|----------------------|-----------|-----------------|---|------------------------|---|------------------------|-------------------|--|
| Dream MAP21 사업 | 소재 (9) | 계 | 국비 523 (총 2,494) | 국비 2,495 (총 10,687) | | | | |
| | | H/W | 소계 | 국비 380 (총 2,322) | 국비 2,082 (총 10,114) | | | |
| | | | ①차세대신소재(Liquid Metal)원천기술 개발연구단지 및 시범공장 조성 | 국비 50 (총 1,150) | 국비 1,000 (총 6,800) | 지사과학산 단 | | |
| | | | ②첨단부품·소재 품질인증 및 종합 기 술개발 지원센터 구축(8개 세부사업) | 국비 260 (총 348) | 국비 830 (총 1,220) | 테크노파크 | | |
| | | | ③자동차부품협동화단지 조성 및 지원센 터 건립 | 국비 10 (총 742) | 국비 92 (총 1,874) | 지사과학산 단 | | |
| | | S/W | ④조선기자재 검사 및 물류센터 구축 | 국비 60 (총 82) | 국비 160 (총 220) | 녹산산단 | | |
| | | | 소계 | 국비 143 (총 172) | 국비 413 (총 573) | | | |
| | | | ⑤기계부품재활용 및 청정공정 개발사업 | 국비 10 (총 10) | 국비 50 (총 50) | | | |
| | | | ⑥차량용 정보/통신 통합시스템(유비쿼 터스) 기술개발 | 국비 10 (총 14) | 국비 50 (총 70) | | | |
| | | | ⑦자동차부품 고부가가치 핵심기술 개발 | 국비 90 (총 102) | 국비 190 (총 285) | | | |
| | | | ⑧친환경 자동차엔진 및 부품기술 개발 | 국비 20 (총 30) | 국비 70 (총 100) | | | |
| | | 해양 생물 (1) | H/W | ⑨환경 친화성 선박 해양 도료 개발 | 국비 13 (총 16) | 국비 53 (총 68) | | |
| | | | H/W | ①해양식·의약산업화센터 설립 | 국비 23 (총 53) | 국비 200 (총 380) | 기장군삼성 리 | |
| | | 신발 산업 | 신발 (5) | S/W | ①신발산업진흥센터 운영지원 ②신발산업 인력양성 ③신발산업 해외마케팅 ④국제신발퍼펙션전시회 개최 ⑤신발산업 기술개발 | 국비 82 (총 152) | 국비 305 (총 579) | |
| | | 총 계(15개 사업) | | | 국비 628 (총 2,699) | 국비 3,000 (총 11,646) | | |

자료: 부산광역시, Dream MAP21 사업계획(2003. 9. 24)

○ Dream-MAP21사업의 기본내용.

- 서부산권은 기계부품·소재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동부산권은 해양바이오(MBT)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여
-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기계부품·소재산업 및 해양바이오산업의 중심도시로 육성하려는 전략임.

○ 부산의 성장엔진 제조업으로서 기계부품소재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을 중점 육성.

- Dream MAP21 사업은 9개의 기계부품소재사업과 1개의 해양생물사업 그리고 5개의 소프트웨어 분야 신발산업의 사업을 부가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표 2-22 참조>)
- 총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약하지만 기계부품소재산업 분야의 소프트웨어 부분 사업계획이 제시되고 있음.

○ 부산 10대 전략산업 투자계획과의 비교 및 문제점.

- 10대 전략산업 투자계획은 장기계획임에 반해 Dream MAP21 사업계획은 2004-2008년까지의 중기사업계획임.
- 10대 전략산업계획은 세부 사업간 편차가 지나치게 크고 하드웨어부분과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한 구분이 어려움에 반해 Dream MAP21 사업계획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기술집약적, 지식집약적 소프트웨어 부분의 투자계획이 제시되고 있음.
- 10대 전략사업계획에서는 핵심성장제조업에 대한 집중투자 개념이 불분명함에 반해 Dream MAP21 사업계획에서는 기계부품소재산업을 부산의 핵심성장산업부문으로 확정하고 있음.
- Dream MAP21 사업계획은 10대 전략산업 육성계획이 중반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일정한 제도수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10대 전략산업 육성계획의 추진력이 반감될 우려가 있음.

제 3 절 요약

1. 부산의 산업구조

- 전기·가스·수도사업을 제외하고는 부산의 각 부문별 GRDP 전국비중이 낮아지고 있고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구조의 지속으로 인해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미흡하며, 전체기업의 대부분을 영세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 대기업의 하청기업으로서 경기대응능력이 취약함.
- 전입업체에 대한 시외이전업체 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평화유지공업(주), 대상(주) 등 부산지역 중견기업들이 부산을 떠나고 있어 제조업의 낮은 고용 창출효과의 한 원인이 되고 있음.
- 부산 제조업은 중화학공업을 비롯한 고부가가치 산업분야에서 핵심 성장산업을 선택하지 못한 공업구조로 인해 쇠퇴하고 있음. 부산에서 부가가치가 비중이 높은 산업은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12.7%), 제1차금속산업(9.9%), 섬유제품제조업(9.4%) 등이나 산업별 부가가치의 전국비중이 모두 10%이하이며, 1995년에 비해 전국비중이 모두 하락함으로써 핵심성장산업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음. 결국 부산 제조업에서는 성장엔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성장산업이 사실상 부재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업구조가 부산 제조업의 쇠퇴와 불안정성을 가속화시키고 있음.
- 부산의 제조업은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약할 뿐 아니라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경쟁력도 취약함. 2001년 현재 전국적으로 고도기술산업의 고용과 부가가치의 비중이 각각 12.0%와 17.9%에 이르고 있으나 부산에서는 그 비중이 각각 3.0%와 4.12%에 불과한 실정임. 이는 컴퓨터 사무용기기 및 전자통신기기의 비중이 부산에는 매우 낮은데 기인함.
- 부산의 서비스업이 지역경제성장의 주도적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집약적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함.

따라서 부산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 서비스산업구조를 기술집약적서비스업의 비중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의 발전전략수립이 필요하다.

-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제조업 종사자의 수가 41.3%나 감소하였음. 특히 경공업(신발산업)부문의 종사자수가 대폭 감소하였는데, 이는 임금상승에 따른 사업장의 중국 등 동남아지역으로의 해외이전과 업종전환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부산은 도시 특성상 서비스산업 중 음식숙박업과 운수창고업의 종사자 비중이 큼. 특히,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부산지역에서의 기술집약적 산업에서의 노동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잠재적 노동수요가 큰 것으로 보임.

2. 부산발전 전략과 전략산업의 특성

- 1999년 4월 부산시는 성장유망산업-항만물류,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영상-과 구조 고도화산업-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신발, 섬유·패션, 수산·가공-을 10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함.
- 10대 전략산업 중 성장유망산업은 사업체 및 종사자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구조고도화산업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으로써 서로 상반된 양상을 보임.
- 총 투자계획이 항만물류산업, 관광산업 등 성장유망산업에 80.1%가 이루어짐으로써 성장유망산업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음. 그러나 과연 이들 산업이 향후 부산의 산업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성장엔진 산업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계속되어야 할 것임.
- 투자실적을 살펴보면, 2003년 8월까지 투자계획 총액 대비 투자실적은 22.1%인데, 이처럼 투자계획 총액대비 투자실적률이 낮게 나타난 이유는 2005년 이후 후반기 투자 계획이 전체 투자계획 총액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임. 투자실적을 재원별로 보면 국비의 투자실적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민자의 경우 상대

적으로 저조한 투자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 투자계획 총액의 64.9%가 2005년 이후에 투자되어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처럼 후반기에 투자계획이 집중되어 있는 사업일수록 계획의 성공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음.
 - 투자계획의 재원은 민자가 59.4%, 국비가 36.4%, 시비 4.2%로 민자와 국비 주도로 투자계획이 이루어졌음.
- 성장유망산업의 인력수요는 경기변동에 민감한 반면, 구조고도화산업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10대전략산업에서는 성장유망산업이 구조고도화산업보다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성장유망산업 중에서 특히 관광산업은 실질적 취업확대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10대 전략산업 인력수요 조사결과 2003년도 10대 전략산업의 인력수요 예측치는 1만 7,667명 ± a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2001년 현재 10대 전략산업 전체 종업원수(35만 6,322명)의 5%에 해당함.
- 10대 전략산업에 이어 Dream-MAP21 사업계획(2004-2008년)을 제시함. 이는 부산의 성장엔진 제조업으로서 기계부품소재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을 중점 육성하려는 계획임. Dream-MAP21 사업계획은 10대 전략산업에 비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기술집약적, 지식집약적 소프트웨어 부분의 투자계획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그 특징으로 꼽을 수 있으나 10대 전략산업 육성계획의 궤도수정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육성계획의 추진력이 반감될 우려가 있음.

<참고문헌>

노동부, 노동백서, 각 연도

매일경제신문(2002.4: 2003.4), '2001년 한국 1,000대 기업'

박성익(2001), 「부산의 산업구조: 진단과 방향」, 부산발전연구원, 『지역경제 혁신론』

박영구·김대래·김종한·김호범·박섭·장지용·정이근(2003), 「부산 경제통계의 추계 및 해석, 1945-2000 - 통계정비와 방법에 국한하여」, 한국지역사회학회, 『지역사회연구』, 제11권 제1호

박영구·장지용(2003), 「20세기 후반기 부산 제조업 통계의 정비와 형태」,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제51집 제2호

부산광역시 경제진흥국(2003. 7),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부산광역시(2001. 5),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부산산업연관분석과 정책우선순위 결정

부산광역시(2002), 부산경제백서(1998-2000)

부산광역시(2002. 12), 산업인력수요조사 - 부산 10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부산광역시(2003. 6), 21세기 동북아시아의 해양수도를 위한 부산의 비전과 발전전략

부산광역시(2003. 6), 도시혁신위원회 운영활성화 계획

부산광역시(2003. 8), 2003년도 상반기 종합실업대책 상반기 추진실적 평가결과

부산광역시(2003. 9), Dream MAP21 사업계획 - 21세기를 향한 부산지역 산업진흥계획 (2004-2008년)

부산광역시, 2003년도 실업대책

부산광역시,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산업편), 각 연도

부산광역시,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지역편), 각 연도

부산광역시, 부산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부산산업실태분석 및 실행시책연구

부산광역시, 부산통계연보, 각 연도

부산광역시,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각 연도

부산발전연구원(1994), 『부산경제론』

부산발전연구원·울산발전연구원·경남발전연구원(2002. 11), 동남경제권 지역잠재력 분석과 공동발전방안

부산상공회의소(2003. 8), '2002년 매출액·순이익 1000대 기업중 부산기업현황

부산상공회의소, 2002 시외이전 및 전입업체 현황, 각 연도
임정덕, 편(2001), 『지역경제 혁신론』, 부산발전연구원
주수현(2003. 1), 부산지역 RIS 및 혁신클러스터 구축 검토, 한국지역사회학회 경제분과
발표문
통계청(2001. 12), 2000년 부산광역시 지역내총생산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각 연도
통계청, 시도별 지역내 총생산, 각 연도
통계청, 지역경제동향, 각 연도
통계청, 지역통계연보, 각 연도
통계청, KOSIS
한국은행 부산본부, 부산지역 경제동향, 각 월호

Hatzichronoglou, T., "Revision of High-Technology Sector and Product Classification",
STI Working Paper, OECD/GD(97)216, OECD, 1997
OECD, "National Innovation System",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1997
Young, A., "Measuring R&D in the Services", STI Working Papers, OECD/GD(96)132,
OECD, 1996

Ⅲ. 부산지역 청년층 노동수요 현황·전망·실태조사 결과

1. 부산지역 청년층 실업현황

- 1998년 이후 청년층 실업률 감소 추세이나 2003년 들어 약간 상승
 -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998년 15.3%를 정점으로 2002년 7.1%로 낮아졌으나 2003년 들어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1/4분기 8.7%, 3/4분기 8.0%로 약간 상승하고 있음<표 3-1>.
 - 그러나 금융위기 이전 기간인 1997년과 비교할 때 2003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서 실업률 자체만으로는 큰 문제를 찾기 힘들.
 - 전국의 청년층 실업률과 비교할 때 <표 3-2>, 부산지역이 매년 1 - 3% 높게 나타나 부산지역의 청년층 실업이 전국수준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됨.
- 고졸이하의 청년층 실업이 전문대 이상 대졸보다 실업자 수 및 실업률 면에서 더 심각함.
 - <표 3-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부산지역에서도 고졸이하 실업률이 대졸보다 높음. 특히 1998년과 1999년의 금융위기 상황 하에서는 고졸실업률이 대졸보다 5% 포인트 차이가 났으나 최근 2002년 이후에는 0.5% 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어서 고학력화로 인한 대졸의 구직어려움이 부산에도 시현되고 있음.
- 부산지역 전체 실업률은 2003년 3/4분기 현재 3.8%로서 2002년에 비하여 0.2%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금융위기이후 실업률은 낮아져 왔음.
 - 전국과 비교해 볼 때<표3-2>, 부산지역의 실업률은 금융위기 시 만큼 심각하지 않으나, 아직도 전국실업률 평균과 비교해 볼 때, 0.5% 포인트 이상만큼 높게 나타남.
- 부산지역 여성 실업률은 전국과 비교할 때 특별히 다른 특징을 발견하기 어려움.
 - 2003년 3/4분기 현재 3.1%로서 전국 여성실업률 2.9%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지만

특별히 전국과 비교하여 크게 높다고 할 수 없음.

- 부산지역 여성실업률이 전국의 여성실업률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부산지역 전체 실업률이 전국 실업률보다 높기 때문이지 여성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

<표 3-1> 부산지역 청년층과 성별 실업률 추이

(단위: 천명, %)

|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3/4 |
|-----------|---------|----------|-----------|----------|----------|---------|-----------|
| 전체 | 71(3.9) | 155(8.9) | 157(9.1) | 113(6.5) | 91(5.2) | 64(3.6) | 62(3.8) |
| 청년층 1/4분기 | 44(9) | 67(14.8) | 74(17.9) | 58(13.6) | 47(11.5) | 79(8.5) | 33(8.7)1) |
| 청년층 연간 | 39(8.2) | 67(15.3) | 59(14.5) | 47(11.2) | 40(10) | 29(7.1) | 28(8) |
| 고졸 이하 | 28(8.3) | 49(17.1) | 43(16.3) | 33(12.2) | 25(10.0) | 17(7.4) | - |
| 대졸 이상 | 11(8.3) | 18(12.1) | 16(11.3) | 14(9.4) | 15(9.8) | 12(6.9) | - |
| 여성 | 27(3.5) | 54(7.6) | 51(7.2) | 36(5.0) | 28(3.9) | 22(2.9) | 21(3.1) |
| 남성 | 44(4.2) | 101(9.8) | 106(10.4) | 77(7.5) | 63(6.2) | 43(4.2) | 40(4.1)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각년도, 1)은 1/4분기,

주: ()안은 실업률

<표 3-2> 전국 청년층과 성별 실업률 추이

(단위: 천명, %)

|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3/4 |
|-----------|----------|------------|-----------|----------|----------|----------|------------|
| 전체 | 568(2.6) | 1490(7.0) | 1374(6.3) | 913(4.1) | 845(3.8) | 708(3.1) | 756(3.3) |
| 청년층 1/4분기 | 380(6.6) | 603(11.0) | 737(14.0) | 512(9.6) | 468(8.9) | 410(7.8) | 424(8.4)1) |
| 청년층 연간 | 322(5.7) | 655(12.2) | 574(10.9) | 402(7.6) | 388(7.5) | 341(6.6) | 350(7.0)2) |
| 고졸 이하 | 232(6.1) | 487(15.1) | 425(13.6) | 281(8.9) | 261(8.6) | 218(7.5) | 225(7.9) |
| 대졸 이상 | 90(5.6) | 168(10.0) | 149(8.7) | 121(6.6) | 127(6.6) | 123(6.1) | 125(5.8) |
| 여성 | 207(2.3) | 486(5.7) | 448(5.1) | 300(3.3) | 284(3.1) | 241(2.5) | 278(2.9) |
| 남성 | 361(2.8) | 1,005(7.8) | 926(7.2) | 613(4.7) | 561(4.3) | 467(3.5) | 478(3.5) |
| 경제성장률 | 5.0 | -6.7 | 10.9 | 9.3 | 3.1 | 6.3 | 2.33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각년도.

주: 1)은 1/4분기, 2)는 3/4분기 추계이며, 3)은 연간 추정치임. ()안은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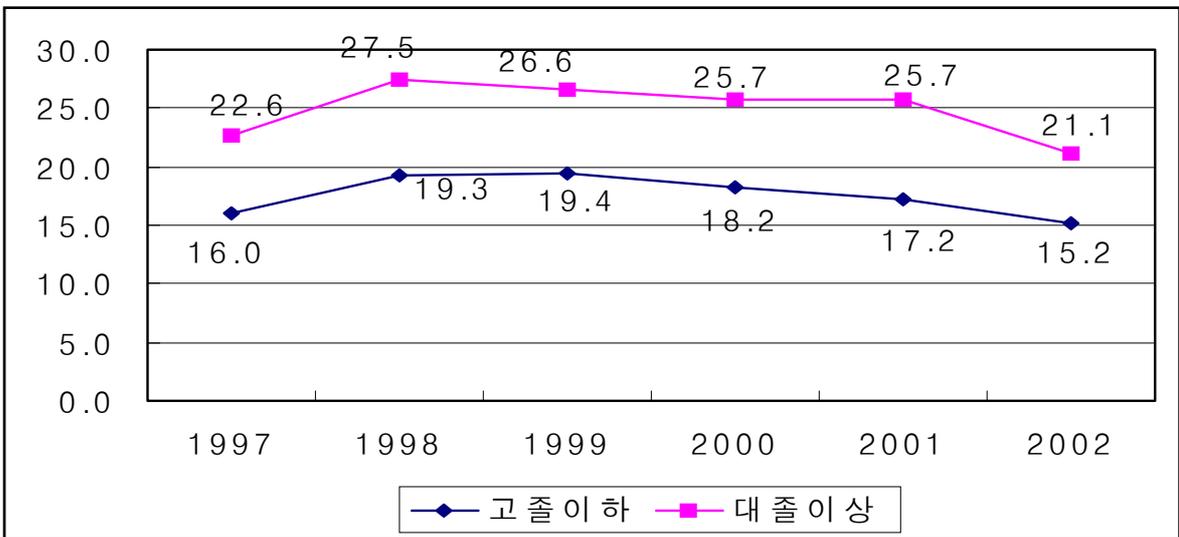
○ 한편, 유희화율이라는 개념으로 청년층의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볼 경우에는, 대졸 이상의 유희화율이 고졸이하 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냄(그림 3-1, <표 3-3>).

- 유희화율이라는 개념은 실업률 통계가 취업에 실망하여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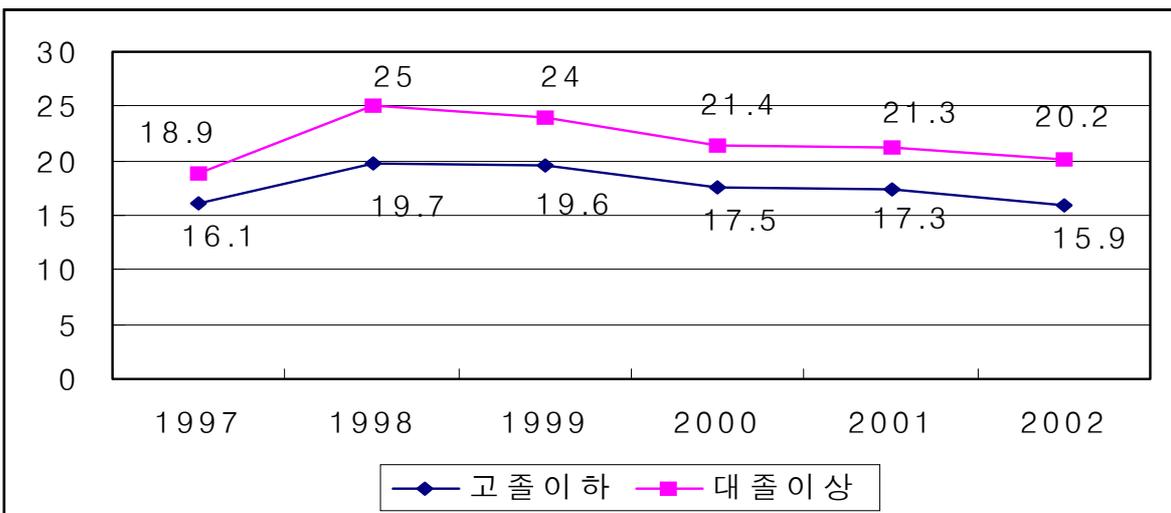
는 실망실업자를 통계상으로 추출해 내지 않는점에 비하여 실망실업자도 포함한 인력활용정보를 알 수 있으므로 여성 및 노동시장에 신규진입하는 청년층에 유효하게 사용되는 개념임.

- 청년층 유희화율을 보면 부산지역은 2002년 현재 16.7%로서 대졸이상이 21.1%, 고졸이하가 15.2%로서 대졸이상의 유희화율이 6%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남.
- 전국과 비교해 볼 때, 유희화율 면에서는 부산지역이 크게 다를 바 없음([그림 3-2], <표 3-4>)

[그림 3-1] 부산지역 청년층의 학력별 유희화율(1997-2002)



[그림 3-2] 전국 청년층의 학력별 유희화율(1997-2002)



<표 3-3> 부산지역 청년층의 유휴화율

(단위: %)

|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
| 전체 | 17.0 | 20.9 | 20.8 | 19.8 | 19.1 | 16.7 |
| 고졸이하 | 16.0 | 19.3 | 19.4 | 18.2 | 17.2 | 15.2 |
| 대졸이상 | 22.6 | 27.5 | 26.6 | 25.7 | 25.7 | 21.1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에서 계산

주: 유휴화율=[(실업자수+비통학 비경제활동인구수)/생산가능인구수]

실업률로 포착할 수 없는 청년층의 체감실업을 살펴보기 위한 지표임.

<표 3-4> 전국 청년층의 유휴화율

(단위 : %)

|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3/4 |
|-------|------|------|------|------|------|------|----------|
| 전체 | 16.6 | 20.7 | 20.5 | 18.3 | 18.2 | 16.9 | 17.5 |
| 고졸 이하 | 16.1 | 19.7 | 19.6 | 17.5 | 17.3 | 15.9 | 15.2 |
| 대졸 이상 | 18.9 | 25.0 | 24.0 | 21.4 | 21.3 | 20.2 | 20.8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에서 계산

○ 지역간 청년층 실업률 수준을 비교하면, 부산이 2002년 7.0%로서 대구 8.8%, 서울 8.0%, 인천 7.4% 보다는 낮으나 전국 평균 6.6%보다는 높게 나타남<표 3-5>.

- 1996년도의 부산지역 청년층 실업률은 7.7%로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전국의 청년층 실업률과 비교할 때 부산지역 청년층 실업문제가 금융위기 이전보다는 상대적으로 개선된 양상을 보임.

<표 3-5>지역별 청년층 실업률

(단위: 명, %)

| | 전체 | | | | | 청년층(15-29세) | | | | |
|-------|----------|---------|------|-----|-----------|-------------|-----|------|-----|-----------|
| | 1996 | | 2002 | | 실업률 격차 | 1996 | | 2002 | | 실업률격 차 |
| | 실업자 수 | 실업 률 | 실업자수 | 실업률 | | 실업자 수 | 실업률 | 실업자수 | 실업률 | |
| 계 | 435 | 2.0 | 708 | 3.1 | 1.1 | 264 | 4.6 | 341 | 6.6 | 2.0 |
| 서울특별시 | 122 | 2.5 | 209 | 4.2 | 1.7 | 69 | 4.4 | 105 | 8.0 | 3.7 |
| 부산광역시 | 62 | 3.5 | 64 | 3.6 | 0.1 | 37 | 7.7 | 29 | 7.1 | (0.5) |
| 대구광역시 | 35 | 3.1 | 48 | 4.0 | 0.9 | 22 | 6.7 | 25 | 8.8 | 2.1 |
| 인천광역시 | 26 | 2.4 | 46 | 3.8 | 1.4 | 15 | 5.0 | 21 | 7.4 | 2.4 |
| 광주광역시 | 15 | 2.7 | 22 | 3.5 | 0.8 | 10 | 6.3 | 11 | 7.1 | 0.8 |
| 대전광역시 | 15 | 2.7 | 23 | 3.5 | 0.8 | 11 | 7.0 | 12 | 7.2 | 0.3 |
| 울산광역시 | | | 11 | 2.3 | 2.3 | | | 5 | 4.5 | 4.5 |
| 경기도 | 64 | 1.7 | 122 | 2.6 | 0.9 | 35 | 3.3 | 50 | 4.6 | 1.3 |
| 강원도 | 5 | 0.8 | 13 | 1.9 | 1.1 | 3 | 2.0 | 6 | 4.8 | 2.7 |
| 충청북도 | 9 | 1.3 | 16 | 2.3 | 0.9 | 6 | 3.9 | 9 | 6.4 | 2.5 |
| 충청남도 | 11 | 1.2 | 22 | 2.4 | 1.1 | 8 | 4.3 | 11 | 6.1 | 1.8 |
| 전라북도 | 20 | 2.3 | 21 | 2.4 | 0.2 | 14 | 7.1 | 13 | 8.5 | 1.4 |
| 전라남도 | 11 | 1.1 | 21 | 2.1 | 1.0 | 8 | 4.3 | 10 | 6.7 | 2.5 |
| 경상북도 | 14 | 1.1 | 29 | 2.1 | 1.0 | 8 | 3.2 | 15 | 5.8 | 2.6 |
| 경상남도 | 23 | 1.3 | 34 | 2.4 | 1.1 | 15 | 3.5 | 16 | 5.9 | 2.4 |
| 제주도 | 2 | 0.8 | 6 | 2.2 | 1.4 | 2 | 3.0 | 3 | 5.3 | 2.3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각년도

주: 울산광역시 1997.7.15 시 승격으로 1998.1 부터 경남에서 분리하여 자료 작성

실업률격차는 2002년과 1996년 사이의 실업률차이를 의미함.

2. 청년층 취업자 현황과 추이

가. 전국 대비 부산지역 취업자 비중

○ 부산지역의 전체 취업자수는 2002년 현재 약 170만 명 정도임.

- <표 3-6>을 보면 부산지역 취업자수는 외환위기인 1998년에 157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약 13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다시 생겨, 2002년 일자리는 외환 위기 이전인 1997년 171만 명 수준을 회복한 정도임.
- 부산지역의 취업자 비중은 전체 취업자의 약 7.7%(2002년 현재)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1993년의 8.4%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외환위기로 인해 부산지역의 청년층 일자리가 크게 축소되었음.

- 부산지역청년층의 취업자수는 1993년 전체 청년층취업자의 8.5%에서 2002년 현재 37만7천명 수준으로 전국 청년층취업자의 7.8%를 차지하고 있음. 외환위기 시 이 비중은 7.4%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음.
- 절대적인 취업 규모에서도 부산지역청년층 일자리는 1993년 44만9천 개에서 2002년 37만 7천개로 6만개 가까이 줄어들었음. 이는 부산지역 청년층의 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매우 빠르게 감소한 것임.

○ 남성취업자보다 여성청년취업자의 감소가 더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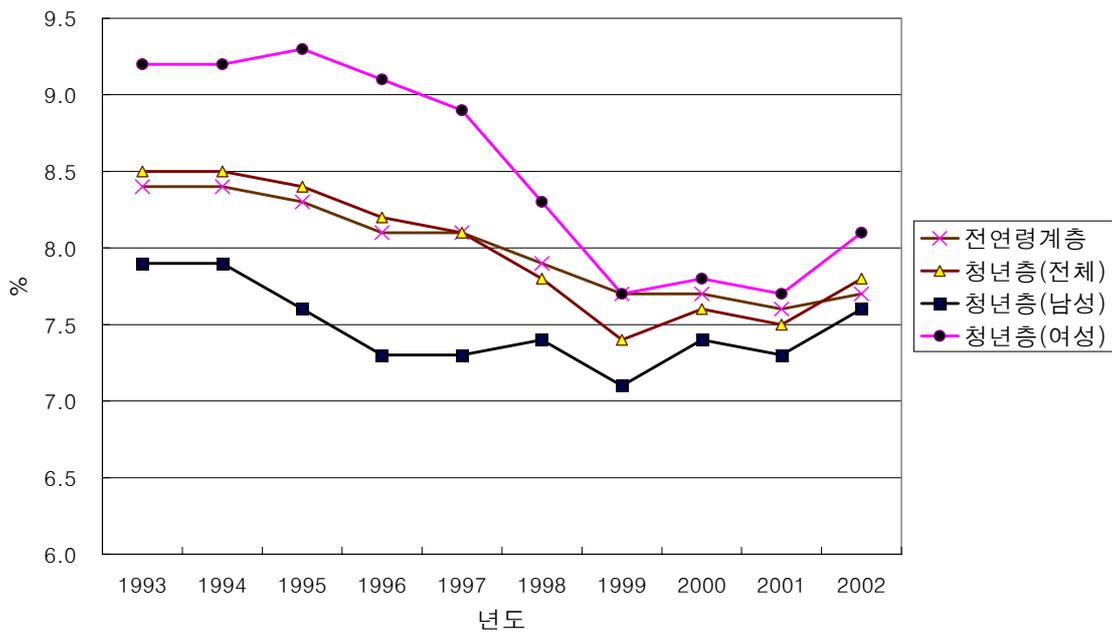
- [그림 3-3]에서 비교해볼 때, 2002년 부산의 여성청년취업자 수는 전체 여성청년 취업자의 8.1%로 남성의 7.6%에 비해서 0.5% 정도 높은 수준임. 그러나, 이 차이는 1995년 1.7%에 비해서는 크게 감소하였음.
- 전체 청년층에서 여성의 비중은 2002년 현재 52.3%로서 1997년 53.5%에 비해서 약간 낮은 수준임. 그러나 1998년의 경우 여성청년취업자 비중이 50.8%까지 떨어졌던 것에 비추어볼 때 외환위기의 타격이 상대적으로 여성청년층에게 더 컸던 것으로 판단됨.

<표 3-6> 남녀별 취업자 추이

| |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
| 전체 취업자추이 | 전체 | 19,234 | 19,848 | 20,414 | 20,853 | 21,214 | 19,938 | 20,291 | 21,156 | 21,572 | 22,169 |
| | 남 | 11,490 | 11,829 | 12,147 | 12,351 | 12,483 | 11,847 | 11,954 | 12,387 | 12,581 | 12,944 |
| | 여 | 7,745 | 8,020 | 8,267 | 8,502 | 8,731 | 8,090 | 8,337 | 8,769 | 8,991 | 9,225 |
| 전체 청년층 취업자 추이 | 전체 | 5,279 | 5,349 | 5,443 | 5,420 | 5,349 | 4,733 | 4,691 | 4,879 | 4,815 | 4,799 |
| | 남 | 2,772 | 2,828 | 2,868 | 2,826 | 2,760 | 2,464 | 2,423 | 2,492 | 2,408 | 2,370 |
| | 여 | 2,507 | 2,521 | 2,575 | 2,595 | 2,590 | 2,269 | 2,268 | 2,387 | 2,407 | 2,429 |
| 부산 취업자추이 | 전체 | 1,621 | 1,662 | 1,689 | 1,697 | 1,713 | 1,584 | 1,572 | 1,632 | 1,645 | 1,704 |
| | 남 | 956 | 977 | 985 | 988 | 987 | 927 | 911 | 944 | 947 | 977 |
| | 여 | 665 | 684 | 704 | 709 | 726 | 657 | 661 | 688 | 698 | 726 |
| 부산 청년층 취업자 추이 | 전체 | 449 | 456 | 456 | 442 | 431 | 371 | 347 | 372 | 361 | 377 |
| | 남 | 219 | 224 | 217 | 207 | 201 | 183 | 172 | 185 | 176 | 180 |
| | 여 | 230 | 232 | 239 | 235 | 230 | 188 | 176 | 186 | 185 | 197 |
| 부산 청년층 취업자 남녀간 비중 추이 | 전체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남 | 48.8 | 49.1 | 47.5 | 46.9 | 46.5 | 49.2 | 49.4 | 49.9 | 48.7 | 47.7 |
| | 여 | 51.2 | 50.9 | 52.5 | 53.1 | 53.5 | 50.8 | 50.6 | 50.1 | 51.3 | 52.3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3] 전국 대비 부산지역 취업자의 비중



나. 종사상 지위별 구조

○ 부산지역 청년층의 임시 및 일용 근로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상용근로자의 비율은 1993년 43.5%에서 2000년에 30.8%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02년에 32.2% 수준으로 약간 상승하였음. 즉, 전체 부산지역청년층의 2/3 이상이 비정규적 고용이나 자영업 형태에 갇혀 있다고 볼 수 있음.
- 자영업 내에서 고용주 비율도 1993년에 2.5%에서 2002년에 1.0%로 청년층 창업 활동도 그리 활발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러한 현상은 성별, 학력별로 차이가 없이 비슷하게 나타남.
- 대졸청년층의 경우에도, 상용근로자의 비율은 1993년 63%에서 2002년 39.7%까지 큰 폭으로 하락하여 대졸자의 비정규직화가 크게 진전되었음을 알 수 있음.

○ 부산지역의 일자리 구조가 서비스화되면서 일자리구조의 근대화 속도가 둔화됨.

- [그림 3-4]에서 부산지역의 자영업자 비율은 비농가기준으로 볼 때, 1995년 이후 전국 평균에 비해서 약간 높은 반면, 부산청년층의 경우 전국 청년층의 자영업자 비율에 비해서 2000년 이전에는 낮았지만, 이후에는 거의 같아지고 있음.
- 부산지역의 경우, 여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공업도시의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의 비율이 낮지 않으며 특히, 청년층의 경우에도 전국 평균과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음.
- 이는 부산지역의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전하면서 서비스부문에 상대적으로 자영업 일자리의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됨. 자영업 비중의 저하 즉 임금근로 비중의 증대를 일자리 구조의 근대화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 볼 때 부산지역의 일자리 구조가 서비스화되면서 일자리구조의 근대화 속도가 둔화되고 있음.

○ 부산지역 청년층의 고용의 질이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크게 악화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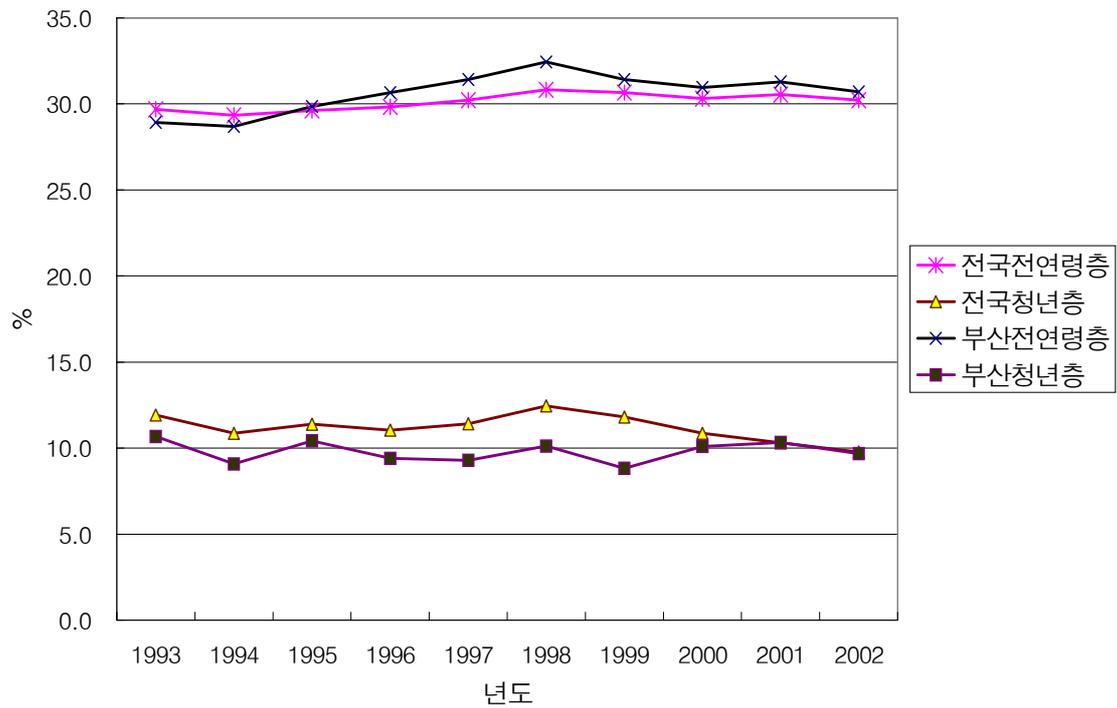
- [그림 3-5]을 보면 부산지역의 경우, 전국 평균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약 5% 정도 높고, 청년층의 경우 1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추세적으로도 매우 가파르게 비정규직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2000년 이후 비정규직 증가 속도가 정체 국면에 들어가긴 했지만, 부산지역 청년층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고용구조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청년층 고용의 질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쁜 것으로 판단됨.
- 이는 부산지역 청년층의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를 시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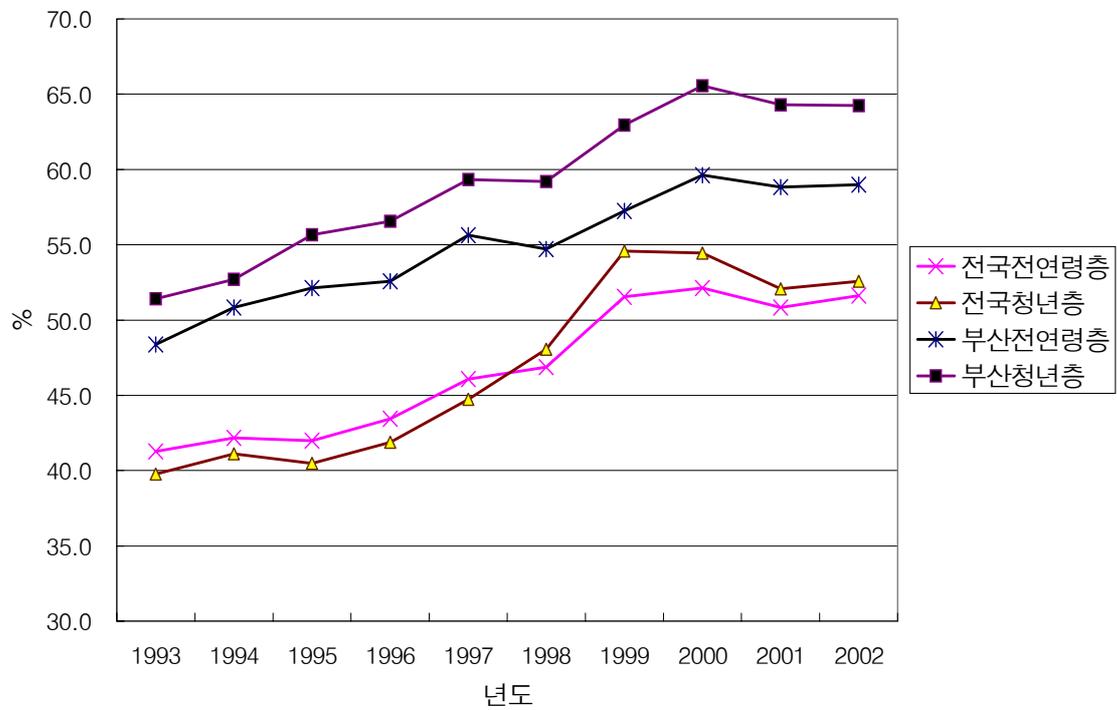
<표 3-7> 부산 청년층 종사상 지위별 남녀 취업자 비중

| |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
| 전체 | 전체 | 449 (100.0) | 456 (100.0) | 456 (100.0) | 442 (100.0) | 431 (100.0) | 371 (100.0) | 347 (100.0) | 372 (100.0) | 361 (100.0) | 377 (100.0) |
| | 상용근로자 | 43.5 | 43.0 | 39.7 | 39.5 | 37.4 | 36.6 | 33.7 | 30.8 | 31.9 | 32.2 |
| | 임시근로자 | 41.5 | 43.5 | 45.5 | 46.1 | 47.5 | 47.4 | 48.6 | 49.0 | 47.2 | 44.8 |
| | 일용근로자 | 3.9 | 3.9 | 4.1 | 4.7 | 5.6 | 5.8 | 8.6 | 9.8 | 10.2 | 13.1 |
| | 고용주 | 2.5 | 1.7 | 1.8 | 1.6 | 1.3 | 1.0 | 0.9 | 1.7 | 1.5 | 1.0 |
| | 자영업 | 3.5 | 3.2 | 4.7 | 4.5 | 5.2 | 5.0 | 4.7 | 5.0 | 4.5 | 4.9 |
| | 무급가족종사자 | 5.2 | 4.6 | 4.2 | 3.6 | 3.0 | 4.2 | 3.4 | 3.7 | 4.8 | 4.0 |
| 남 | 전체 | 219 (100.0) | 224 (100.0) | 217 (100.0) | 207 (100.0) | 201 (100.0) | 183 (100.0) | 172 (100.0) | 185 (100.0) | 176 (100.0) | 180 (100.0) |
| | 상용근로자 | 45.5 | 42.8 | 39.8 | 38.3 | 37.4 | 40.1 | 35.6 | 30.9 | 31.8 | 33.4 |
| | 임시근로자 | 38.2 | 42.2 | 43.4 | 43.8 | 45.0 | 42.2 | 45.5 | 47.2 | 45.1 | 40.5 |
| | 일용근로자 | 4.3 | 5.5 | 5.8 | 7.3 | 8.2 | 7.2 | 9.1 | 10.0 | 10.2 | 14.4 |
| | 고용주 | 4.1 | 3.1 | 3.1 | 2.8 | 2.1 | 1.4 | 1.1 | 2.4 | 2.2 | 1.6 |
| | 자영업 | 3.9 | 3.4 | 5.3 | 5.1 | 4.7 | 5.4 | 5.3 | 5.9 | 5.9 | 6.5 |
| | 무급가족종사자 | 3.9 | 3.1 | 2.5 | 2.7 | 2.6 | 3.6 | 3.4 | 3.6 | 4.8 | 3.6 |
| 여 | 전체 | 230 (100.0) | 232 (100.0) | 239 (100.0) | 235 (100.0) | 230 (100.0) | 188 (100.0) | 176 (100.0) | 186 (100.0) | 185 (100.0) | 197 (100.0) |
| | 상용근로자 | 41.5 | 43.3 | 39.6 | 40.6 | 37.3 | 33.3 | 31.8 | 30.8 | 31.9 | 31.2 |
| | 임시근로자 | 44.7 | 44.8 | 47.5 | 48.0 | 49.7 | 52.4 | 51.7 | 50.7 | 49.1 | 48.7 |
| | 일용근로자 | 3.5 | 2.4 | 2.4 | 2.4 | 3.3 | 4.4 | 8.1 | 9.5 | 10.2 | 11.9 |
| | 고용주 | 0.9 | 0.4 | 0.6 | 0.6 | 0.7 | 0.5 | 0.8 | 1.1 | 0.8 | 0.4 |
| | 자영업 | 3.0 | 2.9 | 4.2 | 3.9 | 5.5 | 4.7 | 4.2 | 4.2 | 3.2 | 3.4 |
| | 무급가족종사자 | 6.4 | 6.1 | 5.7 | 4.4 | 3.4 | 4.8 | 3.5 | 3.7 | 4.7 | 4.3 |

[그림 3-4] 자영업자 비율 추이(비농가 기준)



[그림 3-5] 비정규직 비율 추이



라. 학력별, 숙련별 취업 구조

- 부산지역의 청년층 취업자는 학력 수준이 전국평균에 비해서 높은 편임.
 - <표 3-8>과 <표 3-9>에서 볼 때 전체 전문대졸취업자에서 부산지역의 전문대졸 취업자의 비중은 2002년의 경우 8.2%로 전학력 평균 7.8%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며, 특히 청년층의 경우 이 비중이 8.6%로 전체 평균 7.9%에 비해서 크게 높은 수준임. 대졸자의 비중도 8.3%로서 전체 평균에 비해서 높은 수준임.
 - <표 3-8>에서 양적인 규모로 볼 때에도, 부산지역에서 전문대졸 및 대졸 취업자 수는 1993년 11만9천명에서 2002년에는 21만7천명으로 10년 사이에 거의 두 배 가량 증가하였음. 그 결과, 2002년 현재 전문대졸 및 대졸 취업자의 비중이 거의 60%에 달함.

- 청년층의 고학력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고숙련일자리의 증가 속도는 느린 것으로 판단됨.
 - [그림 3-6]에서 부산지역 청년층의 경우, 전문대졸 이상의 비율이 다른 지역이나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매우 높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음.
 - 반면, [그림 3-7]에서 상대적인 고숙련직종이라고 할 수 있는 관리직, 전문직, 준 전문직의 비율은 부산지역청년층의 비율이 여타 지역에 비해서 크게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 [그림 3-6]와 [그림 3-7]에서도 부산지역 청년층의 경우, 전문대졸 취업자 비율이 1993년의 30% 이하 수준에서 2002년에는 50% 이상의 수준으로 증가하였지만, 고숙련 일자리는 15%에서 25% 정도로 10% 정도 증가하는 데 그친 것을 알 수 있음.

<표 3-8> 학력별 취업자 추이(대학원 제외)

| |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
| 전체 취업자추 이 | 전체 | 18,959 | 19,523 | 20,066 | 20,478 | 20,787 | 19,483 | 19,779 | 20,590 | 20,940 | 21,491 |
| | 고졸이하 | 15,601 | 15,662 | 15,876 | 15,965 | 16,007 | 14,530 | 14,575 | 14,955 | 14,937 | 15,068 |
| | 전문대졸 | 865 | 1,046 | 1,176 | 1,343 | 1,627 | 1,395 | 1,622 | 1,855 | 2,057 | 2,273 |
| | 대졸 | 2,493 | 2,815 | 3,014 | 3,171 | 3,153 | 3,557 | 3,582 | 3,780 | 3,947 | 4,149 |
| 전체 청년층 취업자 추이 | 전체 | 5,229 | 5,289 | 5,378 | 5,354 | 5,278 | 4,663 | 4,603 | 4,769 | 4,692 | 4,678 |
| | 고졸이하 | 3,891 | 3,749 | 3,694 | 3,578 | 3,350 | 2,810 | 2,592 | 2,527 | 2,336 | 2,114 |
| | 전문대졸 | 498 | 589 | 671 | 747 | 874 | 808 | 919 | 1,040 | 1,139 | 1,275 |
| | 대졸 | 840 | 951 | 1,013 | 1,029 | 1,054 | 1,045 | 1,092 | 1,203 | 1,217 | 1,288 |
| 부산 취업자추 이 | 전체 | 1,603 | 1,642 | 1,667 | 1,674 | 1,684 | 1,559 | 1,545 | 1,601 | 1,615 | 1,667 |
| | 고졸이하 | 1,318 | 1,314 | 1,302 | 1,282 | 1,286 | 1,146 | 1,135 | 1,167 | 1,159 | 1,166 |
| | 전문대졸 | 80 | 93 | 109 | 125 | 140 | 125 | 132 | 154 | 173 | 186 |
| | 대졸 | 204 | 234 | 255 | 267 | 258 | 288 | 278 | 280 | 283 | 315 |
| 부산 청년층 취업자 추이 | 전체 | 446 | 452 | 451 | 438 | 426 | 367 | 343 | 364 | 354 | 368 |
| | 고졸이하 | 326 | 309 | 299 | 282 | 264 | 199 | 174 | 182 | 165 | 151 |
| | 전문대졸 | 51 | 60 | 66 | 70 | 79 | 76 | 78 | 93 | 103 | 110 |
| | 대졸 | 68 | 84 | 87 | 85 | 83 | 92 | 91 | 89 | 87 | 10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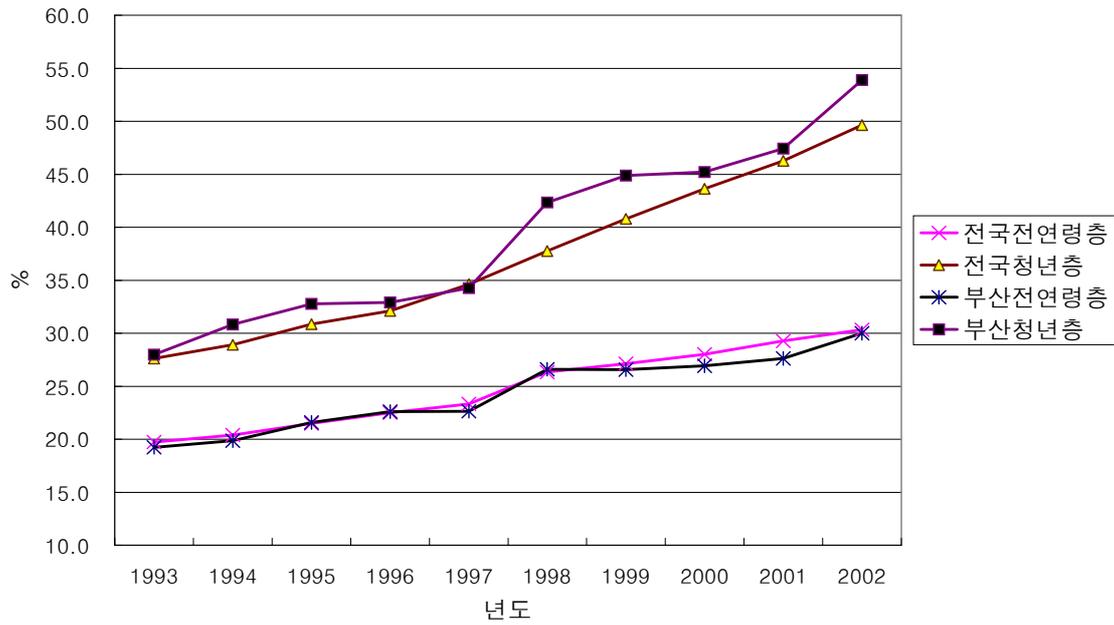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3-9> 학력별 전체대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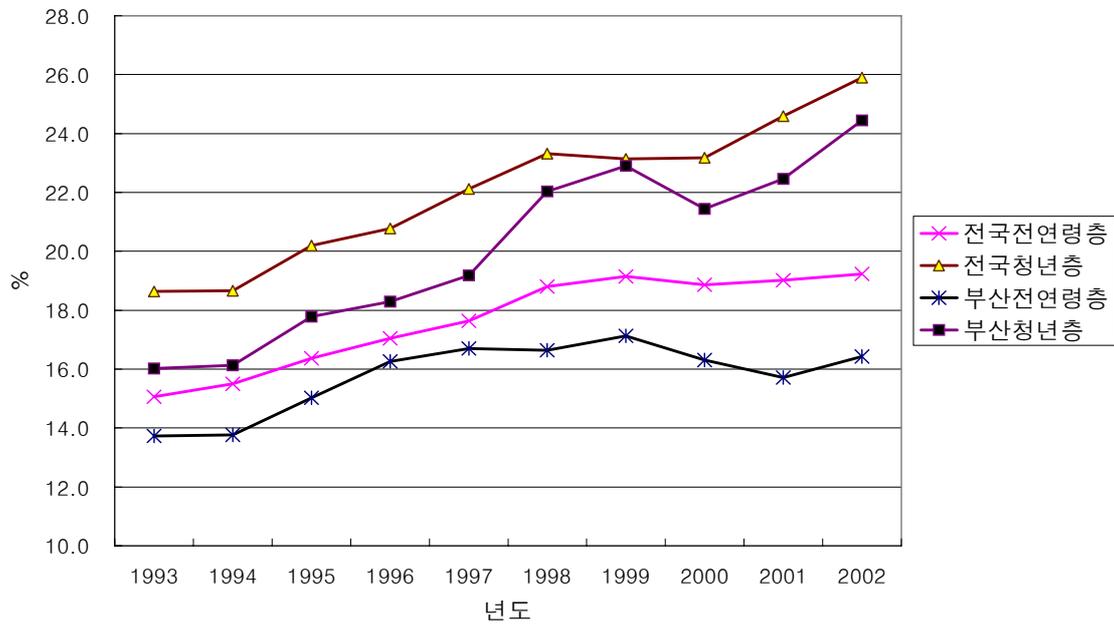
| |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
| 부산 취업자 비중 | 전체 | 8.5 | 8.4 | 8.3 | 8.2 | 8.1 | 8.0 | 7.8 | 7.8 | 7.7 | 7.8 |
| | 고졸이하 | 8.4 | 8.4 | 8.2 | 8.0 | 8.0 | 7.9 | 7.8 | 7.8 | 7.8 | 7.7 |
| | 전문대졸 | 9.3 | 8.9 | 9.3 | 9.3 | 8.6 | 8.9 | 8.1 | 8.3 | 8.4 | 8.2 |
| | 대졸 | 8.2 | 8.3 | 8.5 | 8.4 | 8.2 | 8.1 | 7.8 | 7.4 | 7.2 | 7.6 |
| 부산 청년층 취업자 비중 | 전체 | 8.5 | 8.6 | 8.4 | 8.2 | 8.1 | 7.9 | 7.5 | 7.6 | 7.6 | 7.9 |
| | 고졸이하 | 8.4 | 8.2 | 8.1 | 7.9 | 7.9 | 7.1 | 6.7 | 7.2 | 7.1 | 7.1 |
| | 전문대졸 | 10.2 | 10.2 | 9.9 | 9.4 | 9.0 | 9.4 | 8.5 | 8.9 | 9.0 | 8.6 |
| | 대졸 | 8.1 | 8.8 | 8.5 | 8.3 | 7.9 | 8.8 | 8.4 | 7.4 | 7.1 | 8.3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6] 전문대졸 이상 취업자 비율 추이



[그림 3-7] 고숙련직종(관리전문직) 취업자 비율 추이



○ 부산지역에서도 전통적인 사무직과 생산직의 비중 감소 현상과 전문직, 판매서비스 직의 비중 확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표 3-10>를 보면 사무직의 경우 1993년 29.3%에서 22.7%까지 감소하였고, 기능원과 조립원 등 생산직의 경우에는 1993년 30.2%에서 16.9%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이는 부산 지역경제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함.
- 전문직도 4.5%에서 10.9%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판매및서비스직종의 경우 비중이 가장 커져서 2002년에 29.2%에 달하고 있음.
- 직종별 구조를 보면, 전문직이나 준전문직의 증가로 고숙련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부산지역청년층의 고학력화 추세를 감안하면 일자리의 고숙련화는 상대적으로 느린 것으로 판단됨.

<표 3-10> 부산 청년층 직종별 취업자 비중

|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
| 전체 | 449 (100.0) | 456 (100.0) | 456 (100.0) | 442 (100.0) | 431 (100.0) | 371 (100.0) | 347 (100.0) | 372 (100.0) | 361 (100.0) | 377 (100.0) |
| 관리자 | 0.3 | 0.3 | 0.2 | 0.2 | 0.3 | 0.1 | 0.1 | 0.1 | 0.3 | 0.3 |
| 전문가 | 4.5 | 3.0 | 4.6 | 4.3 | 3.8 | 5.4 | 6.8 | 7.0 | 9.0 | 10.9 |
| 기술공/준전문가 | 11.3 | 12.9 | 13.1 | 14.0 | 15.4 | 16.6 | 16.0 | 14.4 | 13.1 | 13.3 |
| 사무직 | 29.3 | 30.6 | 30.5 | 30.2 | 30.5 | 26.9 | 24.2 | 23.3 | 22.4 | 22.7 |
| 판매서비스직 | 19.6 | 20.8 | 20.6 | 20.9 | 21.0 | 22.7 | 23.7 | 25.9 | 26.9 | 29.2 |
| 농림어업종사자 | 0.4 | 0.6 | 0.5 | 0.3 | 0.1 | 0.1 | 0.6 | 0.4 | 0.5 | 0.2 |
| 기능원 | 14.7 | 13.9 | 18.9 | 17.7 | 15.1 | 16.1 | 15.9 | 13.9 | 12.9 | 10.2 |
| 조립원 | 15.5 | 13.0 | 6.3 | 5.8 | 6.8 | 5.5 | 5.6 | 7.7 | 8.2 | 6.7 |
| 단순직 | 4.4 | 4.8 | 5.4 | 6.6 | 6.9 | 6.6 | 7.0 | 7.3 | 6.6 | 6.5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다. 업종별 취업 구조

○ 청년층 일자리 업종이 제조업에서 도소매음식숙박업 부분으로 바뀌었음.

- <표 3-11>을 보면 부산청년층 일자리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은 1993년에는 제조업이었으나, 2002년에는 도소매음식숙박업 부분으로 바뀌었음. 이는 부산 지역 청년층 일자리의 구조가 지난 10년 사이에 매우 빠르게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사실임.

- 특히, 제조업 일자리 비중이 1993년 34.1%에서 2002년 16.1%로 거의 절 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제조업 일자리 수도 15만 3천개에서 6만 1천개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 서비스업 중에서는 도소매음식숙박업의 비중이 2002년에 34.7%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는 있으나 절대적인 일자리 수는 13만 개 정도로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업종은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복지서비스업 등임.
 - 즉, 부산지역 청년층의 서비스업 취업구조는 도소매음식숙박업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구조 변화 자체는 사업, 교육, 보건복지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판단됨.
- 즉, 노동 수요 측면에서는 부산지역 제조업 경제가 위축되면서 일자리도 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도소매음식숙박업의 비중과 같이 상대적으로 전근대적인 부문과 사업서비스 및 금융보험업 등 상대적으로 근대적인 부문으로 양극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부산지역청년층의 제조업 취업 비율이 매우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그림 3-8]에서 볼 때, 전체 취업자 대비 제조업 취업자 비율을 볼 경우, 부산지역청년층에서 제조업취업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감소비율도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남. 즉, 1993년에는 다른 지역이나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서 제조업 취업자 비율이 가장 높은 34%대이었지만, 2002년에는 가장 낮은 16%대로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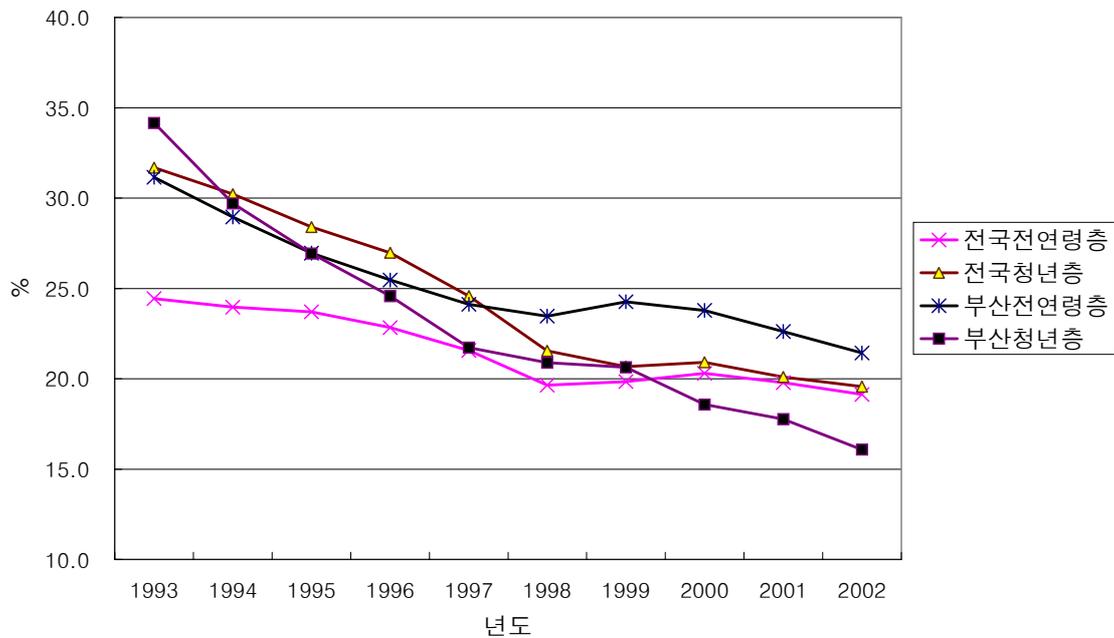
<표 3-11> 부산 청년층 업종별 취업자 비중

(단위, 천명 %)

|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
| 전체 | 449 (100.0) | 456 (100.0) | 456 (100.0) | 442 (100.0) | 431 (100.0) | 371 (100.0) | 347 (100.0) | 372 (100.0) | 361 (100.0) | 377 (100.0) |
| 농림어업광업 | 0.7 | 0.9 | 1.0 | 0.4 | 0.5 | 0.8 | 1.1 | 0.7 | 0.7 | 0.4 |
| 제조업 | 34.1 | 29.3 | 26.7 | 24.3 | 21.6 | 20.9 | 20.6 | 18.6 | 17.8 | 16.1 |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0.2 | 0.4 | 0.4 | 0.3 | 0.2 | 0.0 | 0.0 | 0.2 | 0.1 | 0.0 |
| 건설업 | 6.2 | 7.9 | 7.4 | 8.3 | 7.8 | 7.8 | 7.5 | 7.4 | 6.5 | 6.6 |
| 도소매수리숙박 음식접업 | 28.8 | 31.4 | 32.2 | 32.2 | 32.8 | 32.6 | 33.3 | 35.2 | 34.3 | 34.7 |
| 운수, 창고 및 통신업 | 4.8 | 4.6 | 5.0 | 5.1 | 5.8 | 4.5 | 3.9 | 4.3 | 5.2 | 4.1 |
| 금융 및 보험업 | 4.1 | 4.0 | 4.8 | 5.0 | 5.6 | 6.0 | 5.6 | 4.1 | 3.4 | 4.1 |
|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 3.4 | 3.6 | 3.9 | 5.1 | 6.0 | 5.7 | 5.8 | 6.2 | 7.0 | 7.5 |
| 공공행정, 국방사회보장 | 3.0 | 3.2 | 3.4 | 3.4 | 2.9 | 2.6 | 3.0 | 2.5 | 1.5 | 1.0 |
| 교육 서비스업 | 7.8 | 8.0 | 8.7 | 9.4 | 9.4 | 10.4 | 9.5 | 10.6 | 10.3 | 10.3 |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3.3 | 3.8 | 3.7 | 3.5 | 4.1 | 4.0 | 4.3 | 4.1 | 5.1 | 6.1 |
| 기타 | 3.6 | 2.9 | 2.8 | 3.1 | 3.3 | 4.6 | 5.3 | 6.0 | 8.1 | 9.1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8] 제조업 취업자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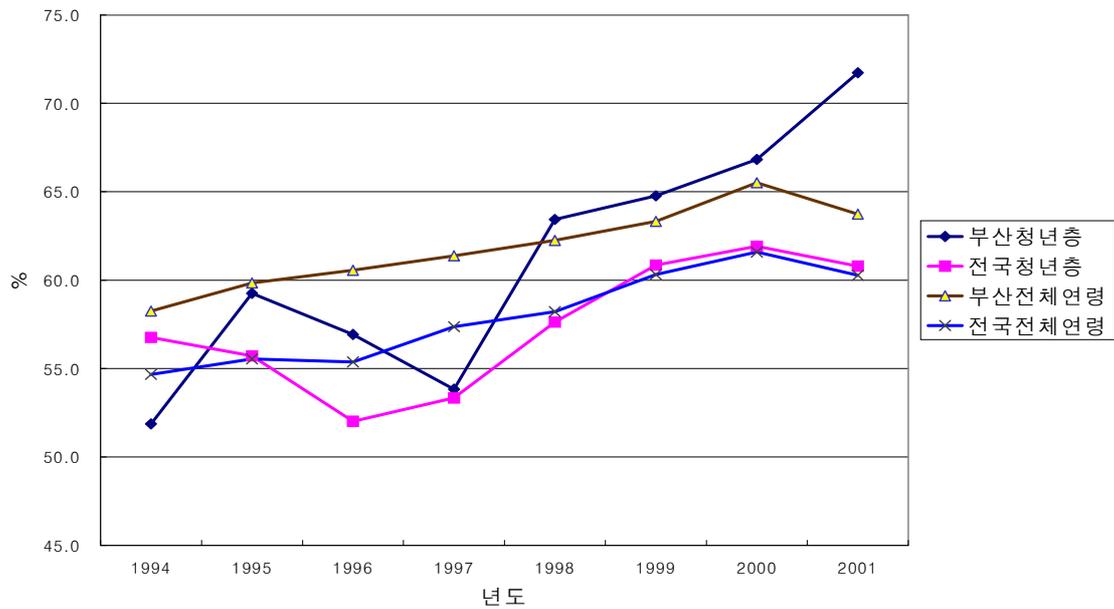


-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규모별, 산업세분류업종별 청년층 비율을 추정하고, 이 비율을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분석 결과에 적용하여 규모별, 산업세분류업종별 청년층 취업자수를 계산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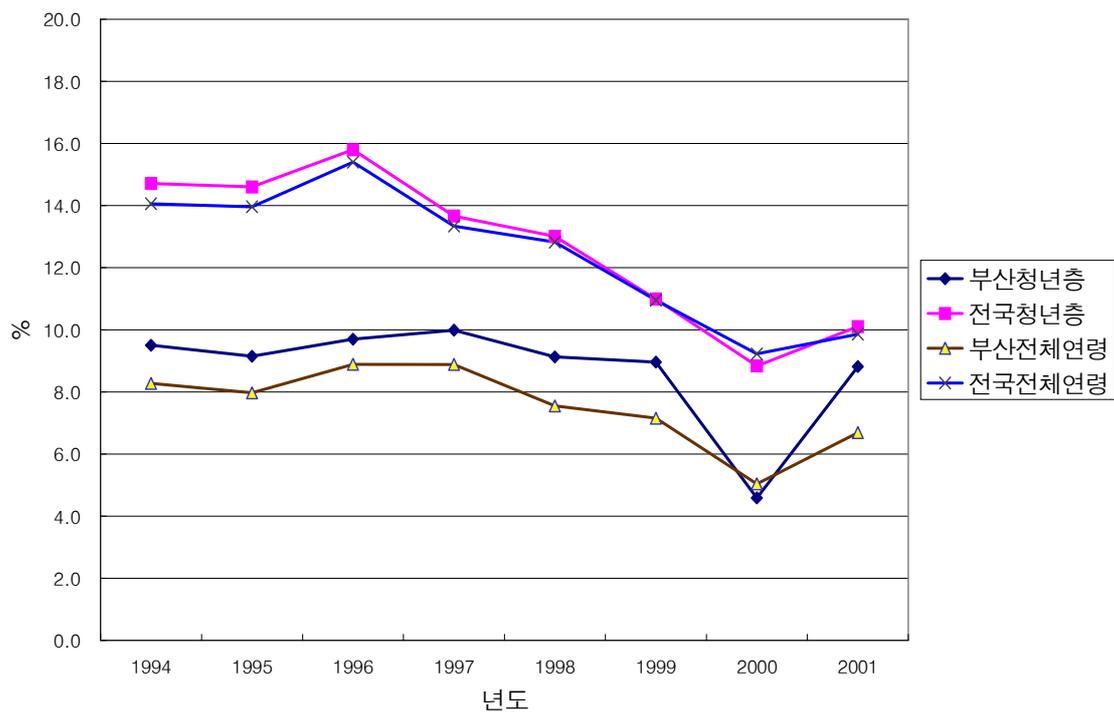
- 소규모사업체 취업자 비율이 여타 지역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림 3-9]에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 종사자 비율은 1994년에는 가장 낮았지만, 2001년에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외환위기 이후 소규모사업장 종사자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이는 부산지역 산업구조의 서비스화 추세와 부산지역청년층의 제조업 취업비율의 급감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대규모사업체에서 청년층 취업자 비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음.
 - [그림 3-10]에서 500인 이상 대규모사업체 종사자 비율은 부산지역이 여타 지역에 비해서 낮지만, 부산지역청년층의 경우, 여타 지역과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 다만 1996년 이후 추세적으로 대규모사업체에서 청년층 취업자 비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3-9] 3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의 비율



[그림 3-10] 5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의 비율



○ 현재, 부산은 2000년에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만들어, 전략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전략산업의 적용범위는 <부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음. 즉, ‘성장유망산업’으로는 향만물류산업, 관광산업, 소프트웨어산업, 금융산업, 영상산업 등이 포함되어 있고, ‘구조고도화산업’으로는 자동차부품산업, 조선기자재산업, 신발산업, 섬유패션산업, 수산가공산업 등임.

○ 한편,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의 전환에서 IT산업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부산의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이른바 기피업종(3D업종)이 많았던 것도 사실임. 따라서, [그림 3-11]~[그림 3-14]는 ‘성장유망산업’과 ‘구조고도화산업’ 그리고 IT산업과 3D업종에서의 취업자 비율 추이를 검토한 그림 들임.

○ 3D 업종이나 구조고도화산업의 취업자 비율은 크게 감소함

- [그림 3-11]에서 볼 때, 3D업종에서의 취업자수는 1994년에 23% 수준에서 2001년에 12% 수준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고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구조고도화산업에서도 취업자 비율은 15%대에서 7%대로 크게 감소하였음.

○ 성장유망산업과 IT산업에서의 취업자 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함.

- 성장유망산업에서의 취업자 비율은 8.5% 수준에서 13%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IT산업에서도 취업비율이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임.

○ 그러나, 성장유망산업과 IT산업의 결합을 통한 IT산업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요구됨.

- 즉, 전국 IT 산업취업자비율 평균이 6%에 달하는데, 부산지역청년층의 IT산업취업자비율은 2%를 약간 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 성장유망산업에서는 전국청년층 평균에 비해서 약간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부산지역의 성장산업이 IT산업 보다는 향만물류나 관광산업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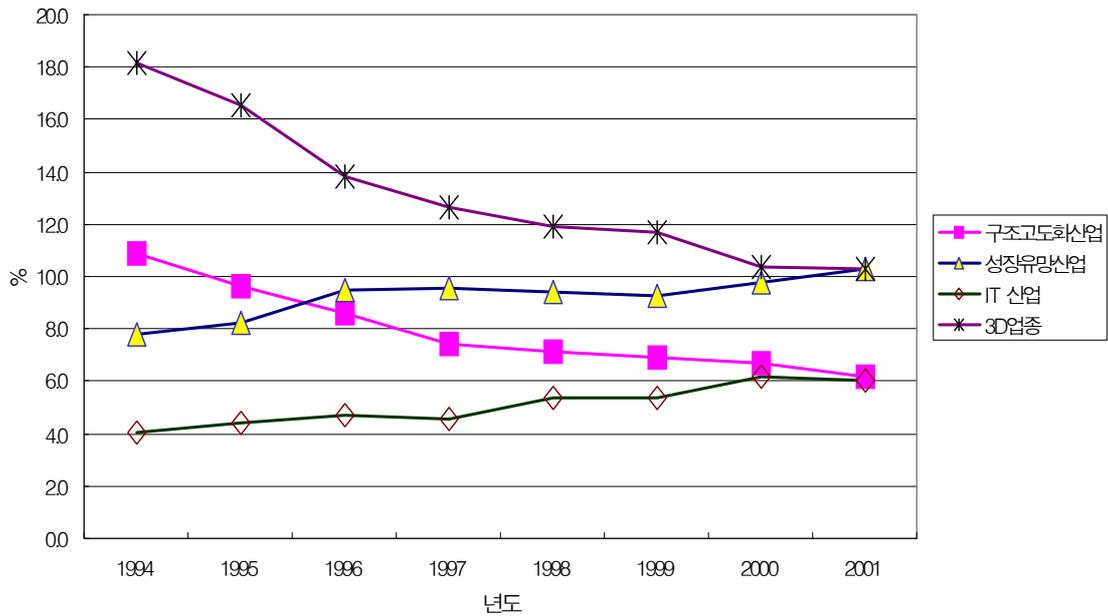
- 성장유망산업의 경우 IT산업과 결합될 때 고부가가치화할 수 있기 때문에, 부산

지역에서 IT산업의 육성과 이를 성장유망산업과 결합시키는 것 그리고 관련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과 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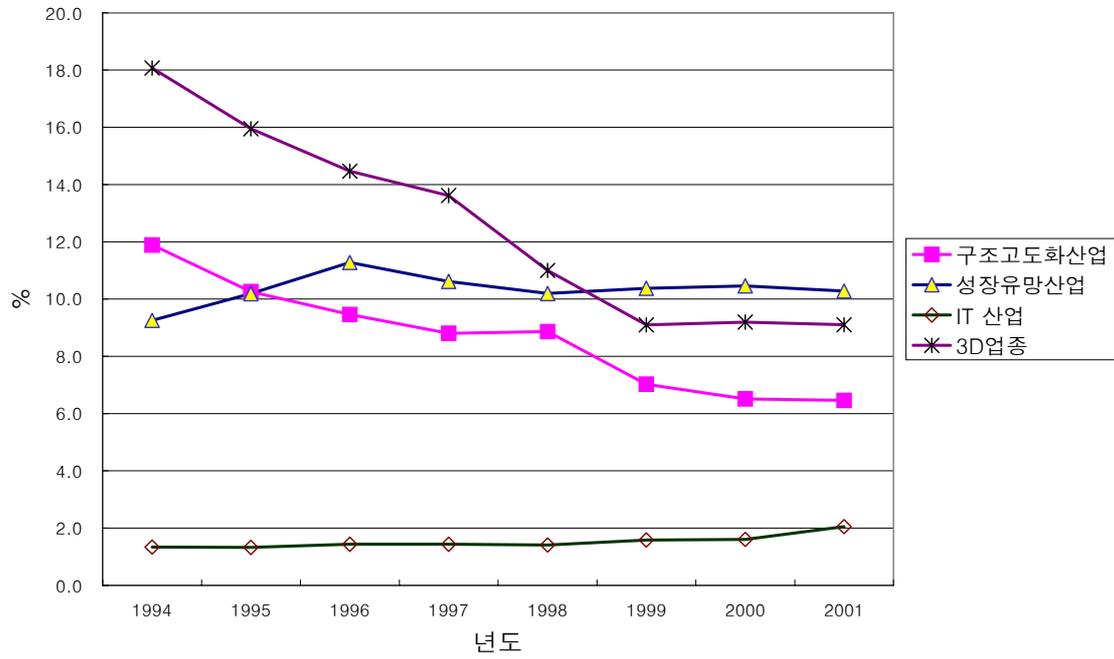
[그림 3-11] 부산지역 청년층의 주요 부문별 취업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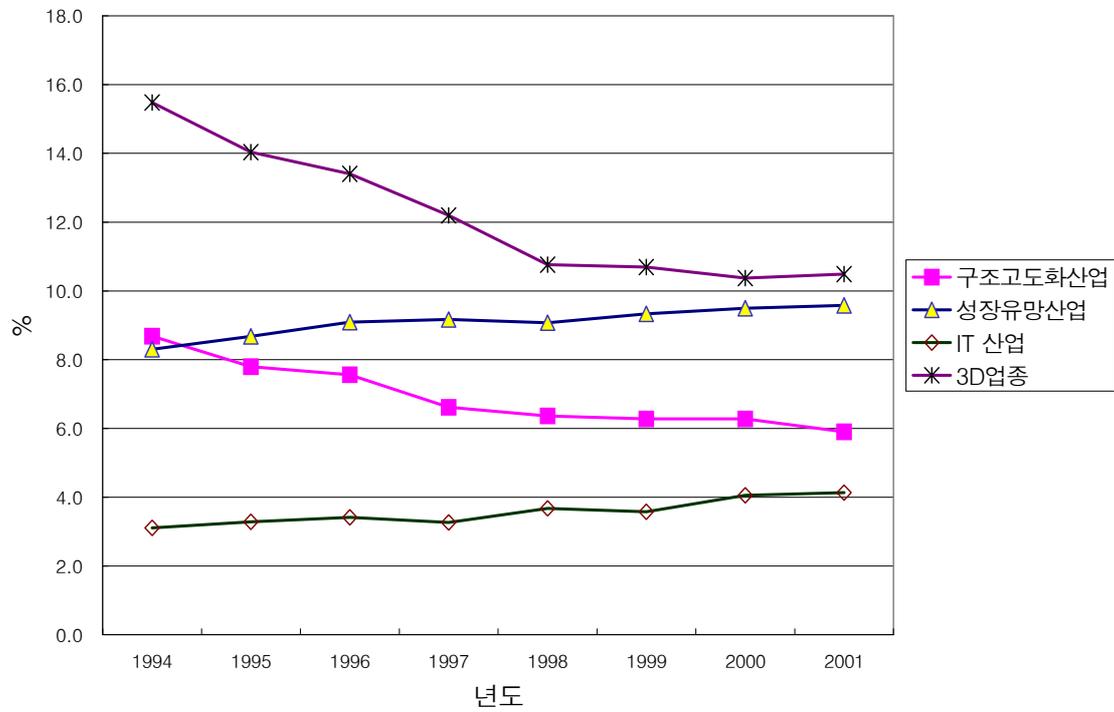
[그림 3-12] 전국 청년층의 주요 부문별 취업자 비중



[그림 3-13] 부산지역 전체 연령층의 주요 부문별 취업자 비중



[그림 3-14] 전국 전체 연령층의 주요 부문별 취업자 비중



3. 부산지역 청년층의 산업별, 직종별 노동 수요 전망

가. 방법론

- BLS의 방법론¹⁾을 이용하여 부산청년층의 인력수요 전망을 예측함.
- 부산지역 청년층의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을 위한 자료의 한계가 있음.
 - 부산지역의 총생산의 전망치가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음. [그림 3-15]에서와 같이 과거 추세를 연장해서 총생산액의 전망치를 얻을 수도 있으나 이 경우, 부산지역 GDP 증가율이 1.7%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1998년 외환위기의 충격효과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부산지역의 경우에도 향후 2001년~2010년까지의 부산지역총생산(GDP) 증가율이 전국과 동일하다는 가정에 따라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전망(2002)』에서 제시된 전망치 5.4% 성장률을 적용하기로 함.
 - 세부 업종별 생산액 전망치는 1993년부터 2001년까지 각 업종의 생산액의 과거치를 연장함으로써 얻었고, 그 전체 합이 부산지역전체생산액과 일치하도록 조정하였음.
 - 개별 업종별 과거치의 추세선에 관한 함수는 <표 3-12>에 제시되어 있고, 이러한 방법에 따라서 전망한 부산지역의 총생산액 전망치는 <표 3-13>과 같음.
 - 지역단위로 세분화된 업종별 총생산액 통계수치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서, 업종은 크게 12개 업종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사업서비스업, 사회개인서비스업, 공공행정서비스 등- 으로 구분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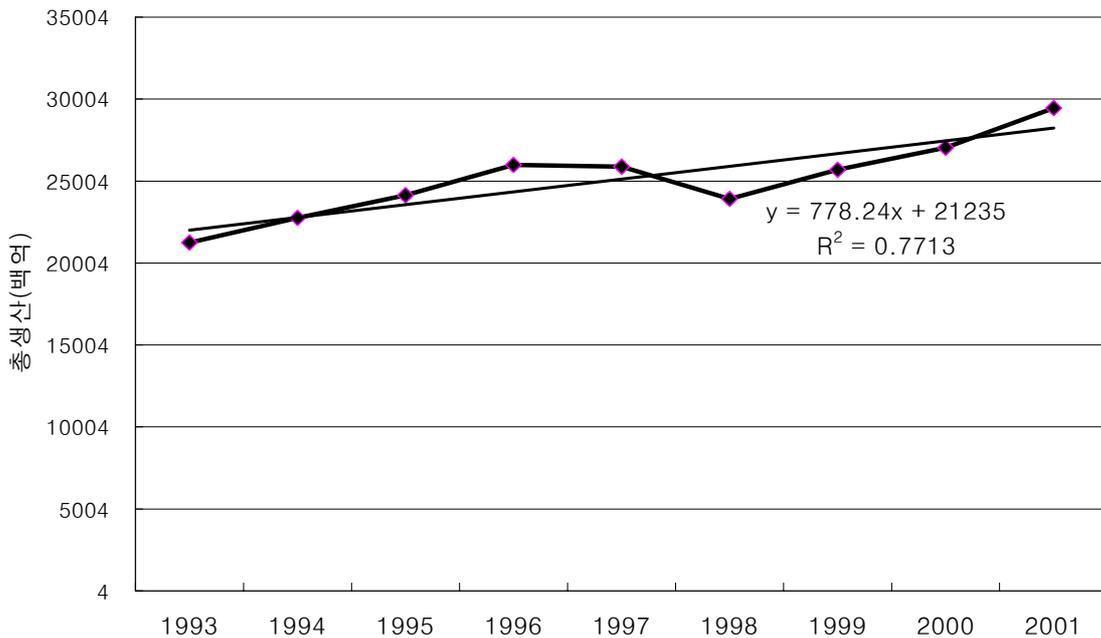
1) 인력수요 전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미국노동성(Bureau of Labor Statistics)의 인력수요 전망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장기에 걸친(10년)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여기에 산업구조모형을 바탕으로 하여 산업별 생산량 증가 전망치와 산업별 취업계수의 전망치를 구한다. 이를 기초로 하여 산업별 취업자수 전망치를 구하고 이를 총취업자 수 전망치를 제약조건으로 하여 산업별취업자수 전망치를 확정한다. 다음으로 산업별취업자수 전망치를 제약조건으로 하여 직업별 취업자수를 전망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안주엽의 『중장기인력수급전망(한국노동연구원, 2002)』에 서술되어 있는 방법들(부록1)에서 소개한다.

나. 총생산액 및 총생산증가율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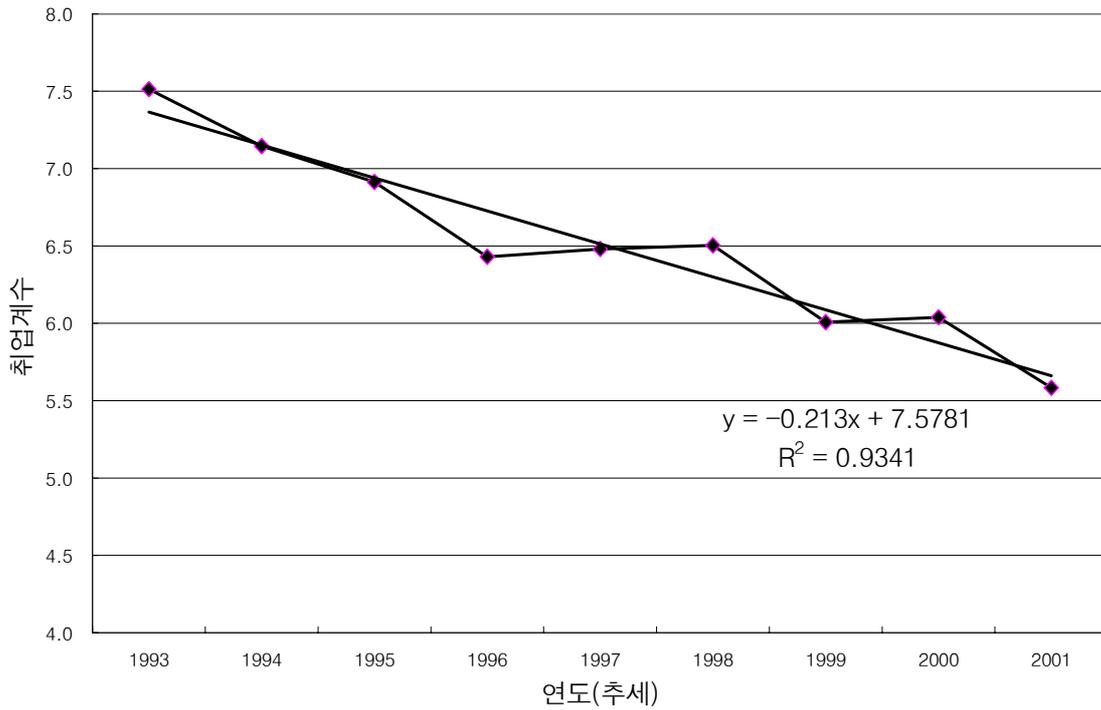
○ 부산지역 총생산액 및 총생산증가율 전망치.

- 위의 방법을 토대로 전망한 부산지역총생산액은 2001년에 약 29조4천억원이며, 2005년에는 36조3천억원, 2010년에는 47조3천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전체 총생산액증가율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5.4%임.
- 제조업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1년에서 2005년까지는 0.1%, 2005-2010년에는 2.12%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부문은 전기가스수도업으로 나타났음.
- 단, 전망치는 다부문모형을 통한 엄밀하게 추정된 전망치라기보다는 기존 추세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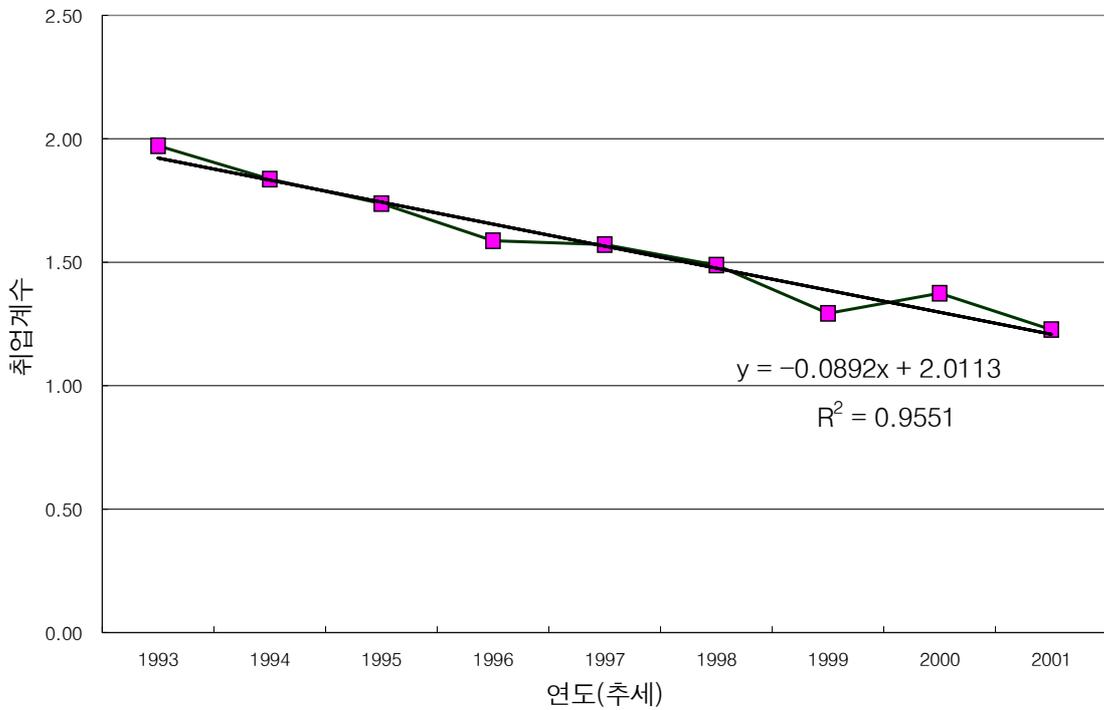
[그림 3-15] 부산지역총생산액의 추세선



[그림 3-16] 부산지역 전체 취업자 기준 취업계수의 추세선



[그림 3-17] 부산지역 청년층 기준 취업계수의 추세선



<표 3-12> 총생산액과 취업계수의 추세선의 함수

| | 총생산액(부산지역) | | 취업계수(부산지역전체) | | 취업계수(청년층) | |
|----------|------------|-------|--------------|--------|-----------|--------|
| | 절편 | 기울기 | 절편 | 기울기 | 절편 | 기울기 |
| 전체 | 21,234.5 | 778.3 | 7.578 | -0.213 | 2.011 | -0.089 |
| 농림어업 | 599.2 | 2.2 | 6.173 | -0.028 | 0.563 | -0.016 |
| 광업 | 11.2 | -1.2 | 8.607 | 0.303 | 1.965 | 0.307 |
| 제조업 | 5,187.0 | -38.2 | 9.343 | -0.206 | 2.724 | -0.169 |
| 전기가스수도업 | 170.2 | 109.7 | 3.108 | -0.344 | 0.504 | -0.062 |
| 건설업 | 2,973.5 | -71.3 | 5.570 | -0.073 | 1.084 | 0.007 |
| 도소매업 | 3,266.9 | 115.8 | 10.819 | -0.307 | 3.178 | -0.121 |
| 음식숙박업 | 665.0 | 7.8 | 17.696 | 0.605 | 3.719 | 0.093 |
| 운수창고통신업 | 1,672.2 | 402.9 | 6.118 | -0.396 | 0.920 | -0.071 |
| 금융보험업 | 1,527.7 | 32.3 | 2.986 | 0.048 | 1.336 | -0.038 |
| 사업서비스업 | 2,830.8 | 112.8 | 1.453 | 0.136 | 0.462 | 0.031 |
| 사회개인서비스업 | 1,060.5 | 72.7 | 18.150 | -0.518 | 5.366 | -0.141 |
| 공공행정서비스 | 751.1 | 8.6 | 5.379 | 0.197 | 2.043 | -0.129 |

<표 3-13> 총생산액과 취업계수의 추세선의 함수

(단위: 백억, %)

| 전체취업자 | 1993 | 1997 | 2001 | 2005 | 2010 | 2001-05 증가율 | 2005-10 증가율 |
|----------|-------|-------|-------|-------|-------|----------------|----------------|
| 전체 | 21249 | 25885 | 29459 | 36356 | 47291 | 5.40 | 5.40 |
| 농림어업 | 578 | 755 | 577 | 748 | 882 | 6.70 | 3.33 |
| 광업 | 16 | 3 | 2 | 1 | 0 | -25.7 | -7.03 |
| 제조업 | 5221 | 4987 | 5565 | 5587 | 6204 | 0.10 | 2.12 |
| 전기가스수도업 | 280 | 824 | 1058 | 1901 | 2957 | 15.79 | 9.24 |
| 건설업 | 2314 | 3040 | 2343 | 2437 | 2330 | 1.00 | -0.90 |
| 도소매업 | 3171 | 3953 | 4383 | 5684 | 7378 | 6.71 | 5.35 |
| 음식숙박업 | 652 | 754 | 771 | 912 | 1109 | 4.30 | 3.99 |
| 운수창고통신업 | 2407 | 3314 | 5842 | 8230 | 12305 | 8.95 | 8.38 |
| 금융보험업 | 1393 | 1252 | 1989 | 2319 | 2907 | 3.92 | 4.62 |
| 사업서비스업 | 2773 | 3608 | 3815 | 5118 | 6702 | 7.62 | 5.54 |
| 사회개인서비스업 | 1067 | 1466 | 1767 | 2389 | 3267 | 7.84 | 6.46 |
| 공공행정서비스 | 709 | 807 | 825 | 1028 | 1250 | 5.66 | 3.98 |

다. 부산지역의 업종별 취업자수의 전망

- 업종별 지역총생산과 업종별 취업계수의 전망치로부터 부산지역의 업종별 취업자수를 전망함²⁾.

2)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산업의 취업계수를 전망한 후 국내총생산과 곱하면 전산업의 취업자수가 전망된다. 이를 다시 개별 업종에 따라 각각 취업계수를 전망한 후 업종별 지역총생산 전망치와 곱하

○ 전산업의 취업계수³⁾ 추이

- [그림 3-16]와 [그림 3-17]는 전산업의 취업계수 추이를 나타냄.
- 이를 선형추세를 이용할 경우, 전연령층을 대상으로 할 경우,

$$(\text{취업계수}) = 7.578 - 0.213 (\text{추세}) \quad R^2 = 0.9341$$

청년층을 대상으로 할 경우,

$$(\text{취업계수}) = 2.0113 - 0.0892 (\text{추세}) \quad R^2 = 0.9551$$

로 나타났음.

- 세부 업종별 취업계수 추정을 위한 추세선의 함수는 <표 3-13>과 같음.

○ 전산업의 취업계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유지함.

- <표 3-14>와 <표 3-15>은 부산지역의 전연령계층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계수의 추이와 전망치를 보여주고 있음.
- 1993년에 7.5에 이르던 전산업의 취업계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유지하여 2005년에는 5.8, 2010년에는 3.7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됨.
- 기본적으로 노동절약적인 기술진보가 지속되고 있음.

○ 청년층의 취업계수 하락 속도가 매우 큼.

- 업종별로 볼 경우, 전연령계층의 제조업에서 하락추세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

여 업종별 취업자수를 전망하여 이로부터 얻어진 취업자 수의 합으로 나타나는 전산업취업자의 전망치와 이미 구한 전산업 취업자수의 전망치를 비교하여 제약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정성적인 수정을 한다.

3) 취업계수란 1억원의 국민소득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취업자의 수를 의미한다. 이는 노동절약적 기술진보의 정도를 나타낸다.

- 음식숙박업, 금융보험업, 사업서비스업 등의 취업계수는 오히려 약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청년층의 경우, 취업계수가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제조업의 경우 취업계수 하락 속도가 매우 빠를 것으로 전망됨.
- 물론 이러한 전망은 기존의 추세가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서 얻어진 것임.

<표 3-14> 부산지역 취업자의 취업계수 추이 및 전망

(단위: 명/1억)

|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5 | 2010 |
|----------|------|------|------|------|------|------|------|------|------|------|------|
| 전체 | 7.5 | 7.1 | 6.9 | 6.4 | 6.5 | 6.5 | 6.0 | 6.0 | 5.6 | 4.8 | 3.7 |
| 농림어업 | 5.9 | 7.3 | 6.1 | 5.4 | 4.7 | 5.9 | 6.4 | 7.0 | 5.4 | 5.8 | 5.7 |
| 광업 | 3.5 | 9.4 | 13.8 | 9.4 | 20.3 | 5.6 | 6.7 | 13.1 | 17.1 | 12.5 | 14.1 |
| 제조업 | 9.4 | 8.9 | 8.4 | 7.9 | 7.9 | 9.1 | 8.6 | 7.9 | 6.7 | 6.7 | 5.6 |
| 전기가스수도업 | 2.6 | 2.6 | 2.9 | 1.2 | 1.2 | 0.5 | 0.5 | 0.4 | 0.4 | -1.4 | -3.1 |
| 건설업 | 6.0 | 5.6 | 5.2 | 4.9 | 5.0 | 4.4 | 5.1 | 5.6 | 5.0 | 4.6 | 4.3 |
| 도소매업 | 10.6 | 10.3 | 9.6 | 9.2 | 9.5 | 9.6 | 8.3 | 8.5 | 7.9 | 6.8 | 5.3 |
| 음식숙박업 | 18.7 | 19.2 | 19.3 | 18.6 | 19.6 | 23.5 | 22.9 | 22.3 | 22.4 | 25.6 | 28.6 |
| 운수창고통신업 | 5.5 | 5.0 | 5.3 | 4.9 | 4.5 | 3.5 | 3.0 | 2.9 | 2.6 | 1.0 | -1.0 |
| 금융보험업 | 3.2 | 2.5 | 2.6 | 2.7 | 4.3 | 4.7 | 3.5 | 3.1 | 2.5 | 3.6 | 3.9 |
| 사업서비스업 | 1.7 | 1.7 | 1.8 | 2.0 | 2.2 | 2.0 | 1.8 | 3.7 | 2.2 | 3.2 | 3.9 |
| 사회개인서비스업 | 18.5 | 16.8 | 16.4 | 16.2 | 16.0 | 14.3 | 12.6 | 14.4 | 14.9 | 11.4 | 8.8 |
| 공공행정서비스 | 6.3 | 6.1 | 5.2 | 5.1 | 5.1 | 7.5 | 8.7 | 0.0 | 6.3 | 7.9 | 8.9 |

<표 3-15> 부산지역 청년 취업자의 취업계수 추이 및 전망

(단위: 명/10억)

|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5 | 2010 |
|----------|------|------|------|------|------|------|------|------|------|------|------|
| 전체 | 1.97 | 1.84 | 1.74 | 1.59 | 1.57 | 1.49 | 1.29 | 1.37 | 1.23 | 0.9 | 0.4 |
| 농림어업 | 0.47 | 0.75 | 0.65 | 0.29 | 0.25 | 0.44 | 0.64 | 0.46 | 0.41 | 0.4 | 0.3 |
| 광업 | 0.20 | 0.00 | 3.85 | 0.00 | 8.54 | 2.29 | 1.69 | 0.00 | 0.00 | 6.0 | 7.5 |
| 제조업 | 2.73 | 2.35 | 2.12 | 1.90 | 1.76 | 1.90 | 1.61 | 1.40 | 1.15 | 0.5 | -0.3 |
| 전기가스수도업 | 0.30 | 0.58 | 0.51 | 0.16 | 0.09 | 0.01 | 0.00 | 0.06 | 0.05 | -0.3 | -0.6 |
| 건설업 | 1.12 | 1.20 | 1.01 | 1.04 | 1.04 | 1.12 | 1.23 | 1.31 | 1.01 | 1.2 | 1.2 |
| 도소매업 | 2.94 | 2.97 | 2.84 | 2.68 | 2.67 | 2.61 | 2.17 | 2.30 | 1.97 | 1.6 | 1.0 |
| 음식숙박업 | 4.26 | 4.30 | 3.85 | 3.40 | 3.83 | 3.89 | 4.53 | 4.72 | 4.88 | 4.9 | 5.4 |
| 운수창고통신업 | 0.82 | 0.72 | 0.75 | 0.68 | 0.70 | 0.44 | 0.31 | 0.33 | 0.32 | -0.0 | -0.4 |
| 금융보험업 | 1.23 | 1.01 | 1.08 | 1.00 | 1.79 | 1.68 | 1.10 | 0.84 | 0.62 | 0.8 | 0.7 |
| 사업서비스업 | 0.52 | 0.50 | 0.51 | 0.60 | 0.68 | 0.64 | 0.54 | 0.90 | 0.66 | 0.9 | 1.0 |
| 사회개인서비스업 | 5.86 | 4.99 | 4.80 | 4.76 | 4.66 | 3.92 | 3.27 | 4.88 | 4.80 | 3.5 | 2.8 |
| 공공행정서비스 | 1.75 | 1.79 | 1.69 | 1.63 | 1.46 | 1.28 | 1.33 | 0.00 | 0.66 | 0.4 | -0.3 |

라. 산업별 취업자수 전망 결과

- 산업별 취업자수 전망 결과, 장기적으로 취업증가율이 낮을 것으로 전망됨.
 - <표 3-16>과 <표 3-17>은 산업별 취업자수를 전망한 것임.
 - 전체 취업자 수는 2001년 현재 164만5천명에서 2005년에 174만8천명, 2010년에 177만7천명으로 2001~2005년간 약 10만4천개, 2005~2010년에 약 2만2천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됨.
 - 각 기간중의 취업자증가율은 2001~2005년간 1.54%이고, 2005~2010년간은 0.25%로 전망됨.
 - 전반적으로 평가해볼 때, 2001~2005년간의 취업자 증가율은 한국개발연구원이 전망한 전국 취업자 증가율 1.17% 수준보다 약간 높은 수치이지만, 2005~2010년간의 취업자 증가율은 전국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를 크게 하회함.⁴⁾
 - 즉, 부산지역의 총생산액이 전국평균과 동일한 비율로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산업구조의 변화나 기술변화라는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취업증가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부산지역의 경우, 고용을 동반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됨.

-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청년취업자 수는 2001년 현재 36만1천명에서 2005년에 31만, 2010년에 19만2천명으로 2001~2005년간 약 5만2천개, 2005~2010년에 약 11만8천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됨.
 - 각 기간중의 취업자증가율은 2001~2005년간 -3.8%이고, 2005~2010년간은 -9.15%로 전망됨.
 - 전체 부산지역 취업자증가율에 비추어볼 때, 청년층 일자리 부족의 문제는 매우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됨.
 - 업종별로 볼 경우,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 절대 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되고

4) 이러한 전망치는 부산지역의 성장률이 연평균 5.4%씩 증가하고, 산업구조의 변화(업종별 생산액 구조의 변화) 및 기술진보(취업계수)가 기존 추세대로 유지될 경우의 전망치들이다.

있고, 그 다음으로 운수창고통신업, 도소매업, 사회개인서비스업 등에서도 일자리 감소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표 3-16> 부산지역 업종별 취업자 추이 및 전망

| 전체취업자 | 1993 | 1997 | 2001 | 2005 | 2010 | 2001-05 증가율 | 2005-10 증가율 | 2001-05 증가수 | 2005-10 증가수 |
|---------|------|------|------|------|------|----------------|----------------|----------------|----------------|
| 전체 | 1596 | 1678 | 1645 | 1748 | 1770 | 1.54 | 0.25 | 104 | 22 |
| 농림어업 | 34 | 36 | 31 | 41 | 44 | 7.28 | 1.08 | 10 | 2 |
| 광업 | 1 | 1 | 0 | 0 | 0 | | | 0 | 0 |
| 제조업 | 491 | 396 | 372 | 355 | 306 | -1.15 | -2.93 | -17 | -49 |
| 전기가스수도업 | 7 | 10 | 5 | 0 | 0 | -55.80 | -6.52 | -5 | 0 |
| 건설업 | 139 | 152 | 118 | 108 | 87 | -2.29 | -4.15 | -10 | -21 |
| 도소매업 | 336 | 377 | 344 | 370 | 342 | 1.83 | -1.58 | 26 | -28 |
| 음식숙박업 | 122 | 148 | 173 | 222 | 278 | 6.51 | 4.54 | 50 | 55 |
| 운수창고통신업 | 133 | 149 | 153 | 76 | 36 | -16.17 | -13.87 | -78 | -40 |
| 금융보험업 | 44 | 53 | 49 | 80 | 98 | 12.91 | 4.19 | 31 | 18 |
| 사업서비스업 | 48 | 81 | 84 | 158 | 229 | 17.06 | 7.81 | 74 | 72 |
| 사회개인서비스 | 198 | 235 | 315 | 338 | 350 | 1.76 | 0.71 | 23 | 12 |
| 공공행정서비스 | 45 | 41 | | | | | | | |

주: 2001년의 경우, 공공행정서비스는 사회개인서비스 부문에 통합되었음.

<표 3-17> 부산지역 업종별 청년층 취업자 추이 및 전망

(단위: 천 명, %)

| | 1993 | 1997 | 2001 | 2005 | 2010 | 2001-05 증가율 | 2005-10 증가율 | 2001-05 증가수 | 2005-10 증가수 |
|---------|------|------|------|------|------|----------------|----------------|----------------|----------------|
| 전체 | 419 | 407 | 361 | 310 | 192 | -3.80 | -9.15 | -52 | -118 |
| 농림어업 | 3 | 2 | 2 | 2 | 1 | 0.04 | -10.94 | 0 | -1 |
| 광업 | 0 | 0 | 0 | 0 | 0 | | | 0 | 0 |
| 제조업 | 142 | 88 | 64 | 26 | 3 | -20.12 | -33.56 | -38 | -23 |
| 전기가스수도업 | 1 | 1 | 0 | 0 | 0 | -56.62 | -0.92 | 0 | 0 |
| 건설업 | 26 | 32 | 24 | 25 | 15 | 1.82 | -9.59 | 2 | -10 |
| 도소매업 | 93 | 106 | 86 | 81 | 40 | -1.68 | -13.14 | -6 | -41 |
| 음식숙박업 | 28 | 29 | 38 | 40 | 33 | 1.52 | -3.95 | 2 | -7 |
| 운수창고통신업 | 20 | 23 | 19 | 3 | 1 | -37.29 | -25.50 | -16 | -2 |
| 금융보험업 | 17 | 22 | 12 | 17 | 10 | 9.19 | -9.74 | 5 | -7 |
| 사업서비스업 | 15 | 25 | 25 | 39 | 37 | 11.84 | -1.05 | 14 | -2 |
| 사회개인서비스 | 63 | 68 | 85 | 75 | 50 | -3.06 | -7.65 | -10 | -25 |
| 공공행정서비스 | 12 | 12 | | | | | | | |

주: 2001년의 경우, 공공행정서비스는 사회개인서비스 부문에 통합되었음.

마. 직종별 취업자수 전망 결과⁵⁾

○ 부산지역의 일자리가 양극화 될 가능성이 큼.

- <표 3-18>과 <표 3-19>는 부산지역 직종별 취업자 수 추이 및 전망임.
- 기능원이나 조립원 등 생산직의 규모가 크게 감소할 것이고, 특히 조립원의 감소율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즉, 생산직에서 2001-2005년까지 약 8만1천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5-2010년까지 약 7만2천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됨.
- 반면, 단순직, 준전문직이나 판매서비스직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됨.
- 즉, 부산지역의 경우에도, 일자리가 크게 양극화될 전망이 강한 것으로 예상됨.

○ 청년층도 생산직의 인력감소가 예상됨.

- 청년층도, 거의 전업종에서 취업자수 감소가 예상되며, 그 중에서도 역시 기능원이나 조립원 등 생산직의 인력감소가 매우 뚜렷하게 진전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준전문직 등에서 2001-2005년간에는 취업자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5) 직종별 취업자수 전망은 산업-직종 취업행렬의 산업직업별 취업자비율의 전망치를 구하고, 여기에 산업별 취업자수를 곱하여 산업-직종별 취업자 수를 전망하고, 이것을 직종별로 합하면 직종별 취업자 수 전망이 이루어진다. 다만, 산업-직종별 취업자 수 전망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산업 12자리와 직종 9자리 대분류를 사용하였음에도, 특정 셀의 경우 missing인 데이터가 매우 많다. 따라서 각 셀별로 추세선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였고, 이런 경우에는 전체 취업자의 증가율을 대용 변수로 사용하였다.

<표 3-18> 부산지역 직종별 취업자 추이 및 전망

(단위: 천 명, %)

| 전체취업자 | 1993 | 1997 | 2001 | 2005 | 2010 | 2001-05 증가율 | 2005-10 증가율 | 2001-05 증가수 | 2005-10 증가수 |
|--------|-------|-------|-------|-------|-------|----------------|----------------|----------------|----------------|
| 전체 | 1,596 | 1,678 | 1,645 | 1,748 | 1,770 | 1.54 | 0.25 | 104 | 22 |
| 관리직 | 46 | 51 | 33 | 34 | 28 | 0.43 | -3.43 | 1 | -5 |
| 전문직 | 68 | 69 | 95 | 97 | 102 | 0.57 | 0.99 | 2 | 5 |
| 준전문직 | 105 | 160 | 130 | 183 | 210 | 8.86 | 2.84 | 53 | 27 |
| 사무직 | 223 | 206 | 194 | 214 | 220 | 2.52 | 0.49 | 20 | 5 |
| 판매서비스직 | 384 | 437 | 499 | 535 | 580 | 1.79 | 1.62 | 37 | 45 |
| 농림어업직 | 25 | 25 | 22 | 30 | 32 | 8.80 | 1.02 | 9 | 2 |
| 기능원 | 286 | 346 | 303 | 275 | 239 | -2.37 | -2.78 | -28 | -36 |
| 조립원 | 276 | 168 | 211 | 158 | 122 | -7.01 | -5.01 | -53 | -36 |
| 단순직 | 183 | 216 | 158 | 222 | 237 | 8.85 | 1.36 | 64 | 15 |

<표 3-19> 부산지역 직종별 청년층 취업자 추이 및 전망

(단위: 천 명, %)

| 전체취업자 | 1993 | 1997 | 2001 | 2005 | 2010 | 2001-05 증가율 | 2005-10 증가율 | 2001-05 증가수 | 2005-10 증가수 |
|--------|------|------|------|------|------|----------------|----------------|----------------|----------------|
| 전체 | 419 | 407 | 361 | 310 | 192 | -3.80 | -9.14 | -52 | -118 |
| 관리직 | 1 | 1 | 1 | 1 | 1 | -8.56 | -7.00 | 0 | 0 |
| 전문직 | 18 | 15 | 33 | 23 | 16 | -7.97 | -7.68 | -9 | -8 |
| 준전문직 | 47 | 62 | 47 | 55 | 37 | 3.77 | -7.62 | 8 | -18 |
| 사무직 | 124 | 124 | 81 | 77 | 50 | -1.20 | -8.37 | -4 | -27 |
| 판매서비스직 | 82 | 86 | 97 | 85 | 54 | -3.37 | -8.47 | -12 | -30 |
| 농림어업직 | 2 | 1 | 2 | 1 | 1 | -8.37 | -13.00 | -1 | -1 |
| 기능원 | 61 | 61 | 47 | 31 | 16 | -9.83 | -12.83 | -16 | -15 |
| 조립원 | 64 | 27 | 30 | 15 | 5 | -16.18 | -17.89 | -15 | -9 |
| 단순직 | 18 | 29 | 24 | 22 | 12 | -2.41 | -10.50 | -2 | -9 |

4. 부산지역 청년층 노동수요 실태 조사 결과

- 부산지역의 청년층 노동수요의 현황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2003년 10월 중에 부산시청의 지원을 받아 사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함.
 - 통계청의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2001년 사업체 조사를 모집단으로 하여, 규모별(규모4분류), 업종별(업종 2자리)로 사업체를 노동부의 『고용보험DB』로부터 층화추출하여 조사를 함.
 - 전체 표본 5,380의 14.1%인 760개가 응답하였고, 업종별 분포표는 아래와 같음.
 - 설문지는 부록에 있는 대로 이루어졌으나, 많은 설문에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요 분석 대상은 청년층 채용현황, 직업별 인력수요 전망, 교육훈련 및 인적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제한되었음.
 - 또한, 표본수가 작아, 업종별로 구분해서보거나, 시장점유율이나 협력업체-모기업 여부, 외국인투자 여부 등에 따라서 구분해서 분석하기가 어려웠고, 투자현황같은 설문도 (+)와 (-)가 구분되지 않아 사용하기가 어려웠음.

| 중분류 | | 대상업체 | 대상업체비율 | 참여업체 | 참여업체비율 | 참여율 |
|-----|------------------------|------|---------|------|---------|-------|
| 10 | 석탄광업 | 1 | (0.0) | 1 | (0.1) | 100.0 |
| 14 | 기타 광업 및 채석업 | 5 | (0.1) | 1 | (0.1) | 20.0 |
| 15 | 음식료품 제조업 | 119 | (2.2) | 19 | (2.5) | 16.0 |
| 17 | 섬유제품 제조업 | 191 | (3.6) | 28 | (3.7) | 14.7 |
| 18 |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134 | (2.5) | 13 | (1.7) | 9.7 |
| 19 |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제조업 | 161 | (3.0) | 18 | (2.4) | 11.2 |
| 20 |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제외) | 26 | (0.5) | 1 | (0.1) | 3.9 |
| 21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 27 | (0.5) | 4 | (0.5) | 14.8 |
| 22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48 | (0.9) | 9 | (1.2) | 18.8 |
| 23 |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 2 | (0.0) | 0 | 0.0 | 0.0 |
| 24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76 | (1.4) | 7 | (0.9) | 9.2 |
| 25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110 | (2.0) | 18 | (2.4) | 16.4 |
| 26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42 | (0.8) | 4 | (0.5) | 9.5 |
| 27 | 제1차 금속산업 | 115 | (2.1) | 16 | (2.1) | 13.9 |
| 28 | 조립금속제품제조업(기계 및 장비제조업) | 214 | (4.0) | 25 | (3.3) | 11.7 |
| 29 | NEC 기계 및 장비제조업 | 319 | (5.9) | 49 | (6.4) | 15.4 |
| 30 |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제조업 | 11 | (0.2) | 2 | (0.3) | 18.2 |
| 31 | NEC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 96 | (1.8) | 14 | (1.8) | 14.6 |
| 32 |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59 | (1.1) | 6 | (0.8) | 10.2 |
| 33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29 | (0.5) | 11 | (1.4) | 37.9 |
| 34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148 | (2.8) | 18 | (2.4) | 12.2 |
| 35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99 | (1.8) | 15 | (2.0) | 15.2 |
| 36 | 가구 및 기타 제조업 | 73 | (1.4) | 16 | (2.1) | 21.9 |
| 37 | 채생재료 가공 처리업 | 6 | (0.1) | 0 | 0.0 | 0.0 |
| 40 | 전기, 가스 및 증기업 | 10 | (0.2) | 3 | (0.4) | 30.0 |
| 45 | 건설업 | 490 | (9.1) | 42 | (5.5) | 8.6 |
| 50 | 자동차 판매, 수리 및 차량연료 소매업 | 104 | (1.9) | 11 | (1.4) | 10.6 |
| 51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468 | (8.7) | 53 | (7.0) | 11.3 |
| 52 | 소매 및 소비용품 수선업(자동차 제외) | 135 | (2.5) | 17 | (2.2) | 12.6 |
| 55 | 숙박 및 음식점업 | 79 | (1.5) | 11 | (1.4) | 13.9 |
| 60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171 | (3.2) | 49 | (6.4) | 28.7 |
| 61 | 수상 운송업 | 81 | (1.5) | 8 | (1.1) | 9.9 |
| 62 | 항공 운송업 | 1 | (0.0) | 0 | 0.0 | 0.0 |
| 63 |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 200 | (3.7) | 32 | (4.2) | 16.0 |
| 64 | 통신업 | 24 | (0.4) | 7 | (0.9) | 29.2 |
| 65 | 금융업 | 124 | (2.3) | 24 | (3.2) | 19.4 |
| 66 | 보험 및 연금업 | 3 | (0.1) | 0 | 0.0 | 0.0 |
| 67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4 | (0.1) | 1 | (0.1) | 25.0 |
| 70 | 부동산업 | 236 | (4.4) | 28 | (3.7) | 11.9 |
| 71 |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 11 | (0.2) | 1 | (0.1) | 9.1 |
| 72 |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 | 64 | (1.2) | 10 | (1.3) | 15.6 |
| 73 | 연구 및 개발업 | 6 | (0.1) | 2 | (0.3) | 33.3 |
| 74 |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 346 | (6.4) | 59 | (7.8) | 17.1 |
| 75 | 공공행정 | 60 | (1.1) | 17 | (2.2) | 28.3 |
| 80 | 교육서비스업 | 214 | (4.0) | 26 | (3.4) | 12.2 |
| 85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257 | (4.8) | 32 | (4.2) | 12.5 |
| 90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72 | (1.3) | 11 | (1.4) | 15.3 |
| 91 | 회원단체 | 38 | (0.7) | 12 | (1.6) | 31.6 |
| 92 |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 41 | (0.8) | 7 | (0.9) | 17.1 |
| 93 | 기타 서비스업 | 30 | (0.6) | 2 | (0.3) | 6.7 |
| | | 5380 | (100.0) | 760 | (100.0) | 14.1 |

가. 채용

- 청년층의 정시채용 비율은 높은 편임.
 - <표 3-20>를 보면, 정시채용비율이 50% 이상인 사업체의 비중은 39.6%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고, 청년층의 경우 47.2%로 청년층의 경우 아직도 정시채용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업종별로 볼 경우, 정시채용이 높은 업종은 사회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등이고 광공업이나 사업서비스업 등은 정시채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광공업과 개인서비스업 등에서 채용규모가 가장 큼.
 - <표 3-21>은 2003년 및 향후 2-3년간 정규직 채용의 예상 규모에 대한 설문 결과임.
 - 무응답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채용 규모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분야별로 볼 경우, 광공업과 개인서비스업 등에서 채용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04년이나 2005년의 경우도 비슷함.

- 상대적으로 청년층에게 고용이 양호한 분야는 광공업과 사회서비스업임.
 - 2003년의 경우 광공업과 사회서비스업 부문의 청년층 채용비중이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광공업과 사업서비스업 등이 청년층의 채용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됨. (<표 3-21>참조)
 - 규모별로 볼 경우, 2003년에는 200인 이상 기업에서 청년층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유리하지만, 2004년이나 2005년 향후 2-3년 후에는 2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청년층 채용 계획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장기적으로 광공업과 건설업, 사업서비스업 등에서 청년채용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표 3-22>를 보면 2003년의 경우 청년층 채용 비중이 높은 업종은 광공업과 서비스업 등이지만, 2004년이나 2005년에는 광공업과 건설업, 사업서비스업 등에서 청년채용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규모별로 볼 경우에도 2003년에는 2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청년채용비중이 높았지만, 2004년과 2005년에는 200인 미만 사업체에서 청년채용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향후 청년층 채용은 여전히 제조업에서 청년층 채용에 대한 수요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업서비스영역에서도 청년층 채용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앞에서 본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인력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서의 채용 수요가 많은 것은 제조업에 기피업종들이 많아서 청년층들이 입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이 때문에 구인요구가 더 크고 이것이 설문조사에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인력수급 전망에 따라 제조업의 일자리가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책적으로는 제조업과 사업서비스 영역에서의 청년층의 일자리 매칭이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판단됨.

<표 3-20> 정시채용 비율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

| | 정시채용비율이 50%이상인 사업체의 비율(%) | 청년층 정시채용비율이 50%이상인 사업체의 비율(%) |
|--------|------------------------------|----------------------------------|
| 전체 | 39.6 | 47.2 |
| 광공업 | 29.3 | 39.7 |
| 건설업 | 40.0 | 50.0 |
| 사업서비스업 | 40.3 | 56.9 |
| 개인서비스업 | 49.6 | 46.4 |
| 사회서비스업 | 53.1 | 62.8 |

<표 3-21> 향후 채용계획에 대한 업종별, 규모별 현황

(단위, %)

| | 2003 | | 2004 | | 2005 | |
|-----------|-------|-------|-------|-------|-------|-------|
| | 전체채용 | 청년층채용 | 전체채용 | 청년층채용 | 전체채용 | 청년층채용 |
|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광공업 | 36.3 | 39.6 | 36.7 | 45.3 | 38.0 | 43.3 |
| 건설업 | 7.6 | 4.9 | 4.0 | 4.4 | 4.4 | 4.4 |
| 사업서비스업 | 10.3 | 10.9 | 8.8 | 11.7 | 11.2 | 14.3 |
| 개인서비스업 | 32.8 | 28.7 | 42.8 | 34.2 | 39.9 | 33.5 |
| 사회서비스업 | 13.0 | 16.0 | 7.7 | 4.5 | 6.5 | 4.5 |
|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200인미만사업체 | 78.5 | 72.2 | 80.8 | 83.6 | 80.8 | 85.1 |
| 200인이상사업체 | 21.5 | 27.8 | 19.2 | 16.4 | 19.2 | 14.9 |

<표 3-22> 전체 예상 채용인원 계획에서 청년층 채용인원의 비중

| | 2003 | 2004 | 2005 |
|-----------|------|------|------|
| 전체 | 30.7 | 35.9 | 38.1 |
| 광공업 | 33.5 | 44.3 | 43.4 |
| 건설업 | 19.9 | 39.1 | 38.2 |
| 사업서비스업 | 32.3 | 47.5 | 48.8 |
| 개인서비스업 | 26.8 | 28.6 | 32.0 |
| 사회서비스업 | 37.9 | 21.1 | 26.1 |
| 200인미만사업체 | 28.4 | 37.0 | 39.9 |
| 200인이상사업체 | 40.0 | 30.7 | 29.6 |

○ 대졸 초임은 사회서비스업 부문이 높고, 개인서비스업 부문이 낮음.

- <표 3-23>을 보면, 대졸청년층초임은 월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이 30.8% 정도이고, 월 150만원 이상이 6.6%에 불과함.
- 대졸초임이 높은 업종은 사회서비스업 부문인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서비스업 부문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고졸 초임도 사회서비스업 부문이 높고, 개인서비스업 부문이 낮음.

- 고졸초임의 경우에는 100만원 미만이 64.6%로 과반수를 넘는 반면, 125만원을 넘는 사업체는 매우 드물어 6.2%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고졸초임의 경우에도, 사업서비스업의 경우가 고임금사업체가 많은 반면, 개입서비스업에서 저임금사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23> 사업체별 대졸청년층 초임 비율

| | 무응답 | 50만원 미만 | 75-100만원 | 100-125만원 | 125-150만원 | 150만원 이상 | 무응답 | 전체 |
|------|--------|----------|-----------|-----------|-----------|----------|----------|------------|
| 대졸초임 | 광공업 | 3(1.0) | 88(29.8) | 113(38.3) | 36(12.2) | 16(5.4) | 39(13.2) | 295(100.0) |
| | 건설업 | 1(2.4) | 11(26.2) | 17(40.5) | 9(21.4) | 1(2.4) | 3(7.1) | 42(100.0) |
| | 사업서비스업 | 4(3.1) | 33(25.8) | 41(32.0) | 21(16.4) | 10(7.8) | 19(14.8) | 128(100.0) |
| | 개인서비스업 | 11(5.0) | 65(29.6) | 80(36.4) | 25(11.4) | 15(6.8) | 24(10.9) | 220(100.0) |
| | 사회서비스업 | 2(2.7) | 16(21.3) | 29(38.7) | 12(16.0) | 8(10.7) | 8(10.7) | 75(100.0) |
| | 전체 | 21(2.8) | 213(28.0) | 280(36.8) | 103(13.6) | 50(6.6) | 93(12.2) | 760(100.0) |
| 고졸초임 | 광공업 | 35(11.9) | 174(59.0) | 49(16.6) | 13(4.4) | 1(0.3) | 23(7.8) | 295(100.0) |
| | 건설업 | 6(14.3) | 23(54.8) | 9(21.4) | 1(2.4) | 1(2.4) | 2(4.8) | 42(100.0) |
| | 사업서비스업 | 18(14.1) | 59(46.1) | 28(21.9) | 5(3.9) | 2(1.6) | 16(12.5) | 128(100.0) |
| | 개인서비스업 | 34(15.5) | 109(49.6) | 45(20.5) | 11(5.0) | 4(1.8) | 17(7.7) | 220(100.0) |
| | 사회서비스업 | 6(8.0) | 27(36.0) | 19(25.3) | 6(8.0) | 3(4.0) | 14(18.7) | 75(100.0) |
| | 전체 | 99(13.0) | 392(51.6) | 150(19.7) | 36(4.7) | 11(1.5) | 72(9.5) | 760(100.0) |

나. 직업별 인력 수요 전망

○ 가장 종사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한 직업은 ‘일반 사무직’임.

- <표 3-24>를 보면 가장 종사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한 직업은 예상과 달리 ‘일반 사무직’이었음. 앞 절의 수급전망에서는 일반사무직보다는 준전문직, 단순직, 판매서비스직 등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설문조사 결과는 이와 약간 다르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주로 생산직과 단순직 등이었고, 일부 컴퓨터전문가와 공학전문가 등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였음.
- 그러나 청년층의 경우, 일반사무직 다음으로는 서비스나 제조 관련 단순직, 생산직(조립원, 운전원), 도소매판매직 등으로 나타남.
- 이러한 응답 결과는 앞에서 제조업이 채용예상인원에서 앞서고 있다는 분석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사업체들이 이들 구인난 대상 직종이 향후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데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판단됨.

<표 3-24> 향후 3년간 종사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

| | 사업체 수 기준 | 2005년 예상 총인원 기준 | 2005년 예상 청년층 인원 기준 |
|-----|------------|--------------------|-----------------------|
| 1위 | 일반사무직 | 일반사무직 | 일반사무직 |
| 2위 | 컴퓨터전문가 |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 | 서비스 관련단순직 |
| 3위 | 공학준전문가 | 제조관련단순직 | 제조관련단순직 |
| 4위 | 제조관련단순직 | 서비스 관련단순직 | 생산직(조립원) |
| 5위 | 도소매판매직 | 교육전문가 | 도소매판매직 |
| 6위 | 생산직(기계조작원) | 생산직(기계조작원) | 생산직(운전원) |
| 7위 | 공학전문가 | 생산직(조립원) | 보건 의료준전문가 |
| 8위 | 생산직(금속기계) | 공학준전문가 | 공학준전문가 |
| 9위 | 생산직(조립원) | 생산직(기타기능원) | 생산직(기계조작원) |
| 10위 | 생산직(기타기능원) | 도소매판매직 | 대인서비스직 |

다. 교육훈련

○ 이공계나 자연계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인문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표 3-25>을 기업들이 청년층의 공식적인 교육훈련과정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교육 형태는 자연계 및 이공계 교육에 대한 교육인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것은 인문상업계 고교교육인 것으로 나타났음.
- 훈련 부문의 경우에는, 외부위탁훈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반면, 현장훈련이나 사업내훈련의 경우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과정은 사무직원업무능력향상훈련임.

- <표 3-26>에서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과정으로는 사무직원업무능력향상훈련을 뽑았으며, 그 외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생산직기능향상훈련, 전문기술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등도 거의 비슷한 비율임.

○ 가장 선호하는 직업훈련 분야는 주로 기계장비 분야, 사무관련 업무분야, 컴퓨터정보 분야 등으로 나타났음.

<표 3-25> 교육훈련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 정도

(단위, 업체 수 %)

| | | 아주불만족 | 약간불만족 | 약간만족 | 매우만족 | 해당없음 |
|-------------|-----|-------|--------|--------|--------|--------|
| 인문상업계 고교교육 | 295 | 18 | 95 | 225 | 32 | 95 |
| | | (3.9) | (20.4) | (48.4) | (6.9) | (20.4) |
| 공업계고교교육 | 314 | 14 | 74 | 220 | 48 | 90 |
| | | (3.1) | (16.6) | (49.3) | (10.8) | (20.2) |
| 전문대교육 | 314 | 17 | 68 | 231 | 51 | 79 |
| | | (3.8) | (15.2) | (51.8) | (11.4) | (17.7) |
| 인문사회과학대학 교육 | 338 | 18 | 80 | 175 | 42 | 107 |
| | | (4.3) | (19.0) | (41.5) | (10.0) | (25.4) |
| 자연계및이공계 교육 | 316 | 12 | 36 | 220 | 89 | 87 |
| | | (2.7) | (8.1) | (49.5) | (20.0) | (19.6) |
| 사업내 훈련 | 347 | 9 | 48 | 185 | 66 | 105 |
| | | (2.2) | (11.6) | (44.8) | (16.0) | (25.4) |
| 외부위탁훈련 | 322 | 8 | 36 | 178 | 139 | 77 |
| | | (1.8) | (8.2) | (40.6) | (31.7) | (17.6) |
| 현장훈련 | 99 | 8 | 41 | 36 | 14 | |
| | | (8.1) | (41.4) | (36.4) | (14.1) | 0.0 |

<표 3-26>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과정과 선호하는 직업훈련 형태

| | | 응답사업체 기준 | | 종업원수 가중치 부여 | |
|-------------------------------------|--------------------|----------|------|-------------|--------|
| | | 비중(%) | 사업체수 | 비중(%) | 종업원수 |
| 가 장 필요로 하 는 교 육 과 정 | 직업훈련생신규양성훈련 | 3.7 | 25 | 2.0 | 928 |
| |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훈련 | 24.0 | 163 | 34.5 | 16,081 |
| | 사무직원업무수행능력향상훈련 | 24.8 | 168 | 28.4 | 13,232 |
| | 생산직 기능향상훈련 | 21.7 | 147 | 14.4 | 6,683 |
| | 관리감독자훈련 | 2.5 | 17 | 1.0 | 453 |
| | 전문기술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 19.5 | 132 | 16.9 | 7,874 |
| | 기타 | 3.8 | 26 | 2.8 | 1,300 |
| 가 장 선호하 는 직 업훈 련 형 태 | 컴퓨터·정보, 통신 분야 | 17.3 | 122 | 16.7 | 8,234 |
| | 어학 분야 | 4.5 | 32 | 4.2 | 2,065 |
| | 서비스 분야(음식,이미용,관광등) | 5.1 | 36 | 12.0 | 5,887 |
| | 재무경영사무 등 업무관리분야 | 17.9 | 126 | 15.3 | 7,518 |
| | 기계·장비 분야 | 24.6 | 173 | 21.5 | 10,591 |
| | 의료 분야 | 2.6 | 18 | 7.3 | 3,607 |
| | 예능계 | 0.3 | 2 | 0.1 | 25 |
| 전기·전자 분야 | 8.9 | 63 | 7.0 | 3,448 | |
| 기타 | 18.8 | 132 | 15.9 | 7,812 | |

○ 노조가 인력조정이나 인력구서의 변경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지는 않음.

- 최근 청년층의 채용문제가 노동시장이 경직되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해서 “귀사는 노동조합이나 노조원 때문에 인력조정이나 인

력구성의 변경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과 “기존 인력의 구조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청년층의 신규채용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을 포함시켰음.

- <표 3-27>의 설문결과를 보면 노조가 인력조정이나 인력구성의 변경에 장애요인이 된다고 응답한 경우는 17.6% 정도, 종업원수 기준으로는 22.2% 정도에 불과함.
- 노조가 인력조정이나 인력구성의 변경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68.2%에 달함. 즉, 노종조합이 있는 일부 사업장의 경우에만 노조가 인력조정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 노동조합이나 기존 인력 때문에 청년층 채용에 장애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판단됨.

- 기존 인력이 청년층 채용에 장애가 된다고 응답한 경우도 29.4%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사업체 비중 53.0%에 비해서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3-27> 노조와 기존인력이 인력조정과 청년층 채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가에 대한 설문 결과

| | | 응답사업체 기준 | | 응답업체 종업원수 가중치 부여 | |
|-----------------------------|------------------------------------|-----------|------|------------------|--------|
| | | 비중(%) | 사업체수 | 비중(%) | 가중치부여 |
| 노조가 인력조정에 장애요인인 가? | 전적으로 그렇다. | 5.2 | 31 | 3.3 | 1,489 |
| | 그런 편이다. | 12.4 | 73 | 18.9 | 8,602 |
| | 중간 정도 | 13.9 | 82 | 19.1 | 8,696 |
| | 그렇지 않은편 | 24.2 | 143 | 28.8 | 13,095 |
| | 전혀 그렇지 않다. | 44.0 | 260 | 29.7 | 13,516 |
| | 무응답 | 0.3 | 2 | 0.1 | 62 |
| | 기존인력이 청년층 채용에 장애요인인 가? | 전적으로 그렇다. | 6.5 | 43 | 4.7 |
| 그런 편이다. | 22.9 | 152 | 24.5 | 11,818 | |
| 중간 정도 | 17.6 | 117 | 23.7 | 11,453 | |
| 그렇지 않은편 | 24.4 | 162 | 19.1 | 9,239 | |
| 전혀 그렇지 않다. | 28.6 | 190 | 28.0 | 13,509 | |

5. 요약

- 부산 청년층의 일자리의 절대 규모는 외환위기 이후 감소 추세에서 회복하고 있으며 전국 대비 상대적 규모도 외환위기 전후 크게 줄어든 상태로 지속되고 있음.
- 그러나 부산 청년층 일자리 구조는 크게 나빠지고 있음. 이는 전국 평균과의 자영업 비율 규모의 차이가 거의 사라지고, 임금근로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이 다른 지역, 다른 계층에 비해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업체 규모에서 소규모사업체 종사자 비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부산 청년층의 일자리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부산 인력의 고학력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에도 고속런 일자리의 증가속도는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어서 인력 수급간의 불균형이 커지고 있음. 일자리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부산의 경우, 제조업에서 청년층의 일자리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으며, 서비스업에서의 청년층 일자리는 전문직과 단순서비스판매직으로 크게 양극화되는 현상이 나타남.
 - 일자리의 양극화는 청년빈곤층을 양산할 수도 있고 이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수 있음. 일자리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잠재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부산지역의 전략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구조고도화산업과 성장유망산업의 경우, 전자에서는 청년층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후자의 경우 청년층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음. 또한, 3D업종의 일자리도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음. 그러나, IT산업의 일자리는 전국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판단됨.
 - IT산업은 성장유망산업과 연계시켜 새로운 일자리창출의 잠재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성장유망산업' 및 '구조고도화산업'과 연계될수록,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고속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음. 따라서, 항만물류산업, 관광산업, 소프트웨어산업, 금융산업, 영상산업 등에 IT서비스산업을 접목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현재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성장동력산업이라는 것도 기간산업에 IT 기술을 접목하는 것임.
 - 따라서, 자동차부품산업, 조선기자재산업, 신발산업, 섬유패션산업, 수산가공산업 등 '구조고도화산업'의 경우에도 IT기술을 접목시키는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부산 지역청년층에게 IT산업 부문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노동수요 전망 추계에 따르면, 향후 부산지역 총생산 증가율이 5.4%대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술변화 추세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부산청년층의 일자리는 2001년 현재 36만1천명에서 2005년에 31만, 2010년에 19만2천명으로 매우 급속한 속도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 이는 부산지역 청년층의 노동력 공급 감소 현황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부산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술변화 등을 고려한 종합대책이 필요함.

- 취업계수의 급속한 하락이 이루어지는 업종에 대해서는 고부가가치-고속런 인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의 기술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상대적으로 취업계수의 하락이 완만한 업종에서는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이 부문에서 일자리창출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단기적으로는 제조업이나 사회서비스업에서의 채용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업서비스업 등에서의 채용 계획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최근 들어, 단기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제조업으로의 필요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형성하고, 교육의료복지 등 사회서비스

업에서 청년 실업자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장기적으로는 사업서비스 등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의 일자리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성장유망산업이 대부분 지식기반서비스업이라고 할 수 있음. 이는 부산이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산업정책에서 일자리가 더욱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집중관리하고 예산도 집중적으로 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부산의 경우, 노동시장유연성은 청년층 채용에 큰 장애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됨. 기존 인력의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부산의 경우, 청년층의 교육훈련에 대한 만족도 측면에서는, 인문계보다는 자연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상업내 훈련보다는 외주훈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은 컴퓨터, 기계장비, 사무관리 등 전문직, 사무직, 생산직의 능력향상 훈련인 것으로 나타나 전통적인 직업훈련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참 고 자 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3년~2002년 원데이터
노동부, 노동력수요동향조사, 2000~2001년 원데이터
노동부, 임금구조기본조사, 2001년
노동부, 고용보험 DB, 1995 이후 원데이터 자료
임정덕, 『지역노동시장 연구(Ⅱ)-부산 경남 지역』, 한국노동연구원 정책자료, 1998.2.
임정덕·장영재, 1997, 「지역 우수두뇌의 유출현상과 지역균형발전」, 한국노동경제학회
1997년 상반기 학술세미나.
전병유(2000), “지역노동시장의 구조와 동향 분석 및 활성화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전현중, 2003, “부산지역 혁신체제 구축과 인적자원개발 전략”, 한국노동경제학회, 한국직
업능력개발원 공동발표회
장수명·이변송, 2000, 「인적자본의 지역별·산업별 분포와 그 외부효과」, 한국노동연
구원 제2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발표문.

IV. 부산지역 청년층 노동공급 현황 · 전망 · 실태조사 결과

제1절 서론

- 제4장은 부산지역의 청년층 실업 문제를 노동공급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음.
 - 실업이란 노동공급과 노동수요가 노동시장에서 상호 작용하여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가운데 하나임.
 - 따라서 부산지역 청년층 실업에 대한 접근 역시 노동공급과 노동수요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본 연구는 이 가운데 노동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노동공급이란 일할 능력과 일할 의사를 가진 상태를 말함. 일할 능력이 있으면서 일할 의사도 있지만 실제 노동시장에서는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음.
 - 어떤 경제에서 노동공급의 정도는 일할 능력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 일할 의사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로서 측정됨. 이를 경제활동참가율 또는 간략히 참가율이라고 부름.
 - 따라서 부산지역 청년층 노동공급에 대한 연구는 부산지역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 또한 참가율은 그 경제의 인구구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인구구조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임.
- 제4장은 먼저 부산지역 전체 및 청년층의 인구구조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부산지역 청년층의 경제활동을 전망함.
 - 이 과정에서 부산지역의 신규 졸업자로서 새로 노동시장에 등장하는 노동력과 타 지역과 부산지역간의 노동이동 등의 문제도 아울러 다루어야 할 것임.
- 이러한 분석과 청년 경제활동에 대한 예측은 부산지역 청년층 노동수요에 대한 분

석 결과와 함께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마련 및 기존 대책의 개선에 기여할 것임.

- 본 연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부산지역 청년인구가 노동시장에서 직면하는 문제점과 이의 해결을 목표로 과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 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 실태조사는 부산 소재 대학 취업보도실 방문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부산지역 고용안정센터 방문자들에 대한 조사로 나누어 진행하였음.
 - 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졸업자들과 기졸업자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노력들을 제시할 것임.
-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부산지역 청년층의 노동공급 측면과 관련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부산 청년 노동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공급 측면에서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임.
 - 이러한 노력을 통해 노동공급과 관련된 청년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결국 부산지역 청년 실업이라는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노동수요측면에서만 평가하고 해결하려 해서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고 노동공급 측면에서의 노력도 병행해야 효과적인 실업대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라는 교훈을 얻음.
- 제4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 제2절은 부산지역 청년층 인구구조를 분석하고 청년 경제활동을 전망함.
 - 제3절과 제4절은 각각 대학 취업보도실 방문자와 고용안정센터 방문 청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함.
 - 마지막으로 제5절은 이상의 분석을 요약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음.

제2절 부산지역 청년층 인구구조와 청년 경제활동 전망

1. 개관

- 제2절은 다음의 네 가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첫째, 부산지역과 청년의 인구구조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산지역 경제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를 구명함.
 - 둘째, 부산지역에 새로 공급되는 청년 노동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냄.
 - 셋째, 부산지역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전체 및 청년 인구(노동력)의 유출입 규모를 파악하고 그 의미를 살핌.
 - 넷째, 주어진 제약 하에서 사용가능한 정보들을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부산지역 청년층의 경제활동을 전망함.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의 구성도 연구 목적과 동일한 순서로 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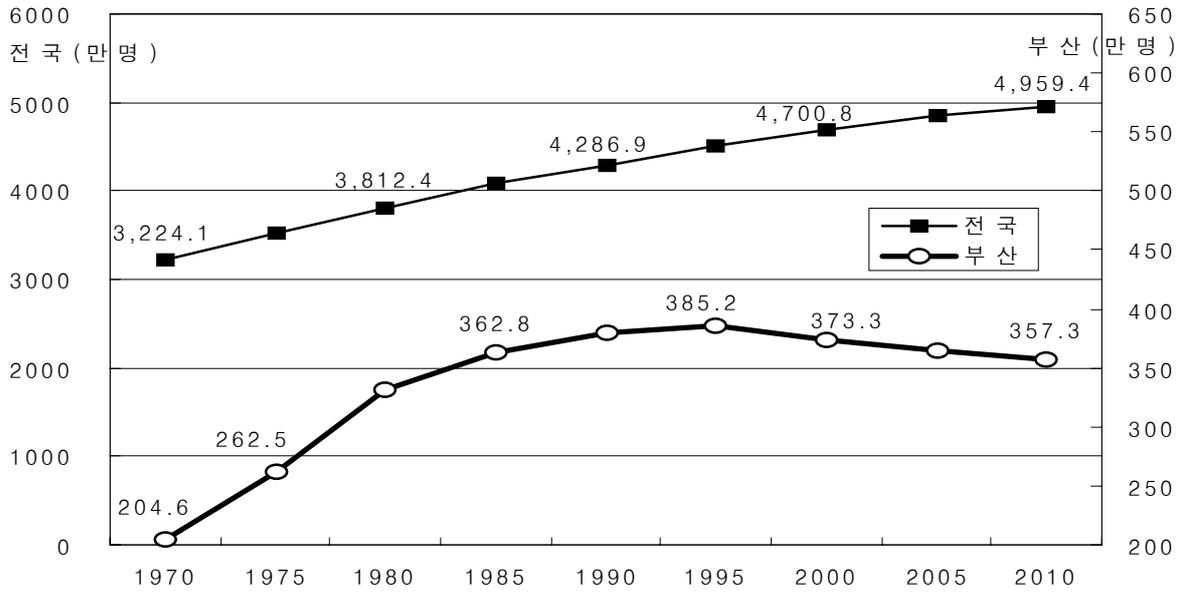
2. 부산지역 청년층 인구구성

1) 부산지역 인구 추이 및 구성

가. 추이

- 부산시의 인구는 1995년의 385만 2천명을 고비로 계속 감소하고 있음.
 - 2005년에는 373만 3천명으로 감소하며, 2010년에 이르면 357만 3천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이러한 추세는 경제전체(전국)의 인구 변화 추세와 크게 다름. 경제전체로 보면 추계인구는 2010년이 지나서도 상당기간 동안 계속 증가함.
 - 이는 부산지역 인구 규모 감소가 경제전체에 비해 매우 일찍 시작되었음을 알려 줌.

[그림 4-1] 부산지역 인구추이



자료 :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나. 인구구성

○ 부산지역의 인구추이를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으로써 인구의 성별구성과 그 추이를 비교 분석함.

- 먼저 경제전체를 보면 전국의 남자 및 여자인구는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남자가 여자보다 많음.
- 이에 비해 부산의 경우 2003년부터 미세하나마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를 능가하기 시작하여 이후 줄곧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아지는 것으로 추계됨. 이는 경제전체에 비해 부산지역 인구의 성별 구성변화가 심함을 의미함.
- 앞에서 1995년부터 부산의 인구규모가 감소하고 있음을 보았는데 이는 아래의 <표 4-1>에서 보듯이 1995년 이후 남녀인구 모두가 감소하기 때문임.

<표 4-1> 성별 인구추계 : 부산 및 전국

(단위: 만 명)

| 구 분 | 부 산 | | 전 국 | |
|------|-------|-------|---------|---------|
|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 1970 | 103.2 | 101.4 | 1,630.9 | 1,593.2 |
| 1975 | 131.0 | 131.5 | 1,776.6 | 1,751.5 |
| 1980 | 165.7 | 165.3 | 1,923.6 | 1,888.8 |
| 1985 | 180.6 | 182.2 | 2,057.6 | 2,023.0 |
| 1990 | 189.0 | 191.4 | 2,156.8 | 2,130.1 |
| 1995 | 192.5 | 192.7 | 2,270.5 | 2,238.8 |
| 2000 | 186.7 | 186.6 | 2,366.7 | 2,334.1 |
| 2003 | 184.3 | 184.3 | 2,412.6 | 2,379.9 |
| 2005 | 182.6 | 182.7 | 2,438.8 | 2,407.3 |
| 2010 | 178.3 | 179.0 | 2,493.3 | 2,466.2 |

자료 :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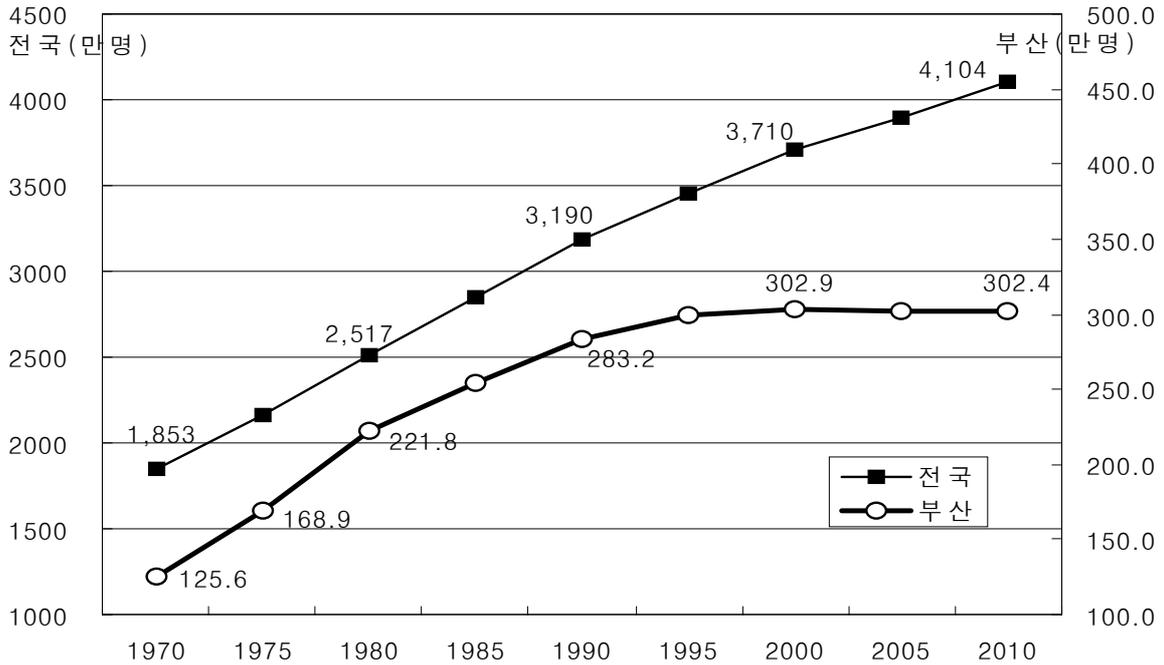
2) 부산지역 15세 이상 인구 추이 및 구성

가. 추이

- 전체 인구규모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나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15세 이상 인구임.
 - 우리나라에서는 나이가 15세 이상이면 일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함. 즉 15세 이상 인구는 생산가능인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 그림에서 보듯이 부산지역의 15세 이상 인구의 추이는 경제전체와 달리 2001년을 고비로 이미 감소하고 있음.
 - 전국적으로 보면 15세 이상 인구는 적어도 2010년까지는 계속 증가함.
 - 반면 부산지역의 경우 2000년의 302만 9천명을 고비로 2001년부터 이미 감소하고 있으며 2030년에 이르면 283만 8천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계됨.

6) 단, 여기에서 말하는 15세 이상 인구란 군인,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을 포함한 수치이며 이들을 제외한 '생산가능인구'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

[그림 4-2] 15세 이상 인구 추이



자료 :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나. 구성

○ 15세 이상 인구를 성별로 구분하여 구성 및 추이가 가지는 특징을 살펴보기로 함.

- <표 4-2>에서 보듯이 부산의 15세 이상 인구는 이미 1970년부터 남성보다 여성의 수가 더 많음. 이는 경제전체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임.
- 그렇다면 남성 15세 인구의 수를 초과하는 여성 15세 이상 인구의 수가 남녀 15세 이상 인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봄. 표에서는 이를 여성초과율($=((\text{여성}-\text{남성})/(\text{남성}+\text{여성}))\times 100$)이라 부르기로 함.
- 부산의 여성 초과율이 전국의 경우에 비해 높음. 이러한 여성 인구 초과는 여성의 낮은 참가율을 고려할 때 부산지역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이며 다른 여러 노동시장 지표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

<표 4-2> 15세 이상 인구

(단위 : %, 만명)

| 구분 | 부 산 | | | 전 국 | | | 여성초과율 | |
|------|-------|-------|-------|-------|-------|-------|-------|------|
|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부산 | 전국 |
| 1970 | 125.6 | 62.3 | 63.3 | 1,853 | 920 | 934 | 0.79 | 0.76 |
| 1975 | 168.9 | 82.3 | 86.6 | 2,167 | 1,069 | 1,098 | 2.59 | 1.34 |
| 1980 | 221.8 | 108.8 | 113.0 | 2,517 | 1,253 | 1,264 | 1.92 | 0.46 |
| 1985 | 253.5 | 123.7 | 129.8 | 2,850 | 1,422 | 1,428 | 2.39 | 0.23 |
| 1990 | 283.2 | 138.3 | 144.9 | 3,190 | 1,586 | 1,604 | 2.35 | 0.55 |
| 1995 | 299.2 | 147.0 | 152.2 | 3,456 | 1,717 | 1,739 | 1.75 | 0.63 |
| 2000 | 302.9 | 149.0 | 153.9 | 3,710 | 1,842 | 1,867 | 1.60 | 0.68 |
| 2005 | 302.1 | 148.7 | 153.4 | 3,894 | 1,937 | 1,958 | 1.53 | 0.54 |
| 2010 | 302.4 | 149.3 | 153.1 | 4,104 | 2,046 | 2,058 | 1.28 | 0.2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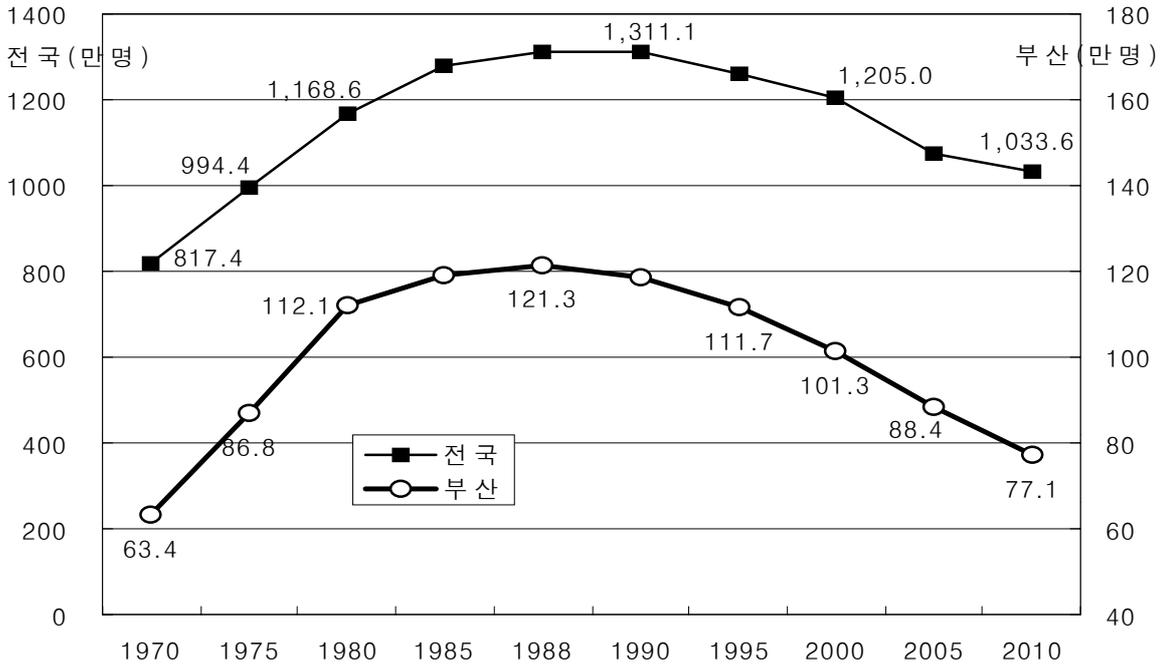
자료 :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3) 부산지역 청년 인구 추이 및 구성

가. 추이

- 부산지역의 청년인구(15-29세)는 이미 1988년의 121만 3천명을 고비로 감소하고 있음.
- 2000년에 100만명 남짓한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2005년에는 88만 4천명으로 줄어들며 2010년에 이르면 77만 1천명 정도에 불과함.
- 2030년에 이르면 부산 청년인구는 47만 1천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이는 1988년의 63.6%에 불과한 수치여서 부산지역 청년인구의 감소가 매우 급격함을 알려줌.
-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청년인구는 1990년의 1311만여명을 고비로 이후부터 감소하고 있으며 2010년에 이르면 약 1034만명에 불과함.

[그림 4-3] 부산지역 청년층 인구 추계



자료 :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나. 구성

○ 성별 청년인구

- 1988년을 고비로 부산 청년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청년 남성과 여성 모두의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임을 표에서 알 수 있음.
- 한 가지 특징적인 사실은 전국으로 보면 청년 남성인구가 청년 여성인구보다 분석기간 전체에서 더 많으나 부산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것임.
- 부산의 청년 여성은 1992년까지는 청년 남성보다 그 수가 많았으나 1993년부터 역전되어 이후에는 청년 남성의 수가 더 많음.
- 다른 상황이 동일하다면 이러한 변화는 부산지역 청년 경제활동참가율과 청년 실업률을 모두 높이는 역할을 하였을 것임.

<표 4-3> 청년인구

(단위 : 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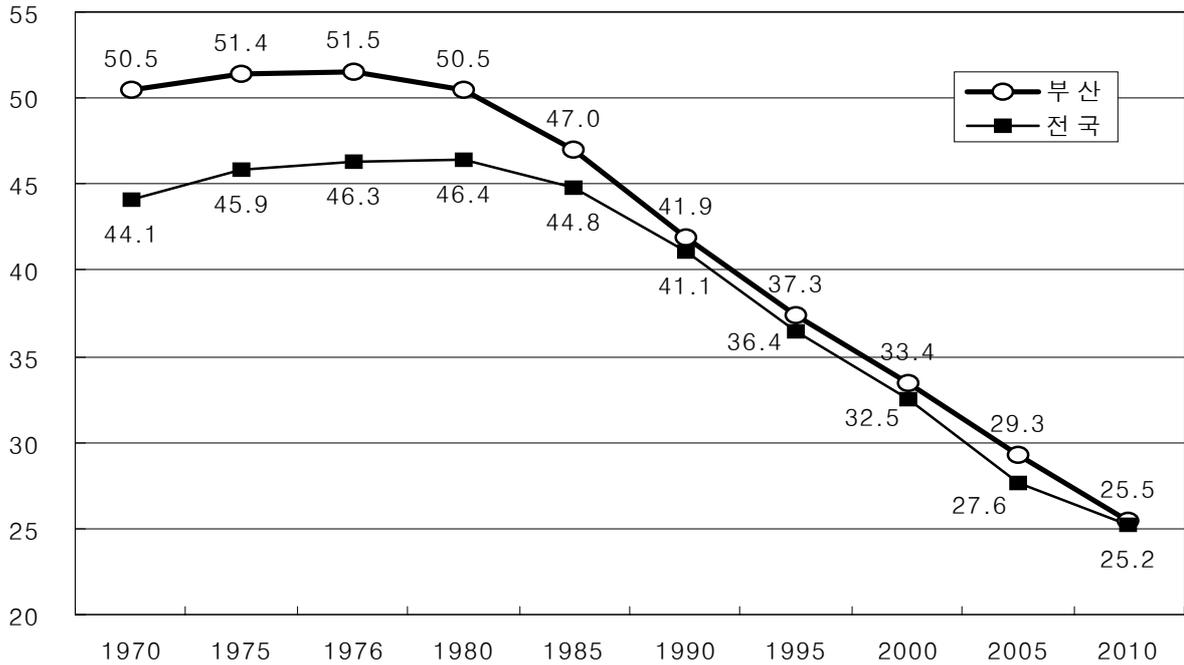
| 구분 | 부 산 | | | 전 국 | | |
|------|-------|------|------|---------|-------|-------|
| | 계 | 남자 | 여자 | 계 | 남자 | 여자 |
| 1970 | 63.4 | 31.6 | 31.8 | 817.4 | 421.0 | 396.4 |
| 1975 | 86.8 | 42.2 | 44.7 | 94.4 | 510.0 | 484.4 |
| 1980 | 112.1 | 54.5 | 57.5 | 1,168.6 | 600.6 | 567.9 |
| 1985 | 119.3 | 57.5 | 61.7 | 1,278.0 | 655.1 | 622.9 |
| 1988 | 121.3 | 59.1 | 62.3 | 1,310.6 | 671.9 | 638.7 |
| 1990 | 118.6 | 58.3 | 60.3 | 1,311.1 | 675.0 | 636.2 |
| 1995 | 111.7 | 56.6 | 55.1 | 1,258.9 | 648.0 | 610.9 |
| 2000 | 101.3 | 52.1 | 49.1 | 1,205.0 | 620.9 | 584.1 |
| 2005 | 88.4 | 46.0 | 42.4 | 1,074.7 | 559.2 | 515.6 |
| 2010 | 77.1 | 40.8 | 36.3 | 1,033.6 | 544.2 | 489.4 |

자료 :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4) 부산지역 청년 인구의 15세 이상 인구에 대한 비율

- 부산지역 인구의 전체 규모와 청년 인구가 적어도 1995년 이후 모두 감소하고 있음. 그렇다면 부산지역에서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청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즉 청년비율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살펴볼 것이 요구됨.
- 부산지역 청년비율은, [그림 4-4]에서 보듯이, 이미 1976년 이후부터 지속적이며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음.
 - 1976년의 부산지역 청년비율은 51.5%로서 15세 이상 인구의 절반이상이 청년인구였으나, 1995년에는 37.3%에 불과하며 2005년에는 29.3%로 하락할 것이며 이후에도 급격하게 하락할 것으로 추정됨.
 - 이러한 변화는 경제전체로도 유사하게 나타남. 다만 1980년대까지는 부산의 청년비율이 경제전체에 비해 상당히 높았지만 1990년대부터는 양자간에 큰 차이가 없고 2010년을 지나면 거의 차이가 없게 됨.
 - 이는 부산지역 청년비율 감소가 경제전체에 비해 급격함을 알려주는 결과로서 부산경제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을 함축함.

[그림 4-4] 부산지역 청년 인구의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비율 (청년비율)



자료 : 장래인구추계(통계청) 결과를 사용하여 계산

5) 종합

- 부산지역의 인구 및 그 구조와 관련하여 이제까지 밝혀진 사실들을 종합하고 그 의미를 찾아봄.
- 부산지역 인구는 1995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전체에 비해 매우 이른 시기에 시작된 것임. 인구의 성별 구성도 역전되었음.
- 15세 이상인구도 2000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여성의 비율이 높음.
- 청년인구도 감소하고 있으며 감소 정도가 급격함. 청년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높았으나 1993년부터 성비가 역전되었음.
- 15세 이상인구에서 청년인구의 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나 이 비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음.

- 결국 이와 같은 부산지역 인구구조와 관련된 사실들은 부산 지역 경제의 활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리 우호적인 현상들은 아니라는 의미를 가짐.

3. 부산지역 청년 신규 노동공급

1) 신규 노동공급 규모

- 인구 규모, 특히 청년 인구 규모 및 청년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더라도 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새로이 진입하는 노동력은 항상 존재함.
 - 이러한 신규 졸업자 규모를 파악하여야 순수하게 새로 공급되는 노동력 규모를 알 수 있음.
- 다음의 표에서 보듯이 부산지역에서 고등학교나 대학의 신규 졸업생은 매년 10-11만명 정도임.
 - 이 가운데 진학자와 입대자 5만 명을 제외하면 대략 매년 5-6만 명의 청년 미진학 노동력이 새로이 등장함.
 - 예를 들어 2000년에 부산지역에서 학교를 새로 졸업하는 사람의 수는 11만 5천명임. 이 가운데 진학을 하거나 군입대하는 사람이 5.3만명 정도여서 미진학자는 6만 2천명에 달함.
 - 2002년의 경우 졸업자수는 10만 3천명으로 감소하며 진학자와 군입대자를 제외하면 5만 5천명 가량이 미진학자로 남음.
 - 이들 미진학자 전부가 신규로 공급되는 노동력은 아니지만 잠재된 노동공급 풀(pool)로 역할을 할 것임.

<표4-4> 청년 신규 노동공급 규모

(단위: 명)

| 구 분 | 부 산 | | | | 진 국 | | | |
|------|---------|--------|-----|--------|-----------|---------|--------|---------|
| | 졸업자 | 진학자 | 입대자 | 미진학자 | 졸업자수 | 진학자 | 입대자 | 미진학자 |
| 1999 | 113,206 | 48,847 | 788 | 63,571 | 1,172,118 | 541,688 | 10,107 | 620,323 |
| 2000 | 115,546 | 52,680 | 674 | 62,192 | 1,209,786 | 561,082 | 9,375 | 639,329 |
| 2001 | 110,753 | 49,773 | 460 | 60,520 | 1,215,280 | 562,489 | 7,545 | 645,246 |
| 2002 | 103,493 | 47,453 | 363 | 55,677 | 1,160,438 | 545,980 | 7,684 | 606,774 |

자료 : 교육통계연감

2) 신규 노동공급과 고등학교 졸업자

가. 일반계 고등학교

- 부산지역 일반계 고교 졸업생은 표에서 보듯이 3-4만명 정도이며 2002년의 경우 이들 가운데 92.6%가 진학하여 미진학자는 2,564명에 불과함.
- 2002년의 부산 일반계 고교 미진학률 7.4%는 1999년의 12.2%에서 계속 하락한 결과이며 전국의 2002년 일반고 미진학률 13.0%보다 매우 낮은 수준임.
 - 이러한 미진학률의 하락(진학률의 상승)은 졸업자수의 감소와 더불어 미진학자의 수를 감소시키고 있음.
- 일반고 졸업자 가운데 미진학자의 상당수가 재수생으로 남는다고 보면, 부산지역 일반고 졸업자 중에서 노동시장에 신규로 공급되는 노동력의 규모는 고려하지 않아도 좋을만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표 4-5> 일반계 고등학교 신규 노동공급 규모

(단위: 명, %)

| 구 분 | 졸업자수 | 진학자수 | 진학률 | 미진학자 | 미진학률 | |
|-----|------|---------|---------|------|--------|------|
| 부산 | 1999 | 40,054 | 35,154 | 87.8 | 4,900 | 12.2 |
| | 2000 | 42,206 | 37,486 | 88.8 | 4,720 | 11.2 |
| | 2001 | 37,515 | 34,429 | 91.8 | 3,086 | 8.2 |
| | 2002 | 34,754 | 32,190 | 92.6 | 2,564 | 7.4 |
| 전국 | 1999 | 456,831 | 386,053 | 84.5 | 70,778 | 15.5 |
| | 2000 | 473,665 | 397,641 | 83.9 | 76,024 | 16.1 |
| | 2001 | 465,778 | 397,227 | 85.3 | 68,551 | 14.7 |
| | 2002 | 439,585 | 382,380 | 87.0 | 57,205 | 13.0 |

자료 : 교육통계연감

나. 실업계 고등학교

- 실업고 졸업자의 경우, 일반고의 경우와 달리, 미진학률이 높아 실업고 졸업자 가운데 1-2만명 가량의 노동력이 추가적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판단됨.
- 실업고의 미진학률은 전국에 비해 부산지역이 다소 높음.
 - 1999년의 부산지역 실업고 졸업자의 미진학률은 69.0%로서 전국의 61.5%보다 높음.
 - 2002년에도 미진학률은 52.9%로서 전국의 50.2%보다 높음.

<표 4-6> 실업계 고등학교 신규 노동공급 규모

(단위: 명, %)

| 구 분 | 졸업자수 | 진학자수 | 진학률 | 미진학자 | 미진학률 | |
|-----|------|---------|---------|------|---------|------|
| 부산 | 1999 | 29,575 | 9,155 | 31.0 | 20,420 | 69.0 |
| | 2000 | 28,623 | 10,830 | 37.8 | 17,793 | 62.2 |
| | 2001 | 26,612 | 11,037 | 41.5 | 15,575 | 58.5 |
| | 2002 | 22,387 | 10,548 | 47.1 | 11,839 | 52.9 |
| 전국 | 1999 | 290,892 | 112,130 | 38.5 | 178,762 | 61.5 |
| | 2000 | 291,047 | 122,170 | 42.0 | 168,877 | 58.0 |
| | 2001 | 270,393 | 121,411 | 44.9 | 148,982 | 55.1 |
| | 2002 | 231,127 | 115,103 | 49.8 | 116,024 | 50.2 |

자료 : 교육통계연감

- 부산지역 실업고 졸업자의 미진학률은 경제전체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하

락하고 있음. 즉 실업고 졸업자의 진학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음.

- 1999년의 진학률은 31.0%에 불과하나 2002년의 진학률은 47.1%임.
- 이로 인해 실업고 졸업자 가운데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노동력의 규모 역시, 다른 상황이 동일하다면, 지속적으로 줄어들며 그 규모는 1-2만명 정도임.

3) 신규 노동공급과 대학 졸업자

○ 부산지역 신규 대졸자 가운데 진학자와 입대자를 제외하면 표에서 보듯이, 전문대 졸업자를 포함하여, 대략 4만명의 노동력이 존재함.

- 2002년의 경우를 보면 신규 대졸자 4.6만명 가운데 진학자와 입대자 5천명을 제외하면 신규 대졸 미진학 노동력은 4만명 남짓한 정도임.
- 4만 여명 가운데 전문대 졸업자의 수는 약 1만 9천명 정도이며 이는 신규 대졸 미진학 노동력 전체의 46.0% 정도임. 이 비율은 경제전체(49.6%)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임.
- 신규 대졸자의 규모는 전국적으로 보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며 미진학자수도 마찬가지로임. 반면 부산지역의 경우 신규 대졸자 규모가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2년 들어 미소하게 하락하고 있음. 이에 따라 부산지역 미진학자수 역시 다소 하락하였음.

<표 4-7> 대학(전문대학 포함) 신규 졸업자 노동공급 (단위: 명)

| 구 분 | 졸업자 | 진학자 | 입대자 | 미진학자 (전문대) |
|-----|------|---------|--------|-------------------|
| 부산 | 1999 | 43,577 | 4,538 | 38,251 (18,973) |
| | 2000 | 44,717 | 4,364 | 39,679 (19,295) |
| | 2001 | 46,626 | 4,307 | 41,859 (19,207) |
| | 2002 | 46,352 | 4,715 | 41,274 (18,971) |
| 전국 | 1999 | 424,395 | 43,505 | 370,783 (188,400) |
| | 2000 | 445,074 | 41,271 | 394,428 (201,523) |
| | 2001 | 479,109 | 43,851 | 427,713 (211,119) |
| | 2002 | 489,726 | 48,497 | 433,545 (214,846) |

자료 : 교육통계연감

단, 1999년의 경우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대학원은 총계에서 제외되었음. 2000-2002년에는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대학부설대학원, 대학원대학이 제외되었음.

<표 4-8> 전문대학 신규 졸업자 노동공급

(단위: 명)

| 구 분 | 졸업자 | 진학자 | 입대자 | 미진학자 | |
|-----|------|---------|--------|-------|---------|
| 부산 | 1999 | 21,915 | 2,339 | 603 | 18,973 |
| | 2000 | 22,127 | 2,250 | 582 | 19,295 |
| | 2001 | 21,672 | 2,152 | 313 | 19,207 |
| | 2002 | 21,552 | 2,402 | 179 | 18,971 |
| 전국 | 1999 | 212,726 | 16,867 | 7,459 | 188,400 |
| | 2000 | 223,489 | 14,817 | 7,149 | 201,523 |
| | 2001 | 232,972 | 16,430 | 5,423 | 211,119 |
| | 2002 | 239,114 | 18,729 | 5,539 | 214,84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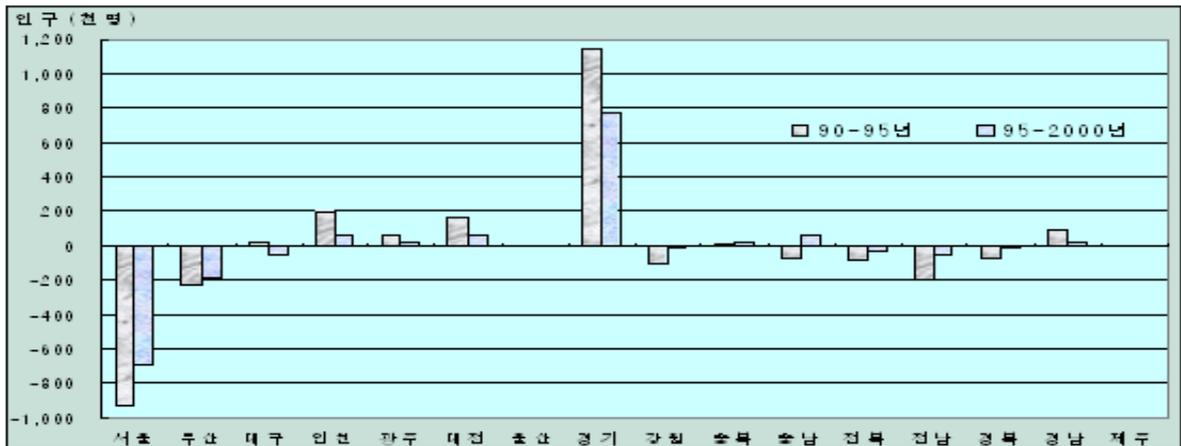
자료 : 교육통계연감

4) 부산지역 인구이동

○ 새로 등장하는 5-6만명의 노동력 가운데에는 부산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거나 다른 곳에서 부산으로 옮겨오는 사람들이 존재할 것임. 즉 노동력의 지역간 유출입 또는 지역간 노동이동이 있을 것임.

- 부산지역은 아래의 [그림 4-5]에서 보듯이 인구의 순 유출이 있는 곳이므로 청년층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음.
- 과연 청년층, 특히 신규 졸업 미진학 노동력의 지역간 노동이동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인구의 순 유출이 있는 지역들의 순 유출 규모는 그림에서 보듯이 1995년에 비해 2000년에 크게 감소하였으나, 부산지역만은 감소한 정도가 미약함.

[그림 4-5] 시도간 순 인구이동 (5년전)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00년)

○ 부산지역 인구의 순유출은 1년전 거주 지역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임.

- <표 4-9>에서 보듯이 부산지역은 1년 전에 비해 4만 8천명의 인구가 순유출되고 있는 상태임.

<표 4-9> 시도간 인구이동 (1년전, 2000년)

(단위 : 만명, %)

| 구 분 | 총인구 | 시도간 이동 | | |
|-----|---------|--------|-------|-------|
| | | 유 입 | 유 출 | 순이동 |
| 전 국 | 4,462.3 | 194.6 | 194.6 | 0 |
| 서 울 | 956.3 | 39.2 | 49.7 | -10.5 |
| 부 산 | 354.8 | 8.3 | 13.1 | -4.8 |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00년)

○ 인구이동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 청년층의 인구이동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함.

- 아래의 <표 4-10>은 주민등록으로 집계한 인구이동으로서 1년 동안 각 지역으로 유입된 인가와 유출된 인가를 알려줌.
- 부산지역은 1990년부터(더 엄밀히 말하자면 1989년부터) 전출이 전입을 초과하여 순전입이 음(-)을 기록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순전출자가 6만 명에 육박하기도 하였음.

- 이후 대략 4-5만명의 순전출이 발생하는 수준에서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1998년과 1999년의 순전출 감소는 외환위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4-10> 시도간 인구이동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이동)

(단위: 만명)

| 구 분 | 전국 | 서울특별시 | | | 부산광역시 | | | 경상남도 | | |
|------|-------|-------|------|-------|-------|------|------|------|------|-------|
| | 전출입 | 전입 | 전출 | 순전입 | 전입 | 전출 | 순전입 | 전입 | 전출 | 순전입 |
| 1971 | 133.2 | 51.3 | 26.0 | 25.3 | 14.2 | 8.0 | 6.1 | 6.8 | 15.2 | -8.4 |
| 1975 | 286.8 | 99.5 | 53.5 | 46.0 | 31.5 | 20.4 | 11.2 | 19.6 | 31.3 | -11.6 |
| 1980 | 260.6 | 78.2 | 61.7 | 16.5 | 28.1 | 23.0 | 5.1 | 21.3 | 25.3 | -4.0 |
| 1985 | 292.5 | 77.7 | 74.6 | 3.0 | 22.5 | 21.2 | 1.3 | 20.9 | 23.9 | -3.0 |
| 1990 | 323.1 | 75.4 | 84.5 | -9.1 | 18.4 | 22.0 | -3.6 | 21.8 | 20.0 | 1.8 |
| 1995 | 286.5 | 56.1 | 88.3 | -32.2 | 13.0 | 18.5 | -5.5 | 18.6 | 17.2 | 1.4 |
| 1996 | 283.6 | 58.8 | 80.0 | -21.1 | 13.5 | 18.2 | -4.7 | 18.8 | 16.8 | 2.0 |
| 1997 | 283.8 | 58.9 | 76.8 | -17.8 | 13.1 | 17.6 | -4.4 | 13.7 | 13.7 | 0.1 |
| 1998 | 267.9 | 54.6 | 68.0 | -13.4 | 13.1 | 17.2 | -4.1 | 14.1 | 13.2 | 0.9 |
| 1999 | 302.5 | 67.0 | 75.1 | -8.1 | 14.5 | 17.9 | -3.3 | 14.2 | 15.1 | -0.9 |
| 2000 | 284.6 | 63.7 | 68.4 | -4.7 | 13.0 | 17.4 | -4.4 | 13.4 | 14.3 | -0.9 |
| 2001 | 293.2 | 63.8 | 75.2 | -11.4 | 13.0 | 17.1 | -4.1 | 13.5 | 14.0 | -0.5 |
| 2002 | 299.5 | 64.5 | 75.2 | -10.6 | 13.7 | 18.6 | -4.9 | 15.4 | 14.7 | 0.7 |

자료: 인구이동통계(연보)

- 이제 청년의 인구이동에 대해 살펴봄.
- 부산지역의 청년인구 역시 전입보다는 전출이 더 크며 그 규모는 2만명 남짓한 것으로 나타남.(표 4-11)
 - 구체적으로 외환위기시기인 1998년과 1999년을 논외로 한다면 청년인구의 순전출은 2만명 남짓한 수준임.
 - 이러한 부산지역 청년의 순전출은, 1999년 이후 순전입으로 바뀐 서울의 경우와 달리, 지속적인 현상이며 순전출 규모가 1만명에 미치지 못하는 대구나 경남과도 구분됨.
 - 부산지역 청년인구의 순전출은 성별로 볼 때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유사하게

나타남. 순전출자의 남녀 구성은 반반 정도임.(부표1, 부표2)

- 부산지역의 순전출자 4-5만명 가운데 2만명 남짓한 사람이 청년이라는 사실은 부산지역이 청년들에게 그리 매력적인 도시는 아님을 알려줌. 그리고 이들 가운데 일정한 부분은 직장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일 것임.

<표 4-11> 시도간 청년(15-29세) 인구이동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이동)

(단위: 만명)

| 구 분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
|----------|------|-------|-------|-------|------|-------|------|------|-------|
| 전국 | 전출입 | 106.2 | 104.8 | 102.4 | 93.3 | 100.0 | 93.1 | 96.6 | 103.3 |
| 서울 | 전입 | 23.7 | 23.9 | 23.6 | 20.9 | 24.2 | 23.1 | 23.2 | 24.3 |
| | 전출 | 28.0 | 26.4 | 24.7 | 21.6 | 22.5 | 20.2 | 22.5 | 23.8 |
| | 순전입 | -4.3 | -2.5 | -1.1 | -0.7 | 1.7 | 2.8 | 0.7 | 0.5 |
| 부산 | 전입 | 4.8 | 4.8 | 4.6 | 4.4 | 4.6 | 4.0 | 4.2 | 4.5 |
| | 전출 | 7.1 | 6.9 | 6.6 | 6.1 | 6.2 | 6.0 | 6.2 | 6.8 |
| | 순전입 | -2.3 | -2.1 | -2.0 | -1.7 | -1.6 | -2.0 | -2.0 | -2.3 |
| 대구 | 전입 | 4.5 | 4.2 | 4.0 | 3.8 | 3.8 | 3.6 | 3.4 | 3.7 |
| | 전출 | 4.6 | 5.0 | 4.6 | 4.3 | 4.3 | 4.0 | 4.3 | 4.5 |
| | 순전입 | -0.2 | -0.8 | -0.6 | -0.5 | -0.5 | -0.5 | -0.9 | -0.8 |
| 경상 남도 | 전입 | 7.0 | 6.9 | 4.8 | 4.7 | 4.5 | 4.1 | 4.3 | 4.9 |
| | 전출 | 6.6 | 6.4 | 5.3 | 4.9 | 5.3 | 5.0 | 5.1 | 5.5 |
| | 순전입 | 0.4 | 0.6 | -0.6 | -0.2 | -0.9 | -0.9 | -0.8 | -0.5 |

자료: 인구이동통계(연보)

4. 부산지역 청년 경제활동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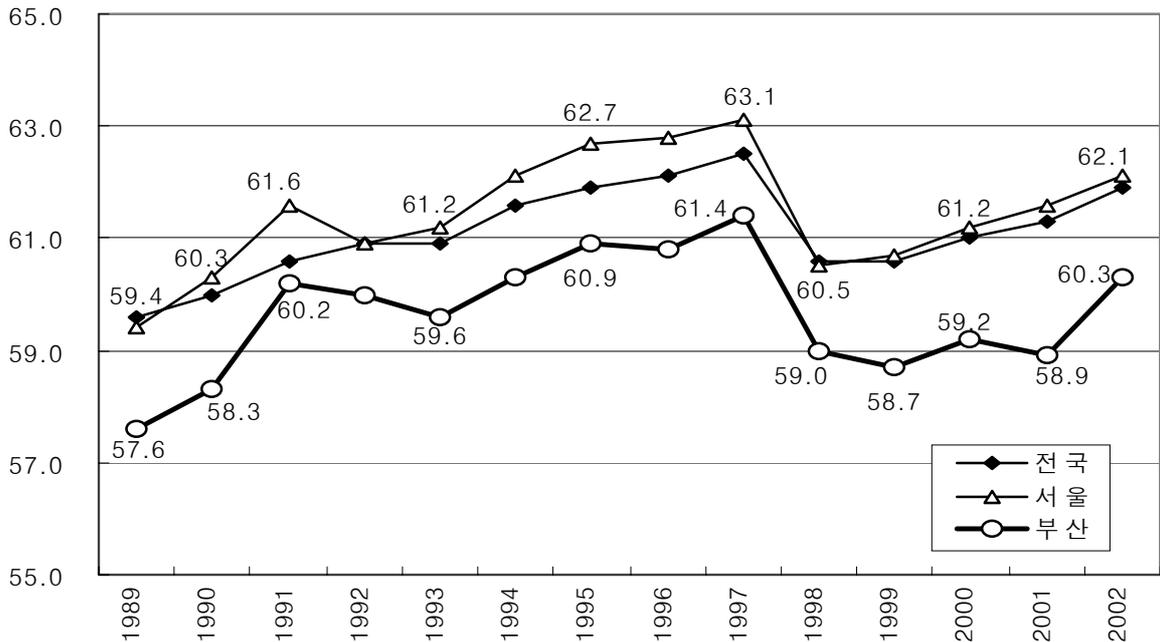
1)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가. 부산지역 참가율

○ 부산지역 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 또는 서울의 경우에 비해 낮은 수준에 불과함.

- 15세 이상인구 가운데에서 여성인구의 비율이 높은 것도, 이미 지적인 바와 같이, 부산지역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낮추는 요인 가운데 하나임.

[그림 4-6]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통계청

- 부산지역 경제활동참가율은 외환위기 발생 직전인 1997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함. 이는 전국이나 서울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특징임.
 - 외환위기 발생과 더불어 서울, 부산 할 것 없이 참가율이 급격히 하락함.
 - 이후 경제활동참가율은 서울, 전국에서는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이거나 부산지역의 경우 2001년에 이르기까지 등락을 거듭할 뿐 회복세는 미약함. 다만 2002년 들어 참가율이 크게 회복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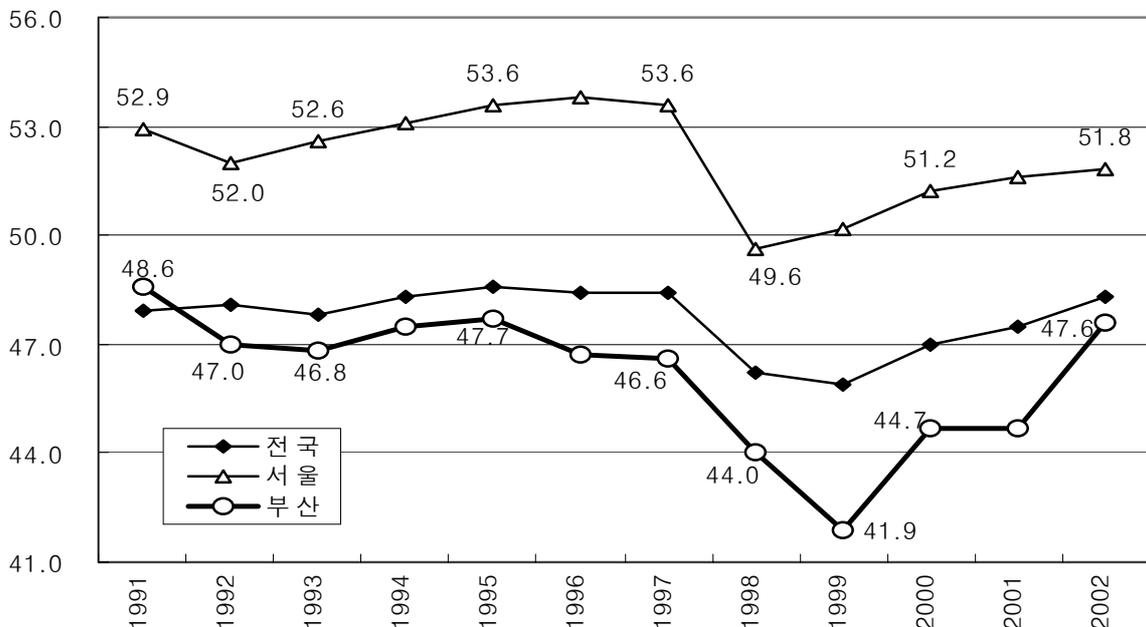
나. 청년층 참가율

- 부산지역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그림에서 보듯이 50%에 도달한 적이 없을 정도로 낮음.
 - 서울지역의 참가율에 비해 매우 낮고 전국의 참가율보다도 낮은 수준임.

- 1991년 이후 외환위기 발생 전까지 부산지역 청년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 이는 동일한 기간동안 서울 및 경제전체 청년 참가율이 미세하지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것과 비교됨.

- 부산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외환위기의 발생 및 이후의 전개과정에서 매우 급격한 모습을 보임.
 - 부산 청년 참가율은 외환위기와 함께 급격히 하락하고 이듬해에 더욱 하락하여 1997년에 비해 1999년의 청년 참가율은 무려 4.6% 포인트나 감소하였음.
 - 2000년에 부산 청년 참가율은 상당 정도로 회복되나 이듬해에는 더 이상 회복되지 못함. 반면 2002년에 급격히 회복하여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능가하였음.
 - 위기 발생 및 이후 회복과정에서 청년 참가율 변화가 매우 급격하다는 것은 부산 지역 경제가 청년층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음을 의미함.

[그림 4-7] 부산지역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 청년 참가율 및 청년 경제활동인구 전망

가. 개관

- 부산지역 인구구조의 특징과 변화를 고려하여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전망하기로 함.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부산의 인구구조는 경제전체에 비해 성별 연령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구성의 변화가 심함.
 - 이러한 부산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부산지역 청년층을 연령 및 성별로 구분하여 각 집단들의 참가율을 전망하고 이들 집단들의 구성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참가율을 전망하여야 할 것임.

나. 방법론

- 본 연구의 전망에 사용되는 방법론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BLS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형이며 이를 한국 및 부산의 실정에 알맞도록 수정한 것임.
 - 기본적인 이론 모형 : 확률효용모형(random utility model)에 근거한 이산선택모형을 활용하는 미시적 선택모형
- 구체적인 전망 과정
 - (1) 부산지역의 청년 인구구조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청년층을 연령별, 성별로 세분함.
 - (2) 로짓분석
 - 세분된 청년 집단들에 대해 로짓분석을 실시하여 각 집단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전망함.

- 회귀방정식 : $\log \frac{p_i}{1-p_i} = x'_i \beta + u_i$

단, 여기서 β 는 회귀계수들이며 x'_i 은 독립변수들로서 상수항, 시간추세 및 이의 제곱, 외환위기 발생을 전후한 더미변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3)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시간추세를 사용하여 참가율의 성별 연령별 청년집단들의 예측치들을 이들을 종합하여 청년층 전체의 참가율을 전망함.

- 즉 t시점에서 i집단의 참가율 P_{it} 라 할 때 청년층 전체의 t시점에서 참가율 P_t 는 다음과 같이 얻어짐. 단, w_{it} 는 t시점에서 I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임.

$$P_t = \sum_i w_{it} P_{it}$$

다. 추정결과

○ 아래의 <표 4-12>는 연령별 성별 청년 집단들에 대해 위의 회귀방정식에 근거하여 추정한 결과를 제시한 것임.

- 표에서 보듯이 상수항과 시간추세 및 더미변수로만으로도 매우 높은 설명력을 가질 수 있음.
- 다만 1993년부터 2002년까지의 10개 관측치만으로 회귀분석한 결과이므로 관측수가 적어 회귀계수들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더러 있음.
- DW 통계량들은 전반적으로 2에 가까운 값을 지니므로 오차항의 자기상관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표 4-12> 추정결과

| 구 분 | | 상수항 | 시간추세 | 시간추세 제곱 | 외환더미 | R2 | DW |
|--------|----|--------------------|-------------------|--------------------|-------------------|-------|------|
| 15-19세 | 남자 | -2.02*** (0.22) | -0.18* (0.09) | 0.015* (0.008) | 0.18 (0.22) | 0.512 | 2.30 |
| | 여자 | -1.45*** (0.18) | -0.15* (0.08) | 0.01* (0.01) | -0.22 (0.18) | 0.676 | 2.92 |
| 20-24세 | 남자 | 0.28*** (0.07) | -0.06* (0.03) | 0.003 (0.002) | 0.03 (0.07) | 0.624 | 1.99 |
| | 여자 | 0.70*** (0.14) | 0.03 (0.06) | -0.0002 (0.005) | -0.55** (0.14) | 0.853 | 2.43 |
| 25-29세 | 남자 | 2.01*** (0.12) | -0.18** (0.05) | 0.01* (0.004) | -0.01 (0.12) | 0.891 | 2.10 |
| | 여자 | -0.19* (0.10) | 0.14** (0.04) | -0.004 (0.004) | -0.45** (0.10) | 0.852 | 1.7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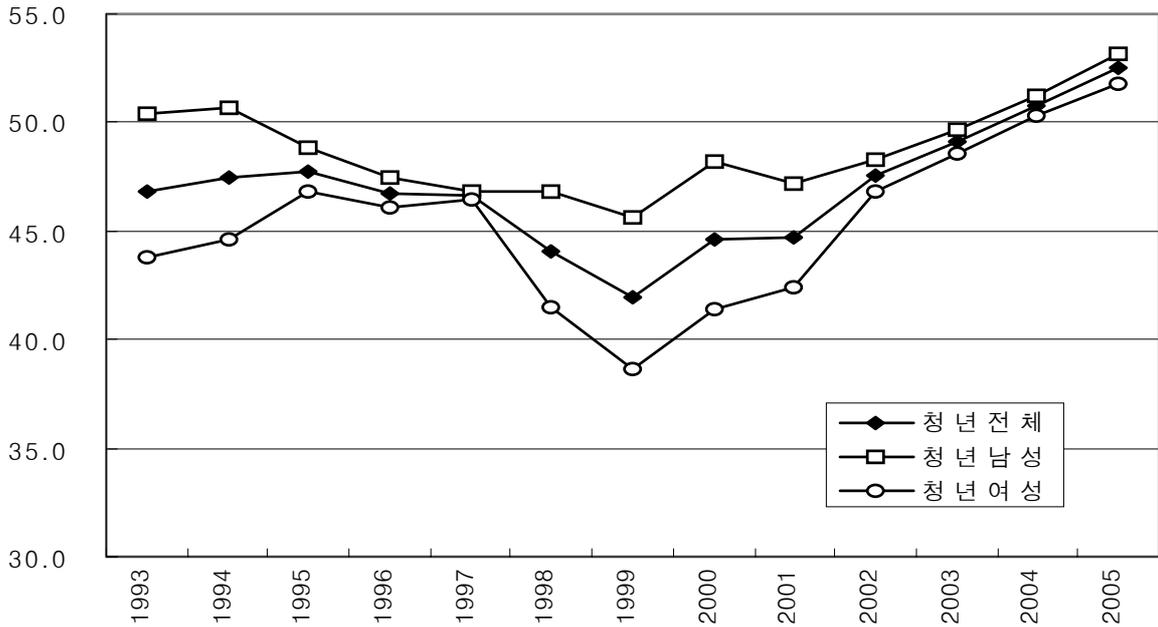
단, 표에 있는 () 안의 값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이며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라. 전망

(1) 회귀분석 결과에 기초한 부산 청년층 참가율 전망

- 위의 방법론과 추정결과에 근거하여 청년층의 연령계층별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전망한 결과가 [그림 4-8]임. 보다 자세한 결과는 <표 4-13>에 제시하였음.
- 그림에서 보듯이 부산지역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2년까지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하였을 때 앞으로 2-3년간 상승할 것이며 참가율의 성별 격차는 작아질 것으로 나타남.
 - 청년층 전체(15-29세)로 보면 2003년에 49.1%, 2004년에 50.8%, 그리고 2005년에는 52.5%로 높아짐.
 - 이러한 결과는 <표 4-13>에서 보듯이 5세 단위로 구분한 모든 연령집단과 성별 집단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05년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그림 4-8] 부산지역 청년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표 4-13> 청년층 연령계층별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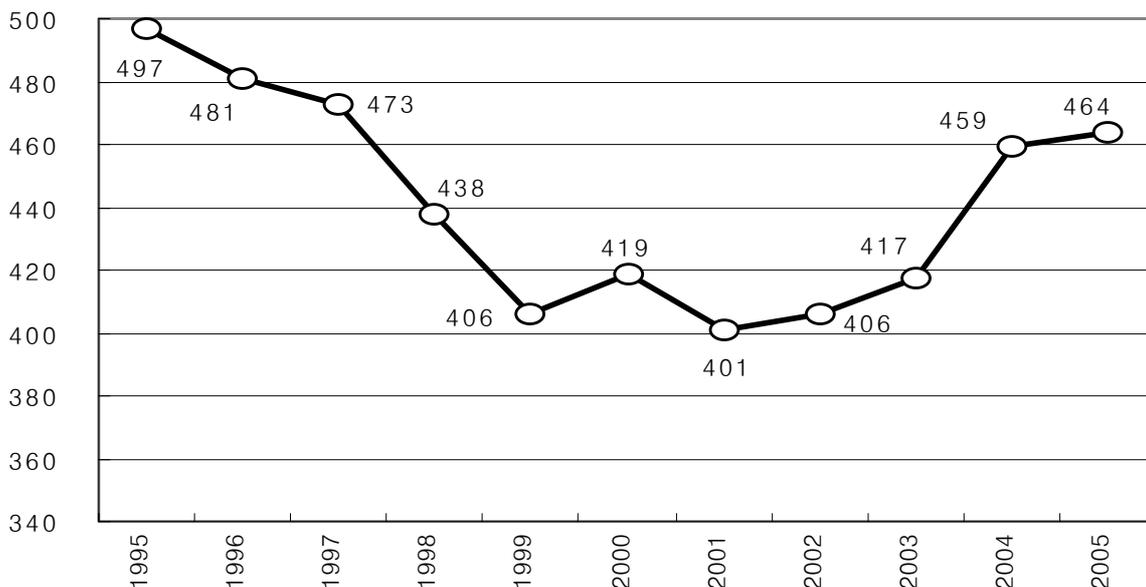
| 구 분 | | 1995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
| 15-29세 | 전체 | 47.8 | 44.7 | 44.7 | 47.6 | 49.1 | 50.8 | 52.5 |
| | 남성 | 48.8 | 48.2 | 47.2 | 48.3 | 49.7 | 51.3 | 53.2 |
| | 여성 | 46.8 | 41.4 | 42.4 | 46.8 | 48.6 | 50.3 | 51.8 |
| 15-19세 | 전체 | 11.0 | 12.6 | 11.5 | 11.5 | 13.9 | 15.9 | 18.7 |
| | 남성 | 6.7 | 12.1 | 10.2 | 10.5 | 13.1 | 15.3 | 18.2 |
| | 여성 | 15.3 | 13.2 | 12.9 | 12.6 | 14.7 | 16.7 | 19.3 |
| 20-24세 | 전체 | 64.1 | 56.3 | 55.6 | 58.2 | 56.6 | 57.2 | 57.8 |
| | 남성 | 53.1 | 52.9 | 53.1 | 50.4 | 52.1 | 52.6 | 53.2 |
| | 여성 | 71.4 | 58.6 | 57.2 | 63.6 | 61.4 | 62.0 | 62.6 |
| 25-29세 | 전체 | 69.2 | 66.1 | 66.2 | 70.5 | 70.0 | 71.0 | 72.1 |
| | 남성 | 84.0 | 76.5 | 75.5 | 78.7 | 77.7 | 78.6 | 79.7 |
| | 여성 | 54.5 | 55.2 | 56.5 | 62.2 | 61.8 | 63.0 | 64.1 |

○ 부산지역 청년층의 경제활동인구는 2004년에 크게 증가하였다가 2005년에 약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1) 앞의 부산지역 청년 참가율 전망치와
- (2) 통계청이 제시한 장래추계인구에서 부산지역 청년층 15-29세 인구수 전망,
- (3) 부산지역에 대한 장래인구추계 결과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과거 실제 15-29세 생산가능인구 간의 격차 등을 감안하면
- 부산지역 청년 경제활동인구는 [그림 4-9]에서 보듯이 2003년에 다소 증가하며 2004년에는 크게 그리고 2005년에는 미약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9] 경제활동인구 전망

(단위: 천명)



(2) 부산지역 청년 참가율에 대한 종합적인 전망

○ 이상의 과정을 거쳐 얻은 <표 4-13>의 결과들을 있는 그대로 부산지역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망치로 제시하기는 어려움.

- 왜냐하면 위의 전망이 기초하고 있는 추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임.

(1) 먼저 위의 전망은 2002년까지의 정보만 사용하여 추정된 회귀분석 결과에 의존하고 있음.

- 2003년 12월의 경제활동참가율 자료가 조사되고 발표되어야 알 수 있겠으나 2003년 부산지역 청년 참가율은 44-45%에 머물 것으로 판단됨.
- 2003년 부산지역 청년의 성별·연령집단별 참가율을 추가적인 정보로 사용하여 추정하고 전망한다면 참가율 전망은 달라질 것임. 전망치는 낮아질 것임.

(2) 회귀분석에 고려되지 못한 변수들이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변수가 지역내총생산(GRDP)임.

- 이 변수가 추정을 위한 설명변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GRDP 자료 생산에 1년 정도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임.
- 부산지역 실질 GRDP 성장률과 부산지역 청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상관계수는 0.312)
- 2004년도 경제전체의 성장률 전망이 밝다는 사실을 기초로 하고 부산지역도 경제전체와 유사하다면 5% 정도의 성장률 전망은 청년 참가율을 높이는 힘으로 작용할 것임.

(3)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04-05년의 부산지역 청년 참가율 및 경제활동인구는 <표 4-13>과 [그림 4-9]에 제시된 결과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전망됨.

5. 소결

- 제2절은 네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분석을 시도하였음.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부산지역 인구구조와 청년 인구의 변화 추이를 부산지역 경제와 관련시켜 볼 때, 이는 부산경제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부산지역의 인구는 경제전체에 비해 매우 이른 시기인 199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15세이상인구가 경제전체와 달리 2001년을 고비로 감소하고 있으며
 - 부산지역 청년 인구가 15세이상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경제전체보다 높으나 지속적이며 급속하게 하락하고 있음.
 - 이러한 요인들은 부산지역 경제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둘째, 부산지역에 매년 새로 등장하는 청년 노동력의 규모는 5-6만명 정도일 것으로 판단됨.
- 매년 새로 학교(고등학교, 전문대 및 대학교)를 졸업하는 사람, 즉 신규 졸업생이 10-11만명 정도이고 이들 가운데 진학 또는 군입대자 5만명을 제외하면 신규로 등장하는 노동력 규모는 5-6만명 정도임.
 -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대졸자(전문대 포함)로서 4만명 가량이며 그 다음이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1-2만명 정도이며 일반계 고교 졸업자의 노동시장 진출은 무시할 정도인 것으로 판단됨.
- 셋째, 부산지역으로 유입되는 인구보다 유출되는 인구가 4만 5천명 정도 더 많아 인구의 순유출(또는 순전출)이 발생하며 이 가운데 청년인구의 순 유출 규모는 2만명 가량임.
- 2000년의 경우 부산지역 인구 가운데 4만 4천-4만 8천명의 순유출(순전출)이 있었음.
 - 1년전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8만 3천명의 유입과 13만 1천명의 유출이 발생하여 순유출 규모가 4만 8천명임.
 - 주민등록으로 파악한 인구이동을 보면 전입 13만명, 전출 17만 4천명, 따라서 4만 4천명의 순전출이 발생하였음.
 -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보면 2001년 부산지역 순전출 규모는 4.1만명이며 2002년에는 4만 9천명임.
 - 청년의 경우에도 전입보다 전출이 2만명 가량 더 많으며 이들 가운데 일정한 정도는 전출사유가 취업과 관련되어 있을 것임.

- 이러한 사실들은 부산지역이 청년들에게 그리 매력적인 도시는 아닌 것으로 해석됨.
- 넷째, 향후 부산지역 청년의 경제활동은 더욱 활발해지고 청년 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부산지역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서울 및 전국 평균에 이르지 못하는 수준인데 1998년 이후 급등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참가율 예측이 매우 어려워졌음.
 - 기존의 훌륭한 방법론과 알려진 정보를 활용하여 과학적으로 전망한 결과 청년 참가율은 상승하고 청년 경제활동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전망을 위해 사용한 회귀분석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가짐.
 - 2002년까지의 정보만 사용되었을 뿐 아직 확정치가 발표되지 않은 2003년의 정보들이 활용되지 못하였음.
 - 부산의 지역내 총생산(GRDP)와 같은 중요한 변수가 설명변수로 도입되지 못하였음.
 -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전망 결과는 하향 수정될 필요가 있음.
-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노동공급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수립되지 못한다면 부산 지역 청년실업은 앞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될 것임.

제3절 부산지역 청년층 실태조사Ⅰ : 대학 취업보도실 방문자 조사

1. 개요

1) 조사의 개요

- 본 실태조사는 2003년 9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14개 대학의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개인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본 실태조사는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14개 대학의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였음.
- 실태조사 기준 시점은 2003년 9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한 달 간이며, 각 대학의 취업보도실 주관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 실태조사 방법은 각 대학에 소재하고 있는 취업보도실을 찾아오는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개인면접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음.

2) 조사 표본의 특성

- 실태조사 총 응답자는 1,431명임.
- <표 4-14>와 【그림 4-10】은 학교별로 실태조사 응답수의 분포를 나타낸 것임.
- 실태조사 설문에 응답한 학생은 총 1,431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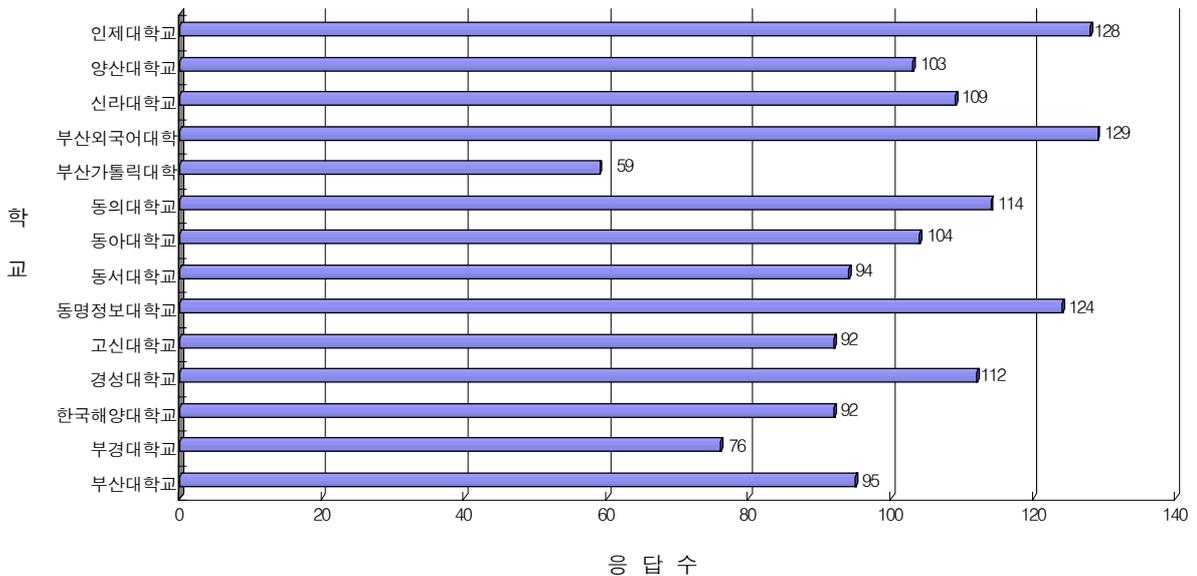
<표 4-14> 학교별 실태조사 응답수

(단위: 명, %)

| 학 교 | 응답수 | 비율 |
|----------|-------|-------|
| 부산대학교 | 95 | 6.6 |
| 부경대학교 | 76 | 5.3 |
| 한국해양대학교 | 92 | 6.5 |
| 경성대학교 | 112 | 7.8 |
| 고신대학교 | 92 | 6.4 |
| 동명정보대학교 | 124 | 8.7 |
| 동서대학교 | 94 | 6.6 |
| 동아대학교 | 104 | 7.3 |
| 동의대학교 | 114 | 8.0 |
| 부산가톨릭대학교 | 59 | 4.1 |
| 부산외국어대학교 | 129 | 9.0 |
| 신라대학교 | 109 | 7.6 |
| 양산대학교 | 103 | 7.2 |
| 인제대학교 | 128 | 8.9 |
| 전 체 | 1,431 | 100.0 |

【그림 4-10】 학교별 실태조사 응답수

학교별 실태조사 응답수



○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53.2%, 여성이 43.7% 임.

- <표 4-15>와 【그림 4-11】의 성별 응답수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표본중 남성은 761명으로 53.2%를 차지하였고, 여성은 626명으로 43.7%를 차지함. 성별을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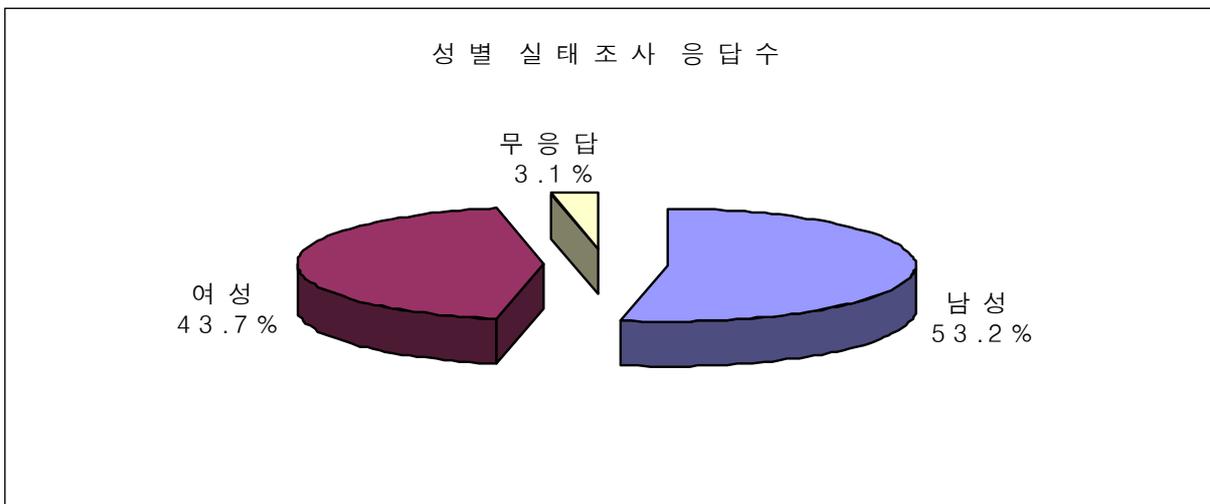
하지 않은 무응답은 44명으로 전체 비중의 3.1%를 차지함.

<표 4-15> 성별 실태조사 응답수

(단위: 명, %)

| 성 별 | 응답수 | 비율 |
|-----|-------|-------|
| 남성 | 761 | 53.2 |
| 여성 | 626 | 43.7 |
| 무응답 | 44 | 3.1 |
| 전 체 | 1,431 | 100.0 |

【그림 4-11】 성별 실태조사 응답비율



○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는 20대가 주를 이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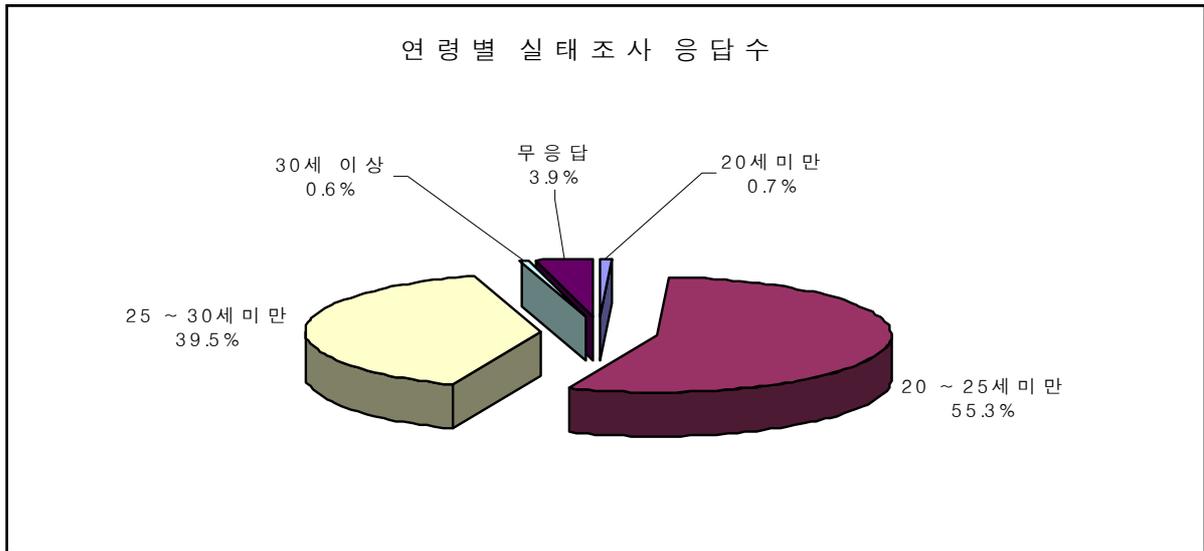
- 연령별 분포는 <표 4-16> 및 【그림 4-12】와 같음.
- 설문대상이 대학졸업예정자인 만큼 대부분이 20대를 차지함. 20~25세 미만이 절반을 넘는 55.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20대 후반으로 39.5%를 차지하고 있음.
- 그 외 20세 미만은 전체 표본 중에서 10명으로 0.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30세 이상도 이와 비슷한 0.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4-16> 연령별 실태조사 응답수

(단위: 명, %)

| 연령분포 | 응답수 | 비율 |
|------------|-----|-------|
| 20세미만 | 10 | 0.7 |
| 20 ~ 25세미만 | 792 | 55.3 |
| 25 ~ 30세미만 | 565 | 39.5 |
| 30세 이상 | 9 | 0.6 |
| 무응답 | 55 | 3.9 |
| 전 체 | | 100.0 |

【그림 4-12】 성별 실태조사 응답비율



2. 실태분석

1) 구직경로

○ 응답자들의 주요 구직경로는 ‘인터넷의 구인·구직 정보를 통해’ 임.

- 졸업예정자들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경로는 온라인 채용사이트를 통한 것으로 밝혀짐. <표 4-17>의 주요 구직 경로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응답수를 보인 항목은 남·녀 모두 ‘인터넷의 구인·구직 정보를 통해’서 라고 밝혔으며, 이는 전체 응답수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음.

<표 4-17> 주요 구직 경로

(단위 : 명. %)

| 구직 경로 | 전체 | | 남성 | | 여성 | |
|------------------------------|--------------|----------------|------------|----------------|------------|----------------|
| | 빈도수 | (비율) | 빈도수 | (비율) | 빈도수 | (비율) |
| 인터넷의 구인·구직 정보를 통해 | 492 | (35.1) | 250 | (33.4) | 231 | (37.3) |
| (공개)채용시험을 통하여 | 299 | (21.3) | 183 | (24.5) | 109 | (17.6) |
| 본인의 직접적인 문의/면담을 통하여 | 149 | (10.6) | 89 | (11.9) | 58 | (9.4) |
| 학교내의 직업소개기관을 통하여 | 120 | (8.5) | 59 | (7.9) | 57 | (9.2) |
| 학교(학원) 선생님의 소개나 추천을 통하여 | 104 | (7.4) | 43 | (5.7) | 54 | (8.7) |
| 가족이나 친지의 소개/추천을 통하여 | 80 | (5.7) | 35 | (4.7) | 43 | (6.9) |
| 신문, 잡지 등의 구인·구직 정보를 통해 | 57 | (4.1) | 26 | (3.5) | 29 | (4.7) |
| 그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소개/추천을 통하여 | 40 | (2.9) | 24 | (3.2) | 16 | (2.6) |
| 회사측의 특별채용(스카우트)에 의하여 | 34 | (2.4) | 22 | (2.9) | 11 | (1.8) |
| 공공/사설 직업소개기관(고용안정센터 등)을 통하여 | 19 | (1.4) | 9 | (1.2) | 10 | (1.6) |
| 파견업체 등록 | 9 | (0.6) | 8 | (1.1) | 1 | (0.2) |
| 전 체 | 1,403 | (100.0) | 748 | (100.0) | 619 | (100.0) |

- 그 다음으로 높은 것은 공채를 통한 입사로서 약 20%의 학생이 '(공개)채용 시험을 통하여' 라고 응답함. 이 외에도 '본인이 직접 문의 면담'을 통해서 직장을 구한다는 학생도 10%가량 됨.
- 그러나 '학교 내의 직업소개기관'을 이용한다는 학생은 그다지 많지 않았으며 특히, '고용안정센터'를 비롯한 '공공/사설 직업소개기관'을 이용한다는 학생은 1%내외로 극히 적은 것으로 밝혀짐.

○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채용사이트는 '사설 온라인 채용정보업체'인 것으로 나타남.

- '인터넷 구인·구직 정보' 중 구체적으로 어떠한 인터넷 채용사이트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사하였음(<표 4-18>)참조.
-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채용사이트는 '사설 온라인 채용정보업체'로써 응답자 중 60%가 넘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의 사용비율이 약 5%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노동부 고용안정 정보망(Work-net)'을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181명으로 전체 응답자중에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노동부 고용안정 정보망(Work-net)'의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
- 이밖에 '신문사 취업관련 사이트' 및 '기타' 이용자들이 약 20%정도 차지함.

<표 4-18>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채용사이트

(단위 : 명. %)

| | 전체 | | 남성 | | 여성 | |
|------------------------|-------|---------|-----|---------|-----|---------|
| | 빈도수 | (비율) | 빈도수 | (비율) | 빈도수 | (비율) |
| 사설 온라인 채용정보업체 | 922 | (66.2) | 510 | (68.6) | 388 | (63.4) |
| 노동부 고용안정 정보망(Work-net) | 181 | (13.0) | 93 | (12.5) | 86 | (14.1) |
| 신문사 취업관련 사이트 | 128 | (9.2) | 64 | (8.6) | 59 | (9.6) |
| 기타 | 161 | (11.6) | 77 | (10.3) | 79 | (12.9) |
| 전 체 | 1,392 | (100.0) | 744 | (100.0) | 612 | (100.0) |

2) 취업 선호 업종

○ 취업 선택 시 가장 선호하는 업종은 ‘공무원·정부투자기관’ 이고, 가장 기피하는 업종은 1차산업과 ‘신발·고무제품 제조업’임.

- 표준산업분류를 통해 취업을 원할 때 가장 선호하는 업종을 알아보았는데 이를 정리한 것이 <표 4-19>임.
- 응답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업종은 ‘공무원·정부투자기관’으로 전체 응답자 중 16.2%를 차지하였음. 즉, 취업희망자들은 불안한 취업자리 대신 좀더 안정적인 업종을 원함. 그 다음으로 ‘무역’이 12.5%를 차지하였으며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11.4%)과 ‘금융·보험·증권’(9.8%)이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하였음.
- 가장 기피하는 업종은 1차산업에 해당하는 ‘농수축산업’과 ‘광업’, 그리고 제조업 중 ‘신발·고무제품 제조업’을 가장 기피하는 것으로 밝혀짐.
- ‘신발산업’이 부산의 특화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이 취업선택시 이를 가장 기피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 남성은 ‘컴퓨터관련 서비스’를 가장 선호하고 여성은 ‘공무원·정부투자기관’을 가장 선호함.

- 성별로 선호 업종은 다소 차이를 보임.
- 남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업종은 ‘컴퓨터관련 서비스’로 13.5%를 차지함. 그 다음으로 ‘공무원·정부투자기관’이 12.2%로 2위를 차지함. 그 다음 순으로 ‘무역’과

‘건설’이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함

- 여성들은 다른 무엇보다 ‘공무원·정부투자기관’(21.9%)을 가장 선호함. 그 다음으로 무역업이 14.2%로 2위를 차지하였으며, ‘음식·숙박업(호텔·레스토랑)’과 ‘금융·보험·증권’이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했음.

- 성별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들은 지식기반산업에 해당하는 ‘컴퓨터관련 서비스업’을 선호하며, 여성들은 좀더 안정적인 업종에 해당하는 ‘공무원·정부투자기관’을 선호함.

<표 4-19> 취업선택 시 선호 업종

(단위 : %)

| 표준산업분류 | | 전체 | | 남성 | | 여성 | |
|-----------------|-------------|-------|---------|-----|---------|-----|---------|
| | | 순위 | (비율) | 순위 | (비율) | 순위 | (비율) |
| 농수축산업 | | 19 | (0.2) | 19 | (0.2) | 19 | (0.2) |
| 광업 | | 19 | (0.2) | 18 | (0.3) | 20 | (0.0) |
| 제조업 | 식·음료제조업 | 11 | (2.7) | 16 | (1.3) | 8 | (4.5) |
| | 신발·고무제품제조업 | 19 | (0.2) | 20 | (0.0) | 18 | (0.4) |
| | 섬유·의류제조업 | 17 | (0.9) | 17 | (0.9) | 15 | (1.0) |
| | 석유·화학제조업 | 14 | (1.9) | 14 | (2.3) | 13 | (1.4) |
| | 전기·전자제조업 | 9 | (5.1) | 7 | (7.6) | 14 | (1.2) |
| | 자동차·운송기기제조업 | 7 | (5.9) | 5 | (9.6) | 15 | (1.0) |
| | 제약·화장품제조업 | 17 | (0.9) | 20 | (0.0) | 11 | (1.7) |
| | 기타제조업 | 16 | (1.1) | 15 | (1.9) | 20 | (0.0) |
| 전기·가스·수도업 | | 15 | (1.8) | 13 | (2.6) | 17 | (0.8) |
| 건설업 | | 6 | (7.0) | 4 | (10.6) | 9 | (2.3) |
| 도·소매업 | | 12 | (2.4) | 11 | (2.9) | 10 | (2.0) |
| 음식·숙박업(호텔·레스토랑) | | 5 | (7.7) | 8 | (4.3) | 3 | (12.0) |
| 운수·창고·통신업 | | 13 | (2.3) | 11 | (2.9) | 11 | (1.7) |
| 금융·보험·증권 | | 4 | (9.8) | 6 | (8.6) | 4 | (11.6) |
| 공무원·정부투자기관 | | 1 | (16.2) | 2 | (12.2) | 1 | (21.9) |
| 무역 | | 2 | (12.5) | 3 | (11.0) | 2 | (14.2) |
| 출판·광고 | | 7 | (5.9) | 8 | (4.3) | 6 | (8.0) |
|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 | 3 | (11.4) | 1 | (13.5) | 5 | (8.5) |
| 보건·의료 서비스업 | | 10 | (4.1) | 10 | (3.0) | 7 | (5.6) |
| 전체 | | 1,244 | (100.0) | 698 | (100.0) | 515 | (100.0) |

3) 취업 선호 직종

- 취업선택 시 가장 선호되는 직종은 남녀 모두 ‘전문직’임.

- <표 4-20>은 표준직업분류를 통해 취업선택시 가장 선호되는 직종을 나타낸 것임.
- 남녀모두 ‘전문직’(30.9%)을 가장 선호하며, 그 다음으로 ‘일반사무직’(21.1%), ‘기술 및 준 전문직’(17.6%)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제조업직공’, ‘노무직’ 및 ‘1차산업 직종’은 매우 기피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남성과 여성 모두 ‘전문직’ 및 ‘기술 및 준전문직’을 가장 선호함

- 남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종은 ‘전문직’으로 27.6%의 비율을 보임. 그 다음으로 ‘기술 및 준전문직’이 26.3%로 ‘전문직’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냄.
-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가장 선호하는 직종은 ‘전문직’으로 35%의 매우 높은 비율을 보임.
- 그러나 2위와 3위는 남성과 차이를 보임. ‘전문직’ 다음으로 선호하는 직종은 ‘일반사무직’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선호하는 직종은 각각 ‘서비스판매직’과 ‘경영·관리직’으로 나타났음.
- 가장 기피하는 직종은 1차산업 직종과 생산직, 단순노무직으로 나타났음.

<표 4-20> 취업선택 시 선호 직종

(단위 : %)

| 표준직업분류 | 전체 | | 남성 | | 여성 | |
|----------------|---------|---------|---------|---------|---------|---------|
| | 순위 (비율) | | 순위 (비율) | | 순위 (비율) | |
| 경영·관리직 | 4 | (18.7) | 3 | (23.2) | 4 | (13.9) |
| 전문직 | 1 | (30.9) | 1 | (27.6) | 1 | (35.0) |
| 기술 및 준전문직 | 3 | (17.6) | 2 | (26.3) | 5 | (7.1) |
| 일반사무직 | 2 | (21.1) | 4 | (13.9) | 2 | (29.3) |
| 서비스판매직 | 5 | (10.6) | 5 | (7.3) | 3 | (14.4) |
| 농업 및 어업근로자 | 8 | (0.2) | 7 | (0.3) | 7 | (0.0) |
| 숙련공, 기능공 | 6 | (0.6) | 6 | (1.2) | 7 | (0.0) |
| 단순조립, 기계조작 근로자 | 7 | (0.3) | 7 | (0.3) | 6 | (0.3) |
| 단순노무직 | 9 | (0.0) | 9 | (0.0) | 7 | (0.0) |
| 전 체 | 1,296 | (100.0) | 685 | (100.0) | 577 | (100.0) |

4) 취업 희망 지역

- 전체 응답자중 약 60%가 부산에서 취업하기를 원하고 있고, 25%는 서울·수도권 지역에서 취업하기를 원함.
 - 응답자들의 취업희망지역 조사 결과 약 60%의 응답자들이 부산·경남·울산지역에서 취업하기를 희망함. 남녀 차이는 크지 않음.(<표 4-21>참조)
 - 그러나 응답자의 25.5%는 부산지역이 아닌 수도권·서울 지역에서 취업하기를 원하고 있음. 이러한 경향은 남성(22.9%)보다는 여성(28.1%)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표 4-21> 취업 희망지역

(단위 : 명, %)

| 희망 지역 | 전체 | | 남성 | | 여성 | |
|-------------|-------|---------|-----|---------|-----|---------|
| | | | 빈도수 | (비율) | 빈도수 | (비율) |
| | 빈도수 | (비율) | 빈도수 | (비율) | 빈도수 | (비율) |
| 부산·경남·울산지역 | 826 | (58.6) | 443 | (58.7) | 367 | (59.2) |
| 수도권·서울지역 | 359 | (25.5) | 173 | (22.9) | 174 | (28.1) |
| 어느 곳이든 상관없다 | 201 | (14.2) | 121 | (16.1) | 75 | (12.1) |
| 기타 | 24 | (1.7) | 17 | (2.3) | 4 | (0.6) |
| 전 체 | 1,410 | (100.0) | 754 | (100.0) | 620 | (100.0) |

- 타 지역 선택이유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부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부산이외의 지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37.5%가 ‘미래에 대한 비전이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고, 그 다음으로 32.1%가 ‘지원할만한 마땅한 업체가 많지 않다’고 대답하였음.(<표 4-22>참조)
- 따라서 부산지역에서의 인력유출을 막고 청년층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졸업예정자들에게 부산이 여타 지역에 비해 미래에 대한 비전이 밝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하며, 또한 취업예정자들의 직종별 수요 조사를 통해 이들이 원하는 일 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것이 시급함.

<표 4-22> 타 지역 선택 사유

(단위 : %)

| 사유 | 전체 | | 성별 | | | |
|---------------------|-----|---------|-----|---------|-----|---------|
| | | | 남성 | | 여성 | |
| | 순위 | (비율) | 순위 | (비율) | 순위 | (비율) |
| 미래에 대한 비전이 부족하다 | 1 | (37.5) | 1 | (37.3) | 1 | (37.9) |
| 지원할만한 마땅한 업체가 많지 않다 | 2 | (32.1) | 2 | (30.0) | 2 | (35.0) |
| 연고가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 3 | (8.4) | 4 | (9.5) | 4 | (7.8) |
| 연봉수준이 낮다 | 4 | (8.3) | 3 | (10.1) | 5 | (6.6) |
|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 6 | (5.6) | 6 | (5.5) | 6 | (4.5) |
| 기타 | 5 | (8.1) | 5 | (7.6) | 3 | (8.2) |
| 전체 | 592 | (100.0) | 327 | (100.0) | 243 | (100.0) |

5) 유치 희망 업종

- 응답자들이 부산지역의 청년층 고용창출을 위해 부산에 개발 혹은 유치해야 하는 업종으로는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을 1위로 꼽았음.
 - 표준산업분류를 통해 응답자들이 청년층 고용확대를 위해 부산에 개발 혹은 유치해야 하는 업종으로 제일 많이 선택한 것은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으로 전체 응답자의 15%가 선택하였음. 이는 <표 4-19>의 취업 희망 업종 분석 결과와 일치함.(<표4-23참조>)
 - 그 다음으로 12.8%가 ‘공무원·정부투자기관’이라고 응답하였고 ‘무역업’(12.0%)과 ‘금융·보험·증권’(9.8%)이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하였다.
- 남성은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을 여성은 ‘공무원·정부투자기관’을 다른 업종보다 우선순위를 두어 유치, 개발해야 한다고 응답함.
 - 남성은 무엇보다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15.5%)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이 역시 희망 취업 업종의 결과와 일치함. 그 다음으로 10.9%의 응답자들이 ‘금융·보험·증권업’이라고 응답했으며, ‘무역업’(10.5%)과 ‘자동차 운송기기 제조업’(10.1%)이 그 뒤를 이었음.
 - 여성의 경우 응답자의 17.4%가 ‘공무원·정부투자기관’의 유치 및 개발을 1위로

선택하였음. 2위는 14.4%가 선택한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무역업’(13.9%)와 ‘음식·숙박업(호텔·레스토랑)’(13.3%)이 3위와 4위를 차지하였음.

- 이를 종합해 보면, 부산 청년층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컴퓨터관련 서비스업’과 ‘공무원·정부투자기관’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요구됨.

<표 4-23> 청년층 고용확대를 위해 부산에 개발 혹은 유치해야 되는 업종

(단위 : %)

| 표준산업분류 | | 전체 | | 남성 | | 여성 | |
|-----------------|-------------|----------|---------------|----------|---------------|----------|---------------|
| | | 순위 (비율) | 순위 (비율) | 순위 (비율) | 순위 (비율) | | |
| 농수축산업 | | 20 | (0.2) | 19 | (0.0) | 19 | (0.3) |
| 광업 | | 21 | (0.0) | 19 | (0.0) | 21 | (0.0) |
| 제조업 | 식·음료제조업 | 12 | (2.4) | 16 | (1.2) | 8 | (4.0) |
| | 신발·고무제품제조업 | 13 | (1.4) | 12 | (2.2) | 19 | (0.3) |
| | 섬유·의류제조업 | 18 | (0.9) | 18 | (1.0) | 15 | (0.8) |
| | 석유·화학제조업 | 16 | (1.2) | 14 | (1.8) | 17 | (0.7) |
| | 전기·전자제조업 | 7 | (5.7) | 6 | (8.0) | 12 | (2.3) |
| | 자동차·운송기기제조업 | 6 | (6.7) | 4 | (10.1) | 11 | (2.5) |
| | 제약·화장품제조업 | 19 | (0.7) | 19 | (0.0) | 13 | (1.7) |
| | 기타제조업 | 13 | (1.4) | 14 | (1.8) | 15 | (0.8) |
| 전기·가스·수도업 | | 15 | (1.3) | 13 | (2.0) | 18 | (0.5) |
| 건설업 | | 8 | (5.4) | 7 | (7.3) | 10 | (3.3) |
| 도·소매업 | | 16 | (1.2) | 17 | (1.1) | 14 | (1.2) |
| 음식·숙박업(호텔·레스토랑) | | 5 | (8.6) | 9 | (4.7) | 4 | (13.3) |
| 운수·창고·통신업 | | 8 | (5.4) | 8 | (7.0) | 9 | (3.5) |
| 금융·보험·증권 | | 4 | (9.8) | 2 | (10.9) | 5 | (8.6) |
| 공무원·정부투자기관 | | 2 | (12.8) | 5 | (9.1) | 1 | (17.4) |
| 무역 | | 3 | (12.0) | 3 | (10.5) | 3 | (13.9) |
| 출판·광고 | | 10 | (4.4) | 10 | (3.0) | 6 | (6.3) |
|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 | 1 | (15.0) | 1 | (15.5) | 2 | (14.4) |
| 보건·의료 서비스업 | | 11 | (3.4) | 11 | (2.8) | 7 | (4.1) |
| 전 체 | | 1,378 | (100.0) | 740 | (100.0) | 603 | (100.0) |

6) 취업 희망 업체

가. 기업규모

○ 취업 시 원하는 기업의 규모는 1,000인 이상의 대기업을 선호함.

- <표 4-24>의 희망기업규모를 살펴보면 취업 시 희망하는 기업의 규모는 전체 응답자중 313명인 22.3%가 1,000인 이상의 대기업을 선호함. 그러나 이와 비슷한 312명의 응답자가 30인 이상 ~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호하는 기업규모의 수준은 큰 차이를 보임.

○ 남성은 대기업을 선호하고 여성은 중소기업을 선호함으로써 성별로 선호기업규모는 다소 차이를 보임.

- 남성이 취업시 가장 희망하는 기업규모는 27.4%가 1,000인 이상의 대기업을 취업하기를 원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 25.2%가 30인 이상 ~ 100인 미만인 중소기업 규모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 희망 기업규모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4-24> 희망 기업 규모

(단위 : 명, %)

| 기업 규모 | 전체 | | 남성 | | 여성 | |
|---------------------|-------|---------|-----|---------|-----|---------|
| | 빈도수 | (비율) | 빈도수 | (비율) | 빈도수 | (비율) |
| 30인 미만 | 92 | (6.5) | 38 | (5.0) | 49 | (8.0) |
| 30인 이상 ~ 100인 미만 | 312 | (22.2) | 148 | (19.6) | 155 | (25.2) |
|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 253 | (18.0) | 132 | (17.5) | 117 | (19.1) |
| 300인 이상 ~ 500인 미만 | 229 | (16.3) | 124 | (16.4) | 99 | (16.1) |
| 500인 이상 ~ 1,000인 미만 | 206 | (14.7) | 106 | (14.0) | 94 | (15.3) |
| 1,000인 이상 | 313 | (22.3) | 207 | (27.4) | 100 | (16.3) |
| 전 체 | 1,405 | (100.0) | 755 | (100.0) | 614 | (100.0) |

○ 상위학교 일수록 대기업을 선호함.

- <표 4-25>에서 설문대상 대학을 대학 순위에 따라 4개 등급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상위학교 일수록 대기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상위학교에 해당하는 A군과 B군 학교는 1,000인 이상의 대기업을 제일 선호하였고 C군과 D군 학교는 30인 이상 ~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을 제일 선호함.

<표 4-25> 학교 등급별 희망기업 규모

(단위 : 명, %)

| 기업 규모 | 분 류 | | | | | | | |
|---------------------|-----------|-------------|-----------|-------------|------------|-------------|------------|-------------|
| | A | | B | | C | | D | |
| | 빈도수 (비율) | 빈도수 (비율) | 빈도수 (비율) | 빈도수 (비율) | 빈도수 (비율) | 빈도수 (비율) | 빈도수 (비율) | |
| 30인 미만 | 0 | 0 | 6 | 2.3 | 56 | 7.6 | 30 | 9.5 |
| 30인 이상 ~ 100인 미만 | 3 | 3.2 | 26 | 10.0 | 172 | 23.5 | 111 | 35.0 |
|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 3 | 3.2 | 36 | 13.8 | 165 | 22.5 | 49 | 15.5 |
| 300인 이상 ~ 500인 미만 | 7 | 7.4 | 40 | 15.4 | 125 | 17.1 | 57 | 18.0 |
| 500인 이상 ~ 1,000인 미만 | 8 | 8.4 | 62 | 23.8 | 101 | 13.8 | 35 | 11.0 |
| 1,000인 이상 | 74 | 77.9 | 90 | 34.6 | 114 | 15.6 | 35 | 11.0 |
| 전 체 | 95 | (100.0) | 260 | (100.0) | 733 | (100.0) | 317 | (100.0) |

나. 연봉수준

○ 응답자들이 받고자 하는 희망연봉수준은 1,8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임.

- 취업 희망자들이 받고자 하는 적정연봉수준은 전체 응답자중 369명인 26.1%가 1,8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수준이라고 응답함.<표 4-26참조>
- 남성은 28.6%가 1,8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수준이 적정연봉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성은 이보다 조금 낮은 수준인 1,500만원 이상 ~ 1,800만원 미만 수준(24.8%)을 적정연봉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표 4-26> 희망연봉수준

(단위 : 명, %)

| 연봉 수준 | 전체 | | 남성 | | 여성 | |
|-------------------------|------------|---------------|------------|---------------|------------|---------------|
| | 빈도수 (비율) | 빈도수 (비율) | 빈도수 (비율) | 빈도수 (비율) | 빈도수 (비율) | 빈도수 (비율) |
| 1,000만원 미만 | 12 | (0.8) | 6 | (0.8) | 5 | (0.8) |
| 1,000만원 이상 ~ 1,200만원 미만 | 36 | (2.5) | 11 | (1.5) | 24 | (3.9) |
| 1,2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 192 | (13.6) | 51 | (6.7) | 136 | (22.0) |
| 1,500만원 이상 ~ 1,800만원 미만 | 251 | (17.8) | 92 | (12.1) | 153 | (24.8) |
| 1,8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 369 | (26.1) | 217 | (28.6) | 143 | (23.2) |
| 2,000만원 이상 ~ 2,300만원 미만 | 249 | (17.7) | 165 | (21.8) | 76 | (12.3) |
| 2,3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 146 | (10.4) | 103 | (13.6) | 38 | (6.2) |
| 2,500만원 이상 | 156 | (11.1) | 113 | (14.9) | 42 | (6.8) |
| 전 체 | 1,411 | (100.0) | 758 | (100.0) | 617 | 100.0) |

○ 학교 등급별 희망연봉수준은 다소 차이를 보임.

- <표 4-27>을 보면 상위학교인 A군 학교 학생의 경우 과반수이상인 2,500만원 이상 받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B군 학교의 경우 2,000만원 ~ 2,300만원 사이를 그리고 C와 D 군학교는 1,800만원에서 2,000만사이의 연봉을 희망하고 있음. 즉, 상위학교 일수록 더 높은 연봉수준을 원함.

<표 4-27> 학교 등급별 희망연봉수준

(단위 : 명, %)

| 연봉 수준 | 분 류 | | | | | | | |
|-------------------------|-----------|-------------|-----------|-------------|------------|-------------|-----------|-------------|
| | A | | B | | C | | D | |
| | 빈도수 (비율) | 빈도수 (비율) | 빈도수 (비율) | 빈도수 (비율) | 빈도수 (비율) | 빈도수 (비율) | 빈도수 (비율) | |
| 1,000만원 미만 | 3 | 3.2 | 0 | 0.0 | 6 | 0.8 | 3 | 0.9 |
| 1,000만원 이상 ~ 1,200만원 미만 | 0 | 0.0 | 5 | 1.9 | 20 | 2.7 | 11 | 3.5 |
| 1,2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 1 | 1.1 | 13 | 4.9 | 111 | 15.1 | 67 | 21.1 |
| 1,500만원 이상 ~ 1,800만원 미만 | 0 | 0.0 | 30 | 11.4 | 149 | 20.3 | 72 | 22.6 |
| 1,8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 2 | 2.1 | 65 | 24.7 | 210 | 28.6 | 92 | 28.9 |
| 2,000만원 이상 ~ 2,300만원 미만 | 8 | 8.4 | 78 | 29.7 | 119 | 16.2 | 44 | 13.8 |
| 2,3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 28 | 29.5 | 42 | 16.0 | 66 | 9.0 | 10 | 3.1 |
| 2,500만원 이상 | 53 | 59.8 | 30 | 11.4 | 54 | 7.3 | 19 | 6.0 |
| 전 체 | 95 | (100.0) | 263 | (100.0) | 735 | (100.0) | 318 | (100.0) |

다. 업체선택기준

- 업체선택 시 가장 먼저 고려하는 사항은 ‘연봉수준’임.
- <표 4-28>을 살펴보면, 응답자들이 업체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사항은 ‘연봉수준’으로 전체 응답자의 34.3%가 무엇보다 ‘연봉수준’을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직무적합성’(29.8%)이며, 그외 ‘회사 발전전망’(16.9%), ‘회사규모 및 인지도’(10.3%), ‘복지혜택’(7.8%) 등의 순으로 업체 선택시 고려함.
- 업체선택 시 가장 먼저 고려하는 사항은 성별로 다소 차이를 보임. 남성은 ‘연봉수준’(36.1%)을 제일 먼저 고려한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은 ‘직무적합성’(34.4%)을 다른 무엇보다 제일 먼저 고려하는 사항이라고 응답함.

<표 4-28> 업체 선택 시 가장 먼저 고려하는 사항

(단위 : %)

| 고려사항 | 전체 | | 남성 | | 여성 | |
|------------|-------|---------|-----|---------|-----|---------|
| | 순위 | (비율) | 순위 | (비율) | 순위 | (비율) |
| 연봉수준 | 1 | (34.3) | 1 | (36.1) | 2 | (32.2) |
| 직무적합성 | 2 | (29.8) | 2 | (26.4) | 1 | (34.4) |
| 회사 발전전망 | 3 | (16.9) | 3 | (19.3) | 3 | (13.7) |
| 회사규모 및 인지도 | 4 | (10.3) | 4 | (9.8) | 4 | (11.1) |
| 복지혜택 | 5 | (7.8) | 5 | (7.6) | 5 | (7.6) |
| 기타 | 6 | (0.9) | 6 | (0.8) | 6 | (1.0) |
| 전 체 | 1,414 | (100.0) | 757 | (100.0) | 621 | (100.0) |

라. 하향 취업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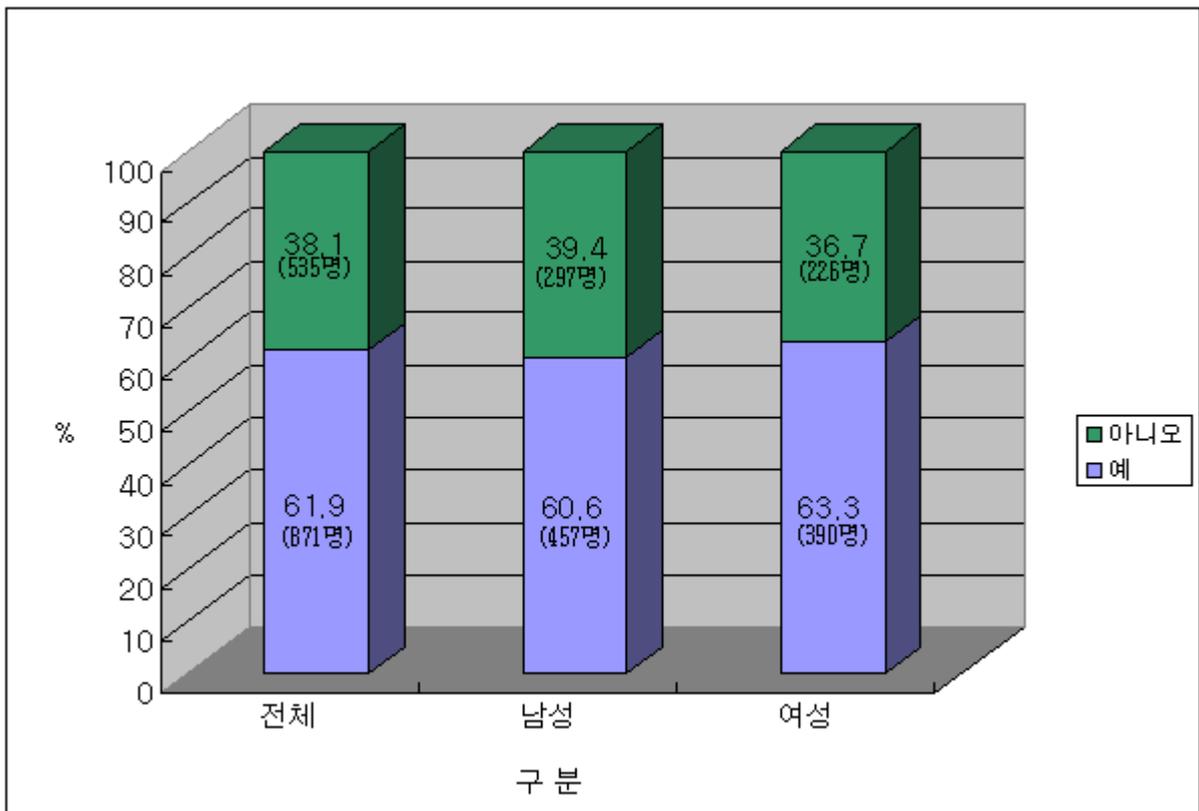
- 전체 응답자중 871명인 61.9%가 하향 취업할 의사를 가지고 있음.
- 자신의 학력보다 낮은 학력을 요구하는 일자리에도 취업을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중 871명인 61.9%가 ‘예’라고 대답하여 취업준비자들의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음을 알 수 있음. 이는 부산지역의 취업상황을 반영하는 결과임.<표4-29>, 【그림 4-13】 참조

<표 4-29> 하향 취업 의사 여부

(단위 : 명, %)

| | 전체 | 남성 | 여성 |
|-----|---------------|-------------|-------------|
| | 빈도수 (비율) | 빈도수 (비율) | 빈도수 (비율) |
| 예 | 871 (61.9) | 457 (60.6) | 390 (63.3) |
| 아니오 | 535 (38.1) | 297 (39.4) | 226 (36.7) |
| 전 체 | 1,406 (100.0) | 754 (100.0) | 616 (100.0) |

【그림 4-13】 하향 취업 의사 여부



○ 하위권 학교 일수록 하향 취업 의사가 큼.

- 상위권인 A군 학교의 경우 하향취업의사가 28.1%인 반면, D군 학교의 경우 69.6%가 하향취업의사를 가지고 있음. 이는 하위권 학교 일수록 상대적으로 취업이 더욱 어렵다는 것을 의미함.(<표 4-30> 참조)

<표 4-30> 학교 등급별 하향 취업 의사 여부

(단위 : 명. %)

| | 분 류 | | | |
|-----|------------|-------------|-------------|-------------|
| | A | B | C | D |
| | 빈도수 (비율) | 빈도수 (비율) | 빈도수 (비율) | 빈도수 (비율) |
| 예 | 25 (28.1) | 149 (56.0) | 477 (64.9) | 220 (69.6) |
| 아니오 | 64 (71.9) | 117 (44.0) | 258 (35.1) | 96 (30.4) |
| 전 체 | 89 (100.0) | 266 (100.0) | 735 (100.0) | 316 (100.0) |

마. 비정규직 취업 의사 여부

○ 응답자의 46.9%가 비정규직으로라도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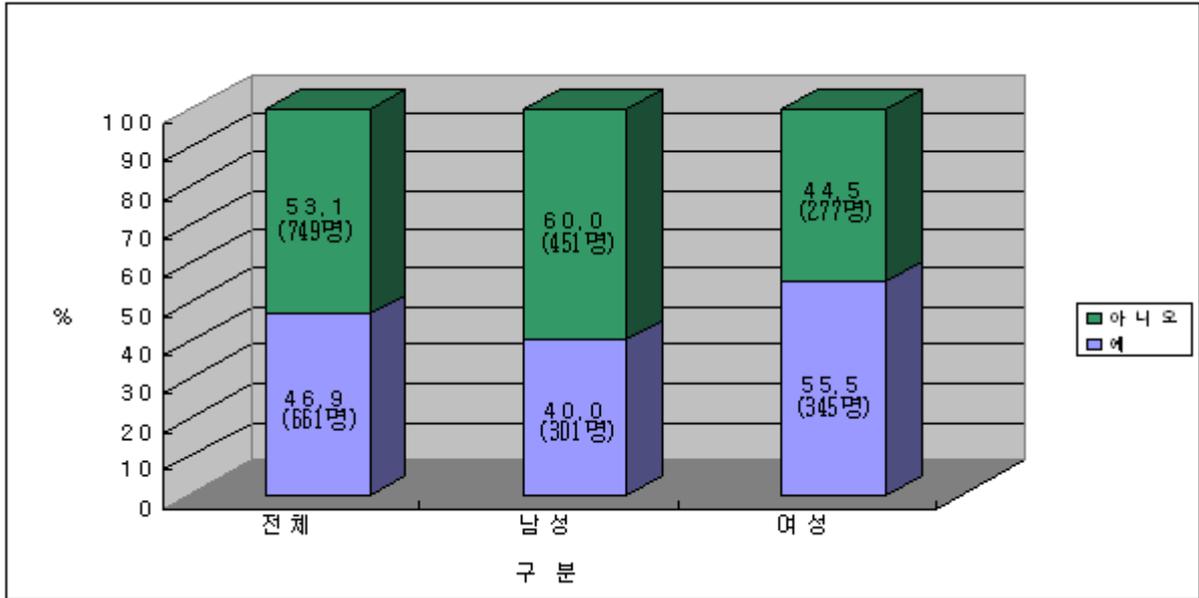
- <표 4-31>을 보면 전체 설문 응답자의 53.1%인 749명이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46.9%인 661명이 비정규직으로라도 취업한다는 의사를 보임.
- 성별로 비정규직 취업의사여부는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음. 남성의 경우 40%만이 비정규직으로 취업할 의사가 있는 반면 여성은 절반이 넘는 55.5%가 비정규직이라도 취업할 의사가 있다고 밝힘. 이는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취업이 더 어렵기 때문에 비정규직이라도 취업하겠다는 의사를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표 4-31> 비정규직 취업 의사 여부

(단위 : 명. %)

| | 전체 | 남성 | 여성 |
|-----|---------------|-------------|-------------|
| | 빈도수 (비율) | 빈도수 (비율) | 빈도수 (비율) |
| 예 | 661 (46.9) | 301 (40.0) | 345 (55.5) |
| 아니오 | 749 (53.1) | 451 (60.0) | 277 (44.5) |
| 전 체 | 1,410 (100.0) | 752 (100.0) | 622 (100.0) |

【그림 4-14】 비정규직 취업 의사 여부



○ 상위권 학교의 비정규직 취업의사율이 매우 낮음.

- <표 4-32>를 보면 비정규직 취업의사 여부는 상위권인 A군 학교가 12.6%로 제일 낮음. 그러나 A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의 학교에서는 40% ~ 50%의 높은 비정규직 취업희망비율을 보여줌.

<표 4-32> 학교 등급별 비정규직 취업 의사 여부

(단위 : 명, %)

| | 분 류 | | | |
|-----|------------|-------------|-------------|-------------|
| | A | B | C | D |
| | 빈도수 (비율) | 빈도수 (비율) | 빈도수 (비율) | 빈도수 (비율) |
| 예 | 12 (12.6) | 113 (42.8) | 391 (53.3) | 145 (45.6) |
| 아니오 | 83 (87.4) | 151 (57.2) | 342 (46.7) | 173 (54.4) |
| 전 체 | 95 (100.0) | 264 (100.0) | 733 (100.0) | 318 (100.0) |

7) 취업 및 고용촉진

○ 지방대생 취업 촉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채용박람회’ 개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지방대생 취업촉진을 위해 대학을 비롯한 취업알선기관에서 개최해야 될 행사로는 47.6%의 응답자들이 ‘채용박람회’ 개최를 1위로 꼽았음.(<표 4-33>참조)
- 남자의 경우 47.3%가 여자의 경우 48.4%가 ‘채용박람회’를 선택함으로써 남녀 모두 무엇보다 ‘채용박람회’의 활성화를 통한 취업촉진을 원하고 있음. 그 다음 순으로 ‘취업촉진 프로그램’(23.0%), ‘취업설명회’(18.3%), ‘취업특강’(10.7%)순으로 선택하였음.

<표 4-33> 지방대생 취업촉진을 위하여 대학 및 공공취업알선기관에서 개최해야 될 행사는?

(단위 : %)

| 행사 내용 | 전체 | | 남성 | | 여성 | |
|----------|-------|---------|-----|---------|-----|---------|
| | 순위 | (비율) | 순위 | (비율) | 순위 | (비율) |
| 채용박람회 | 1 | (47.6) | 1 | (47.3) | 1 | (48.4) |
| 취업촉진프로그램 | 2 | (23.0) | 3 | (20.5) | 2 | (25.7) |
| 취업설명회 | 3 | (18.3) | 2 | (22.6) | 4 | (12.7) |
| 취업특강 | 4 | (10.7) | 4 | (9.2) | 3 | (12.9) |
| 기타 | 5 | (0.4) | 5 | (0.4) | 5 | (0.3) |
| 전 체 | 1,411 | (100.0) | 754 | (100.0) | 622 | (100.0) |

○ 청년층 고용촉진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정부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노력’임.

- 청년층 고용촉진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정책과제로는 ‘정부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노력’으로 전체응답자 중 524명인 37.3%가 이를 선택하였음.(<표 4-34참조>) 그 다음으로 251명인 17.8%가 ‘구직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공공 직업소개 및 취업정보망의 확충’이라고 응답하였고, ‘인턴제 활성화’(15.9%), ‘기업의 고용안정 노력’(11.6%) 순으로 응답함
- 위와 같은 견해는 성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음. 남성의 경우는 36.9%, 여성의 경우도 37.7%가 ‘정부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노력’이 시급하다고 응답함.

<표 4-34> 청년 고용촉진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정책과제는?

(단위 : 명, %)

| 정책 과제 | 전체 | |
|--|------------|---------------|
| | 빈도수 | (비율) |
| 정부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노력 (중소기업, 창업자금 지원, 공공근로사업 등) | 524 | (37.3) |
| 구직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공공 직업소개 및 취업정보망의 확충 | 251 | (17.8) |
| 인턴제 활성화 | 223 | (15.9) |
| 기업의 고용안정 노력(인력재배치, 휴업수당 등)의 강화 및 지원 | 163 | (11.6) |
|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무료 직업훈련프로그램의 확대 | 111 | (7.9) |
| 해외취업촉진정책 강화 | 87 | (6.2) |
| 실직자들에 대한 생계보호(의료보험, 학자금, 생계비 대부 등)강화 | 47 | (3.3) |
| 진 체 | 1,406 | (100.0) |

| 정책 과제 | 남성 | |
|--|------------|---------------|
| | 빈도수 | (비율) |
| 정부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노력 (중소기업, 창업자금 지원, 공공근로사업 등) | 277 | (36.9) |
| 구직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공공 직업소개 및 취업정보망의 확충 | 128 | (17.0) |
| 인턴제 활성화 | 119 | (15.9) |
| 기업의 고용안정 노력(인력재배치, 휴업수당 등)의 강화 및 지원 | 88 | (11.7) |
|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무료 직업훈련프로그램의 확대 | 60 | (8.0) |
| 해외취업촉진정책 강화 | 58 | (7.7) |
| 실직자들에 대한 생계보호(의료보험, 학자금, 생계비 대부 등)강화 | 21 | (2.8) |
| 진 체 | 751 | (100.0) |

| 정책 과제 | 전체 | |
|--|------------|---------------|
| | 빈도수 | (비율) |
| 정부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노력 (중소기업, 창업자금 지원, 공공근로사업 등) | 234 | (37.7) |
| 구직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공공 직업소개 및 취업정보망의 확충 | 120 | (19.3) |
| 인턴제 활성화 | 97 | (15.6) |
| 기업의 고용안정 노력(인력재배치, 휴업수당 등)의 강화 및 지원 | 72 | (11.6) |
|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무료 직업훈련프로그램의 확대 | 44 | (7.1) |
| 해외취업촉진정책 강화 | 28 | (4.5) |
| 실직자들에 대한 생계보호(의료보험, 학자금, 생계비 대부 등)강화 | 26 | (4.2) |
| 진 체 | 621 | (100.0) |

8) 직업훈련

가. 직업훈련 희망 유무

- 전체 응답자의 약 70%가 직업훈련 받기를 희망함.
 - 직업훈련 받기를 희망하느냐의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989명인 69.9%가 직업훈련 받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4-35>참조)
- 여성이 남성보다 직업훈련 받기를 더 희망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직업훈련 받기를 더 희망함. 남성의 경우 응답자의 62.6%가 직업훈련 받기를 희망한 반면, 여성은 78.3%로 남성보다 15.7%가 더 높음.

<표 4-35> 직업훈련 희망 유무

(단위 : 명. %)

| | 전체 | 남성 | 여성 |
|-----|---------------|-------------|-------------|
| | 빈도수 (비율) | 빈도수 (비율) | 빈도수 (비율) |
| 예 | 989 (69.9) | 474 (62.6) | 488 (78.3) |
| 아니오 | 426 (30.1) | 283 (37.4) | 135 (21.7) |
| 전 체 | 1,415 (100.0) | 757 (100.0) | 623 (100.0) |

- 학교 등급에 상관없이 과반수 이상이 직업훈련을 희망함.
 - <표 4-36>에서 하위권 학교일수록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비율이 더 크나, 상위권인 A군 학교에서도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비율이 52.6%로 과반수를 넘고 있음.

<표 4-36> 학교 등급별 직업훈련 희망 여부

(단위 : 명, %)

| | 분 류 | | | |
|-----|------------|-------------|-------------|-------------|
| | A | B | C | D |
| | 빈도수 (비율) | 빈도수 (비율) | 빈도수 (비율) | 빈도수 (비율) |
| 예 | 50 (52.6) | 209 (78.6) | 519 (70.5) | 211 (66.4) |
| 아니오 | 45 (47.4) | 57 (21.4) | 217 (29.5) | 107 (33.6) |
| 전 체 | 95 (100.0) | 266 (100.0) | 736 (100.0) | 318 (100.0) |

나. 직업훈련 경험 유무

○ 전체 응답자의 72.4%가 직업훈련 경험이 없음

- 직업훈련을 받아 보았는지의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72.4%가 직업훈련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고 함.(<표 4-37>)참조
- 남성의 경우 72.8%가 직업훈련의 경험이 없으며, 여성은 71.7%가 직업훈련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4-37> 직업훈련 경험 유무

(단위 : 명, %)

| | 전체 | 남성 | 여성 |
|-----|---------------|-------------|-------------|
| | 빈도수 (비율) | 빈도수 (비율) | 빈도수 (비율) |
| 예 | 389 (27.6) | 205 (27.2) | 175 (28.3) |
| 아니오 | 1,020 (72.4) | 550 (72.8) | 444 (71.7) |
| 전 체 | 1,409 (100.0) | 755 (100.0) | 619 (100.0) |

다.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않는 사유

○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원하는 ‘교육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임.

- 직업훈련의 경험이 없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는 사유에 대해 설문한 결과, 가장 큰 원인으로 44.5%가 ‘원하는 교육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라고 응답함. 그 다음으로 27.4%가 ‘원하는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어서’라

고 응답함.(<표 4-38>)참조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직업훈련을 크게 신뢰하고 있지는 않음.
 - ‘교육을 받아도 취업가능성이 낮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비율도 15.7%나 되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직업훈련의 실효성에 신뢰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직업훈련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수강생들이 직업훈련 정보를 빠르고 쉽게 얻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표 4-38> 직업훈련을 받지 않고 있는 이유는?

(단위 : %)

| 이 유 | 전체 | | 남성 | | 여성 | |
|-------------------------|-------|---------|-----|---------|-----|---------|
| | 순위 | (비율) | 순위 | (비율) | 순위 | (비율) |
| 원하는 교육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 1 | (44.5) | 1 | (38.9) | 1 | (52.0) |
| 원하는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 2 | (27.4) | 2 | (30.1) | 2 | (23.6) |
| 교육을 받아도 취업가능성이 낮을 것 같아서 | 3 | (15.7) | 3 | (18.6) | 3 | (12.1) |
| 인근에 직업훈련원이 없어서 | 4 | (6.2) | 5 | (5.4) | 4 | (7.2) |
| 생계 때문에 교육시간을 낼 수 없어서 | 4 | (6.2) | 4 | (7.0) | 5 | (5.1) |
| 전 체 | 1,126 | (100.0) | 612 | (100.0) | 487 | (100.0) |

라. 직업훈련 경험분야

- 가장 많이 경험한 직업훈련 분야는 ‘어학분야’ 임.
 - 직업훈련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제일 많이 경험해본 직업훈련 분야는 ‘어학분야’로 249명인 33.2%가 ‘어학’을 위해 따로 교육을 받음. 그 다음으로 컴퓨터 시스템,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컴퓨터·정보, 통신 분야’로 26.7%가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함.(<표 4-39>참조)
- 남성은 주로 ‘컴퓨터·정보, 통신 분야’의 직업훈련 경험이 제일 많았고 여성의 경

우 '어학분야'의 직업훈련 경험이 제일 많았음.

- 남성들이 제일 많이 경험했던 직업훈련 분야는 '컴퓨터·정보, 통신 분야'로 32.9%가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어학분야'도 이와 비슷한 수준인 30.1%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여성의 경우 '어학분야'가 38.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컴퓨터·정보, 통신 분야'로 9.0%가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서비스분야'(13.6%)의 직업훈련 경험 도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4-39> 직업훈련 경험분야

(단위 : 명, %)

| 분 야 | 전체 | |
|--|------------|---------------|
| | 빈도수 | (비율) |
| 어학분야 | 249 | (33.2) |
| 컴퓨터·정보, 통신 분야(컴퓨터 시스템, 프로그래밍, DB, 통신장비 운용 등) | 200 | (26.7) |
| 서비스 분야(음식조리, 이미용기술, 관광 및 숙박서비스) | 72 | (9.6) |
| 업무관리 분야(재무, 경영, 생산사무, 사무비원 등) | 67 | (9.0) |
| 기계·장비 분야(기계가공, 선반, 밀링, 조립, 설계·제도, 운전, 용접 등) | 48 | (6.4) |
| 예능계(음악, 미술, 디자인 등) | 33 | (4.4) |
| 의료분야(물리치료, 간호 등) | 18 | (2.4) |
| 전기·전자 분야(기계설비·제어, 조립, 전기공사 등) | 18 | (2.4) |
| 기타 | 44 | (5.9) |
| 전 체 | 749 | (100.0) |

| 분 야 | 남성 | |
|---|------------|---------------|
| | 빈도수 | (비율) |
| 컴퓨터·정보, 통신 분야(컴퓨터 시스템, 프로그래밍, DB, 통신장비 운용 등) | 140 | (32.9) |
| 어학분야 | 128 | (30.1) |
| 기계·장비 분야(기계가공, 선반, 밀링, 조립, 설계·제도, 운전, 용접 등) | 41 | (9.7) |
| 업무관리 분야(재무, 경영, 생산사무, 사무비원 등) | 37 | (8.7) |
| 서비스 분야(음식조리, 이미용기술, 관광 및 숙박서비스) | 28 | (6.6) |
| 전기·전자 분야(기계설비·제어, 조립, 전기공사 등) | 14 | (3.3) |
| 예능계(음악, 미술, 디자인 등) | 9 | (2.1) |
| 의료분야(물리치료, 간호 등) | 8 | (1.9) |
| 기타 | 20 | (4.7) |
| 남 자 전 체 | 425 | (100.0) |

| 분 야 | 여성 | |
|--|------------|---------------|
| | 빈도수 | (비율) |
| 어학분야 | 118 | (38.1) |
| 컴퓨터·정보, 통신 분야(컴퓨터 시스템, 프로그래밍, DB, 통신장비 운용 등) | 59 | (19.0) |
| 서비스 분야(음식조리, 이미용기술, 관광 및 숙박서비스) | 42 | (13.6) |
| 업무관리 분야(재무, 경영, 생산사무, 사무비원 등) | 30 | (9.7) |
| 예능계(음악, 미술, 디자인 등) | 23 | (7.4) |
| 의료분야(물리치료, 간호 등) | 9 | (2.9) |
| 기계·장비 분야(기계가공, 선반, 밀링, 조립, 설계·제도, 운전, 용접 등) | 5 | (1.6) |
| 전기·전자 분야(기계설비·제어, 조립, 전기공사 등) | 1 | (0.3) |
| 기타 | 23 | (7.4) |
| 여 자 전 체 | 310 | (100.0) |

마. 직업훈련의 적합성

○ 직업훈련 받기 전 적합성 여부의 상담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교육받기 전에 현재 받고 있는 직업훈련이 적합한지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았느냐에 대한 설문에서 86.4%의 응답자들이 상담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응답함.(<표 4-40>참조)
- 이는 현 직업훈련제도의 교육프로그램이 수강생들의 적성이나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방식 아니라 통합·일괄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수강생들도 선택의 여지 없이 이를 맹목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다양화될 필요성이 제기됨

- 따라서 사전 상담을 통해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시켜주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수요자들의 요구에 맞게끔 다양화될 필요성이 있음.

<표 4-40> 직업훈련 받기 전 적합성 상담 여부

(단위 : 명. %)

| | 전체 | 남성 | 여성 |
|-----|-------------|-------------|-------------|
| | 빈도수 (비율) | 빈도수 (비율) | 빈도수 (비율) |
| 있다 | 123 (13.6) | 68 (13.5) | 53 (13.6) |
| 없다 | 781 (86.4) | 434 (86.5) | 338 (86.4) |
| 전 체 | 904 (100.0) | 502 (100.0) | 391 (100.0) |

○ 직업훈련과 학교 커리큘럼과의 연계성이 아직 부족함.

- <표 4-41>의 직업훈련 분야와 자신의 최종학교 커리큘럼과의 관련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의 질문에 76.5%(19.4+57.1)가 관련이 있다고 응답함. 그러나 전혀 관련성이 없다는 응답비율이 23.5%나 되어 직업훈련과 학교 커리큘럼의 연계성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학교교육과 직업훈련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필요성이 제기됨.

<표 4-41> 직업훈련 분야와 자신의 최종학교 커리큘럼과의 관련성

(단위 : 명. %)

| | 전체 | 남성 | 여성 |
|------------|-------------|-------------|-------------|
| | 빈도수 (비율) | 빈도수 (비율) | 빈도수 (비율) |
| 직접 관련되어 있다 | 144 (19.4) | 77 (18.0) | 65 (21.3) |
| 약간 있다 | 424 (57.1) | 246 (57.5) | 171 (56.1) |
| 전혀 없다 | 175 (23.5) | 105 (24.5) | 69 (22.6) |
| 전 체 | 743 (100.0) | 428 (100.0) | 305 (100.0) |

바. 교육비용 부담주체

○ 교육비용은 대부분이 부모님이나 가족, 친지들이 부담함.

- 교육훈련비용의 부담 주체는 거의 대부분이 ‘부모님이나 가족, 친지’로 응답자의 64.3%가 이들이 부담한다고 응답함. 그 다음으로는 본인 자신이 부담한다는 응답이 22.6%로 나타났음.(<표 4-42>참조)

- 반면,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통한 직업훈련비용 부담은 5%이하로 나타남.

<표 4-42> 교육비용 부담 주체

(단위 : %)

| 부담주체 | 전체 | | 남성 | | 여성 | |
|--------------------|----------|---------------|----------|---------------|----------|---------------|
| | 순위 (비율) | | 순위 (비율) | | 순위 (비율) | |
| 부모님이나 가족, 친지 | 1 | (64.3) | 1 | (60.2) | 1 | (69.4) |
| 본인 | 2 | (22.6) | 2 | (25.1) | 2 | (19.4) |
| 정부 | 3 | (5.0) | 3 | (6.0) | 4 | (3.8) |
| 기업체(고용안정사업 보험료 포함) | 5 | (4.0) | 5 | (3.4) | 3 | (4.9) |
| 기타 | 4 | (4.1) | 4 | (5.3) | 5 | (2.5) |
| 전 체 | 848 | (100.0) | 470 | (100.0) | 366 | (100.0) |

사. 직업훈련 이수 후 1년 내 취업가능성

○ 직업훈련 후 1년 내 취업가능성은 대부분 50%인 것으로 나타남.

- 직업훈련 교육과정 이수 후 1년 이내 취업가능성은 응답자의 45.1%가 취업가능성이 50%정도라고 응답하였음.(<표 4-43>참조)
- 직업훈련을 받고도 1년 이내에 취업가능성이 50%가 안 된다는 응답자들의 비중도 24.3%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직업훈련 교육 과정 및 내용의 실효성에 어느 정도 문제점이 제기됨.

<표 4-43> 직업훈련 교육과정 이수 후 1년 내 취업가능성

(단위 : 명, %)

| 취업가능성 | 전체 | | 남성 | | 여성 | |
|------------|------------|---------------|------------|---------------|------------|---------------|
| | 빈도수 (비율) | | 빈도수 (비율) | | 빈도수 (비율) | |
| 0% | 30 | (3.3) | 21 | (4.2) | 8 | (2.0) |
| 25% | 190 | (21.0) | 109 | (21.9) | 79 | (20.0) |
| 50% | 408 | (45.1) | 223 | (44.8) | 184 | (46.6) |
| 75% | 191 | (21.1) | 91 | (18.3) | 93 | (23.5) |
| 90%이상 | 86 | (9.5) | 54 | (10.8) | 31 | (7.9) |
| 전 체 | 905 | (100.0) | 498 | (100.0) | 395 | (100.0) |

아. 현 직업훈련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직업훈련의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은 ‘교육훈련 대상 직종의 다양화’임.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직업훈련의 가장 큰 개선사항은 응답자의 47.7%가 응답한 ‘교육훈련 대상 직종의 다양화’임. 그 다음으로 ‘교육훈련과정의 내실화’를 지적한 응답자가 25.7%이며, ‘교과과정이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20.7%임.(<표4-44>참조)
- 이를 종합해 보면 무엇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직업훈련 교육과정은 교육받고자 하는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좀더 세분화, 다양화될 필요가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이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기업체가 요구하는 직무능력과 바로 직결될 수 있도록 좀더 내실화 되고 현실화 될 필요성이 제기됨.

<표 4-44>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직업훈련의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단위 : %)

| 내 용 | 전체 | | |
|-----------------------------|-------------|---------------|---------------|
| | 순위 (비율) | 남성 순위 (비율) | 여성 순위 (비율) |
| 교육훈련 대상 직종이 다양하게 개설될 필요가 있다 | 1 (47.7) | 1 (45.8) | 1 (50.0) |
| 교육훈련과정이 내실화될 필요가 있다 | 2 (25.7) | 2 (28.7) | 2 (21.9) |
| 현실에 적합하지 않는 교과과정이 있다 | 3 (20.7) | 3 (21.4) | 3 (20.0) |
| 교육훈련 수강생들 간의 수준차이가 크다 | 4 (3.2) | 4 (2.1) | 4 (4.4) |
| 기타 | 5 (2.7) | 5 (2.0) | 5 (3.7) |
| 전 체 | 921 (100.0) | 513 (100.0) | 406 (100.0) |

3. 실태조사의 요약 및 시사점

1) 실태조사의 요약

- 본 실태조사는 부산소재 14개 대학의 졸업예상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응답자는 1,431명 임. 응답자의 성별분포는 남성이 53.2%이고 여성이 43.7%이며, 연령분포는 94.8%가 20대임.
- 응답자들은 주로 ‘인터넷의 구인·구직 정보를 통해’서 구직정보를 얻고 있으며 이중에서 ‘사설 온라인 채용정보업체’를 가장 많이 이용함. 반면, ‘노동부 고용안정 정보망(Work-net)’의 활용도는 매우 낮음.
- 취업 선택 시 가장 선호하는 업종은 ‘공무원·정부투자기관’ 이고, 가장 기피하는 업종은 1차산업과 ‘신발·고무제품 제조업’임. 남성은 지식기반 산업에 해당하는 ‘컴퓨터관련 서비스’를, 여성은 안정적인 업종에 해당하는 ‘공무원·정부투자기관’을 가장 선호하는 업종이라고 응답하였음.
- 취업 선택 시 가장 선호하는 직종은 ‘전문직’ 이며, 1차산업근로자와 생산직 그리고 단순노무직은 기피하는 직종임.
- 전체 응답자중 약 60%가 부산에서 취업하기를 원하고 있고, 25%는 서울·수도권 지역에서 취업하기를 원함. 남성보다는 여성이 서울·수도권 지역으로의 취업을 더 원하고 있음. 타 지역으로 취업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부족’하기 때문임.
- 응답자들이 부산지역의 청년층 고용창출을 위해 부산에 개발 혹은 유치해야 하는 업종으로는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을 1위로 꼽았음.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을 여성은 ‘공무원·정부투자기관’을 다른 업종보다 우선순위를 두어 유치, 개발해야 한다고 응답함.

○ 취업희망 업체

- 취업희망 기업규모는 성별, 학교 순위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양분화 되어 있음. 여성보다는 남성이 그리고 하위학교 보다는 상위학교가 대기업을 더 선호함.
- 희망연봉수준은 1,8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임.
- 업체선택 시 가장 먼저 고려하는 사항은 '연봉수준'임.
- 전체 응답자의 61.9%가 하향 취업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46.9%가 비정규직으로도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이러한 경향은 하위학교 일수록 강함.

○ 지방대생 취업 촉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채용박람회' 개최의 활성화가 요구된다고 응답함.

○ 청년층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

○ 직업훈련

- 전체 응답자의 약 70%가 직업훈련 받기를 원하고 있음.
- 전체 응답자의 72.4%가 직업훈련 경험이 없으며,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원하는 '교육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직업훈련을 크게 신뢰하고 있지는 않음.
- 가장 많이 경험한 직업훈련 분야는 '어학분야' 임.
- 직업훈련 받기 전 적합성 여부의 상담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직업훈련과 학교 커리큘럼과의 연계성이 아직 부족함.
- 교육비용은 대부분이 부모님이나 가족, 친지들이 부담함. 정부나 기업의 지원은 미비함.
- 직업훈련 후 1년 내 취업가능성은 대부분 50%임. 1년 내 취업가능성이 50% 미만인 응답자들의 비중도 24.3%로 직업훈련 교육 과정 및 내용의 실효성에 어느 정도 문제점이 제기됨.
- 응답자들이 느끼는 현 직업훈련제도의 가장 큰 개선사항은 '교육훈련 대상 직종의

다양화'로 나타났음.

2) 시사점

○ 부산은 전문인력 유출과 청년실업이라는 이중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음.

- 취업희망지역 분석에서 보았듯이 부산을 떠나 수도권지역으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25.5%나 됨. 그리고 이 인원들은 고급 전문 인력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산지역에서의 고급 전문 인력의 유출우려가 큼.
- 또한 하향취업지원 및 비정규직취업 의사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취업예정자들이 느끼고 있는 취업전망이 밝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 이와 같은 문제점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일자리 부족과 실업이 동시에 존재함.

- 부산지역의 취업 회피사유중의 하나가 지원할 만한 마땅한 업체가 없기 때문임. 부산지역에서 일을 하고자 해도 이들이 원하고 지원할 업종이 없기 때문에 일자리 부족과 실업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

○ 'IT 및 컴퓨터관련 서비스업'을 비롯한 지식기반산업의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이 요구됨.

- 부산은 전통적으로 '신발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중점 육성하였으나, 취업 선호 업종 분석에서 보았듯이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신발산업'은 이제 1차산업과 더불어 취업희망자들이 가장 기피하는 업종으로 인식되었음.
- 따라서 청년층 실업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취업희망자들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표 4-23>을 통해 알 수 있듯이 'IT산업', '컴퓨터관련 서비스업' 등의 지식기반산업 일자리 창출이 요구됨.
- 특히, 부산에는 건설한 IT업체들이 있는 만큼 이를 토대로 IT, 벤처, 소프트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육성 개발이 필요함.

○ ‘전문 인력’의 양성과 유출 방지.

- ‘IT산업’ 및 ‘컴퓨터 서비스업’은 ‘전문 인력’을 요함. 따라서 특성화 대학이나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의 설립을 통해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고, 이러한 전문 인력들이 부산 이외의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해야함.(예: 연구소 설립, 인센티브제도 등)

○ ‘채용박람회’의 활성화를 통한 취업촉진.

-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과 더불어 구직자와 기업들을 연계시켜줄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채용박람회’의 활성화가 요구됨. 응답자들도 취업촉진을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의로써 ‘채용박람회’를 제일 우선순위로 선택함. 따라서 각 대학이나 공공취업알선기관에서 ‘채용박람회’의 활성화를 통해 인력의 수요와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직업훈련제도의 개선.

- 직업훈련제도 프로그램의 다양화.
 - 현 직업훈련의 가장 큰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것이 ‘교육훈련 대상 직종의 다양화’임.
 - 직종과 학교 커리큘럼이 다양해지고 세분화 된 만큼 직업훈련의 교육과정 또한 교육 받고자 하는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이에 맞추어 좀더 세분화되고 다양해질 필요성이 제기됨.
 - 학생들이 가장 많이 경험했던 직업훈련 업종은 ‘어학분야’와 ‘컴퓨터·정보, 통신 분야’(컴퓨터 시스템, 프로그래밍, DB, 통신장비 운용 등)로 학생들의 희망 직업훈련 분야도 이와 같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다른 무엇보다 이 두 분야에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직업훈련제도의 전문화 및 내실화.
 - 직업훈련을 받아도 취업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15.7% 으로

써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직업훈련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신뢰하고 있는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이를 위해서 직업훈련제도 교육과정의 전문화와 내실화를 통해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직업훈련 이수 후에도 1년 이내 취업가능성은 50%정도임. 따라서 직업훈련이 수자가 교육 수료 후 바로 기업체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이 실용적이고 전문화 되어야 함.
- 맞춤형 교육이 요구됨. 직업훈련을 받기 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어야 함.
- 학교 커리큘럼과 직업훈련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이 둘의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어야 함.

- 직업훈련제도의 홍보 활성화.

- 전체 응답자의 70%가 직업훈련을 받기를 희망하나, 정작 직업훈련을 받아본 응답자들은 27.6%에 불과함. 이 같은 이유는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직업훈련을 받고 싶어도 교육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기 때문임.(<표 4-38>참조)
- 따라서 직업훈련의 내용 및 교육과정 등 직업훈련과 관련된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안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오프라인 뿐 아니라 정보전달이 신속하고 용이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홍보활성화가 필요함.(예: 학교 홈페이지 및 취업관련 사이트의 팝업 광고)

- 정부와 기업체의 직업훈련제도 지원 강화.

- 대부분의 직업훈련제도 비용은 '부모님이나 가족, 친지'들이 부담하고 있음. 반면, 정부나 기업체의 지원은 극히 미비함. 따라서 이 두 주체들이 무료직업훈련프로그램을 비롯한 직업훈련제도의 지원을 강화 한다면 직업훈련제도는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음

제4절 부산지역 청년층 실태조사II : 고용안정센터 방문 청년 조사

1. 개관

- 이 실태조사는 부산지역 청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음.
 - 설문지에는 응답자의 인적특성, 응답자의 현상태와 자신의 능력, 취업과 관련한 응답자의 희망사항과 수정 희망사항, 재학중 근로경험, 직업훈련에 대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연구는 청년층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여 부산 지역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공급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함.
 - 설문조사 응답자의 현재상태와 취업경험 및 구직활동, 취업 관련 희망사항 등에 대해 분석을 통해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였음.
- 본 연구에서 얻은 주요 결과들은 다음과 같음.
 - 청년실업 문제는 수급 불일치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공급 측면에서 직업훈련의 역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직업훈련은 노동공급과 관련된 개인들의 의사결정에 의미 있는 변화를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밝혀짐.
 - 직업훈련이 구직자들에게 취업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보를 구직자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직업훈련 및 구직 활동과 관련한 상담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기됨.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 제2절은 설문조사 응답자의 특성에 대해 살핌으로써 고용안정센타를 방문하는 구직자들의 특성들을 알아봄.
- 제3절은 이들 응답자들의 현재상태와 과거 취업경험 및 구직활동을 주로 살펴봄.
- 제4절은 취업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의 희망사항과 이러한 희망사항의 수정의사 여부와 그 결정요인, 재학 중 근로경험 등을 분석함.
- 제5절은 노동공급 측면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으로서 직업훈련에 대해 살핌.
- 이상의 분석과 정책관련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정책과제를 제6절에서 제시함.

1) 설문조사 개관 및 응답자의 특성

(1) 설문조사 개관

- 본 조사는 부산지역에 있는 고용안정센타를 방문한 15-29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였음.⁷⁾
 - 조사기간은 2003년 9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1개월 동안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10월 22일 이후에 조사된 설문지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
 - 부산지역에 있는 8개 고용안정센타에 각 센타의 규모를 고려하여 총 2,300부의 설문지를 차등 배부하였음. 최종적으로 회수된 설문지는 총 1,802부로서 목표(2000부) 대비 회수율은 90.1%임.
 - 청년층인 유효표본은 실제 1,717명이며 이를 분석대상으로 함⁸⁾

7) 이 조사에는 부산지역 각 고용안정센타의 도움이 절대적이었음. 직업상담원과 센터장을 비롯한 센터 구성원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 조사는 불가능하였을 것임. 이들의 도움이 부산지역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8) 이 조사는 부산지역의 청년에 대한 것이므로 응답자들이 청년이어야 하지만 <표 4-45>에서 보듯이 실제 응답자 가운데 연령을 답하지 않은 사람(45명), 30세 이상(39명), 유효하지 않은 응답(1명)이 있어 회수된 1,802부의 설문지 가운데 이들 85명을 제외한 1,717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표 4-45> 설문조사 결과 및 유효응답자

| 구분 | 목표인원 | 응답자수 | 응답률 | 무효 응답자수 | | | 유효응답자 총 수 |
|-----|-------|-------|------|---------|---------|----|--------------|
| | | | | 연령미응답자 | 30세 이상자 | 기타 | |
| 인원수 | 2,000 | 1,802 | 90.1 | 45 | 39 | 1 | 1,717 |

(2) 응답자의 특성

가. 연령 및 성별 분포

○ 설문조사 응답자의 인적특성인 연령집단별 성별 분포가 <표 4-46>에 제시되어 있음

- 24-26세 연령집단이 645명(전체 응답자의 37.6%)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음.
- 27-29세 연령집단은 전체 응답자의 33.1%인 568명, 21-23세는 126(7.3%)명으로 분포가 나타나고 있으며, 나이가 적을수록 비중이 낮음.
-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545(31.7%))보다 여성(1,170(68.2%))이 압도적으로 많음
- 노동공급측면에서 살펴보았듯이 1993년 이후 부산지역의 청년 남성의 수가 청년 여성의 수를 능가하고 있는데도 응답자의 2/3 이상이 여성이라는 사실은 놀라운 결과임.
- 이는 부산지역의 청년여성이 청년남성에 비해 주로 고용안정센타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4-46> 응답자의 연령 및 성별 분포

| 연령집단 | 남성 | 여성 | 결측치 | 계 |
|--------|------------|--------------|---------|---------------|
| 15-17세 | 5 | 4 | 0 | 9 (0.5) |
| 18-20세 | 53 | 73 | 0 | 126 (7.3) |
| 21-23세 | 89 | 280 | 0 | 369 (21.5) |
| 24-26세 | 206 | 438 | 1 | 645 (37.6) |
| 27-29세 | 192 | 375 | 1 | 568 (33.1) |
| 계 | 545 (31.7) | 1,170 (68.2) | 2 (0.1) | 1,717 (100.0) |

주 :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24.9세임

나. 학력분포

- 연령집단별로 학력분포를 보면,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이상 학력자의 비율은 대체로 유사하나 고졸이하 학력자가 유효 응답자의 39.3%로 가장 많으며 대졸자(31.0%), 전문대졸자(29.7%)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4-47> 응답자의 학력분포

| 연령집단 | 고졸이하 | 전문대졸 | 대졸 | 계 |
|--------|------------|------------|------------|---------------|
| 15-19세 | 50 | 2 | 3 | 55 (3.4) |
| 20-24세 | 295 | 198 | 124 | 617 (37.7) |
| 25-29세 | 298 | 285 | 380 | 963 (58.9) |
| 계 | 643 (39.3) | 485 (29.7) | 507 (31.0) | 1,635 (100.0) |

※ 결측값의 개수 = 82

다. 혼인상태 분포

- 청년층에 대한 조사로 미혼의 비율이 87.7%이고 배우자가 있는 유배우의 비율은 12.1%, 이혼 또는 사별(0.2%)로 분포가 나타나고 있음.

<표 4-48> 응답자의 혼인상태 분포

| 연령집단 | 미혼 | 유배우 | 이혼, 사별 | 계 |
|--------|--------------|------------|---------|---------------|
| 15-19세 | 65 | 1 | 0 | 66 |
| 20-24세 | 626 | 16 | 1 | 643 |
| 25-29세 | 804 | 189 | 2 | 995 |
| 계 | 1,495 (87.7) | 206 (12.1) | 3 (0.2) | 1,704 (100.0) |

※ 결측값의 개수 = 13

라. 병역상태 분포

- 남성 응답자 가운데 30세 미만 연령 병역을 필한 자가 전체의 78.7%, 병역 미필자와 면제자가 10% 남짓한 비중을 차지함.
- 남성 응답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병역을 필한 상태이므로 이들의 구직활동이 미필자에 비해 더 강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표 4-49> 응답자의 병역상태 분포

| 연령집단 | 병역필 | 병역 미필 | 면제 | 계 |
|--------|------------|-----------|-----------|-------------|
| 15-19세 | 4 | 26 | 3 | 33 |
| 20-24세 | 117 | 27 | 21 | 165 |
| 25-29세 | 300 | 5 | 32 | 337 |
| 계 | 421 (78.7) | 58 (10.8) | 56 (10.5) | 535 (100.0) |

※ 결측값의 개수 = 10

마. 응답자의 최종학교 졸업/중퇴/휴학 년도 분포

- 1997년 이전에 학교를 마치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434명(25.3%)으로 가장 많음.
- 2003년 졸업자가 단일 연도 졸업자로는 가장 많은 15.1%를, 2004년 졸업예정자도 4.7%를 차지하고 있음.
 - 고용안정센타를 통한 구직자들 가운데 단지 4.7%만이 졸업예정자들이며 나머지는 이미 학교를 마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음.
 - 즉 졸업예정자가 아니라 기졸업자들의 고용안정센타를 통한 구직활동이 활발함.

<표 4-50> 응답자의 최종학교 졸업/중퇴/휴학(예정)연도 분포

| 연령집단 | 1997년 이전 | 1998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계 |
|--------|---------------|--------------|---------------|---------------|---------------|---------------|---------------|-------------|------------------|
| 15-19세 | 16 | 0 | 1 | 0 | 0 | 11 | 34 | 5 | 67 |
| 20-24세 | 77 | 31 | 63 | 80 | 100 | 96 | 151 | 48 | 646 |
| 25-29세 | 341 | 108 | 119 | 122 | 109 | 104 | 74 | 27 | 1,004 |
| 계 | 434 (25.3) | 139 (8.1) | 183 (10.7) | 202 (11.8) | 209 (12.2) | 211 (12.3) | 259 (15.1) | 80 (4.7) | 1,717 (100.0) |

바. 응답자를 포함한 가족의 월평균 소득 분포

- 응답자를 포함한 가족의 월평균 소득의 분포를 보면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응답

자가 193명(11.8%)으로서 가장 많음.

- 이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빈도수가 크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며 고용안정센타를 방문하는 구직자들이 전반적으로 저소득 계층에 속함을 알려줌.

<표 4-51> 응답자의 가구소득 분포

| 소득계층 | 빈도 | 백분율 | 누적빈도수 | 누적 백분율 |
|-----------|-----|-------|-------|--------|
| 100만원 이하 | 193 | 11.77 | 193 | 11.77 |
| 100-124만원 | 183 | 11.16 | 376 | 22.93 |
| 125-149만원 | 151 | 9.21 | 527 | 32.13 |
| 150-174만원 | 150 | 9.15 | 677 | 41.28 |
| 175-199만원 | 162 | 9.88 | 839 | 51.16 |
| 200-224만원 | 147 | 8.96 | 986 | 60.12 |
| 225-249만원 | 80 | 4.88 | 1,066 | 65.00 |
| 250-274만원 | 77 | 4.70 | 1,143 | 69.70 |
| 275-299만원 | 106 | 6.46 | 1,249 | 76.16 |
| 300-324만원 | 106 | 6.46 | 1,355 | 82.62 |
| 325-349만원 | 36 | 2.20 | 1,391 | 84.82 |
| 350-374만원 | 45 | 2.74 | 1,436 | 87.56 |
| 375-399만원 | 41 | 2.50 | 1,477 | 90.06 |
| 400-449만원 | 63 | 3.84 | 1,540 | 93.90 |
| 450-499만원 | 36 | 2.20 | 1,576 | 96.10 |
| 500만원 이상 | 64 | 3.90 | 1,640 | 100.00 |

※ 결측값의 개수 = 77

- 응답자들의 인적특성을 요약하면, 구성 연령대별로는 주로 20대이고 성별로는 여성, 졸업상태를 보면 기 졸업자, 그리고 소득수준으로 보면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음.

2) 응답자의 현재상태와 취업경험 및 구직활동

(1) 현재상태

- 응답자의 현재상태는 취업 중인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는가 아니면 실업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는가로 구분됨.
 - 실업상태에서 구직하는 경우는 다시 최종학교 졸업후 취업한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로 나뉘어짐.
 - <표 4-52>에서 보듯이 취업 경험은 있으나 현재 직장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유효 응답자 가운데 73.5%나 됨.
 - 아직 취업 경험이 없으면서 구직하는 취업 미경험 구직자의 비율은 17.3%임.
 - 취업 중인 상태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9.2%를 차지하고 있음.

- 최종학교를 마친 후 취업한 경험이 있지만 현재 실업상태로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더욱 큼.

- 취업상태에 있으면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비중도 연령이 높을수록 커짐.
 - 이러한 사실은 한편으로는 청년층의 활발한 직장 탐색 활동을 보여주는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자와 일자리 궁핍에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는 결과일 수도 있음.
 - 즉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이들에 대해 보다 풍부한 일자리 관련 정보와 직장 탐색에 관한 상담 서비스를 필요로 할 가능성이 높음.

<표 4-52> 응답자의 현재상태

| 연령집단 |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구직 | | 취업 중 구직자 | 계 |
|--------|----------------|--------------|-----------|---------------|
| | 취업 미경험 구직자 | 취업 경험 구직자 | | |
| 15-19세 | 32 (57.1) | 22 (39.3) | 2 (3.6) | 56 |
| 20-24세 | 159 (26.9) | 381 (64.3) | 52 (8.8) | 592 |
| 25-29세 | 91 (9.3) | 793 (81.0) | 95 (9.7) | 979 |
| 계 | 281 (17.3) | 1,196 (73.5) | 149 (9.2) | 1,627 (100.0) |

※ 결측값의 개수 = 90

- 취업경험자의 학력 분포를 살펴보면(<표 4-53>) 저학력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응답자의 전체 학력분포<표 4-47>과 비교해 보더라도 마찬가지임.

<표 4-53> 취업경험 구직자의 연령별 학력별 분포

| 연령집단 | 고졸이하 | 전문대졸 | 대졸이상 | 계 |
|--------|------------|------------|------------|---------------|
| 15-19세 | 21 | 0 | 0 | 21 (1.8) |
| 20-24세 | 187 | 132 | 46 | 365 (31.9) |
| 25-29세 | 256 | 246 | 258 | 760 (66.3) |
| 계 | 464 (40.5) | 378 (33.0) | 304 (26.5) | 1,146 (100.0) |

※ 결측값의 개수 = 50

(2) 취업 경험 구직자의 이전 취업경험

- <표 4-54>는 취업경험자의 전 직장 규모와 월평균 급여를 정리한 것임.
 - 전 직장의 규모는 종업원 30인 미만의 소규모가 52.4%, 30-99인 규모는 22.1%나 됨.
 - 종업원 30인 미만 직장에 취업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월평균 급여는 75-99만원, 100-124만원, 125-149만원, 50-74만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전체적 급여수준은 75-99만원(27.5%)과 100-124만원(29.8%)을 받은 경우가 유사한 비중을 차지하며 125-149만원을 받은 경우가 16.7%임.
- 취업경험이 있는 구직자의 경우 과거 직장은 소규모 사업체에서 낮은 임금을 받던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음.

<표 4-54> 취업경험자의 이전 직장 규모 및 월평균 급여 수준

| 급여 규모 | 50만원 미만 | 50- 74 | 75- 99 | 100- 124 | 125- 149 | 150- 174 | 175- 199 | 200- 224 | 225만원 이상 | 계 |
|----------|-------------|--------------|---------------|---------------|---------------|-------------|-------------|-------------|-------------|------------------|
| 30인미만 | 9 | 75 | 205 | 180 | 78 | 33 | 13 | 6 | 5 | 604 (52.4) |
| 30-99인 | 4 | 10 | 63 | 82 | 51 | 24 | 18 | 3 | 0 | 255 (22.1) |
| 100-299인 | 1 | 13 | 23 | 33 | 21 | 12 | 7 | 5 | 3 | 118 (10.2) |
| 300-499인 | 1 | 3 | 10 | 16 | 20 | 5 | 2 | 3 | 3 | 63 (5.5) |
| 500인 이상 | 2 | 5 | 16 | 33 | 23 | 13 | 7 | 3 | 11 | 113 (9.8) |
| 계 | 17 (1.5) | 106 (9.2) | 317 (27.5) | 344 (29.8) | 193 (16.7) | 87 (7.6) | 47 (4.1) | 20 (1.7) | 22 (1.9) | 1,153 (100.0) |

※ 결측값의 개수 = 43

○ 취업 경험자의 전 직장의 직종을 살펴보면,

- 취업 경험자의 40%가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일반 사무직에 종사함.
- 서비스·판매직에 종사자 18.6%나 되는 반면 전문직이나 기술 및 준전문직에 종사하던 사람도 각각 18.7%와 12.0%를 차지하여 이들 직종에서 이탈된 근로자도 적지 않음을 알려줌.

<표 4-55> 취업경험자의 이전 직장 규모 및 직종

| 직종 규모 | 경영· 관리직 | 전문직 | 기술 및 준전문직 | 일반 사무직 | 서비스 판매직 | 농업어업 근로자 | 숙련공 기능공 | 단순조립 기계조작 | 단순 노무직 | 계 |
|----------|-------------|---------------|---------------|---------------|---------------|-------------|-------------|--------------|-------------|----------------|
| 30인미만 | 20 | 114 | 55 | 205 | 90 | 1 | 5 | 7 | 13 | 510(51.7) |
| 30-99인 | 13 | 40 | 30 | 84 | 42 | 0 | 3 | 4 | 5 | 221(22.4) |
| 100-299인 | 4 | 13 | 13 | 42 | 18 | 0 | 2 | 6 | 2 | 100(10.1) |
| 300-499인 | 3 | 7 | 6 | 21 | 15 | 0 | 2 | 0 | 1 | 55(5.6) |
| 500인 이상 | 5 | 10 | 14 | 41 | 18 | 0 | 2 | 8 | 2 | 100(10.1) |
| 계 | 45 (4.6) | 184 (18.7) | 118 (12.0) | 393 (40.0) | 183 (18.6) | 1 (0.1) | 14 (1.4) | 25 (2.5) | 23 (2.3) | 986 (100.0) |

※ 결측값의 개수 = 210

○ 취업경험자의 이전 직장 업종 분포를 살펴보면,

-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들의 비중이 10.93%로 가장 높으며 기타 제조업과 보건 의료 서비스업의 비중도 각각 9.91%, 9.40%도 높은 수준임
- 이전 취업 경험자가 종사하던 업종은 특정 분야에 크게 치우쳐져 있지 않고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

- 위에서 언급한 세 업종 이외에 보건 의료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것은 특기할 만함.

<표 4-56> 취업경험자의 이전 직장 업종

| 업종 | 빈도 | 백분율 |
|---------------------|-----|-------|
| 1. 농수축산업 | 5 | 0.51 |
| 4. 전기·가스·수도업 | 16 | 1.63 |
| 5. 건설업 | 72 | 7.35 |
| 6. 도·소매업 | 68 | 6.95 |
| 7. 음식·숙박업(호텔, 레스토랑) | 57 | 5.82 |
| 8. 운수·창고·통신업 | 57 | 5.82 |
| 9. 금융·보험·증권 | 64 | 6.54 |
| 10. 공무원·정부투자기관 | 48 | 4.90 |
| 11. 무역 | 64 | 6.54 |
| 12. 출판·광고 | 41 | 4.19 |
| 13.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 107 | 10.93 |
| 14. 보건·의료 서비스업 | 92 | 9.40 |
| 31. 식·음료 제조업 | 24 | 2.45 |
| 32. 신발·고무제품 제조업 | 20 | 2.04 |
| 33. 섬유·의류 제조업 | 42 | 4.29 |
| 34. 석유·화학 제조업 | 10 | 1.02 |
| 35. 전기·전자 제조업 | 44 | 4.49 |
| 36. 자동차·운송기기 제조업 | 41 | 4.19 |
| 37. 제약·화장품 제조업 | 10 | 1.02 |
| 38. 기타 제조업 | 97 | 9.91 |
| 계 | 979 | 100.0 |

※ 결측값의 개수 = 217

- 취업 경험자들 가운데 37.9%가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를 받았으며 수급기간은 3개월 이하인 경우가 76.6%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표 4-57> 구직급여 수급 여부

| 구 분 | 구직급여 | | 계 |
|-----------|------------|------------|---------------|
| | 받았음 | 받지 않았음 | |
| 빈도수 (백분율) | 431 (37.9) | 705 (62.1) | 1,136 (100.0) |

※ 결측값의 개수 = 60

<표 4-58> 구직급여 수급기간

| 수급기간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7개월이상 | 계 |
|-----------|-----------|-----------|------------|-----------|----------|----------|---------|-------------|
| 빈도수 (백분율) | 90 (21.2) | 93 (21.9) | 142 (33.5) | 60 (14.2) | 23 (5.4) | 10 (2.4) | 2 (0.5) | 420 (100.0) |

※ 결측값의 개수 = 776

(3) 응답자의 구직활동

- 응답자들의 구직경로는 ‘인터넷의 구인 구직 정보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가 41.05%로 압도적임.(<표 4-59>참고)
 - ‘본인의 직접적인 문의나 면담’ 및 ‘신문 잡지 등의 구인 구직 정보를 통해’ 구직하는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과거의 구직활동이 ‘가족인 친지의 소개/추천’ 또는 ‘학교(학원) 선생님의 소개나 추천을 통하여’라는 경로에서 크게 벗어난 것임. 이는 고용안정센타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졸업 예정자가 아니라 기졸업자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 것으로 판단됨.
-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노동부의 고용안정 정보망(work-net)’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채용 사이트(약44.3%)이며, ‘사설 온라인 채용정보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37.6%로 높음.

<표 4-59> 구직경로

| 구직경로 | 1순위 | 2순위 |
|-----------------------------------|---------------|---------------|
| 1. (공개)채용시험을 통하여 | 132 (7.77) | 70 (4.60) |
| 2. 회사측의 특별채용(스카우트)에 의하여 | 21 (1.24) | 25 (1.64) |
| 3. 본인의 직접적인 문의/면담을 통하여 | 239 (14.08) | 163 (10.70) |
| 4. 학교(학원) 선생님의 소개나 추천을 통하여 | 67 (3.95) | 65 (4.27) |
| 5. 가족이나 친지의 소개/추천을 통하여 | 130 (7.66) | 145 (9.52) |
| 6. 그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소개/추천을 통하여 | 69 (4.06) | 136 (8.93) |
| 7. 파견업체 등록 | 11 (0.65) | 18 (1.18) |
| 8. 공공/사설 직업소개기관(예, 고용안정센터 등)을 통하여 | 95 (5.59) | 148 (9.72) |
| 9. 학교내의 직업소개기관(예:취업상담실,취업정보센터 등) | 31 (1.83) | 64 (4.20) |
| 10. 신문, 잡지 등의 구인·구직 정보를 통해 | 173 (10.19) | 272 (17.86) |
| 11. 인터넷의 구인·구직 정보를 통해 | 697 (41.05) | 386 (25.34) |
| 12. 직업훈련 과정에 참가 | 33 (1.94) | 31 (2.04) |
| 계 | 1,698 (100.0) | 1,523 (100.0) |
| 결측값의 개수 | 19 | 194 |

<표 4-60>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채용 사이트

| 구분 | 빈도 (백분율) |
|---------------------------|---------------|
| 1. 사설 온라인 채용정보업체 | 635 (37.6) |
| 2. 노동부 고용안정 정보망(work-net) | 748 (44.3) |
| 3. 신문사 취업관련 채용사이트 | 183 (10.8) |
| 4. 기타 | 123 (7.3) |
| 계 | 1,689 (100.0) |

※ 결측값의 개수 = 28

3) 취업 희망사항 및 관련사항 결정요인

(1) 취업관련 희망사항

가. 업종 분포

- <표 4-61> 응답자들에게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과 현재의 위치를 감안할 때 어떤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판단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정리한 것임.

<표 4-61> 취업 희망 업종

| 업종 | 전체 | 취업경험자 | 남자 | 여자 |
|---------------------|--------------|-------------|-------------|-------------|
| 1. 농수축산업 | 7 (0.48) | 5 (0.51) | 2 (0.40) | 5 (0.53) |
| 4. 전기·가스·수도업 | 17 (1.17) | 16 (1.63) | 17 (3.43) | 0 (0.00) |
| 5. 건설업 | 90 (6.22) | 72 (7.35) | 42 (8.48) | 47 (4.95) |
| 6. 도·소매업 | 69 (4.77) | 68 (6.95) | 11 (2.22) | 58 (6.11) |
| 7. 음식·숙박업(호텔, 레스토랑) | 77 (5.32) | 57 (5.82) | 23 (4.65) | 54 (5.68) |
| 8. 운수·창고·통신업 | 51 (3.52) | 57 (5.82) | 32 (6.46) | 19 (2.00) |
| 9. 금융·보험·증권 | 85 (5.87) | 64 (6.54) | 11 (2.22) | 74 (7.79) |
| 10. 공무원·정부투자기관 | 198 (13.68) | 48 (4.90) | 48 (9.70) | 150 (15.79) |
| 11. 무역 | 124 (8.57) | 64 (6.54) | 22 (4.44) | 102 (10.74) |
| 12. 출판·광고 | 61 (4.22) | 41 (4.19) | 15 (3.03) | 46 (4.84) |
| 13.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 291 (20.11) | 107 (10.93) | 127 (25.66) | 163 (17.16) |
| 14. 보건·의료 서비스업 | 113 (7.81) | 92 (9.40) | 6 (1.21) | 107 (11.26) |
| 31. 식·음료 제조업 | 34 (2.35) | 24 (2.45) | 11 (2.22) | 23 (2.42) |
| 32. 신발·고무제품 제조업 | 11 (0.76) | 20 (2.04) | 2 (0.40) | 9 (0.95) |
| 33. 섬유·의류 제조업 | 29 (2.00) | 42 (4.29) | 7 (1.41) | 22 (2.32) |
| 34. 석유·화학 제조업 | 18 (1.24) | 10 (1.02) | 12 (2.42) | 6 (0.63) |
| 35. 전기·전자 제조업 | 42 (2.90) | 44 (4.49) | 32 (6.46) | 10 (1.05) |
| 36. 자동차·운송기기 제조업 | 46 (3.18) | 41 (4.19) | 38 (7.68) | 8 (0.84) |
| 37. 제약·화장품 제조업 | 22 (1.52) | 10 (1.02) | 6 (1.21) | 16 (1.68) |
| 38. 기타 제조업 | 62 (4.28) | 97 (9.91) | 31 (6.26) | 31 (3.26) |
| 계 | 1447 (100.0) | 979 (100.0) | 495 (34.26) | 950 (65.74) |
| 결측값의 개수 | 270 | 738 | 272 | |

단, () 안의 값은 취업경험자의 이전 업종 분포에 대한 내용임.

○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희망하는 업종은 유효 응답자의 20.11%를 차지하는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임.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공무원·정부투자기관’으로서 13.68%를 차지하고 있음. 그 다음이 ‘무역’(8.57%)과 ‘보건·의료 서비스업’(7.81%) 순서임.

-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은 취업 경험자의 이전 업종에서도 10.93%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희망 업종으로는 그 비중이 20.11%로 훨씬 더 높음.
- ‘공무원·정부투자기관’ 분야에 취업을 경험한 비율은 4.90%에 불과하였으나 이 분야에 대한 선호도가 13.68%를 차지한다는 것은 고용 안정성에 대한 청년들의 선호가 매우 높음을 알려주는 결과임.

- ‘의료·보건 서비스업’ 분야는 취업경험자의 이전 직장에 대한 질문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희망 분야로도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특기할 만함.
- 취업경험자의 이전 업종이 기타 제조업인 경우가 10%에 육박하였으나 희망 업종에서는 4.28%에 불과해 제조업 기피 현상을 읽을 수 있음.
- 남성의 경우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의 비중이 압도적(25.6%)인 반면 여성의 경우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의 비중이 17.16%로 가장 높기는 하나 15.79%를 차지한 ‘공무원·정부투자기관’과 유사한 수준임.
- ‘의료·보건 서비스업’도 11.26%로 매우 높으며 ‘무역’도 10.74%를 차지함.
- 응답자의 현재상태별로 희망업종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살펴봄(<표 4-62>참고)
 - 현재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구직자, 즉 취업 미경험 구직자와 취업 경험 구직자는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을 가장 선호하나 현재 취업 중인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정부투자기관을 더 선호하며 그 정도도 31.16%로 매우 높음.
 - 현재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으나 아직 일자리를 갖지 못한 구직자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일단 일자리를 가지고 싶어 할 것임. 그러나 현재 일자리를 갖고 있는 취업자의 경우 일자리를 갖는 것 보다는 더 높은 임금이나 아니면 안정적인 일자리를 선호할 것임. 따라서 취업 중 구직자는 안정적인 공무원·정부투자기관을 희망할 것임.
 - 반면 현재 일자리를 갖지 못한 구직자들이 자신의 능력과 현재 위치를 감안할 때 취업을 위해 가장 현실적이라고 판단되는 분야로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을 꼽았음. 이는 구직자들이 이 분야를 희망하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이 분야에 취업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음.

<표 4-62> 응답자의 현재상태와 취업 희망업종

(단위: %)

| 구 분 |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 무역 | 보건·의료 서비스업 | 건설업 |
|------------|-------------|-------------|------|------------|------|
| 취업 미경험 구직자 | 26.67 | 16.67 | 7.50 | 3.75 | 7.50 |
| 취업 경험 구직자 | 20.44 | 9.57 | 9.37 | 8.96 | 6.14 |
| 취업 중 구직자 | 9.42 | 31.16 | 5.80 | 7.25 | 3.62 |

나. 직종분포

○ 유효 응답자 가운데 38.4%가 ‘일반 사무직’을 원하고 있음.

- 그 다음이 ‘전문직’이며 ‘기술 및 준전문직’, ‘서비스·판매직’ 등의 순서임.

○ 성별로 보면 남성은 ‘기술 및 준전문직’과 ‘전문직’이 유사한 정도로 선호되나 여성은 ‘일반사무직’이 압도적임.(48.7%)

<표 4-63> 취업 희망직종

| 구분 | 경영· 관리직 | 전문직 | 기술 및 준전문직 | 일반 사무직 | 서비스· 판매직 | 농업 및 어업근로자 | 숙련공, 기능공 | 단순조립· 기계조작 | 단순 노무직 | 계 |
|----|--------------|----------------|----------------|----------------|----------------|-------------|--------------|--------------|-------------|------------------|
| 전체 | 89 (5.5) | 434 (27.0) | 228 (14.2) | 618 (38.4) | 184 (11.4) | 3 (0.2) | 17 (1.1) | 18 (1.1) | 17 (1.1) | 1,608 (100.0) |
| 남자 | 42 (8.43) | 136 (27.31) | 149 (29.92) | 77 (15.46) | 57 (11.45) | 0 (0.00) | 13 (2.61) | 15 (3.01) | 9 (1.81) | 498 (100.0) |
| 여자 | 47 (4.24) | 297 (26.81) | 79 (7.13) | 540 (48.74) | 127 (11.46) | 3 (0.27) | 4 (0.36) | 3 (0.27) | 8 (0.72) | 1108 (100.0) |

○ 희망직종은 응답자의 현재상태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표 4-64>에서 보듯이 현재상태와 무관하게 일반사무직을 가장 선호함.

- 취업 미경험자이든 경험자이든 아니면 취업 중인 자이든 간에 일반 사무직을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다만 취업 중 구직자들 가운데 전문직을 꼽은 사람들도 31.85%나 됨.

- 성별로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여자의 경우에서 부산권을 원하는 비율

이 높음.

<표 4-64> 응답자의 현재상태와 취업 희망직종

| 구분 | 경영· 관리직 | 전문직 | 기술 및 준전문직 | 일반 사무직 | 서비스 · 판매직 | 농업 및 어업근로자 | 숙련공, 기능공 | 단순조립 · 기계조 작 | 단순 노무직 | 계 |
|--------------|--------------|----------------|----------------|----------------|-----------------|---------------|--------------|--------------------|--------------|----------------|
| 취업미경 험구직자 | 24 (9.02) | 73 (27.44) | 45 (16.92) | 87 (32.71) | 28 (10.53) | 0 (0.00) | 4 (1.50) | 3 (1.13) | 2 (0.75) | 266 (17.4) |
| 취업경험 구직자 | 49 (4.34) | 290 (25.66) | 162 (14.34) | 455 (40.27) | 134 (11.86) | 3 (0.27) | 11 (0.97) | 13 (1.15) | 13 (1.15) | 130 (73.8) |
| 취업 중 구직자 | 10 (7.41) | 43 (31.85) | 12 (8.89) | 54 (40.00) | 16 (11.85) | 0 (0.00) | 0 (0.00) | 0 (0.00) | 0 (0.00) | 135 (8.8) |
| 계 | 83 (5.42) | 406 (26.52) | 219 (14.30) | 596 (38.93) | 178 (11.63) | 3 (0.20) | 15 (0.98) | 16 (1.05) | 15 (0.98) | 1,531 (100) |

※ 결측값의 개수 = 186

다. 희망지역 분포

- 응답자의 대부분이 부산권(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나 수도권 및 서울지역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도 10%에 육박할 정도로 적지 않음.

<표 4-65> 취업 희망지역

| 구 분 | 부산·경남·울산 | 수도권·서울 | 기타 | 어느 곳이든 | 계 |
|-----|-----------------|---------------|-------------|--------------|------------------|
| 전체 | 1,465 (85.8) | 157 (9.2) | 14 (0.8) | 72 (4.2) | 1,708 (100.0) |
| 남자 | 445 (82.41) | 50 (9.26) | 5 (0.93) | 40 (7.41) | 540 (100.0) |
| 여자 | 1019 (87.39) | 107 (9.18) | 8 (0.69) | 32 (2.74) | 1166 (100.0) |

단, () 안은 비율을 나타냄.

- 미취업자나 취업 중 구직자는 수도권 및 서울 지역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14.2%와 16.8%로 높음. 반면 취업 경험이 있는 구직자는 단지 6.5%만 수도권 및 서울지역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66> 현재상태별 취업 희망지역

| 구 분 | 부산·경남·울산 | 수도권·서울 | 기타 | 어느 곳이든 | 계 |
|-------------|-----------------|----------------|--------------|--------------|-----------------|
| 미취업자 | 220 (78.01) | 40 (14.18) | 2 (0.71) | 20 (7.09) | 282 |
| 취업경험 실업자 | 1057 (89.05) | 77 (6.49) | 7 (0.59) | 46 (3.88) | 1187 |
| 취업 중 구직자 | 118 (79.19) | 25 (16.78) | 3 (2.01) | 3 (2.01) | 149 |
| 계 | 1395 (86.22) | 142 (8.78) | 12 (0.74) | 69 (4.26) | 1618 (100.0) |

단, () 안은 비율을 나타냄.

○ 부산이외의 지역에 구직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미래에 대한 비전의 부족과 지원할 마땅한 업체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옴.

- 부산지역 청년 구직자들 중 타 지역으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부산지역에 대한 현재 및 미래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4-67> 부산지역 외의 타 지역 취업 희망 이유

| 구 분 | 전체 | 남자 | 여자 |
|--------------------|-------------|------------|-------------|
| 지원할 만한 마땅한 업체가 없어서 | 53 (32.5) | 16 (31.4) | 36 (32.4) |
| 연봉수준이 낮아서 | 24 (14.7) | 9 (17.6) | 15 (13.5) |
| 미래에 대한 비전이 부족해서 | 67 (41.1) | 23 (45.1) | 44 (39.6) |
|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 6 (3.7) | 1 (2.0) | 5 (4.5) |
| 연고가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 13 (8.0) | 2 (3.9) | 11 (10.0) |
| 계 | 163 (100.0) | 51 (100.0) | 111 (100.0) |

단, () 안은 비율을 나타냄.

라. 희망 규모

- 고용안정센타를 방문한 구직자들은 반드시 대규모 기업에 취업을 원하는 것은 아님.
- 응답자들의 희망 빈도가 가장 높은 기업규모는 30-99명 규모로서 유효 응답자의 38.6%가 여기에 답하였음. 그 다음으로는 30인 미만 기업(25.8%)을 선택하였음. 100-299명 규모의 기업을 선호한 사람의 비율은 15.9%에 이르렀음.
- 이러한 현상은 구직자의 현재상태에 따라 그리 달라지지 않음. <표 4-69>에서 보듯이 응답자의 현재상태에 따라 희망하는 기업 규모가 달라지지 않음.

<표 4-68> 희망 기업규모

| 구 분 | 30인 미만 | 30-99명 | 100-299명 | 300-499명 | 500-999명 | 1000명이상 | 계 |
|-----|----------------|----------------|----------------|---------------|--------------|--------------|------------------|
| 전체 | 439 (25.8) | 656 (38.6) | 271 (15.9) | 154 (9.1) | 75 (4.4) | 105 (6.2) | 1,700 (100.0) |
| 남자 | 85 (15.77) | 226 (41.93) | 98 (18.18) | 69 (12.80) | 26 (4.82) | 35 (6.49) | 539 (100.0) |
| 여자 | 354 (30.54) | 428 (36.93) | 173 (14.93) | 85 (7.33) | 49 (4.23) | 70 (6.04) | 1159 (100.0) |

<표 4-69> 현재상태별 희망 기업규모

| 구 분 | 30인 미만 | 30-99명 | 100-299명 | 300-499명 | 500-999명 | 1000명이상 | 계 |
|-------------|----------------|----------------|----------------|----------------|--------------|---------------|-------|
| 미취업자 | 48 (17.08) | 106 (37.72) | 52 (18.51) | 33 (11.74) | 23 (8.19) | 19 (6.76) | 281 |
| 취업경험 실업자 | 338 (28.50) | 481 (40.56) | 181 (15.26) | 87 (7.34) | 38 (3.20) | 61 (5.14) | 1,186 |
| 취업 중 구직자 | 34 (22.97) | 47 (31.76) | 24 (16.22) | 17 (11.49) | 11 (7.43) | 15 (10.14) | 148 |
| 계 | 420 (26.01) | 634 (39.26) | 257 (15.91) | 137 (8.48) | 72 (4.46) | 95 (5.88) | 1,615 |

※ 결측값의 개수 = 102

마. 적정 연봉

- 자신의 능력에 비추어 적정연봉 수준은 1,200-1,499만원 수준이라 응답한 것이 가

장 많았음(30.9%).

- 이는 월 평균 100-124만원의 보수에 해당하는데 취업 경험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수준의 급여를 받았음을 이미 보았음.<표 4-54>참고)
- 그 다음으로 많은 구직자들이 응답(19.2%)한 연봉수준은 1,500-1,799만원으로서 월 평균 125-149만원에 해당함.
- 취업 경험자들이 받았던 월 평균 급여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급여 구간은 응답자의 27.5%가 답한 75-99만원이었음
- 가장 많은 사람(29.8%)이 희망하는 100-124만원월 평균임금과 비교할 경우 그 비율이 그리 낮지 않음. 즉 취업 경험자의 이전 직장 급여보다는 구직자들이 스스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급여 수준이 다소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표 4-70> 적정 연봉

| 구분 | 1000만 미만 | 1000-1199만 | 1200-1499만 | 1500-1799만 | 1800-1999만 | 2000-2299만 | 2300-2499만 | 2500만 이상 | 계 |
|-----|----------|------------|------------|------------|------------|------------|------------|----------|-------|
| 빈도 | 62 | 304 | 529 | 328 | 254 | 137 | 46 | 50 | 1,710 |
| 백분율 | 3.6 | 17.8 | 30.9 | 19.2 | 14.9 | 8.0 | 2.7 | 2.9 | 100.0 |

※ 결측값의 개수 = 7

- 현재상태와 적정연봉을 보면 취업 중 구직자의 희망 연봉이 가장 높음.
- 남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고학력일수록 희망하는 적정 연봉수준이 높음다는 것을 <표 4-72>부터 <표 4-74>으로부터 알 수 있음.

<표 4-71> 현재상태와 적정 연봉

| 구분 | 1000만 미만 | 1000-1199만 | 1200-1499만 | 1500-1799만 | 1800-1999만 | 2000-2299만 | 2300-2499만 | 2500만이상 | 계 |
|--------------|--------------|----------------|----------------|----------------|----------------|----------------|--------------|--------------|------------------|
| 취업미경험구 직자 | 14 (4.98) | 48 (17.08) | 82 (29.18) | 51 (18.15) | 46 (16.37) | 26 (9.25) | 6 (2.14) | 8 (2.85) | 281 |
| 취업경험 구직자 | 38 (3.19) | 222 (18.62) | 404 (33.89) | 231 (19.38) | 172 (14.43) | 78 (6.54) | 28 (2.35) | 19 (1.59) | 1192 |
| 취업 중 구직자 | 2 (1.34) | 24 (16.11) | 28 (18.79) | 33 (22.15) | 25 (16.78) | 21 (14.09) | 9 (6.04) | 7 (4.70) | 149 |
| 계 | 54 (3.33) | 294 (18.13) | 514 (31.69) | 315 (19.42) | 243 (14.98) | 125 (7.71) | 43 (2.65) | 34 (2.10) | 1,622 (100.0) |

※ 결측값의 개수 = 95

<표 4-72> 성별과 적정 연봉

| 구분 | 1000만 미만 | 1000-1199만 | 1200-1499만 | 1500-1799만 | 1800-1999만 | 2000-2299만 | 2300-2499만 | 2500만이상 | 계 |
|----|--------------|----------------|----------------|----------------|----------------|----------------|--------------|--------------|-----------------|
| 남자 | 13 (2.39) | 57 (10.50) | 101 (18.60) | 132 (24.31) | 127 (23.39) | 62 (11.42) | 21 (3.87) | 30 (5.52) | 543 |
| 여자 | 49 (4.21) | 246 (21.12) | 428 (36.74) | 196 (16.82) | 127 (10.90) | 75 (6.44) | 24 (2.06) | 20 (1.72) | 1165 |
| 계 | 62 (3.63) | 303 (17.74) | 529 (30.97) | 328 (19.20) | 254 (14.87) | 137 (8.02) | 45 (2.63) | 50 (2.93) | 1708 (100.0) |

※ 결측값의 개수 = 9

<표 4-73> 연령과 적정 연봉

| 구분 | 1000만 미만 | 1000-1199만 | 1200-1499만 | 1500-1799만 | 1800-1999만 | 2000-2299만 | 2300-2499만 | 2500만이상 | 계 |
|--------|--------------|----------------|----------------|----------------|----------------|---------------|--------------|---------------|------------------|
| 15-19세 | 6 (8.96) | 21 (31.34) | 13 (19.40) | 8 (11.94) | 7 (10.45) | 4 (5.97) | 1 (1.49) | 7 (10.45) | 67 |
| 20-24세 | 35 (5.43) | 136 (21.12) | 231 (35.87) | 117 (18.17) | 62 (9.63) | 38 (5.90) | 8 (1.24) | 17 (2.64) | 644 |
| 25-29세 | 21 (2.10) | 147 (14.71) | 285 (28.53) | 203 (20.32) | 185 (18.52) | 95 (9.51) | 37 (3.70) | 26 (2.60) | 999 |
| 계 | 62 (3.63) | 304 (17.78) | 529 (30.94) | 328 (19.18) | 254 (14.85) | 137 (8.01) | 46 (2.69) | 50 (2.92) | 1,710 (100.0) |

※ 결측값의 개수 = 7

<표 4-74> 학력과 적정 연봉

| 구분 | 1000만 미만 | 1000-1199만 | 1200-1499만 | 1500-1799만 | 1800-1999만 | 2000-2299만 | 2300-2499만 | 2500만이상 | 계 |
|------|--------------|----------------|----------------|----------------|----------------|----------------|--------------|--------------|-----------------|
| 고졸이하 | 40 (6.26) | 160 (25.04) | 173 (27.07) | 107 (16.74) | 79 (12.36) | 42 (6.57) | 14 (2.19) | 24 (3.76) | 639 |
| 전문대졸 | 16 (3.30) | 96 (19.79) | 192 (39.59) | 88 (18.14) | 60 (12.37) | 24 (4.95) | 8 (1.65) | 1 (0.21) | 485 |
| 대졸이상 | 2 (0.40) | 38 (7.54) | 138 (27.38) | 119 (23.61) | 100 (19.84) | 66 (13.10) | 23 (4.56) | 18 (3.57) | 504 |
| 계 | 58 (3.56) | 294 (18.06) | 503 (30.90) | 314 (19.29) | 239 (14.68) | 132 (8.11) | 45 (2.76) | 43 (2.64) | 1628 (100.0) |

※ 결측값의 개수 = 89

바. 업체 선택 기준

○ 구직자들이 업체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직무 적합성’(35.5%)과 ‘연봉수준’(33.7%)임.

- 응답자의 현재상태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짐을 <표 4-76>에서 볼 수 있음. 즉 취업 경험이 있건 없건 현재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직무의 적합성을 우선시 하고 있으나 취업 중에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연봉을 가장 우선시함.

<표 4-75> 업체 선택기준

| 구 분 | 연봉수준 | 복지혜택 | 직무적합성 | 회사규모 및 인지도 | 회사 발전전망 | 계 |
|-----|---------------|---------------|---------------|---------------|---------------|------------------|
| 1순위 | 577 (33.7) | 184 (10.8) | 608 (35.5) | 143 (8.4) | 200 (11.7) | 1,712 (100.0) |
| 2순위 | 510 (34.8) | 306 (20.9) | 246 (16.8) | 166 (11.3) | 236 (16.1) | 1,464 (100.0) |

※ 결측값의 개수(1순위) = 5

※ 결측값의 개수(2순위) = 253

<표 4-76> 현재상태와 업체 선택기준

| 구 분 | 연봉수준 | 복지혜택 | 직무적합성 | 회사규모 및 인지도 | 회사 발전전망 | 계 |
|--------------|----------------|----------------|----------------|----------------|----------------|------------------|
| 취업미경험구 직자 | 88 (31.21) | 19 (6.74) | 112 (39.72) | 25 (8.87) | 38 (13.48) | 282 |
| 취업경험 구직자 | 400 (33.56) | 139 (11.66) | 425 (35.65) | 98 (8.22) | 130 (10.91) | 1,192 |
| 취업 중 구직자 | 59 (39.60) | 17 (11.41) | 40 (26.85) | 15 (10.07) | 18 (12.08) | 149 |
| 계 | 547 (33.70) | 175 (10.78) | 577 (35.55) | 138 (8.50) | 186 (11.46) | 1,623 (100.0) |

※ 결측값의 개수 = 94

○ 업체 선택 기준은 응답자의 인적특성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임. (<표 4-77>참고)

- 성별에 따른 업체 선택 기준의 차이는 크지 않으나 연령별로 보면(표 4-78) 15-29세에서는 직무 적합성을 크게 우선시하는 반면 20-24세 집단에서는 연봉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나 25-29세에 이르면 다시 직무 적합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

- 학력별로도 고졸이하나 전문대졸의 경우 연봉을 가장 중시하나 대졸이상에서는 직무 적합성을 더욱 중시함.

<표 4-77> 성별과 업체 선택기준

| 구 분 | 연봉수준 | 복지혜택 | 직무적합성 | 회사규모 및 인지도 | 회사 발전전망 | 계 |
|-----|----------------|----------------|----------------|---------------|----------------|------------------|
| 남 자 | 173 (31.86) | 48 (8.84) | 177 (32.60) | 44 (8.10) | 101 (18.60) | 543 |
| 여 자 | 402 (34.45) | 136 (11.65) | 431 (36.93) | 99 (8.48) | 99 (8.48) | 1,167 |
| 계 | 575 (33.63) | 184 (10.76) | 608 (35.56) | 143 (8.36) | 200 (11.70) | 1,710 (100.0) |

※ 결측값의 개수 = 7

<표 4-78> 연령과 업체 선택기준

| 구 분 | 연봉수준 | 복지혜택 | 직무적합성 | 회사규모 및 인지도 | 회사 발전전망 | 계 |
|--------|----------------|----------------|----------------|---------------|----------------|------------------|
| 15-19세 | 17 (25.37) | 2 (2.99) | 31 (46.27) | 6 (8.96) | 11 (16.42) | 67 |
| 20-24세 | 226 (35.09) | 83 (12.89) | 210 (32.61) | 62 (9.63) | 63 (9.78) | 644 |
| 25-29세 | 334 (33.37) | 99 (9.89) | 367 (36.66) | 75 (7.49) | 126 (12.59) | 1,001 |
| 계 | 577 (33.70) | 184 (10.75) | 608 (35.51) | 143 (8.35) | 200 (11.68) | 1,712 (100.0) |

※ 결측값의 개수 = 5

<표 4-79> 학력과 업체 선택기준

| 구 분 | 연봉수준 | 복지혜택 | 직무적합성 | 회사규모 및 인지도 | 회사 발전전망 | 계 |
|------|----------------|----------------|----------------|----------------|----------------|-----------------|
| 고졸이하 | 220 (34.27) | 83 (12.93) | 209 (32.55) | 50 (7.79) | 80 (12.46) | 642 |
| 전문대졸 | 180 (37.27) | 57 (11.80) | 164 (33.95) | 36 (7.45) | 46 (9.52) | 483 |
| 대졸이상 | 146 (28.91) | 37 (7.33) | 201 (39.80) | 56 (11.09) | 65 (12.87) | 505 |
| 계 | 546 (33.50) | 177 (10.86) | 574 (35.21) | 142 (8.71) | 191 (11.72) | 1630 (100.0) |

※ 결측값의 개수 = 87

(2) 취업 희망사항 수정의사 유무

- 취업과 관련하여 본인의 희망사항들을 수정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음.
 - 자신의 학력보다 낮은 학력을 요구하는 일자리에라도 취업하고자 하는 하향 취업 의사 유무,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생산직 취업 의사 유무, 그리고 비정규직 취업 의사 유무 등이 그것임.
 - 구직자들이 자신의 노동공급 측면 뿐 아니라 노동수요 측면까지 감안한 노동공급 변화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음.
- <표 4-80>에서 보듯이 유효 응답자의 72.4%가 하향취업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비정규직에라도 취업할 의사가 있는 구직자들이 62.7%에 이름.
 - 여전히 생산직 취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사가 많아서 생산직에라도 취업할 의사를 가진 구직자는 전체 유효 응답자의 28.0%에 불과함.

<표 4-80> 취업 희망사항 수정 의사 유무

| 구 분 | 하향 취업 의사 유무 | 생산직 취업 의사 유무 | 비정규직 취업 의사 유무 |
|---------|---------------|---------------|---------------|
| 있 음 | 1240 (72.4) | 479 (28.0) | 1,073 (62.7) |
| 없 음 | 472 (27.6) | 1,232 (72.0) | 639 (37.3) |
| 계 | 1,712 (100.0) | 1,711 (100.0) | 1,712 (100.0) |
| 결측값의 개수 | 5 | 6 | 5 |

- 취업 희망사항 수정 의사는 취업상태에 있지 않을수록 그리고 취업 경험이 없을수록 높게 나타남.(<표 4-81>참고)
 -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사태가 노동공급에 대한 의사 변화에 중요한 요인이 됨을 확인할 수 있음.
-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표 4-82>참고) 남자일수록 하향 취업과 생산직 취업

의사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반면 여자는 비정규직에라도 취업할 의사를 더 크게 가지고 있음.

- 연령과 학력으로 구분하여 보면(<표 4-83>, <표 4-84>)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하향 취업, 생산직 취업, 그리고 비정규직 취업 의사가 약함을 알 수 있음.

<표 4-81> 현재상태와 취업 희망사항 수정 의사 유무

| 구분 | 하향 취업 의사 유무 | | 생산직 취업 의사 유무 | | 비정규직 취업 의사 유무 | |
|--------------|-----------------|----------------|----------------|-----------------|-----------------|----------------|
| | 있음 | 없음 | 있음 | 없음 | 있음 | 없음 |
| 취업미경험 구직자 | 209 (74.38) | 72 (25.62) | 93 (32.98) | 189 (67.02) | 197 (69.86) | 85 (30.14) |
| 취업경험 구직자 | 871 (73.01) | 322 (26.99) | 326 (27.37) | 865 (72.63) | 728 (61.02) | 465 (38.98) |
| 취업 중 구직자 | 93 (62.42) | 56 (37.58) | 28 (18.79) | 121 (81.21) | 84 (56.76) | 64 (43.24) |
| 계 | 1173 (72.27) | 450 (27.73) | 447 (27.56) | 1175 (72.44) | 1009 (62.17) | 614 (37.83) |
| 결측값의 개수 | 94 | | 95 | | 94 | |

<표 4-82> 성별과 취업 희망사항 수정 의사 유무

| 구분 | 하향 취업 의사 유무 | | 생산직 취업 의사 유무 | | 비정규직 취업 의사 유무 | |
|---------|-----------------|----------------|----------------|-----------------|-----------------|----------------|
| | 있음 | 없음 | 있음 | 없음 | 있음 | 없음 |
| 남자 | 424 (78.08) | 119 (21.92) | 278 (51.39) | 263 (48.61) | 315 (58.01) | 228 (41.99) |
| 여자 | 814 (69.75) | 353 (30.25) | 200 (17.12) | 968 (82.88) | 756 (64.78) | 411 (35.22) |
| 계 | 1238 (72.40) | 472 (27.60) | 478 (27.97) | 1231 (72.03) | 1071 (62.63) | 639 (37.37) |
| 결측값의 개수 | 7 | | 8 | | 7 | |

<표 4-83> 연령과 취업 희망사항 수정 의사 유무

| 구 분 | 하향 취업 의사 유무 | | 생산직 취업 의사 유무 | | 비정규직 취업 의사 유무 | |
|---------|---------------|--------------|--------------|---------------|---------------|--------------|
| | 있음 | 없음 | 있음 | 없음 | 있음 | 없음 |
| 15-19세 | 54 80.60 | 13 19.40 | 30 44.78 | 37 55.22 | 44 65.67 | 23 34.33 |
| 20-24세 | 478 74.22 | 166 25.78 | 191 29.66 | 453 70.34 | 419 64.96 | 226 35.04 |
| 25-29세 | 708 70.73 | 293 29.27 | 258 25.80 | 742 74.20 | 610 61.00 | 390 39.00 |
| 계 | 1240 72.43 | 472 27.57 | 479 28.00 | 1232 72.00 | 1073 62.68 | 639 37.32 |
| 결측값의 개수 | 5 | | 6 | | 5 | |

<표 4-84> 학력과 취업 희망사항 수정 의사 유무

| 구 분 | 하향 취업 의사 유무 | | 생산직 취업 의사 유무 | | 비정규직 취업 의사 유무 | |
|---------|---------------|--------------|--------------|---------------|---------------|--------------|
| | 있음 | 없음 | 있음 | 없음 | 있음 | 없음 |
| 고졸이하 | 484 75.51 | 157 24.49 | 255 39.84 | 385 60.16 | 398 62.09 | 243 37.91 |
| 전문대졸 | 362 74.79 | 122 25.21 | 121 25.10 | 361 74.90 | 310 64.05 | 174 35.95 |
| 대졸이상 | 327 64.62 | 179 35.38 | 79 15.58 | 428 84.42 | 311 61.58 | 194 38.42 |
| 계 | 1173 71.92 | 458 28.08 | 455 27.93 | 1174 72.07 | 1019 62.52 | 611 37.48 |
| 결측값의 개수 | 86 | | 88 | | 87 | |

(3) 재학중 근로경험과 취업 희망사항 간의 관계

- 재학중 근로경험 유무가 하향취업이나 생산직 취업 및 비정규직 취업의사 유무와 크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재학 중 근로경험 유무에 따라 취업 관련 의사들에 중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만 근로경험이 없는 구직자의 비정규직 취업 의사가 더 높게 나타남.

<표 4-85> 재학 중 근로경험 유무와 취업 희망사항 수정 의사 유무

| 구 분 | | 재학 중 근로경험 | 하향 취업 의사 유무 | | 생산직 취업 의사 유무 | | 비정규직 취업 의사 유무 | |
|--------------|----|------------------|------------------|----------------|-----------------|------------------|------------------|----------------|
| | | | 있음 | 없음 | 있음 | 없음 | 있음 | 없음 |
| 재학 중 근로경험 | 있음 | 1,442 (85.3) | 1,044 (72.50) | 396 (27.50) | 399 (27.75) | 1,039 (72.25) | 891 (61.92) | 548 (38.08) |
| | 없음 | 249 (14.7) | 180 (72.58) | 68 (27.42) | 72 (28.92) | 177 (71.08) | 171 (68.67) | 78 (31.33) |
| 계 | | 1,691 (100.0) | 1,224 (72.51) | 464 (27.49) | 471 (27.92) | 1,216 (72.08) | 1,062 (62.91) | 626 (37.09) |
| 결측값의 개수 | | 26 | 29 | | 30 | | 29 | |

4) 취업 희망사항 수정의사 유무 결정요인과 직업훈련

(1) 취업 희망사항 수정의사 유무 결정요인

- 취업 관련 희망사항에 대한 수정 의사 유무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노동공급에 관한 의사결정의 변화를 의미하므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는 중요함.
 - 이를 알아보기 위해 하향 취업 의사 유무, 생산직 취업 의사 유무, 비정규직 취업 의사 유무를 각각 종속변수로 하는 로짓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회귀분석하였음.
 - 그 결과가 <표 4-86>에 요약되어 있음. 결측값인 경우들이 많아 추정에 사용된 유효 표본은 680개 남짓한 수준에 불과함. 이로 인해 많은 추정치들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음.
- 추정결과에서 주목할만한 사항은 직업훈련 희망 여부 더미변수에 대한 추정결과임.
 - 이 변수는 세 경우 모두에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음.
 - 하향 취업 의사 유무의 경우에는 실제 직업훈련 수강 여부를 더미변수로 도입한 경우에도 계수 추정치가 유의하게 나타남.
 - 이는 직업훈련 희망 여부가 구직자의 취업 관련 희망 사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직업훈련이 노동공급 변화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줌을 의미함.

- 이는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지므로 직업훈련과 관련된 조사결과들을 자세히 살펴봄.

<표 4-86> 취업 희망사항 수정의사 유무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 독립변수 | 종속변수 하향 취업 의사 유무 | 생산직 취업 의사 유무 | 비정규직 취업 의사 유무 |
|-------------------|------------------------|-----------------|------------------|
| 상수항 | -0.93 (1.15) | 2.87 (1.15)** | 0.19 (0.82) |
| 성별더미 | -0.31 (0.27) | -1.63 (0.31)*** | 0.42 (0.25)* |
| 20-24세더미 | 0.83 (1.12) | -1.98 (1.12)* | -0.31 (0.78) |
| 25-29세더미 | 0.71 (1.13) | -1.53 (1.13) | -0.28 (0.79) |
| 전문대졸더미 | -0.12 (0.25) | 0.12 (0.22) | -0.08 (0.22) |
| 대졸이상더미 | 0.53 (0.24)** | 0.84 (0.25)*** | 0.42 (0.22)* |
| 유배우더미 | -0.25 (0.40) | -0.47 (0.38) | -0.42 (0.35) |
| 병역필더미 | -0.43 (0.46) | 0.29 (0.50) | 0.39 (0.42) |
| 2000년졸업더미 | 0.40 (0.30) | -0.12 (0.31) | -0.53 (0.29)* |
| 2001년졸업더미 | -0.10 (0.34) | 0.13 (0.31) | 0.26 (0.28) |
| 2002년졸업더미 | 0.16 (0.33) | 0.76 (0.31)** | -0.29 (0.29) |
| 2003년이후졸업더미 | 0.16 (0.29) | 0.64 (0.27)** | -0.50 (0.26)* |
| 가족소득더미(100-149만원) | -0.61 (0.35)* | -0.13 (0.31) | -0.55 (0.29)* |
| 가족소득더미(150-249만원) | 0.09 (0.30) | 0.48 (0.28)* | -0.50 (0.26)* |
| 가족소득더미(250만원이상) | 0.18 (0.30) | 0.35 (0.28) | -0.19 (0.26) |
| 직업훈련 희망여부 더미 | -0.51 (0.19)*** | -0.33 (0.19)* | -0.34 (0.17)** |
| 직업훈련 수강여부 더미 | -0.40 (0.20)** | -0.17 (0.19) | -0.18 (0.18) |
| 취업중 여부 더미 | 0.68 (0.34)** | 0.06 (0.38) | 0.18 (0.32) |
| 관측수 | 685 | 683 | 684 |
| -2 Log L | 736.4 | 764.0 | 880.3 |

주: 1. 제시된 숫자는 계수 추정치와 표준오차(괄호안)임.
 2. ***, **, *는 각각 유의수준 1%, 5%, 10%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2) 노동공급측면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 직업훈련

○ 다음의 <표 4-87>에서 보듯이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비율이 62.5%로 높음. 반면 실제로 직업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응답자의 37.8%에 불과함.

-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이유는 학교에서 축적한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한 노동공급과 기업들의 노동수요 간에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일 것임.

- 실제로 <표 4-88>에서 보듯이 직업훈련을 받은 분야와 학교 커리큘럼의 관련성을 묻은 질문에 전혀 관련이 없거나 약간 관련이 있다고 답한 경우가 84.5%에 달함.
- 그런데도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는 <표 4-8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하는 교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33.7%)라는 이유와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서’(28.8%)라는 이유가 많은 부분을 차지함.

<표 4-87> 직업훈련 수강 희망 및 경험 여부

| 구분 | 직업훈련 수강 희망 여부 | | 직업훈련 수강 경험 여부 | |
|---------|---------------|------------|---------------|--------------|
| | 희망함 | 희망하지 않음 | 수강한 적 있음 | 수강한 적 없음 |
| 빈도 (비율) | 1,056 (62.5) | 634 (37.5) | 626 (37.8) | 1,032 (62.2) |
| 계 | 1,690 (100.0) | | 1,658 (100.0) | |
| 결측값의 개수 | 27 | | 59 | |

<표 4-88> 직업훈련 받은 분야와 최종 학교 커리큘럼과 관련성

| 구분 | 전혀 관련 없음 | 약간 관련 있음 | 직접 관련 있음 | 계 |
|---------|------------|------------|------------|-------------|
| 빈도 (비율) | 292 (43.0) | 282 (41.5) | 105 (15.5) | 679 (100.0) |

※ 결측값의 개수 = 1,038

<표 4-89>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

| 구분 | 취업가능성 낮음 | 원하는 프로그램 없음 | 생계 때문에 시간이 없음 | 원하는 교육관련 정보부족 | 인근에 직업훈련원 없어서 | 계 |
|------|----------|-------------|---------------|---------------|---------------|---------|
| 빈도 | 202 | 332 | 171 | 389 | 59 | 1,153 |
| (비율) | (17.5) | (28.8) | (14.8) | (33.7) | (5.1) | (100.0) |

- 직업훈련 과정을 이수한다면 1년내 취업 가능성을 50%이상으로 보는 경우가 <표 4-90>에서 보듯이 응답자의 79.6%를 차지함.

- 그런데도 직업훈련이 자신에게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 상담을 받아본 사람은 단지 27.1%에 불과함.

<표 4-90> 훈련의 적합성에 대한 상담 여부 및 취업 가능성

| 구 분 | 훈련과정 이수 후 1년 내 취업가능성 | | | | | 훈련의 적합성 상담 여부 | |
|--------------|----------------------|---------------|---------------|---------------|-------------|---------------|---------------|
| | 0% | 25% | 50% | 75% | 90%이상 | 상담 받았음 | 받지 않았음 |
| 빈 도 (비 율) | 9 (1.2) | 139 (19.0) | 382 (52.1) | 135 (18.4) | 68 (9.3) | 193 (26.9) | 524 (73.1) |
| 계 | 733 (100.0) | | | | | 717 (100.0) | |
| 결측값의 개수 | 984 | | | | | 1,000 | |

- 결국 여기서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음.
 - 학교교육과 산업현장의 노동수요 간의 괴리가 존재하고 이를 메우기 위한 직업훈련 수요가 높음.
 - 그러나 훈련관련 정보의 제공이나 상담 및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임.
 - 만약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어 구직자들이 적절한 훈련을 받을 수 있다면 노동시장 상황에 맞도록 노동공급 측면에서 변화의 여지가 존재함.

(3) 정책과제

- 고용안정센타를 방문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부산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본 연구는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괴리에 따른 문제점 가운데 일정 부분이 노동공급 측면의 변화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여지를 발견하였음.
 - 직업훈련에 대한 잠재된 수요가 크고 직업훈련에 의해 노동공급에 대한 의사가 상당부분 변화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직업훈련을 받는 비율이 높지 않고 따라서 청년실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 잠재된 훈련수요를 충족시킬만한 다양한 훈련과정이 개발되어 있지 못하고

- 훈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구직자들에게 알맞은 직업훈련에 대한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임.

○ 다음의 <표 4-91>에서 보듯이 현행 직업훈련의 문제점으로 훈련생의 절반이상이 다양한 훈련직종의 개설을 들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고용촉진을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정책과제 가운데

-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 뿐 아니라
- ‘공공 직업소개 및 취업정보망의 확충’과 ‘무료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확대’를 원하는 비율이 37%로 높음.(표 4-92)

<표 4-91> 현행 직업훈련의 문제점

| 구분 | 다양한 직종 개설 | 훈련과정 내실화 | 교과과정 현실부적합 | 수강생들간 수준차이 | 기타 | 계 | 결측값의 개수 |
|-----|---------------|---------------|---------------|---------------|-------------|----------------|------------|
| 1순위 | 352 (51.9) | 156 (23.0) | 95 (14.0) | 59 (8.7) | 16 (2.4) | 678 (100.0) | 1,039 |
| 2순위 | 104 (19.4) | 169 (31.5) | 118 (22.0) | 102 (19.0) | 43 (8.0) | 536 (100.0) | 1,181 |

<표 4-92> 청년층 고용촉진을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정책과제

| 구분 | 1순위 | | 2순위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인턴제 활성화 | 135 | 8.06 | 77 | 5.26 |
| 해외취업촉진정책 강화 | 64 | 3.82 | 61 | 4.17 |
| 실직자 재취업 촉진을 위한 무료 직업훈련 프로그램 확대 | 313 | 18.70 | 199 | 13.59 |
| 구직활동의 원활화를 위한 공공직업소개 및 취업정보망 확충 | 319 | 19.06 | 259 | 17.69 |
| 실직자들에 대한 생계보호 강화 | 141 | 8.42 | 178 | 12.16 |
| 정부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노력 | 540 | 32.26 | 364 | 24.86 |
| 기업의 고용안정 노력의 강화 및 지원 | 162 | 9.68 | 326 | 22.27 |
| 계 | 1,674 | 100.0 | 1,464 | 100.0 |
| 결측값의 개수 | 43 | | 253 | |

- 한편 채용박람회 개최는 지방대생 취업을 촉진하는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대답이 많아 학교 기졸업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 효과가 보통이라고 답한 사람이 40.2이고 효과가 적거나 거의 없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31.8%에 달함.
 - 효과가 있다고 답한 사람은 25.0%였고 매우 효과가 있다는 답은 3.1%에 불과하였음.
 - 보통 또는 효과가 별로라는 응답이 81.8%이므로 고용안정센터 방문자들에게서 채용박람회는 그리 유용하지 못함.

<표 4-93> 채용박람회의 지방대생 취업촉진효과

| 구 분 | 매우 효과 있음 | 효과 있음 | 보통 | 효과 적음 | 효과 거의 없음 | 계 |
|-----|-------------|--------|--------|--------|-------------|---------|
| 빈 도 | 53 | 425 | 685 | 342 | 200 | 1,705 |
| 비 율 | (3.1) | (25.0) | (40.2) | (20.1) | (11.7) | (100.0) |

※ 결측값의 개수 = 12

4) 요약 및 시사점

-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몇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 설문 참여자의 인적특성을 보면
 - 이들을 주로 이미 졸업한 사람들이며 졸업 예정자들은 적다는 특징을 가짐. 따라서 이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들을 신규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그리 적절치 않을 것으로 사료됨.
 - 성별로도 여성에 크게 치우쳐져 있음(여성 비율이 68.2%).
 - 연령별로는 25-29세가 58.9%로 가장 많음.
 - 학력구성은 다양하여 고졸 이하자가 39.3%, 전문대졸이 29.7%, 대졸이상이 31%를 차지함.

- 혼인상태는 미혼이 대부분이며 병력은 필하거나 면제 받은 자가 89.2%임.
 - 가구소득은 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절반이상일 정도로 저소득층임.
- 이들의 현재상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취업 경험 구직자의 비율이 73.5%로 대부분을 차지함.
- 취업 미경험 구직자는 17.3%이며, 취업 중인 구직자도 9.2%에 이룸.
 - 연령이 높을수록 취업경험이 있거나 취업 중에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 이는 청년의 활발한 직장탐색을 알려주는 결과일수도 있으나 근로자와 일 간의 궁합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음.
 - 이들이 주로 활용하는 구직경로, 즉 인터넷을 통해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대다수인 취업경험 구직자의 전 직장을 살펴보면 이들의 특성을 더욱 잘 볼 수 있음.
- 전 직장의 규모는 30이 미만인 경우가 절반을 넘으며(52.4%) 30-99명인 경우가 22.1%를 차지하여 주로 소규모 사업체에서 일하였음.
 - 급여도 낮은 수준임. 100-124만원을 받는 경우가 29.8%로 가장 많았으나 75-99만원을 받는 경우도 27.5%에 이룸.
 - 전 직장의 직종은 '일반사무직'이 40%로 가장 많음.
 - 전 직장의 업종분포는 매우 다양하여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의 비중이 가장 높으나 '기타 제조업', '보건 의료 서비스업'의 비중도 유사할 정도로 높음.
- 구직활동은 주로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으며 본인이 직접 문의/면담을 하거나 신문이나 잡지를 활용하는 정도임.
-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work-net이며 사실 온라인 채용업체도 그 다음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음.

- 취업관련 희망하는 업종은 남자의 경우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이 압도적이거나 여자는 매우 다양함.
 - ‘공무원·정부투자기관’, ‘보건 의료 서비스업’, ‘무역’ 등도 높은 비중을 차지함.
- 희망 직종은 일반 사무직이 매우 많음.
- 희망지역은 부산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부산권 외의 지역을 희망한 경우는 14.2%였음.
 - 타지역을 선택한 이유로 ‘미래에 대한 비전 부족’과 ‘지원할만한 마땅한 업체를 찾을 수 없어서’가 각각 41.1%와 32.5%를 차지하였음.
 - 이는 적어도 청년에게 부산지역은 그리 매력적이지 못한 도시라는 의미를 가짐.
- 부산지역 청년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어 이들에게 부산이 머물러 경제활동을 하기에 매력적인 도시이게 하려면 이들이 희망하고 유치하기도 원하는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의 전략적 육성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희망하는 사업체 규모는 30-99명인 경우가 38.6%, 30인 미만인 경우가 25.8%로 반드시 대기업을 원하지 않고 있음.
 - 남성이 30-9명 사업체를 원하는 경우가 더 많으며 여성은 30명 미만을 원하는 경우도 많음.
- 걱정하다고 판단하는 연봉은 1,200-1,500만원이 가장 많으며(30.9%) 실제 취업 경험자들도 이 정도 수준의 급여를 가장 많이 받았음.
- 업체를 선택하는 기준은 연령과 학력에 따라 상이하나 전체적으로 보면 직무적합성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연봉수준임.

- 고용안정센타를 방문한 청년들은 하향취업, 비정규직 취업 의사를 크게 가지고 있음.
 - 하향 취업 의사는 무려 72.4%의 사람들에게서 나왔는데 남성의 경우에 더 강하였음.
 - 비정규직 취업의사는 62.7%의 사람들에게서 관찰되었고 여성에게서 더욱 많았음.
 - 생산직 취업의사는 27.97%에 불과하였으나 성별로 보면 남성의 51.39%가 생산직 취업의사를 나타내었음. 여성의 82.88%에게서는 생산직 취업의사가 관찰되지 않았음.

- 이러한 취업희망 의사 수정여부와 관련된 결과에 기초한다면 남성에게는 하향취업이나 생산직 취업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여성에게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알선하는 것이 이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것임.

- 취업희망 의사는 노동공급의 변화를 의미하므로 매우 중요함. 과연 어떤 요인들이 이러한 취업희망 의사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면 그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먼저 취업희망 의사 수정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여러 변수들을 공변수로 도입한 로짓모형을 설정하여 회귀분석 하였음.
 - 이 결과 직업훈련 의사 유무가 특히 취업희망 의사 수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실제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의 비율이 62.5%로 높음. 이는 학교에서 축적한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한 노동공급과 산업현장에서 기업들의 노동수요 간에 괴리가 있기 때문일 것임.
 - 이는 직업훈련 받은 분야와 학교 커리큘럼 간에 전혀 관련이 없거나 약간만 관련되어 있다는 응답이 무려 84.5%를 차지한다는 데에서도 읽을 수 있음.

- 그러나 정작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은 응답자의 37.8%에 불과함. 그 이유를 묻은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 ‘원하는 교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33.7%)라는 이유와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28.8%)라고 답하였음.
- 뿐만 아니라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1년 이내에 취업할 가능성을 50% 이상으로 보는 경우가 80%에 달함.
 - 그런데도 직업훈련이 과연 자신에게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상담을 받아본 사람은 단지 27.1%에 불과하였음.
- 결국 우리는 이상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학교교육과 산업현장의 노동수요 간에 상당한 괴리가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청년실업 문제를 노동공급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청년)실업의 문제는 산업현장의 노동수요 측면만의 노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노동공급 측면의 노력이 아울러 필요함.
 - 부산지역 청년 노동력의 경우 자신의 노동공급과 관련된 취업 희망사항들을 수정할 용의, 즉 노동공급을 변화시킬 용의가 있음을 보여주었음.
 -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직업훈련 수강 의사 유무가 이러한 노동공급 변화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임.
 - 뿐만 아니라 직업훈련에 대한 청년들의 수요가 매우 큼.
- 노동공급 측면의 노력으로 청년실업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잠재된 훈련수요를 충족시킬만한 다양한 훈련과정이 개발되어 있지 못함. 이는 현행 직업훈련의 문제점으로 훈련생의 절반이상이 다양한 훈련직종의 개설을 들고

있는 데에서도 잘 알 수 있음.

- 또한 훈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자신에게 알맞은 직업훈련에 대한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청년 고용촉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정책과제로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 뿐만 아니라 ‘공공 직업소개 및 취업정보망의 확충’과 ‘무료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확대’를 원하는 비율이 37%로 높음.
- 결국 부산지역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노동공급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음.
- 잠재된 작업훈련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훈련과정을 개발함.
 -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훈련 수요자들에게 훈련 관련 정보가 잘 전달될 수 있게 함.
 - 구직자 개개인에게 알맞은 훈련과정이 무엇인지 훈련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함.
 - 이를 통해 노동공급 측면의 변화를 유도하고 산업현장에 적합한 인적자본을 갖춘 노동력을 배출함.
- 이 외에도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청년여성에게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청년 실업 해소에 효과적일 것이며 청년남성에게는 하향취업이나 생산직 취업을 유도하는 정책을 사용할 수 있음.

제5절 요약과 시사점

- 부산지역의 청년 인구와 이들의 이동 및 경제활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음.
 - 부산지역 인구구조와 청년 인구의 변화 추이를 부산지역 경제와 관련시켜 볼 때, 부산경제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부산지역에 매년 새로 등장하는 청년 노동력의 규모는 5-6만명 정도일 것으로 판단됨.
 - 부산지역으로 유입되는 인구보다 유출되는 인구가 45만명 정도 더 많아 인구의 순유출(또는 순전출)이 발생하며 이 가운데 청년인구의 순 유출 규모는 2만명 가량임. 이는 부산지역이 청년들에게 그리 매력적인 도시는 아님을 알려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향후 부산지역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상승할 것이고 청년 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노동공급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수립되지 못한다면 부산지역 청년실업은 앞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남게 될 것임.

- 부산지역 청년층 구직자들의 구직활동과 취업관련 희망사항 등을 비롯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들을 알아보기 위해 두 가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한 가지는 대학의 취업 보도실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것임.
 - 전자가 주로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라면 후자는 주로 기 졸업자들 가운데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임.

- 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차이점과 일치점을 발견하였음.

- 먼저 졸업예정자들이 주로 조사대상이 된 경우에서 구직자들은 대기업에서 높은

연봉을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았음. 이러한 현상은 주로 상위대학 학생들에게서 더욱 강하게 나타남.

- 반면 고용안정센타를 통해 주로 기 졸업자들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중소규모의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를 받으면서 일할 의사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졸업 예정자들, 특히 상위권에 속하는 사람들이 졸업과 더불어 자신들의 희망의 상당부분을 실현시켜주는 업체에 취업하였다면 이들은 주로 부산지역을 떠나게 될 것임.
 - 그렇다면 청년 인구이동에서 순유출되는 2만명 가량에는 이러한 우수한 노동력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을 것임. 반면 이 정도의 우수한 노동력들이 부산지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적음.
 - 그 결과 부산지역에 남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게 되고 그 결과 주로 기 졸업자들이 찾는 고용안정센타에서는 보다 낮은 보수를 감수하는 사람들이 주로 있게 될 것임.
 - 이러한 현상이 의미하는 바는 부산지역의 우수인력 유출현상임. 이로 인해 부산지역의 경제의 활력은 더욱 약화될 것임.
- 두 조사에서 공히 직업훈련에 대한 잠재된 수요가 매우 크다는 사실은 공통적으로 관찰되었으며 이를 통해 노동공급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도 보았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 않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었음.
 - 첫째, 잠재된 작업훈련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훈련과정을 개발함.
 - 둘째,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훈련 수요자들에게 훈련 관련 정보가 잘 전달될 수 있게 함.
 - 셋째, 구직자 개개인에게 알맞은 훈련과정이 무엇인지 훈련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함.
 - 이러한 노력을 통해 노동공급 측면의 변화를 유도하고 산업현장에 적합한 인적자본을 갖춘 노동력을 배출함으로써 청년실업의 상당부분을 해결할 수 있음.

- 두 조사에서 일치하는 또 한 가지는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이 매우 희망하는 직종이라는 사실임.
 - 응답자들이 부산지역에 가장 유치하기를 원하는 업종도 역시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임. 이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음.
 - 이 분야에 다양한 직업훈련 과정을 개발하여 홍보 및 상담을 통해 적절한 훈련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노동공급 측면의 변화를 통해 청년 실업 문제의 상당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임.

- 이 외에 적어도 단기적으로나마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은 청년여성에게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남성에게는 하향취업이나 생산직 취업을 유도하는 것임.

〈참 고 문 헌〉

- Insoo Jeong, 『OECD Recommendations on Labor Issues and Korea's Compliance with Evaluations - Labor Law, Relations, Market, and Social Security -』, Korea Labor Institute, Dec. 1, 2000.
- Insoo Jeong, 『Unemployment Schemes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Korea: Achievements and Evaluations』, Korea Labor Institute, 2001.12.
- “Trends in unemployment rates in Korea: Search-Matching Model Interpretation,” ICDEAD Working Paper Series, Vol. 2002-05,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tudy of East Asian Development, May 2002.
- 남재량, 『우리나라 失業率 趨勢變化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경제학박사 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7. 8
- 남재량, “청년실업과 대졸자 실업,” 한국노동경제학회 2002년 추계학술대회, 한국 노동경제학회, 2002. 9.
- 남재량·김태기, “비정규직, 가교(bridge)인가 함정(trap)인가?,” 『노동경제논집』, 제23권 제2호, 2000. 12.
- 남재량·이창용, “외환위기와 실업률 변화에 대한 연구,” 200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한국 노동경제학회, 2001. 2.
- 정인수 외, 『1999 실업대책 평가』, 한국노동연구원, 2000.1.
- 정인수 외, 『경기도 지역특성화 실업대책』, 한국노동연구원(경기도 용역과제), 1999.12.
- 정인수 외, 『고실업시대의 실업대책』, 한국노동연구원, 1998. 6
- 정인수 외, 『지역노동시장연구』, 한국노동연구원(공저), 2003. 1.
- 정인수 외, 『직업안정인프라 구축』, 한국노동연구원(노동부 용역과제), 1999. 12.
- 정인수 외, 『청년층 실업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8. 12.
- 정인수 외, 『청년층 실업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기획예산처용역과제), 2002. 5.
- 정인수, “지역별 실업탈출확률 및 요인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제26권 1호, 2003.

V. 지역노동시장 분석과 부산지역특징

1. 지역별 실업기간분석(Kaplan-Meier 위험도 모형 분석)⁹⁾

<표 5-1> 주요 도시의 실업탈출확률 및 실업기간

(단위: 개월, 수)

| | 평균실업기간 | 표준오차 | 평균탈출확률 | 50%탈출 소요기간 | 대상(n) | 잘려진관측치수 censored |
|-------|---------|--------|--------|---------------|-------|---------------------|
| 전국 | 10.8362 | 0.6465 | 0.0923 | 7.5 | 302 | 57 |
| 수도권 | 9.2952 | 0.8431 | 0.1076 | 6 | 115 | 12 |
| 비수도권 | 11.8642 | 0.8944 | 0.0843 | 7.5 | 187 | 45 |
| 대도시 | 10.4633 | 0.7513 | 0.0956 | 7.5 | 179 | 34 |
| 대도시이외 | 11.0567 | 1.0389 | 0.0905 | 7.5 | 123 | 23 |
| 서울 | 8.6594 | 1.1841 | 0.1155 | 4.5 | 65 | 7 |
| 부산 | 10.7526 | 1.0692 | 0.0930 | 10.5 | 32 | 10 |
| 대구 | 10.1832 | 1.2884 | 0.0982 | 7.5 | 27 | 7 |
| 광주 | 7.7273 | 2.4321 | 0.1294 | 2.5 | 11 | 2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KLIPS), 1998-2001.

○ 부산은 평균실업기간은 제일 길며, 평균실업탈출확률은 제일 낮음.

- <표 5-1>을 보면 평균 실업기간은 부산이 10.752개월로써 다른 비교 도시들 중 제일 길며, 50% 탈출 소요기간은 10.5개월로 이 역시 다른 도시들에 비해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됨.
- 평균실업탈출 확률에서도 부산은 0.093으로 제일 낮음.
- 이처럼 부산이 실업기간이 길고 탈출확률이 낮은 이유는 신발·섬유업의 부진과 국제적 개방화가 진전되면서 산업간 이동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9) 지역별 실업탈출확률 분석 모형은 위험도 모형을 이용한다. 위험도 모형이란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각 시점에서의 사건발생 확률을 추정하는 모형이며 기간 분석(duration analysis)모형 이라고 하는데 본 분석에서는 비모수적 방법(non-parametric)의 하나인 Kaplan-Meier(1958) 방법에 의한 위험도의 기간에 따른 변화추이와 Cox(1972)의 비례적 위험함수 모형을 이용하여 위험도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정인수 외 2003) 모형에 사용될 데이터는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를 바탕으로 1998년부터 2001년까지 까지 4개년도의 개인자료와 직업자료를 결합한 자료를 이용하여 실업기간을 찾아내었다. 직업자료는 개인별 직업이력을 순차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국노동패널(KLIPS) 4개년도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차 가공한 자료이며, 이 데이터 중 최종 사용가능한 표본수는 302개로써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이 표본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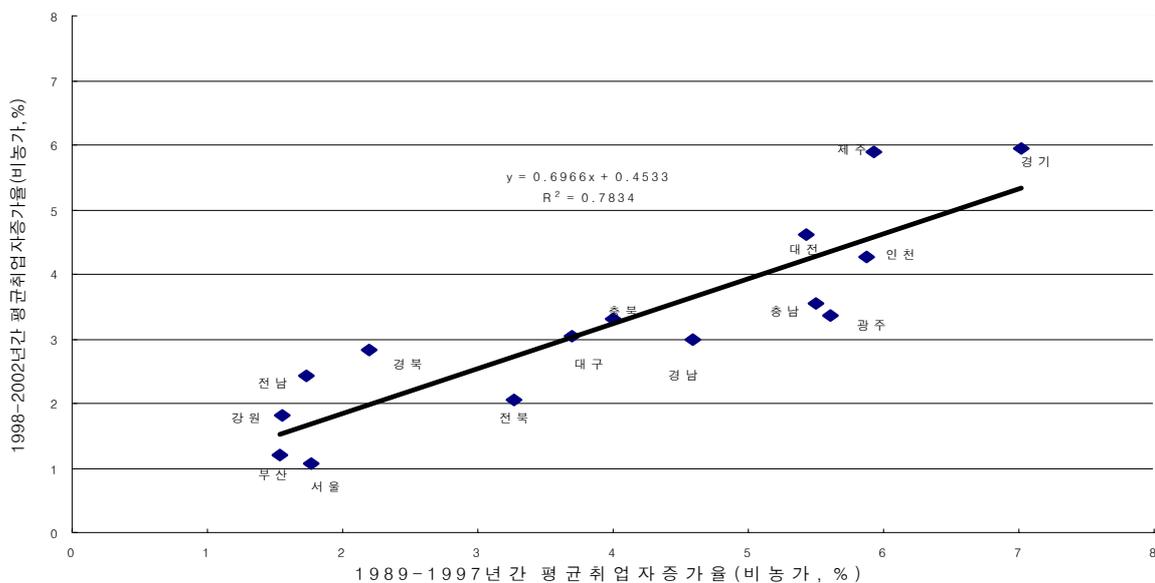
2. 지역별 일자리 창출 및 소멸 분석

1) 순 고용창출의 지역별 차이

○ 일자리 창출 능력은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발생.

- [그림 5-1] 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1989년부터 1997년까지의 연평균 취업자증가율을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부터 2001년까지의 연평균 취업자증가율에 대비해서 그려본 것임.
- 이 그림에서 분포된 점들의 회귀선이 일정한 기울기를 가진다면 이는 일자리창출 능력의 지역간 차이가 지속적인 현상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음.
- [그림 5-1] 에서 전국 16개 대분류 지역별로 볼 때도, 비농가 기준의 취업자증가율은 1989~1997년까지 연평균 최저 1.5%대에서 최고 7% 수준까지 차이가 났으며, 외환위기 이후인 1998~2001년의 경우에도 연평균 1%에서 6%까지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일자리창출 능력에서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줌.

[그림 5-1] 지역별 취업자 증가율의 기간별 분포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원자료

○ 외환위기 이후에도 일자리창출능력의 지역간 차이는 유지됨.

- [그림 5-1] 에서 제시된 회귀선은 기울기가 0.7에 R-square가 0.75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Blanchard and Katz(1992)가 미국의 각 주별로 분석한 결과인, 회귀선기울기 0.70, R-square가 0.75인 것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
- 이는 결국, 외환위기라는 경제적 충격을 겪은 이후에도 이러한 일자리창출 능력의 지역 간 구조적 차이가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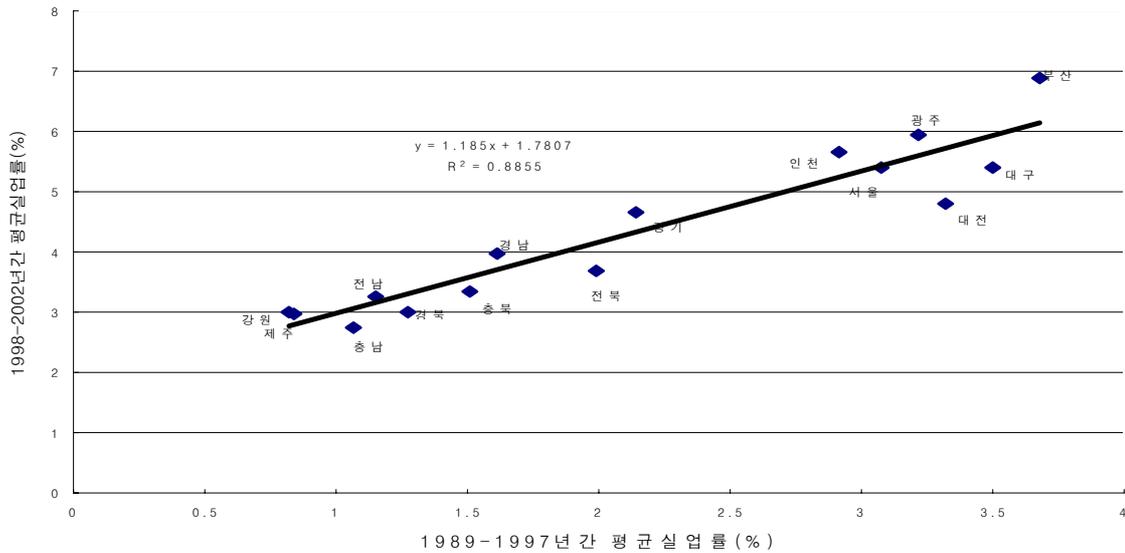
○ 부산과 서울이 제일 낮은 순일자리 창출율을 보이고 있음.

- 경기, 인천, 광주, 제주 등이 일자리증가율이 전반적인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부산을 비롯한 대구, 전남, 강원, 서울 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부산과 서울은 1%~2%의 증가률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 실업률 분석 결과 부산은 제일 높은 실업율을 보이고 있음.

- [그림 5-2] 에서 실업률의 경우도 회귀선의 기울기가 1.18, R-square 0.88을 나타내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즉, 외환위기 이전에 높은 실업률을 기록한 지역이 외환위기 이후에도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음.

[그림 5-2] 지역별 실업률 차이의 기간별 분포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원자료

- 실업률이 제일 높은 지역은 부산으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7%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일자리창출 능력 뿐 아니라 실업률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위를 종합해 본다면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일자리창출 능력의 차이뿐만 아니라 실업률에서도 구조적인 지역별 차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실업률의 지역별 차이가 일자리창출 능력의 차이에 기인한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음. 즉, [그림 5-1] 과 [그림 5-2] 에서 일자리창출 능력이 큰 지역이 실업률이 낮은 지역과 정확하게 매칭되지는 않음.
 - 지역의 일자리창출 능력이 지역의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좀 더 세분화된 지역별로 실업률 및 취업자증가율 등의 통계 지표 분석을 통해서 추후 확인해야 할 연구과제임.

2) 지역별 일자리 창출 및 소멸의 구조

- 순 일자리 증가는 사업체 수준에서의 일자리변동이라는 매우 동태적 구조가 자리 잡고 있으므로 지역 단위의 일자리창출 및 소멸의 동태적인 구조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노동부의 행정자료인 『고용보험DB』를 활용하여 순일자리 증가가 이루어지는 방식에서 지역별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였음.

- 부산은 상대적으로 낮은 순일자리 창출능력을 보여주고 있음.
 - <표 5-2>은 1999년 1월부터 2002년 1월사이에 발생한 일자리변동을 나타낸 것으로 표의 수치는 3개년의 지표를 평균한 것임.
 - 지역별 일자리 변동을 살펴보면, 순일자리 창출 능력에서는 서울, 경기, 충남, 대전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부산을 비롯하여 대구, 광주 등은 순일자리 창출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일자리창출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로 12.7%이고 일자리창출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으로 12.3%임.

- 부산은 높은 일자리소멸률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음.
 - 일자리소멸률을 살펴보면 부산이 12.5%로써 적지 않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 제주, 충북으로 각각 13.8%를 기록하였음.
 - 반면, 일자리소멸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으로 9.2%임. 그 결과,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울산의 경우 일자리변동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강원, 충북, 제주 등 제조업 산업 기반이 취약한 지역의 경우, 일자리변동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초과일자리변동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산업간 또는 산업내 기업간 일자리변동이 높다는 것, 즉 어떤 산업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다른 산업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거나, 특정 산업 내에 어떤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어떤 기업은 일자리를 줄이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함. 특히, 강원, 제주

등은 창업과 폐업에 따른 일자리변동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5-2> 지역별 일자리 변동 지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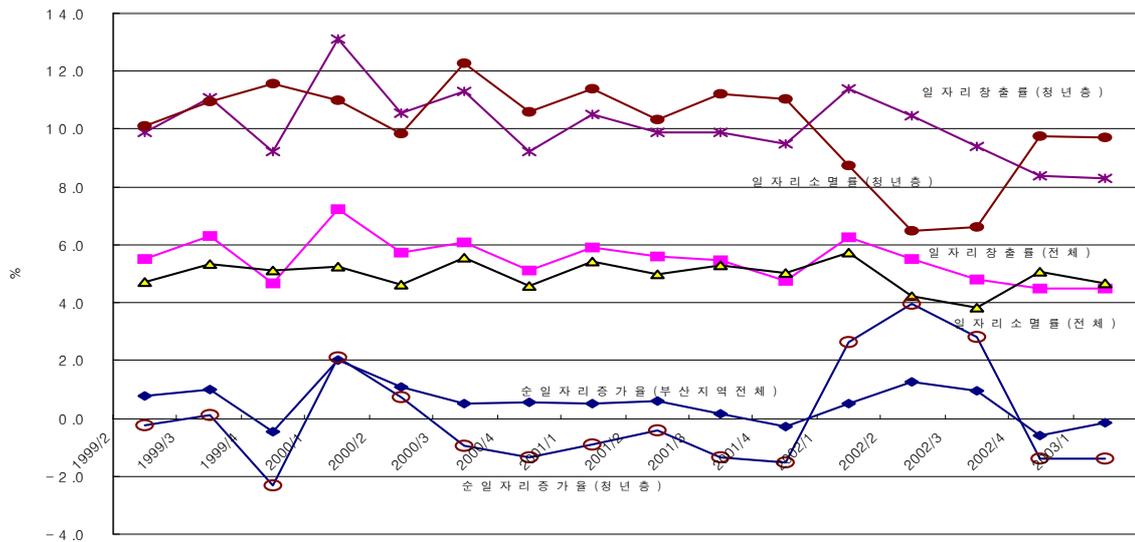
| | 순일자리 증가율1) | 일자리창출률 | | | 일자리소멸률 | | | 일자리 변동률 | 초과일자 리변동률2) |
|------|---------------|--------|-----|------|--------|-----|-----|------------|----------------|
| | | 전체 | 창업 | 확장 | 전체 | 축소 | 폐업 | | |
| 서울 | 6.0 | 17.3 | 6.1 | 11.3 | 11.3 | 8.0 | 3.3 | 28.7 | 22.7 |
| 부산 | 2.6 | 15.1 | 6.5 | 8.6 | 12.5 | 7.7 | 4.7 | 27.6 | 24.9 |
| 대구 | 2.2 | 14.8 | 6.2 | 8.6 | 12.6 | 7.9 | 4.8 | 27.4 | 25.3 |
| 광주 | 2.4 | 15.9 | 6.7 | 9.2 | 13.5 | 9.2 | 4.3 | 29.3 | 27.0 |
| 인천 | 4.1 | 16.4 | 7.9 | 8.5 | 12.3 | 7.7 | 4.6 | 28.7 | 24.6 |
| 대전 | 5.1 | 16.4 | 7.6 | 8.9 | 11.4 | 7.2 | 4.2 | 27.8 | 22.7 |
| 울산 | 3.2 | 12.3 | 5.5 | 6.8 | 9.2 | 6.1 | 3.1 | 21.5 | 18.3 |
| 경기도 | 6.3 | 17.6 | 6.9 | 10.7 | 11.3 | 7.8 | 3.5 | 28.9 | 22.6 |
| 강원도 | 3.6 | 17.4 | 8.7 | 8.7 | 13.8 | 7.7 | 6.1 | 31.1 | 27.5 |
| 충청북도 | 3.1 | 16.9 | 7.1 | 9.8 | 13.8 | 9.2 | 4.6 | 30.7 | 27.5 |
| 충청남도 | 6.1 | 17.2 | 7.2 | 10.0 | 11.1 | 7.3 | 3.7 | 28.3 | 22.1 |
| 전라북도 | 3.6 | 16.2 | 7.7 | 8.4 | 12.6 | 7.6 | 5.0 | 28.7 | 25.1 |
| 전라남도 | 4.0 | 14.8 | 6.6 | 8.2 | 10.8 | 7.1 | 3.7 | 25.5 | 21.5 |
| 경상북도 | 3.1 | 14.7 | 6.0 | 8.7 | 11.6 | 7.6 | 4.0 | 26.2 | 23.2 |
| 경상남도 | 3.8 | 15.2 | 6.5 | 8.7 | 11.4 | 7.4 | 4.1 | 26.7 | 22.9 |
| 제주도 | 3.4 | 17.2 | 8.6 | 8.7 | 13.8 | 7.9 | 5.9 | 31.1 | 27.7 |

자료: 노동부, 고용보험DB

주: 1) 순일자리증가율=일자리창출률-일자리소멸률

2) 초과일자리변동률=일자리변동률-순일자리증가율

[그림 5-3] 부산지역 일자리 증가율(최근 4년간)



자료 : 고용보험 DB.

○ 부산의 순일자리 증가율은 심각하게 낮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그림 5-3] 은 최근 4년간 부산지역의 일자리 증가율을 나타낸 것으로 부산지역 전체 순일자리 증가율은 0%~1%대의 저조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2002년말에 들어서서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더 심각한 것은 청년층 순일자리 증가율로, 2000년 1사분기 잠시 2%의 증가율을 보이다 그 후 2002년까지 (-)증가율을 기록함. 2002년 잠시 호전되는 듯 보이나 2003년 다시 (-) 증가율을 보임으로써 심각한 청년층 일자리 창출난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참 고 문 헌〉

- 강병구 외 2인(2001.10.), 『실업대책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안산·시흥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 강순희(2002), “노사참여적 능력개발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 한국노동교육원 테마별 워크숍 발표자료.
- 강일규(2000), 「인적자원개발 기능강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조직 및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주섭(2002), 「공공훈련기관간의 연계강화를 통한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김주섭 외(2002 예정), 「노사참여적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방하남, 김동우, 박의경(2000.1.), 『고용보험통계(D/B)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터
- 복득규(2002.10.15), “자동차 클러스터: 도요타 vs 울산”, 중앙일보사와 삼성경제연구소 주최 산업클러스터 발전전략에 관한 심포지엄, 대한상공회의소
- 심재용(1997), 「직업훈련과 정부역할」, 자유기업센터
- 유기철, “실업급여수급 실직근로자의 재취업양상”, 『경제학연구』 제47집 제1호, 한국경제학회, 71~96.
- , “지역노동시장연구(IV) -대구·경북지역-”,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터, 1998.3.
- 이수석(2002), “울산의 자동차산업과 오토밸리 조성”, 울산광역시청과 울산발전연구원
- 이수영(2000), ‘주요공단 신규 구인·훈련조사 결과 보고’, 삶의질기획단 내부자료
- 이호성(2001), “직업교육훈련정책과 노사공동훈련”, 한국노동교육원 테마별 워크숍
- 이희수 외(2001),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구축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인적자원개발기구 설립, 산업연구원.
- 전병유(2000), “지역노동시장의 구조와 동향 분석 및 활성화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 정인수 외(1999), 『경기도 지역특성화 실업대책』, 한국노동연구원
- (2001.8.22), 「향후 노동시장 정책연구의 방향과 실천」 mimeo
- (2002. 4. 3~4.14), 해외출장보고서(독일, 프랑스, 영국)

- 정진화 · 최영섭(2002), “산업수요 중심의 인력양성시스템 구축방안: 기업주도의 산업별주 최 한일 심포지엄 울산 주력산업의 현재와 미래“, 울산상공회의소, 2002. 2.12.
- 최영기(2002), 「구조조정기 노동개혁의 평가와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 중장기 발전계획세미나 자료집』, 2002. 7., 109page
, 『고용보험동향』 제7권 제1호,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고용보험연구센터, 2000.봄.
- 황수경 外(2002), 『직업력 자료의 구성과 활용 가능성』, 한국노동패널연구 Working Paper Series 2002-02, 한국노동연구원
- Bartelsman, E.J. and Doms, M., 2000, "Understanding Productivity: Lessons from Longitudinal Microdata",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8, pp. 569-94.
- Blanchard, Jean Oliver., and Lawrence F. Katz, 1992, "Regional Evolutions",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Vol 1,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e. pp 1-75.
- Böckerman, Petri, "Unravelling the Mystery of Regional Unemployment in Finland", *Labour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 Discussion Papers*, 2001.
- Bockerman, Petri., Kari Hamalainen and Mika Maliranta, 2001, "Explaining Regional Job and Worker Flows", *Working Paper*, Labour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Finland.
- Center on Wisconsin Strategy (1999), *A Chart of MJI's Job Connecting Strategy*, Madison: COWS.
- Center on Wisconsin Strategy(1996), *Inventory of Job Training, Job Readiness, and Basic Job Skills Training Program in Milwaukee*, Madison: COWS.
- 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 (1999), *Making employability work*, London: CBI.
- Cowhey, Peter F. and Jonathan Aronson (1995), *Managing the World Economy: The Consequences of Corporate Alliances*,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Press.
- Cox, David R., "Regression Models and Life-Tables(with discussion), " *J. Roy. Statist. Soc.*, May/Aug. 1972, B 34, pp.187~220.
- Davis, Steven J. and John Haltiwanger(1999), "Gross Job Flows", in O. Ashenfelter

- and D. Card(eds.), Handbook of Labor Economics, Volume 3b(Elsevier).
- Davis, Steven J., and John Haltiwanger, "Driving Forces and Employment Fluctuations" , Nber Working Paper No.5775, 1996(September).
-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1998), The Learning Age: a renaissance for a new Britain, UK DfEE.
-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1999), Learning to Succeed: a new framework for post-16 learning, UK DfEE.
- Department of Work force Developmen (1999), Source Book: Finance and Insurances.
- Gorter, Cees., Frank Bruinsma., and Peter Nijkamp, 1998, "A Flow Approach to Industrial Sites, Firm Dynamics and Regional Employment Growth: A Case Study to Amsterdam-North", Tinbergen Institute Discussion Papers with number 98-119/3., <http://www.tinbergen.nl/discussionpapers/98119.pdf>
- Juha Kettunen, "Labour mobility of unemployed workers" ,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32, 2002. 359~380.
- Kalbfleisch, John D. and Robert L. Prentice(1980), The Statistical Analysis of Failure Time Data, NY: Wiley.
- Katz, Harry C. (1993), "The Decentralization of Collective Bargaining: A Literature Review and Comparative Analysi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47 (1), pp.3-22.
- Kiefer, Nicholas M.(1988), "Economic Duration Data and Hazard Function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6, 646~679.
- Kochan, Thomas A. (2000), " Employment Practices and Institutions for a Knowledge based Economy: Lessons from U.S. Experiences", Conference on Industrial Relations in the 21st Century, Korea Labor Institute.
- Lambert Van Der Laan, Santos M. Ruesga, Institutions and Regional Labour Markets in Europe.
- Lilien, David M. "Sectoral Shifts and Cyclical Unemployment" , J.P.E. 90 (Aug.1982): 777-93

- Maliranta, M., 2000, "Job Creation by Supporting Technology Advances? Evidence from Finnish Plants", in R. Asplund (ed.) Public R&D Funding,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Productivity, and Job Creation,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Finnish Economy, B168, Helsinki.
- Mike Campbell, Local Labour Market Management: Definition, Concepts and Instruments., 28 Oct. 1996.
- Mood, Graybill and Boes, McGraw-Hill, Third Edit,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Statistics" , Joint and Conditional Distributions, Stochastic Independence.
- OECD(1997), Local Management For More Effective Employment Policies, OECD: Paris.
- OECD(1998a), Decentralising Employment Policy: New Trends and Challenges, The Venice Conference
- OECD(1998b), Local Management for More Effective Employment Policy
- OECD(1999), The Local Dimension of Welfare-to-Work
- OECD(2000), Local Development and Job Creation, Policy Brief
- OECD(2001), Local Partnerships for Better Governance, Territorial Economy
- OECD(2002), Redefining Territories - The Functional Regions
- Parker, Eric and Joel Rogers (1995), The Wisconsin Regional Training Partnership: Lessons For National Policy, Preliminary Report to the National Center on the Workforce.
- Parker, Eric and Kristen S. Weaver (1997), Projects and Institutions: Meso-level Innovations i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A Paper submitted to Industrial Relations.
- Sabel, Charles(1989), "Flexible Specialization and the Re-emergence of Regional Economies", in P. Hirst and J. Zeitlin (eds) Reversing Industrial Decline?: Industrial Structure and Policy Britain and Her Competitors, Oxford: Berg.
- Stoper, M.(1997), The Regional Worl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Whitford, Josh (2000), "Down the Line: Supplier Upgrading, Evolving OEM-Supplier Relations, and Directions for Future Manufacturing Modernization Policy

and Research in Wisconsin", Madison: Center on Wisconsin Strategy.
York Consulting (2001), Assessing the Impact of Statutory Recognition for Union
Learning Representatives, the final report to DfEE, London.

Ⅵ. 부산지역 산업고도화와 노동시장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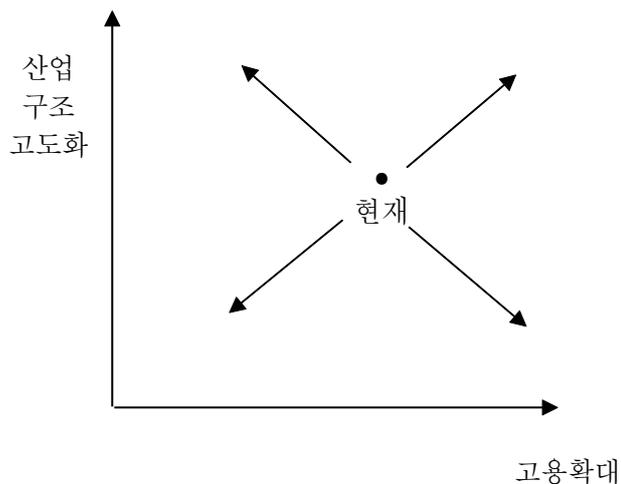
1. 부산지역의 산업구조고도화 전망 및 산업정책과제

1) 부산지역 산업구조고도화 전망

○ 부산은 현재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고용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노동시장정책과 실업대책이 추진되고 있음.

- (부산시 인터뷰) “부산은 실제로 지식기반산업, 연구기반산업의 유치를 통해 고급 인력을 확보해서 시너지 효과를 유발하려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산의 특화산업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산업, 조선기자재산업, 영화영상산업 등을 고부가가치화하여 신규 인력 층을 흡수하려고 한다.”
-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구조고도화와 고용확대를 동시에 이루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산업구조고도화가 일어난 경우라 하더라도 고용이 확대되지 않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확대가 일어난 경우 산업구조고도화가 도리어 후퇴하는 경우도 있으며 가장 최악의 경우 산업구조고도화가 후퇴하면서 고용역시 축소될 수 있음.

[그림 6-1] 산업구조고도화와 고용창출량의 관계



○ 부산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그리고 10대 전략산업과 비전략산업의 최근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고용 (<표 6-1> 참조)의 경향성을 보면 아래 표로 요약할 수 있음.

- 구조고도화와 고용증가 동시발생: 자동차산업, 수산가공업 (제조업 전략산업), 향만물류, 소프트웨어산업, 관광산업, 영화산업 (서비스업 전략산업), IT제조업 (제조업 비전략산업), IT서비스업 (서비스업 비전략산업)
- 구조고도화 그러나 고용감소: 조선기자재산업, 신발산업, 섬유와 패션산업 (제조업 전략산업), 금융산업 (서비스업 전략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비전략산업)
- 구조고도화 유지·후퇴 그러나 고용확대: 음식점업 (서비스업 비전략산업)
- 구조고도화 유지·후퇴와 고용축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음.

<표 6-1> 부산지역 산업특성과 고도화 및 고용변화

| | 특징 | 전략산업 | 비전략산업 |
|------|--|---|---|
| 제조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세 중소기업 중심 (대기업 하청) - 노동집약적, 경공업 중심 - 저임금 기반 경쟁 - 자생적 회복력 약함 · 경제위기로부터 회복 부진 (생산, 출하, 재고 모두) - 경공업 위기회복 극히 부진 (생산, 출하 위기전 수준) - 지속적이며 급격한 쇠퇴 - 제조업체 최근 전략은 저임금인 중국, 동남아로 해외이전 혹은 업종전환이나 - 저지대인 지역으로의 이전으로 나타남 (양산, 김해 위주로 영세사업체 중심 이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산업: 고용 소폭증가 및 생산증가 - 조선기자재 고용 소폭감소 및 생산유지 - 신발산업: 고용 대폭감소 및 생산감소 - 섬유·패션: 고용대폭감소 및 생산감소 - 수산가공업: 고용 및 생산증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제조업: 고용 및 생산 대폭증가 -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제조업: 고용 소폭증가 -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고용소폭증가 - 제1차금속산업: 고용감소 - 고무 및 플라스틱: 고용감소 |
| 서비스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영세업체 중심 - 지속적 증가추세 - 전국 대비 도소매와 음식·숙박 비중 현저히 높음 - 통신, 연구개발 등 기술집약적 서비스산업 경쟁력 취약 - 시대로 영세서비스업체 중심 이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만물류: 고용 및 생산 증가 - SW: 고용 및 생산 대폭확대 - 금융: 고용 감소 - 관광: 고용확대(음식업을 제외하면 유지내지 축소로 보여짐) - 영화: 고용 및 생산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서비스: 고용 및 생산 대폭확대 - 음식: 고용 대폭확대 -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고용증가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고용 대폭확대 - 도소매: 고용 감소 |

○ 산업구조고도화와 고용확대와 관련한 기타 주요 동향을 보면 다음과 같음 (<표 6-2>와 <표6-3>참조).

- 대졸취업자 양산 : 고도화 촉진, 그러나 고용확대와 관계 애매
- 고부가가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발전, 그러나 전국과 비교시 상대적 미흡: 고도화 및 고용확대 장애
- 소비성 업종중심 서비스 산업 성장: 고도화 장애, 그러나 고용확대 가능성 적음.
- 대기업하청 영세중소제조업의 시외이전과 영세서비스업체 중심 시내전입: 고도화 장애가능성 큼, 또한 고용 축소 가능성 큼.

<표 6-2> 부산 10대 전략산업 취업자 변화

(단위 명)

| 구 분 | | 연 도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
|--------------------|--------------------|-------------------|-----------|-----------|-----------|-----------|-----------|-----------|-----------|-----------|---------|
| | | | | | | | | | | | |
| 부 산 | 구 조 고도화 산 업 | 자동차 | 10,124 | 10,844 | 13,869 | 14,069 | 12,254 | 11,758 | 11,623 | 11,960 | |
| | | 조선 | 6,140 | 6,519 | 7,731 | 6,670 | 7,463 | 7,195 | 4,728 | 5,475 | |
| | | 신발 | 44,813 | 35,226 | 28,117 | 20,950 | 20,098 | 923 | 1,142 | 859 | |
| | | 섬유 | 66,162 | 60,294 | 52,829 | 49,853 | 45,441 | 47,307 | 45,232 | 46,374 | |
| | 성장유망 서비스 산 업 | 영화 | 809 | 679 | 708 | 690 | 628 | 803 | 532 | 902 | |
| | | 관광 | 17,707 | 18,823 | 18,379 | 18,550 | 18,297 | 24,880 | 27,423 | 27,031 | |
| | | 소프트 | 908 | 1,242 | 1,512 | 1,935 | 1,925 | 2,337 | 3,343 | 4,194 | |
| | | 항만물 | 25,681 | 31,484 | 31,504 | 26,185 | 26,097 | 29,767 | 31,822 | 33,507 | |
| | 정보통신 산 업 | 금융 | 58,007 | 65,133 | 76,246 | 68,984 | 56,121 | 50,679 | 46,619 | 49,312 | |
| | | IT산업 | 14,927 | 15,229 | 16,343 | 15,693 | 14,261 | 16,553 | 16,841 | 22,915 | |
| | | IT제조업 | 6,045 | 6,745 | 6,754 | 6,092 | 4,538 | 5,386 | 5,333 | 7,948 | |
| | | IT서비스 | 8,882 | 8,484 | 9,589 | 9,601 | 9,723 | 11,167 | 11,508 | 14,967 | |
| | 기피업종 | 3D산업 | 201,314 | 183,740 | 164,652 | 149,191 | 111,191 | 95,051 | 96,442 | 101,813 | |
| | 전 국 | 구 조 고도화 산 업 | 자동차 | 254,750 | 264,473 | 294,989 | 249,355 | 194,310 | 217,000 | 232,274 | 227,537 |
| | | | 조선 | 65,505 | 78,081 | 80,145 | 78,487 | 77,816 | 82,141 | 88,595 | 92,945 |
| | | | 신발 | 76,267 | 63,580 | 54,522 | 44,393 | 36,699 | 14,491 | 15,410 | 12,378 |
| 섬유 | | | 660,220 | 612,757 | 591,707 | 482,274 | 446,572 | 454,959 | 475,635 | 469,185 | |
| 성장유망 서비스 산 업 | | 영화 | 18,051 | 20,797 | 17,692 | 22,323 | 19,386 | 19,253 | 12,261 | 17,493 | |
| | | 관광 | 225,205 | 253,296 | 263,397 | 268,774 | 258,384 | 321,711 | 354,724 | 363,785 | |
| | | 소프트 | 31,833 | 42,818 | 49,156 | 59,495 | 57,531 | 70,977 | 123,764 | 126,249 | |
| | | 항만물 | 138,314 | 154,135 | 159,403 | 142,824 | 129,101 | 175,214 | 190,693 | 217,914 | |
| 정보통신 산 업 | | 금융 | 631,751 | 708,239 | 784,432 | 740,624 | 662,429 | 618,399 | 610,634 | 648,169 | |
| | | IT산업 | 391,039 | 446,186 | 477,701 | 439,395 | 456,335 | 462,749 | 552,055 | 592,753 | |
| | | IT제조업 | 276,437 | 308,323 | 317,304 | 275,536 | 296,303 | 289,140 | 315,851 | 327,968 | |
| | | IT서비스 | 114,602 | 137,863 | 160,397 | 163,859 | 160,032 | 173,339 | 236,204 | 264,785 | |
| 기피업종 | | 3D 산업 | 1,948,271 | 1,907,677 | 1,877,684 | 1,641,496 | 1,336,968 | 1,381,777 | 1,410,932 | 1,503,814 | |

출처: 통계청

<표 6-3> 전국대비 취업자 비중 및 연도별 증가율

(단위: %)

| 연도 구분 | 1994 | | 1995 | | 1996 | | 1997 | | 1998 | | 1999 | | 2000 | | 2001 | | |
|-------------------|-------|------|------|------|-------|------|-------|------|-------|------|-------|------|-------|------|-------|------|-------|
| | 비중 | 증가율 | 비중 | 증가율 | 비중 | 증가율 | 비중 | 증가율 | 비중 | 증가율 | 비중 | 증가율 | 비중 | 증가율 | 비중 | 증가율 | |
| 구조 고도화 산업 | 자동차 | 4.0 | - | 4.1 | 7.1 | 4.7 | 27.9 | 5.6 | 1.4 | 6.3 | -12.9 | 5.4 | -4.0 | 5.0 | -1.1 | 5.3 | 2.9 |
| | 조선 | 9.4 | - | 8.3 | 6.2 | 9.6 | 18.6 | 8.5 | -13.7 | 9.6 | 11.9 | 8.8 | -3.6 | 5.3 | -34.3 | 5.9 | 15.8 |
| | 신발 | 58.8 | - | 55.4 | -21.4 | 51.6 | -20.2 | 47.2 | -25.5 | 54.8 | -4.1 | 6.4 | -95.4 | 7.4 | 23.7 | 6.9 | -24.8 |
| 성장유망 서비스 산업 | 섬유 | 10.0 | - | 9.8 | -8.9 | 8.9 | -12.4 | 10.3 | -5.6 | 10.2 | -8.9 | 10.4 | 4.1 | 9.5 | -4.4 | 9.9 | 2.5 |
| | 영화 | 4.5 | - | 3.3 | -16.1 | 4.0 | 4.3 | 3.1 | -2.5 | 3.2 | -9.0 | 4.2 | 27.9 | 4.3 | -33.7 | 5.2 | 69.5 |
| | 관광 | 7.9 | - | 7.4 | 6.3 | 7.0 | -2.4 | 6.9 | 0.9 | 7.1 | -1.4 | 7.7 | 36.0 | 7.7 | 10.2 | 7.4 | -1.4 |
| | 소프트 | 2.9 | - | 2.9 | 36.8 | 3.1 | 21.7 | 3.3 | 28.0 | 3.3 | -0.5 | 3.3 | 21.4 | 2.7 | 43.0 | 3.3 | 25.5 |
| | 항만물 | 18.6 | - | 20.4 | 22.6 | 19.8 | 0.1 | 18.3 | -16.9 | 20.2 | -0.3 | 17.0 | 14.1 | 16.7 | 6.9 | 15.4 | 5.3 |
| | 금융 | 9.2 | - | 9.2 | 12.3 | 9.7 | 17.1 | 9.3 | -9.5 | 8.5 | -18.6 | 8.2 | -9.7 | 7.6 | -8.0 | 7.6 | 5.8 |
| 정보통신 산업 | IT산업 | 3.8 | - | 3.4 | 2.0 | 3.4 | 7.3 | 3.6 | -4.0 | 3.1 | -9.1 | 3.6 | 16.1 | 3.1 | 1.7 | 3.9 | 36.1 |
| | IT제조업 | 2.2 | - | 2.2 | 11.6 | 2.1 | 0.1 | 2.2 | -9.8 | 1.5 | -25.5 | 1.9 | 18.7 | 1.7 | -1.0 | 2.4 | 49.0 |
| | IT서비스 | 7.8 | - | 6.2 | -4.5 | 6.0 | 13.0 | 5.9 | 0.1 | 6.1 | 1.3 | 6.4 | 14.9 | 4.9 | 3.1 | 5.7 | 30.1 |
| 기피업종 | 3D산업 | 10.3 | - | 9.6 | -8.7 | 8.8 | -10.4 | 9.1 | -9.4 | 8.3 | -25.5 | 6.9 | -14.5 | 6.8 | 1.5 | 6.8 | 5.6 |

출처: 앞 표와 같음.

2). 산업구조고도화 고용창출을 위한 산업정책 과제

○ 정책과제를 주제에 대한 장단기로 나누어 종합하면 아래의 표와 같음.

<표 6-4 > 고용창출을 위한 부문별 장단기 정책과제

| | 단기 | 중장기 |
|--------|---|--|
| 일자리창출 | - 공공부문 사회적 일자리 제공 - 국내외 인턴제 활성화 - 민간기업 채용장려 | - 10대 전략산업 육성 - 중소기업 및 IT산업,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집중 육성 - 투자 유치 등 고용창출을 위한 노사정 협력 강화 |
| 직업능력개발 | - 인력부족기업 및 중소기업 수요 맞춤형 직업훈련 | - 전략산업 육성연계 직업능력개발 체제 마련 - 산학협력, 노사정 협력 강화 |
| 취업알선 | - 정보제공 기획확대 | - 부산시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 협력체제 구축 - 부산지역 고용 인프라 구축 - 산학 협력 강화 |
| 추진체계 | - 부산시 중심 추진 - 부산지역 유관기관과 연계 사업추진 | - 부산 지역혁신협의회와 노사정협의회 결함을 통해 지역내 사회주체간 파트너쉽을 통합하고 중앙과의 연계 강화 |

-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정책방안은 신속성 (취업에 걸리는 시간), 지속성 (취업유지 기간), 고용창출 규모, 특수성 (취업이 특정 기업이나 업종에 한정), 임금지향성 (저임금, 중임금, 고임금 취업), 기술지향성 (저숙련, 중숙련, 고숙련 취업)을 기준으로 평가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함.

- 이들 기준에 대한 청년층, 기업, 지방정부의 관심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표 6-5> 일자리 창출과 주체별 관심도

| | 청년층 | 기업 | 지방정부 |
|-----------|-----|----|------|
| - 신속성 | ○ | △ | ○ |
| - 지속성 | ○ | ○ | △ |
| - 고용창출 규모 | ○ | △ | ○ |
| - 특수성 | △ | ○ | △ |
| - 임금지향성 | ○ | △ | △ |
| - 기술지향성 | △ | ○ | △ |

주: △은 무관심 혹은 입장 없음, ○은 긍정적 평가

- 다양한 대책 가운데 위와 같은 평가와 사회주체별 선호도를 고려하여 삼자의 이익이 충족되는 방안부터 실시하도록 하는 시간적 전략적 배려가 주어져야 할 것임.

- 청년 : 공공부문 사회적 일자리, 국내외 인턴제, 10대 전략산업 육성, IT산업 육성,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육성
- 기업 : 국내외 인턴제, 10대 전략산업 육성, IT산업 육성, 중소기업 육성
- 정부 :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 국내외 인턴제, 민간기업채용장려금 제공

- 위 일자리 창출 대책을 기준에 따라 평가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음.

<표 6-6> 일자리 창출 방안별 기준 비교

| | 신속성 | 지속성 | 고용규모 | 특수성 | 임금지향 | 기술지향 |
|-----------------|-----|-----|------|-----|------|------|
| 공공부문 사회적 일자리 제공 | 높음 | 낮음 | 중간 | 낮음 | 저임금 | 저숙련 |
| 국내외 인턴제 활성화 | 중간 | 중간 | 적음 | 높음 | 저임금 | 중숙련 |
| 민간기업 채용장려금 제공 | 높음 | 낮음 | 적음 | 낮음 | 저임금 | 저숙련 |
| 10대 전략산업 육성 | 낮음 | 높음 | 많음 | 높음 | 고임금 | 고숙련 |
| 중소기업 육성 | 낮음 | 높음 | 많음 | 중간 | 중임금 | 중숙련 |
| IT산업 육성 | 낮음 | 높음 | 많음 | 높음 | 고임금 | 고숙련 |
|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육성 | 낮음 | 높음 | 많음 | 중간 | 중임금 | 중숙련 |

○ 이와 같은 배려와 더불어 중장기 전망 속에서 정책방안간 연계 혹은 발전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함 (예).

- 사회적 일자리 제공 → IT산업과 10대 전략산업 육성
(저임금·저숙련) (고임금·고숙련)
- 국내인턴제 활성화 → IT산업과 10대 전략산업 육성
(저임금·중숙련) (고임금·고숙련)
- 국내인턴제 활성화 ↔ 중소기업육성
(저임금·중숙련) (중임금·중숙련)
- 국내인턴제 활성화 ↔ 민간기업 채용장려금 제공
(저임금·중숙련) (저임금·저숙련)

2. 부산시 청년실업 대책 평가

- 부산지역 청년수요와 공급분석결과 고학력 청년들의 중소기업 하향 취업의향과 직업훈련에 대한 수용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지역경제 지식기반화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조건은 성숙한 것으로 보여짐.
- 부산시는 지역경제활성화의 미진으로 인한 청년층 수요부족이 청년실업의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 부산시 자체 청년층 실업대책으로 취업연수고용사업 (올해 30억원, 2500명 대상)과 공공근로정보화사업 (올해 18억원, 961명 대상)을 시행하고,
 - 이와 더불어 유관기관인 부산지방노동청과 부산채신청이 시행하는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올해 51억원, 3500명 대상)과 IT전문교육 (올해 6억원, 320명)을 통해 청년층 실업 완화를 도모해 왔음.
- 부산시 실업대책은 일개 전담부서 (노동정책과)의 사업임에도 불과하고 일시적으로 실업을 축소하는데 효과적이라 평가받고 있으나 청년실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까지 진척되고 있지 않음.
 - 취업연수생 사업의 경우 청년 취업연수생에게 지방행정관련 연구과제 등 행정업무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업무가 청년들의 경력을 개발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지 않아 연수 이후의 취업 가능성을 증가시키지 못하고 있음 (공공근로정보화사업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청년실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실업정책이 부산시의 투자-산업-복지-교육 정책과 연계되어야 하나 부산시 종합실업대책추진단이나 분야별실무대책협의회 등의 연계추진기구의 책임성과 권한이 약하고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배려가 미비하여 구조적 문제 극복을 위한 정책조율이 어려움.
- 양적 접근법 대신 질적 접근법을 채택하여 청년실업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임.

- 부산시의 청년실업률은 2003년 3/4분기 현재 8.0%로서 전국의 7.0%보다 1% 포인트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난 6년간을 비교해 보아도 부산이 전국보다 1~3% 포인트 높게 나타났음.
 - 청년 실업률을 1% 낮추려면 4천명의 신규채용이 필요하고 전국평균으로 낮추려면 2천명의 고용창출이 요구되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취업을 활용할 경우 공공부문은 약 480억, 240억 (월100만원*4천 혹은 2천*12개월)이 필요함.
 - 부산시 노동정책과 예산으로도 70억 (공공근로 40억, 취업연수생 30억)이 동원될 수 있는 등 공공부문의 예산을 통한 부산시 청년실업률 저하는 그리 어렵지 않으나 이러한 양적인 접근방법은 청년층 고용의 질과 부산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
 - 따라서 기업의 경력자 중심의 신규채용 관행을 고려한 청년층 직업능력제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식기반산업화와 산업구조고도화와 청년층의 취업만족도 증가 및 자기성취도 제고 등과 같은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청년실업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함.
- 유관기관 사업의 경우 부산시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의 한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정책설계부터 집행을 거쳐 평가에 이르기까지 부산시와의 협력을 태만히 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중복이나 비효율성의 문제까지도 야기할 수 있음.
- 취업연수고용사업 (부산시)과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부산지방노동청), 그리고 공공근로정보화사업 (부산시)와 IT전문교육(부산체신청)간 사업내용이나 청년층 경력개발상의 차별성이 거의 없음.
 - 부산지역 현장에서의 청년노동 수요에 대한 부산시와 유관기관의 공동대처나 각 사업시행 시기나 예산운영과 관련한 협조를 통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청년실업 대책의 시행이 가능하지만 현실에선 시행되고 있지 않음.
 - 특히 청년층에서 크게 요구하고 있는 채용박람회와 같은 직업알선사업의 경우 부산시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가 협조한다면 정기적이고 대규모로 실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3. 부산시 청년실업 정책방향

첫째, 부산 지역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 친화적인 지식기반 전략산업의 육성, 중소기업 육성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부산지역 노동수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단기적으로는 제조업이나 사회서비스업에서의 채용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업서비스업 등에서의 채용 계획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단기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제조업으로의 필요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형성하고, 교육의료복지 등 사회서비스업에서 청년 실업자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장기적으로는 사업서비스 등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의 일자리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부산지역 고학력 청년들은 지식기반산업 일자리를 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취업의사를 밝히고 있음.

둘째, 부산지역 전략산업중 성장유망산업의 경우 IT산업과 연계시켜 새로운 일자리창출의 잠재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부산지역 노동수요조사에서도, 노동공급조사인 대학 취업보도실조사나 고용안정센터조사에서도 공히 컴퓨터관련 서비스업이 직업훈련요구직종으로 나타났음.
- 구조고도화산업의 경우, 청년층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성장유망산업은 청년층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IT산업의 일자리는 전국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용창출이 가능하려면 위의 두개의 연결이 필요함.

- 부산지역 청년들은 IT산업과 관련된 컴퓨터 교육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며, 기술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의사를 밝힘.

셋째, 고급인재의 유출을 막아 부산시에서 추구하는 산업구조고도화와 성장유망업종의 배양이 가능할 것임.

- 노동수요 전망 추계에 따르면, 비록 부산지역 총생산 증가율이 5.4%대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부산청년층의 일자리는 2001년 현재 36만1천명에서 2005년에 31만, 2010년에 19만2천명으로 매우 급속한 속도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므로, 부산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술변화 등을 고려한 종합 대책이 필요함.

- 노동공급전망에 따르면 부산지역에 매년 새로 등장하는 청년 노동력의 규모는 5-6만명 정도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노동수요전망에 따르면 청년층 일자리가 감소될 것이라는 점과 비교할 때, 일자리창출을 위한 대책강구가 필요

- 부산시 경제성장잠재력은 고학력 청년층 공급이 풍부하다는 점에 있지만, 실제 부산지역에서 유출되는 청년층은 고학력 고급인력으로 판단되므로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한 노력을 통하여 고급인재의 유출을 막아야만 부산시에서 추구하는 산업구조고도화와 성장유망업종의 배양이 가능할 것임.

넷째, 부산시는 중장기 방안과 중단기 방안을 체계적으로 분리하여 청년실업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부산경제 활성화나 중앙정부로부터 부산시로의 청년실업관련 예산, 인력, 정책수행 권한의 이양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조건이 단기간에 마련되기는 어려움.

- 부산시는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것에 대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중단기적으로 현 청년실업 대책을 보다 현실화하고 효율화하는 방안을 마

련하여야 할 것임.

다섯째, 산학협력을 강화하여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교육의 노동시장 성과를 공개하여 정원·교육과정의 자율적 조정을 유도하는 한편 기업의 수요를 피드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

여섯째, 풍부한 고학력 청년층 공급이라는 장점이 활용될 수 있도록 풍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직장-직업훈련-학교간 연계를 보다 강화하고, 부산의 10대 전략산업이 구조고도화와 고용확대를 동시에 성취할 수 있도록 이에 대응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체제를 구축

- 대학 취업보도실조사에서 대학졸업예정자의 70%, 고용안정센터 조사에서는 62%가 직업훈련 받기를 원하고 있으며, 직업훈련 종류를 다양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부산시 인터뷰) “부산의 IT는 게임,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야한다. 사상, 녹산공단에 건설한 IT 회사가 있지만 여러 애로사항들이 있다. 무엇보다 수요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 진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시켜야 한다. IT 업체에서는 학원이나 교육기관에 교육비를 지원하기 보다는 외부에서 기업이 바라는 수요에 맞게끔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맞춤형 학원이 필요하다.”
- 청년층의 훈련의사와 기업측의 특수기술 수요를 연계하기 위해 교육과 훈련에 기업의 참여를 보다 확대.

일곱째, 일자리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잠재력을 활용

- 부산의 경우, 제조업에서 청년층의 일자리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으며, 서비스업에서의 청년층 일자리는 전문직과 단순서비스판매직으로 크게 양극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므로

- 일자리의 양극화는 청년빈곤층을 양산할 수도 있고 이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수 있음.
- 공공부문의 청년층 일자리창출 예산을 활용하여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일자리와 IT산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함.
- 부산시 내부 협력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기업과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 부산시 사회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실업대책의 중요성을 홍보함과 동시에 정책집행을 보다 원활하게 하도록 함.

여덟째, 부산 지역내 실업대책의 효율적인 관리체제의 구축

4. 구체 정책과제

청년실업은 구조적 문제이므로 정책과제는 중장기적대책이 실질적으로 유효함.
따라서 본 절에서의 구체 정책과제는 주로 중장기과제를 논함.

- 그러나 단기적 성격이 강한 과제에 대하여만 특별히 단기과제임을 구체정책과제 안에서 명시함.
- 또한 3장 부록 [3-1) 청년층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정책과제(총리보고)] 자료에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예정인 단기과제가 3개 나열되어 있으므로 부산시에서 정책과제로 참고 바람.

첫째, 부산시가 성장유망산업인 지식기반산업에 예산 배정과 관리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산업정책 필요

- 일자리가 더욱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식기반서비스업에 우선 예산배정

둘째, 취업계수의 변화에 대응한 고용창출 전략의 다양화

- 전략취업계수의 급속한 하락이 이루어지는 업종에 대해서는 고부가가치-고속련 인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의 기술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상대적으로 취업계수의 하락이 완만한 업종에서는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셋째, 전략산업과 IT 기술을 접목시키는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부산지역청년층에게 IT 산업 부문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제공

- 성장유망산업' 이 '구조고도화산업'과 연계될수록,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고속련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음. 따라서, 향만물류산업, 관광산업, 소프트웨어산업, 금융산업, 영상산업 등에 IT서비스산업을 접목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현재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성장동력산업이라는 것도 기간산업에 IT 기

술을 접목하는 것임. 따라서, 자동차부품산업, 조선기자재산업, 신발산업, 섬유패션 산업, 수산가공산업 등 ‘구조고도화산업’의 경우에도 IT기술을 접목시키는 정책을 개발 필요..

넷째, 부산 청년층 지식기반(IT) 전문인력의 양성센터 설립 및 관련기관·대학으로의 연계

○ 지식기반훈련생들에게 산업인력공단 교육프로그램 소개(단기과제)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4년제 대졸이상(졸업예정자 포함) 미취업자 및 실직자를 대상으로 국비지원을 통한 지식기반훈련과정을 실시하고 있음.
 - 6개월과정 프로그램 500만원의 비용 중 정부지원이 380만원을 커버하므로 부산 시 차원에서 직업훈련 과정 소개와 함께 훈련생들로 하여금 산업인력공단의 훈련과정 참여를 촉구할 필요성이 제기됨.

○ 지식기반 전문인력 양성센터 설립

- 부산시도 시 자체적으로 훈련센터의 설립을 통하여 지식기반 전문훈련을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를 위해 먼저, 부산 소재 IT 산업체와 협력하여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수립함과 동시에,
 - 시차원에서의 훈련비 보조가 필요하며,
 - 자체 취업설명회 개최 및 취업알선망을 통한 지속적인 취업지도가 요구됨.

○ 부산지역 지역협의체를 통한 민간직업능력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지원

- 부산시에서도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을 지원할 필요 있음.
- 또한 지역협의체나 상공회의소 등을 통하여 민간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지원연계
 - 노동부에서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대부하고 있으므로 민간에 연계한 직업훈련시설 지원

- ※ 대부조건: 40억한도, 소요비용의 90% 범위내
 - 대부금리: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단체; 연리 1%
대규모기업; 연리 2.5%
훈련법인, 노동부지정 훈련시설, 근로자단체; 연리 4%
 - 대부기간: 10년(5년기지 5년상환) 이내

다섯째, 컴퓨터, 기계장비, 사무관리 등 전문직, 사무직, 생산직의 능력향상 훈련인 것으로 나타나 직업훈련에 대한 예산 우선 배정

- 부산지역 노동수요조사에 따르면,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은 컴퓨터, 기계장비, 사무관리 등 전문직, 사무직, 생산직의 능력향상 훈련인 것으로 나타나 전통적인 직업훈련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 청년층의 교육훈련에 대한 만족도 측면에서는, 인문계보다는 자연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사업내 훈련보다는 외주훈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여섯째, 직업능력개발 관련 직장-직업훈련-학교간 협력 확대

- 산업체 요구를 반영한 대학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지원을 부산지역 협의체를 통하여 대학에 촉구(단기과제)
 - 실무 연계형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산학 연계 프로그램을 디자인하여 실무능력을 갖춘 IT인력을 배출.
 - 이화여대 컴퓨터학과는 졸업프로젝트를 필수화하고, 금오공대는 문제해결식 프로젝트수업을 실시하여 전공학생들의 실무능력향상 및 취업에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음.
 - 주문식 교육 및 특약학과 운영을 장려하고, 대학정원이 분야별 인력수요에 신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협력을 구체화하면 아래표로 정리할 수 있음.

<표 6-7> 직업능력개발 관련 직장-직업훈련-학교간 협력방안

| 대상 | 내용 |
|---------|---|
| 직장-직업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층 재직자 고숙련 훈련강화 - 산업별 사업주 단체의 직업훈련 요구체계화 유도 - 근로자 단체의 참여를 통한 직업훈련 효과 제고 |
| 직장-학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교육과 지역사업간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협력교육지원센터 · 특성화 고교와 대학간 공동협력 · 산학협력협정 - 대학교육과 지역사업간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지역대학간 상호협력체제 · 대학별 인재양성 특성화 프로그램 지정 · 산업별 사업주 단체와 대학연합체간 협력협정해결 · 기술사업화 종합시스템 구축 |
| 직업훈련-학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과 직업훈련간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간 컨소시엄 형성 · 직업훈련·대학간 컨소시엄 연계체계마련 · 산업·업종 분야별 저숙련·중숙련·고숙련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일곱째, 지역별 업종별 중소기업 직업훈련센터설립

- 지역별 업종별로 중소기업 특별 육성지원이 필요할 경우 중소기업 지역협의체 컨소시엄이 요구할 경우 직업훈련센터를 설립하여 중소기업인력 부족과 청소년 실업 문제를 동시에 해소
- 고용보험법 17조(사업주 지원)와 동시행령 24조(피보험자 지원)에 의하면, 지역의 실업예방 및 재취업촉진을 위하여 고용보험기금 지원 가능
- 노동부 노사협력기금을 사용하면 두개 이상 업체의 개별 노사참여 훈련프로그램당 6천만원까지 경비지원 가능

여덟째, 중소기업 공동복지시스템 구축

- 중소기업 기피 요인 제거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공동복지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이는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저하와 규모의 경제를 동시에 보완시킬 수 있는 방안임.
 -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협력하여 각각 회원으로 참여하는 종합적인 근로자 복지조직을 구축하고 이에 부산시 및 노동부 산자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
 - 예를 들어 탁아소의 설치나 임대주택단지의 조성등 개별 중소기업에서 하기 힘든 사업을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조합을 결성하여 시행
 - 생활안정 자금 지원, 근로자 자녀 학비지원, 3D 직종의 경우 신규취업자도 복지혜택 수혜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 중소기업 노사로 하여금 노동부 노사협력기금을 종자돈(seed-money)으로 사용하여 소지역 중소기업 공동복지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

아홉째, 중소기업 해외 자격증 취득 연수 노동부에 지원 요구

- 중소기업에서 기술 자격증 취득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키우고 그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에서 청년층 실업자 흡수를 도모
 - 독일의 Maister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해외 직업훈련에 교육훈련비와 비행기비용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
- 현재 독일에 있는 김선영 씨가 진행 중인 내용을 소개하면 독일의 Maister를 받기 위한 대상은 실업자이던 취업중인 자이든 불문하고 고교 졸업후 기능공 자격증을 가지고 직업경력 4년이상인자, 또는 전문대 해당학과를 졸업하고 직업경력 2년이상인 자로서, 1년간 현지 독일어실습과 2년간의 훈련후 Maister 자격증 취득하는 것인 바,

- 비용이 아래와 같이 3년간에 4000만원 이상 소요되므로 정부에서 일부, 기업에서 일부, 본인이 일부 부담하는 식으로 운영해야 할 것임.

- 정부 지원은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해야 할 것인 바, 현재 법상으로도 해외 직업훈련 지원이 가능함

- 비용 내역

- 1년간의 어학 코스 시 : 어학코스비 매달 400 유로 (년 4800 유로)
 방세 매달 300 유로 (년 3600 유로)
 의료보험비 매달 100 유로 (년 1200 유로)
 생활비(별도) 매달 300 유로 (년 3600 유로)
- 1년간 독일 공장 현장 실습 시 : 방세, 보험비 및 생활비 (위 참조)
- 마이스터 학교 입학시 : 입학비 및 수업료 일시불 4000-5000 유로
 방세, 보험비 및 생활비 (위 참조)
- 계약 체결 및 비자 발급, 공장 및 학교 소개 수수료 :
 계약시 일시불 2000 유로

열째, 청년층 종합 취업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직업지도·취업알선 등의 노동시장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으로 청년 구직자의 개인별 특성에 따른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혁신

- 부산지역 청년 YES(Youth Employment Strategy) 프로그램 추진하여 청년 구직자의 특성 및 능력에 따른 상담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이를 위해 부산시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청년취업과 관련한 지역내 학교·기업과 전달체계를 지원
- 청년층의 특성 및 능력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의 차별화에 따라 졸업한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재학생 대상의 연수지원제도 실시
- 고용안정센터 실태조사에서 나타나는 바와, 대학 취업보도실중 하위급 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 하향취업도 불사하여(61%), 중소기업에 비정규직(47%)이라도 취업하

겠다는 의사를 가진 자가 많다는 사실은 취업지원서비스만 똑똑히 된다면 실업으로부터의 탈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

- 대학 취업보도실 조사에서는 졸업예정자들이 1800만원 정도의 임금을 원하고 있지만 고용안정센터조사에서는 연봉 1200 - 1500만원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어서 졸업예정자 보다는 취업을 해 보았거나 사회에 나와 있는 실업자들이 대학졸업예정자보다 희망 연봉수준을 낮게 잡고 취업을 더 강력히 현실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취업지원의 내실화와 심층상담이 중요함을 보여줌.

열한째, 지역 정보 인프라 및 직업안정 서비스 연계

-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 지역의 산업별·학력별·자격증별 구인 및 구직 정보망 구축·운영에 있어서 노동부와의 연계강화 및 투자지원
 - 부산 및 동남권 지역의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을 지역별로 연계하고 이를 대학 취업보도센터와도 연계하여 직업안정 기능을 강화
 - 취업정보망 연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소재 고용안정센터의 긴밀한 접촉을 통해 구인·구직정보를 공유해야함.
- 주기적인 고용안정정보망(Work-net) 정보의 관리 및 유지(단기과제)
 -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에 등록된 구인·구직정보 중 구인업체의 채용마감 또는 구직자의 조기(본인)취업 등으로 인하여 유효하지 않은 고용정보가 다수 포함 되어 있음. 이는 구인업체 및 구직자로부터 고용정보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발생시키며 궁극적으로 취업알선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됨.
 - 각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구인·구직정보의 일제정비기간을 두어 유효한 정보를 확보·유지할 수 있어야 함.
 - 유효 구인 구직자 목록을 기준으로 일제 유선작업을 통해 정비 실시.
 - 정비 이후 생성되는 구인·구직정보에 대해서는 해당정보를 상담·접수하고 전산 입력하고 전산 입력한 담당자에 의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함(‘정보

관리책임제', 별도 모니터링 요원 운영 등 검토)

- 이를 위해 노동부를 통한 추가 투자지원 요청 필요성이 제기됨

열두째, 대졸예정자 대상으로 채용박람회 개최 횟수를 분기 1회 정도로 현재보다 늘리고
부산시 예산 투입 확대

- 취업보도실 실태조사 결과에서 대학졸업예정자들의 47%가 취업촉진을위한 행사
중 취업박람회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했음.
- 연 4회 정기 채용박람회가 실효성 있게 개최되기 위해 충분한 예산 확보가 이루어
져야 함.
- 채용박람회의 견실한 운영을 위해 고용안정센터화 같은 전문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이들과 성실한 협의를 위해 연계네트워크를 시급히 조직함.

참고. 졸업생 대상의 종합 취업지원서비스와 재학생 대상의 연수지원제도¹⁰⁾

□ 졸업생 대상의 종합 취업지원서비스

○ 제1단계(경력준비 단계 : 최대 1개월)

- 고용안정센터내 청년층 전담상담사를 배치하여 청년 구직자에 대한 심층상담 및 취업알선을 담당하며,
- 구직능력의 정도에 따라 중점 지원대상자를 선별하여
-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 및 적합 프로그램을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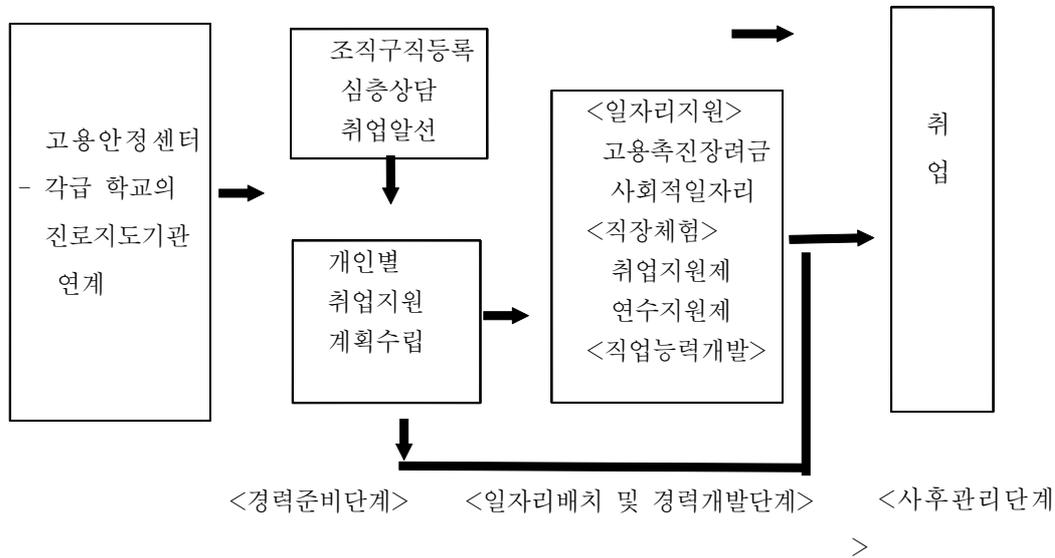
○ 2단계(경력개발 단계 : 3-6개월, 훈련은 최장 1년): 이하 예

- 고졸이하 졸업생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취업 지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제공, 인력부족직종 중심의 직업훈련 등
- 대학 졸업생 : 정보통신·문화관광·디자인 등 신산업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통한 취업 지원, 해외 취업·연수, 취업지원(인턴)제, 지식기반직종 중심의 직업훈련 등
- 대학원 졸업생 : 연구현장 및 산업체 연수 등을 통한 취업 지원 등

○ 제3단계(사후관리 단계)

- 취업에 실패하였을 경우 다시 1단계로 피드백하여 취업 실패 원인 분석 및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을 수정하고, 2단계 프로그램 참여

[졸업생 대상의 종합 취업지원서비스 체계도]



10) 이병희 (2003.11), 청년실업의 원인과 대책, 『매월노동동향』, 한국노동연구원.

□ 재학생 대상의 연수지원제도

- 경력을 중시하는 채용 관행의 변화에 대응하여 직장체험을 통해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현장 학습, 경력형성을 지원하는 연수지원제도 운영
 - 전공·적성에 적합한 연수기업을 선정하고 교육과 연계된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고용안정센터간 연계 강화
- 고교생 대상의 현장실습 체계화
 - 실업계 고교·인문계 고교 직업반의 경우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대해 학교-고용안정센터를 연계하여 기업의 현장실습을 내실화하고, 주 1회 또는 현장실습 초기 일정 기간 동안 공공훈련기관을 통해 관련 훈련 실시
- 대학생 대상의 연수지원제도 확대
 - 대학이 적극적으로 연수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고용안정센터가 지원 역할을 담당하며,
 - 이를 위해 전공과 부합한 연수처 발굴, 연수계약 체결, 교수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는 연수지원센터의 대학내 설치 권장, 연수담당 지도교수(대학)·현장 mentor(기업)을 통해 현장연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를 체계화하며 담당 교수의 업무 경감 지원
 - 연수지원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대학의 재학생에 대해서는 현행 직장체험프로그램(연수지원제도)에 서와 같이 고용안정센터가 주관
 - 현장 연수 결과에 대한 학점 인정과 경력증명서 발급
- 직장체험프로그램(대기업, 공공기관, 연구소 등을 대상)과 대학생 중소기업 현장체험활동 프로그램(중소기업 대상)간 연계

열세째, 여성 및 청년 장기실업자의 활용과 “중소기업 취업적응 프로그램”의 개발

- 본인이 원하는 직장으로의 취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성 및 청년 장기실업자 중에서 중소기업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개발, 직업훈련실시후 인력부족이 심한 중소기업체에 파견시켜 근무
-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이나 중소기업 관련기금에서 일정비율 보조하는 공공근로 형태 근무제도의 도입
 - 이를 위하여 업종별로 고령자, 여성 등이 취업가능한 직무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후 중소기업에서 요구하는 주문식 직업훈련 실시

열네째, 비진학 중도탈락 청소년 직업훈련수요 파악

- 학교,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사), 사회선도기관과 연계하여 지역별로 비진학 중고교 중도탈락자 인적사항과 직업훈련 수요를 파악하여 이들을 기능인력 양성 대상으로 인력풀을 데이터화
- 부산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등 공공 민간 직업훈련기관과 이들 중도탈락 청소년 연계강화.
 - 청소년들의 직업훈련 지원 강화
- 청소년 관심 있는 훈련직종과 중소기업인력부족 직종을 개설하고 맞춤형훈련 강화
 - 훈련과정을 메카트로닉스, 일렉트로닉스, 정보통신설비, 기계설계제작 등 청소년 관심 직종 및 기계정비, 용접, 건설 등 인력부족 직종을 훈련과정에 포함
 -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주와 훈련기관 합동으로 훈련생을 모집하게 하고 훈련약정 또는 취업약정계약을 체결후 훈련시키는 맞춤형훈련의 강화

○ 학교 중도탈락자가 직업훈련 이수시 졸업학력 인정

- 예를 들어 고교 2학년에서 중퇴한 자가 1년 훈련후 사업장에 1년 취업한 경우 고등학교 학력인정 (교육부와 업무 협의 필요 사항)

열다섯째, 부산지역의 일자리 창출·소멸 통계 시스템의 구축과 이를 통한 고용창출형 경제·산업정책 수립·평가

열여섯째, 부산지역 학교·학과별 취업실태 공표제도를 도입

- 학생들이 직업전망에 기초하여 진학을 결정하고,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공분야별 취업실태 (취업률·직장정착률·고용형태·임금 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공개

열일곱째, 기업의 교육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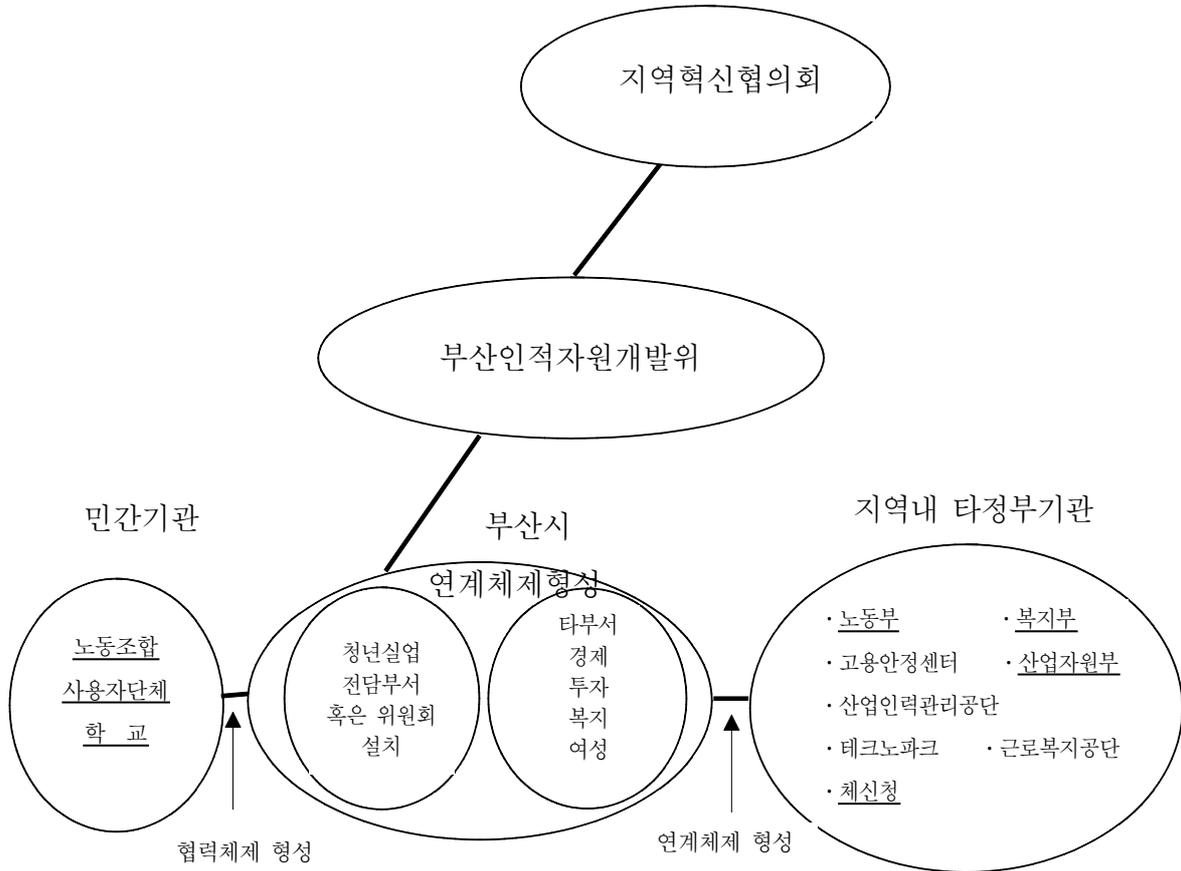
- 산업계의 교육훈련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능력과 자질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편성에 반영

열여덟째, 부산시 청년 실업대책의 추진·점검체계 개선

- 경제-교육-고용 등 여러 부문에 걸쳐 정책간 연계·조정이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청년 실업 종합대책에 대한 부산시 차원의 추진·점검체계를 구축하여 부산시, 노동부 및 중앙정부 산하 기구와의 협력체계 등 다양한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과 모니터링을 지속
- 다만 파트너쉽간 불필요한 경쟁을 지양하고 단순한 종합관리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혁신시스템과 지역노사정협의회간 결합을 도모하고 각종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협의회를 산하에 둘 것.

- 청년 실업대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부산지역 청년 실업대책의 마련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정책(프로그램)의 수립·실행·효과에 대한 평가 연구사업 추진 (청년 실업대책의 전달체계 평가, 연수지원제도의 효과 평가 등).

[그림 6-2] 청년 실업대책 관리체제



열아홉째, 지역파트너십의 구축

- 노사정간 파트너십은 여러 층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각 층의 협력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각층에서 이루어지는 협력을 조정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임.

<표 6-8> 산업구조고도화와 고용확대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

| | 노 | 사 | 정 |
|----------------|---|---|---|
| 산업구조고도화/고용확대 | | | |
| - 투자확대 | △ | ○ | ○ |
| -노동/부가가치생산성 증가 | ○ | ○ | △ |
| -인적자원개발 | ○ | ○ | ○ |
| -정책 효율성제고 | △ | △ | ○ |

주 : △ 간접적, ○ 직접적

○ 각 부문별 파트너십의 구축 방안

- 개별 사업장의 노사파트너십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필요하며 파트너십에 의한 숙련양성 재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도록 함.
- 민간 전문가가 중심된 시민단체로 하여금 공공기관이 담당하는 투자, 생산, 교육, 훈련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끔 협력 요청하고, 시민단체가 청년층의 고용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해 취업알선 등 노동시장 서비스 인프라 기능을 담당하도록 도모해야 함.

○ 투자여건 개선과 고용창출을 위한 지역노사정파트너십

- 고용창출을 통한 고용안정과 투자확대를 통한 구조고도화 촉진을 위해 노사정 협력체제 구축하고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사정 공동노력 경주
- 노사정 협력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사회복지 정책, 주택·교통정책간 연계를 통해 정책유�효성과 지역내 투자인프라 구축을 확보할 수 있음.

○ 인근 지역과의 파트너십

- 경남 양산·김해와 부산간 사업체 진출입 관련 파트너쉽 구축
- 권역내 직업능력개발 기구의 활용성 제고와 주택·교통정책의 지원을 통해 생산, 소비, 고용의 촉진과 확대도모

○ 부산시와 중앙 행정기관간 파트너쉽

- 부산지역 전략산업 육성 및 투자확대를 위한 기반조성에 중앙 행정기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 중앙과 부산이 상호간에 효과적인 정책개발, 집행, 평가를 위해 일상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 부산지역혁신협회와 국가균형발전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함

〈참 고 문 헌〉

- 노동부 (2003.11), 『중기고용정책기본계획 및 참고자료 (2004-2008)』 .
- 백성준 (2003.6), “지역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지역대학의 육성방안”.
- 부산광역시 (1998.12), 『부산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부산산업실태분석 및 실행시책연구』 .
- 부산광역시 (2001.5),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부산산업연관분석과 정책우선순위 결정,”
용역 최종보고회.
- 부산광역시 (2002.1), 『부산 국제금융도시 육성을 위한 전략수립 연구』 .
- 부산광역시 (2002.12.30), 『시정운영계획』 .
- 부산광역시 (2003), 『2003년도 종합실업대책』 .
- 부산광역시 (2003.5), 『동남권 산업클러스터 구축 연관 실행사업 계획 (안)』 .
-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교육청 (2003.8), 『부산광역시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HUMAN-POLIS」 부산』 .
- 유경준·하은식, “일본의 고용대책기본계획 (제1-8차),” 『중기고용정책기본계획 및 참고
자료 (2004-2008)』 , 노동부, pp. 161-428.
- 이병희 (2003.11). “청년실업의 원인과 대책,” 『매월노동동향』 , 제28호, pp.53-66.
- 인천광역시, metro.inchon.kr.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11), “전문인력 양성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 통계청, www.nso.go.kr .
- 채창균 (2003.11), “유럽 주요 국가의 청년실업 대책,” 『World Labor』 , 제8호, pp. 6-10.
- 허동한 (2003.11), “일본의 청년실업 증가와 정부의 대응,” 『World Labor』 , 제8호,
pp. 11-16.
- European Union (1997.11), The Employment Guidelines For 2001, Luxembroug..
- U.S. Department of Labor (2003.2), Strategic Plan FY 2003-FY 2008, Washington
D.C.

〈부 록〉

1. 3장 부록

[부록 3-1] 청년층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정책과제(총리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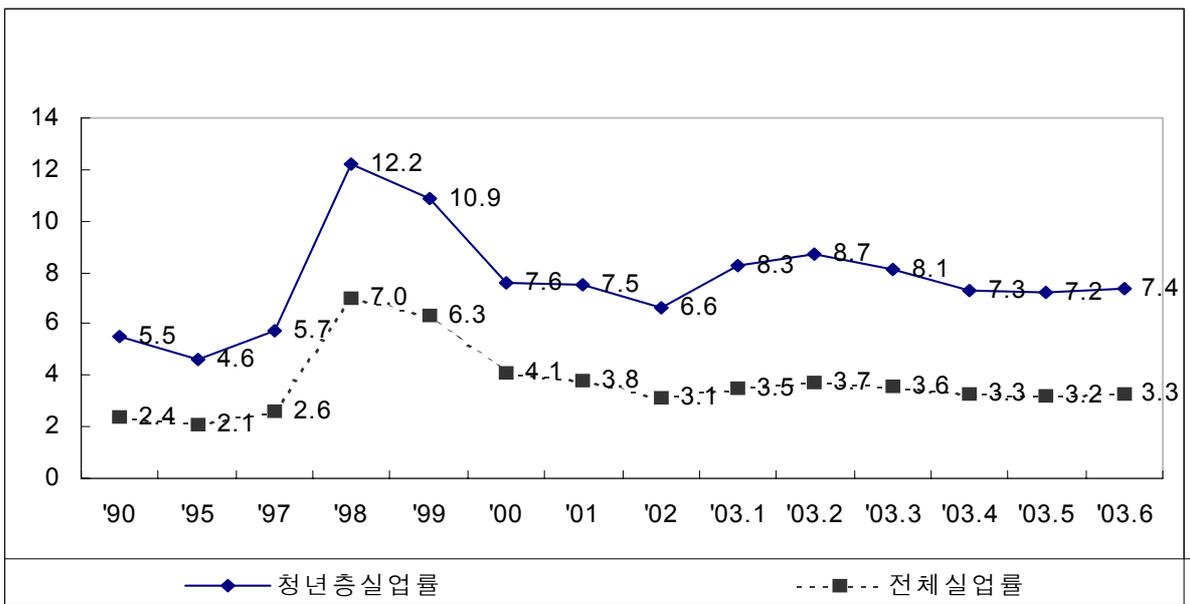
I. 青年層 失業實態와 特徵

1. 青年層 失業率 推移

- 금융위기 이후 1998년에 12.2%까지 급증했던 青年層(15~29세) 失業率은 2002년에 6.6%까지 하락하여 1997년의 5.7%에 근접하였으나 금년 들어 다시 상승
- 2003년 6월 현재 청년층 실업률은 7.4%로서 全體 失業率(3.3%)의 2배를 다소 상회
- 실업자수는 366천명으로 전체 실업자(755천명)의 48.5%를 차지

[그림 1] 청년층 실업률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표 1> 청년층의 학력별 실업률 추이

(단위: 천명, %)

|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1/4 | 2003. 2/4 |
|-----------|----------|-----------|-----------|----------|----------|----------|-----------|-----------|
| 전 체 | 560(2.6) | 1490(7.0) | 1374(6.3) | 913(4.1) | 845(3.8) | 708(3.1) | 806(3.6) | 751(3.3) |
| 청년층 1/4분기 | 380(6.6) | 603(11.0) | 737(14.0) | 512(9.6) | 468(8.9) | 410(7.8) | 424(8.4) | 362(7.3) |
| 청년층 연간 | 322(5.7) | 655(12.2) | 574(10.9) | 402(7.6) | 388(7.5) | 341(6.6) | - | - |
| 고졸 이하 | 232(6.1) | 487(15.1) | 425(13.6) | 281(8.9) | 261(8.6) | 218(7.5) | 257(8.7) | 200(7.3) |
| 대졸 이상 | 90(5.6) | 168(10.0) | 149(8.7) | 121(6.6) | 127(6.6) | 123(6.1) | 167(7.9) | 162(7.3) |
| 경제성장률 | 5.0 | -6.7 | 10.9 | 9.3 | 3.1 | 6.3 | 3.7 | 1.9 |

주 : 경제성장률은 2003. 2/4분기 추계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각년도.

○ 青年失業者의 64%(2002년 기준)는 고졸 이하임.

- 대졸은 졸업 시점에 體感하는 求職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취업하기까지 걸리는 職業探索期間이 예전보다 오래 소요되는 데 비하여, 고졸 이하는 就業, 失業, 非經活 사이를 오가는 職業非定着者가 많다는 점이 문제점임.

○ 青年 就業亂으로 청년 일자리 총수는 1996년의 542만개에서 2002년 480만개로 6년 사이에 60여만개 감소

-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青年層 就業者 比率도 1996년의 26%에서 2002년도 21.6%로 4.4%포인트 하락

<표 2> 청년 취업자수 및 청년 취업자 비율 추이

| | 1996 | 2002 | 증감 |
|-----------|---------|---------|--------|
| 청년 취업자수 | 5,421천명 | 4,799천명 | △622천명 |
| 청년 취업자 비율 | 26.0% | 21.6% | △4.4%P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각년도.

2. 青年層 遊休化率

○ 青年層 遊休化率도 2003년 들어 상승하여 1/4분기 18.9%, 2/4분기 17.2%를 나타내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년층의 20% 가량이 직업이 없는 상태임.

- 유희화율=[(실업자수+비통학 비경제활동인구수)/生産可能人口數]

실업률로 포착할 수 없는 청년층의 體感失業을 살펴보기 위한 指標임.

- 유희화율에서는 고졸보다 대졸이 4%포인트 높게 나타나, 대졸의 體感失業이 높음을 알 수 있음.

<표 3> 청년층의 유희화율 추이

(단위 : %)

|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1/4 | 2003.2/4 |
|-------|------|------|------|------|------|------|----------|----------|
| 전 체 | 16.6 | 20.7 | 20.5 | 18.3 | 18.2 | 16.9 | 18.9 | 17.2 |
| 고졸 이하 | 16.1 | 19.7 | 19.6 | 17.5 | 17.3 | 15.9 | 18.0 | 15.9 |
| 대졸 이상 | 18.9 | 25.0 | 24.0 | 21.4 | 21.3 | 20.2 | 21.6 | 20.8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에서 계산

Ⅱ. 青年層 勞動市場 構造 變化와 問題點

1. 大卒者 勞動市場의 需給不均衡 深化

가. 공급 측면

○ 大졸인력 供給 급증

- 1995~2003년간 大졸자수는 18만명(55.6%) 증가

<표 4> 大졸인력 供給 추이

| | | 1985 | 1995 | 2003 |
|-------------------|-----|-------|-------|-------|
| 大졸자 수 (전문대 포함) | | 215천명 | 324천명 | 505천명 |
| 대학 진학률 | 일반계 | 58.8% | 72.8% | 90.1% |
| | 실업계 | 13.3% | 19.2% | 57.6% |

자료: 教育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各년도.

나. 수요 측면

○ 전통적 大졸자 일자리인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감소

- 大졸자가 주로 취업하기를 원하는 主要기업(30대 대기업 집단, 공기업, 金融산업)에서의 소위 ‘괜찮은 일자리’는 最近 5년 동안 32만 6천개나 줄어들었음.

○ 신규 大卒人力 供給이 급증하였음에 반하여 傳統적 大졸 직업인 ‘괜찮은 직업’의 수는 最近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므로 大졸자들이 눈높이를 낮추어 취업하기까지 걸리는 職業探索 期間이 예전보다 오래 소요

<표 5> 주요 기업들의 취업자수 추이

(단위: 천명)

| | 97년 10월 (A) | 98년 10월 | 99년 10월 | 2000년 10월 | 2001년 10월 | 2002년 10월 (B) | B-A |
|-----------|----------------|---------|---------|-----------|-----------|------------------|------|
| 전 체 | 1,573 | 1,407 | 1,321 | 1,319 | 1,234 | 1,247 | -326 |
| 30대 대기업집단 | 939 | 807 | 762 | 761 | 708 | 703 | -236 |
| 공기업 | 266 | 257 | 238 | 235 | 209 | 215 | -51 |
| 금융산업 | 447 | 407 | 388 | 386 | 380 | 392 | -54 |

주: 전체에는, 중복된 경우는 배제하였음.

자료: 고용보험 DB.

○ 주요 기업의 隨時採用 慣行과 經歷職 選好 傾向

- 景氣 不透明, 産業構造 急變 등의 영향으로 기업들이 졸업시점에 행하는 기존의 定時 募集보다는 최근에는 隨時 採用을 선호
- 經歷職 選好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뚜렷해졌는데 특히 30대 대기업, 공기업, 금융산업 등 대졸자들이 주로 선호하는 주요 기업들에서 두드러짐.

<표 6> 주요 기업에서의 신규·경력 채용추이

(단위: %)

|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
| 신규학졸자 채용 | 65.2 | 60.7 | 45.3 | 27.1 | 21.7 | 21.3 | 18.2 |
| 경력자 채용 | 34.8 | 39.3 | 54.7 | 72.9 | 78.3 | 78.7 | 81.8 |

주: 학졸자 채용은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일자리를 가진 경우를 가리킴.

경력자 채용은 이전에 취업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경우를 가리킴.

자료: 고용보험 DB.

2. 學校로부터 勞動市場 移行的 問題點

가. 첫 취업 소요기간 평균 12개월

○ 첫 일자리에 취업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2개월로 나타나 전년도에 비하여 1개월 늘어났음(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2003년 5월)

- 첫 일자리 취업에 걸리는 기간이 3개월 미만은 53.9%에 불과

나. 산업수요와 괴리된 교육으로 인한 일자리 불일치

○ 情報化와 技術進步의 加速化로 기업의 人力需要 패턴은 급변하고 있으나 학교교육은 산업계의 인력수요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일자리 不一致와 下向就業

- 응답자의 20%가 첫 일자리의 수준이 자신의 교육수준, 기술 및 기능수준보다 낮다고 답변하여 下向就業이 상당수 존재함.

- 또한 자신의 專攻·系列과 첫 일자리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2.9%에 이르고 있음.

· 下向就業은 전문대졸에서 가장 높고, 專攻別 일자리 不一致는 대졸자에게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첫 일자리 선택의 잘못된 잦은 移職과 빈번한 勞動市場 流出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표 7> 일자리 불일치

(단위: %)

| | | 과잉 | 적정 | 과소 |
|-----------|-------|------|------|-----|
| 교육수준 | 고졸 이하 | 18.5 | 80.1 | 1.4 |
| | 전문대졸 | 25.0 | 74.2 | 0.9 |
| | 대졸 | 21.8 | 75.9 | 2.3 |
| | 전 체 | 19.8 | 78.6 | 1.5 |
| | | 과잉 | 적정 | 과소 |
| 기술 및 기능수준 | 고졸 이하 | 17.8 | 80.9 | 1.3 |
| | 전문대졸 | 22.7 | 76.0 | 1.2 |
| | 대졸 | 21.6 | 76.1 | 2.3 |
| | 전 체 | 19.1 | 79.4 | 1.5 |
| | | 불일치 | 적정 | 일치 |
| 전공·계열 | 고졸 이하 | 32.8 | 66.7 | 0.5 |
| | 전문대졸 | 30.1 | 68.0 | 1.9 |
| | 대졸 | 37.4 | 61.6 | 1.0 |
| | 전 체 | 32.9 | 66.3 | 0.8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가구조설」 5차년도(2002년) 조사 자료. 전공 및 계열은 3차년도(2000)년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

- 일자리 不一致로 인하여 청년층의 첫 직장 勤續期間은 23개월로 나타남(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2003년 5월).

3. 中堅企業의 不足과 中小企業 勤勞條件 및 作業環境 問題

가. 청년층이 취업하고자 하는 중견기업에서의 고용규모가 너무 적음.

- 事業場 規模別 就業者數를 보면, 중견기업 규모라고 할 수 있는 50인 이상 499인 이하 사업장의 취업자 규모가 전체의 22.5%에 불과하여 금융위기사 構造調整으로 인하여 주요 대기업에서 激減된 勞動需要를 대체할 중견기업 부족이 심각함을 알 수 있음(그림 2).

- 50인 이하 사업체의 就業者數는 전체의 68.7%를 차지하지만, 賃金 및 勤勞條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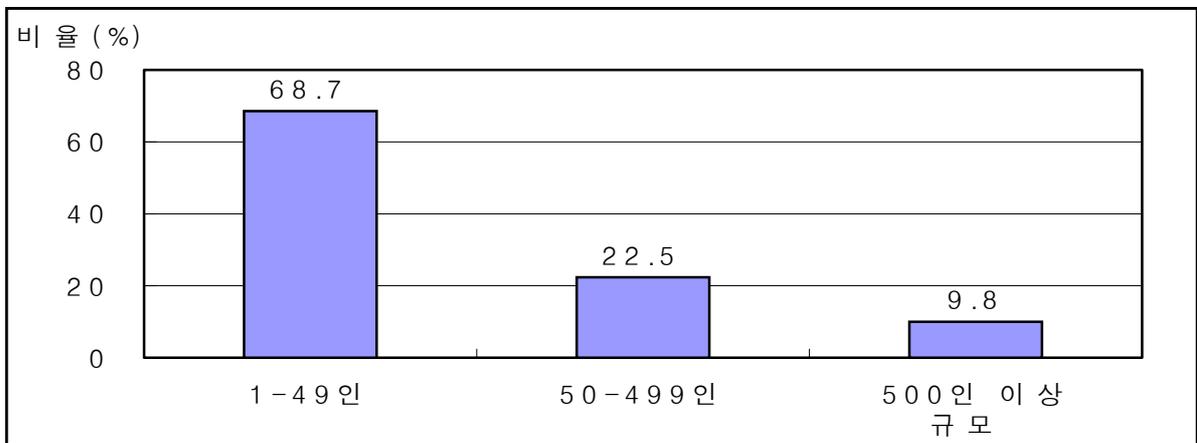
등이 열악하여 청년들이 취업을 기피함.

○ 따라서 賃金 및 勤勞條件이 대기업보다는 못하지만 소규모 기업보다 나은 중견기업의 육성이 靑年層 失業 吸收를 위하여 중요함.

- 規模間 賃金隔差도 500인 이상 사업장 平均賃金を 100으로 했을 때 10~29인 사업장은 1989년 74.2%, 1999년 68.1%, 금년 1~5월은 60%로 크게 악화되고 있음.

[그림 2] 사업장 규모별 취업자 비중

(단위: %)



자료: 통계청,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2001.

<표 8> 기업규모간 임금격차

(단위: %, 천원)

| | 10~29인 | 30~99인 | 100~299인 | 300~499인 | 500인 이상 |
|-----------|-----------------|-----------------|-----------------|-----------------|------------------|
| 1989 | 74.2 (461) | 78 (485) | 81.8 (508) | 94.0 (548) | 100.0 (621) |
| 1999 | 68.1 (1,376) | 71.3 (1,439) | 77.3 (1,560) | 88.8 (1,794) | 100.0 (2,019) |
| 2003(1~5) | 60.1 (1,749) | 66.0 (1,919) | 73.0 (2,123) | 80.7 (2,347) | 100.0 (2,907) |

자료: 노동부

Ⅲ. 短期課題

1. 인턴제 확대

- 인턴제는 300인 미만 민간사업체에 未就業 卒業生을 대상으로 매월 50만원을 3개월간 임금보조해 주고, 만약 해당 사업체에 취업될 경우 그 사업체에 3개월간 재차 보조를 해줌.
- 인턴기간 경과후 정규직 採用比率이 거의 90%에 달해 雇傭效果가 매우 큼.
- 금년 인턴규모는 追更을 포함해서 1만3천명 수준이지만, 新規學卒者가 排出되는 연말과 내년 초에 青年失業率이 9%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턴규모를 2만명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青年層의 海外研修 및 就業促進

- 글로벌화와 IT 경기회복에 대비하기 위해 청년층의 海外研修 및 海外就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올해 청년층의 海外研修는 情報化促進基金에서 60억원의 예산으로 IT 분야 1천명을 계획하고 있음.
- 海外研修 就業規模를 5천명 수준으로 擴大
- 업종도 IT뿐만 아니라 문화 콘텐츠, 디자인 영역으로까지 확대하고, 지역도 미국·인도에서 중국 등으로 확대
- 담당기관을 현재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자체로 확대

3. 공공서비스 영역에서의 일자리 창출

- 2003년 公共서비스 領域에서의 일자리 創出 現況
 - 과학기술, 문화, 학술 등 國家情報資源 디지털 DB 구축사업 확대 (1.1천명, 추경 200억원, 정통부)
 - 초·중교 電算補助員 採用 (2.3천명, 추경 141억원)

- 2003년 하반기나 2004년 상반기 靑年層 失業問題가 더 악화될 경우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청년층 일자리 확대 추진

IV. 中長期 政策課題

1. 學校로부터 職場으로의 移行 圓滑化

○ 대학 학과별 就業率 公開制度의 導入

- 학생들이 대학 학과별 就業率을 알게 함으로써 대학 교육에 대한 費用과 利益을 함께 고려한 진학 판단을 가능하게 하고, 勞動需要側에게도 학교와 학력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노동시장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誘導
- 就業率 情報의 公開는 학교 및 직업훈련기관으로 하여금 市場需要에 맞추어 커리큘럼을 조정하도록 유도할 것임.

○ 職場體驗 基盤擴大

- 대학생 研修支援制 확대
 - 경력채용 확대에 대응하여 대학생의 재학중 직장연수 활성화
- 學期制를 연간 4학기제로 조정
 - 재학중 企業研修 및 중소기업 現場體驗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4학기제로 조정하거나, 여름방학 기간을 최소한 3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대신 겨울방학 기간을 현재보다 줄이는 學期制度 改編 檢討
- 職場體驗에 대한 學點認定 확대
- 직장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事後管理를 강화하여 프로그램이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함.

○ 注文式 교육의 활성화

- 産學協力 및 교육의 현장성 강화를 위하여 최근 전문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

문식 교육과정과 같이 산업체와 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협력하여 편성 운영해 나가는 방안에 대한 지원이 필요

· 注文式 教育에 기업이 학교에 비용 일부를 지원할 경우 損費認定 세금감면

2. 青年層 綜合 雇傭서비스 體系 構築

○ 패키지화된 청년특화 종합 고용서비스 제공(가칭 ‘한국형 청년뉴딜’ 프로그램)

- 1998년 失業大亂 이후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失業對策은 거의 모든 사업을 망라하고 있으나, 여전히 분산적이어서 실업자의 특성에 부합한 지원 및 그 실효성 확보가 미흡

○ 청소년층 직업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인턴제·직업훈련·취업알선’을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만들어 청소년층의 자격·능력 및 선호에 따라 지원하는 체계화된 지원 시스템 구축

○ 단계별 사업추진

- 제1단계

· 고용안정센터와 각급 학교의 進路指導機關을 연계하여 청소년의 早期求職登錄 유도, 직업상담·고용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지원

· 각급 학교의 진로상담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졸업 무렵에 고용안정센터의 직업상담사를 일정기간 배치

· 고용안정센터에 청소년 전담창구 지정 또는 전담상담원을 배치

- 제2단계

· 취업알선, 모듈형 직업훈련, 정부지원 인턴제, 청소년 적합 공공근로사업 등 청소년이 선택 가능한 옵션을 패키지로 제공

· 각 사업에 훈련을 결합하여 就業能力을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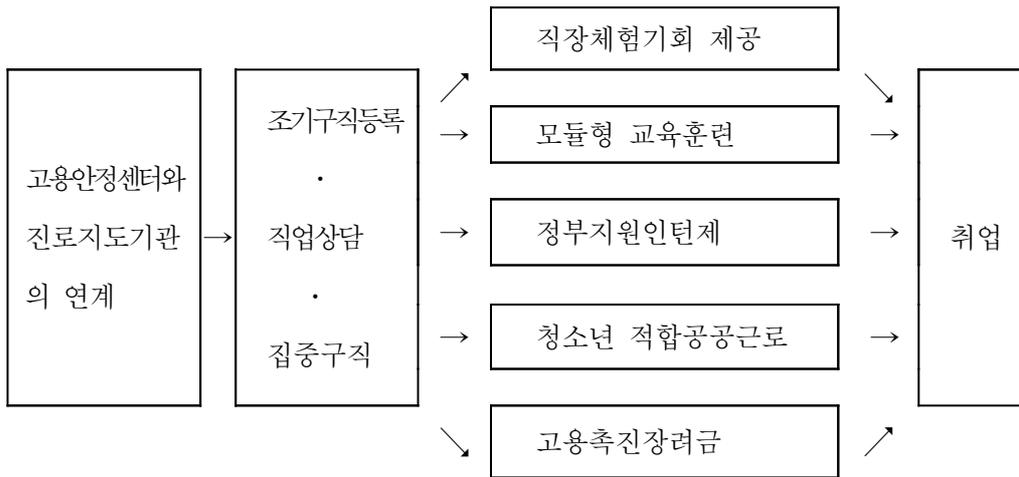
· 구직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한 청년에 대한 雇傭促進獎勵金制度 적극 활용

·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채용박람회 등을 활용해 취업지원

- 제3단계

· 2단계의 성과를 기초로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하여 취업시키고 취업 후 일정기간 동안 직장에 안착하도록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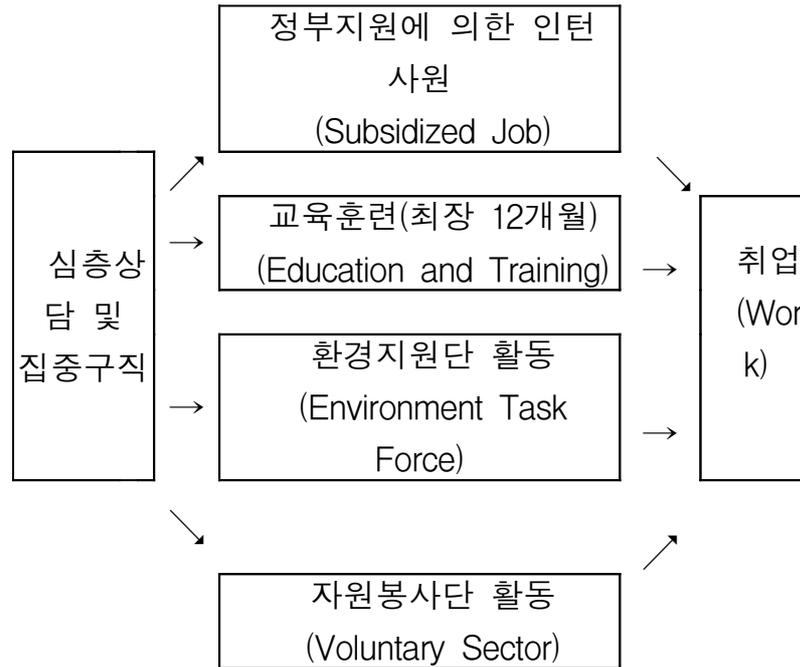
[그림 3] 청년 종합 고용서비스 프로그램



※ 영국의 New Deal 프로그램

· 실업급여를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청년층 장기실업자(18~24세)를 주대상으로 취업촉진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며, 1998년 4월부터 전국 시행

| | | |
|-----------|--------------------|------------------|
| (Gateway) | (New Deal Options) | (Follow-Through) |
| 처음 4개월 | 다음 6개월 | |



3. 高卒 非進學 未就業者의 職業能力開發 強化

○ 미취업 고졸 비진학청년층에 대한 실태 파악

- 고용안정센터가 학교,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사), 사회선도기관과 연계하여
- 지역별로 비진학 중고교 중도탈락자 인적사항과 고용서비스 수요를 파악하여 이들을 技能人力 養成 對象으로 인력풀을 데이터화

○ 미취업 고졸 비진학청년층에 특화된 직업훈련시스템 개발

- 청소년들의 관심 있는 훈련직종과 중소기업 인력부족 직종을 개설하고 맞춤형훈련 강화
 - 훈련과정을 메카트로닉스, 일렉트로닉스, 정보통신설비, 기계설계 제작 등 청소년 관심 직종 및 기계정비, 용접, 건설 등 인력부족 직종을 훈련과정에 포함
- 訓練履修한 경우 學歷認定
 - 고교 2학년에서 중퇴한 자가 1년 훈련 후 사업장에 1년 취업한 경우 고등학교

인정

○ 同行面接의 강화와 예산 배정

- 동행면접을 강화함으로써 취업의 가능성이 낮은 비진학 중도탈락자의 就業確率을 높일 수 있으므로 이 제도에 대한 예산 지원이 요청됨.

4. 其他課題

1)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적극적 정보제공 및 작업환경 개선지원

- 고용안정센터에 우수중소업체에 대한 홍보물을 전시, 정부에서 우수중소기업 발굴과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홍보 등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전환노력

- 「Clean 3D」 사업 등 중소기업 作業環境 改善支援 擴大를 통한 중소기업 기피인식 개선

- 현재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으로 국내에는 37만여명의 외국인력이 취업하고 있음.

2) 신산업 육성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 고학력·디지털·감성세대인 청년층의 적성과 능력을 살릴 수 있는 신산업 적극 육성

- IT·BT 외에 문화 콘텐츠산업 등 신세대의 創意力과 感性能力을 발휘할 수 있는 신산업 발굴 육성

3) 지역단위 고용창출 노력의 강화

- 산업구조, 경제 및 지리·교통여건, 노동력 수급여건이 각각 다르므로 지역 실정에

맞는 地域雇傭促進對策이 효과적임.

- 지역별 청년층 실업률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별 청년층 실업해결의 책임유도 필요가 있으며 청년층 실업률이 높은 대도시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지식기반서비스산업에서의 취업촉진 전략 필요

※ OECD LEED(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는 1982년부터 지역실업대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시작한 프로그램으로서 지역단위 산·학·정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경제와 고용개발을 촉진하고 회원국 사이에 모범사례 정보교환 및 상호 벤치마킹(한국 미가입)

○ 지역단위 학교, 학생회, 고용안정센터, 기업간 취업네트워크 구축

- 대학별 구직자 풀 구성, 취업준비 프로그램 개발 지원, 대학생의 단기 직장체험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취업준비자들이 노동시장과 직장에 대한 정보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취업알선, 직업훈련상담, 훈련과정에 대한 관리간의 유기적인 정보교환네트워크 구축이 필요

○ 지역별 失業統計 구축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지역실업통계는 현재 광역자치단체 지역만 공개하고 있으므로 지역노동시장 권역별 실업자 특성 파악과 지역밀착형 실업대책을 위한 실업통계 구축 필요

4) 청년층 창업 활성화

○ 창업이 職業世界로의 이행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도록 함.

- 청년층에 특화되고 적합한 창업 가능 업종과 기업 운영 등 창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中企廳 내에 ‘청년층창업지원센터(가칭)’ 등을 설립해 지원함.
- 대학 내에 창업에 관한 정규프로그램이나 교과과정을 개설함.

<부표 3-1> 전국 대비 부산지역 취업자 비율(단위, %)

| |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
| 부산 취업자비중 | 전체 | 8.4 | 8.4 | 8.3 | 8.1 | 8.1 | 7.9 | 7.7 | 7.7 | 7.6 | 7.7 |
| | 남 | 8.3 | 8.3 | 8.1 | 8.0 | 7.9 | 7.8 | 7.6 | 7.6 | 7.5 | 7.5 |
| | 여 | 8.6 | 8.5 | 8.5 | 8.3 | 8.3 | 8.1 | 7.9 | 7.8 | 7.8 | 7.9 |
| 부산 청년층 취업자 비중 | 전체 | 8.5 | 8.5 | 8.4 | 8.2 | 8.1 | 7.8 | 7.4 | 7.6 | 7.5 | 7.8 |
| | 남 | 7.9 | 7.9 | 7.6 | 7.3 | 7.3 | 7.4 | 7.1 | 7.4 | 7.3 | 7.6 |
| | 여 | 9.2 | 9.2 | 9.3 | 9.1 | 8.9 | 8.3 | 7.7 | 7.8 | 7.7 | 8.1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표 3-2> 부산 청년층 교육별 취업자 추이

| |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
| 전체 | 전체 | 446 | 452 | 451 | 438 | 426 | 367 | 343 | 364 | 354 | 368 |
| 취업자수 | 고졸이하 | 326 | 309 | 299 | 282 | 264 | 199 | 174 | 182 | 165 | 151 |
| | 전문대졸 | 51 | 60 | 66 | 70 | 79 | 76 | 78 | 93 | 103 | 110 |
| | 대졸 | 68 | 84 | 87 | 85 | 83 | 92 | 91 | 89 | 87 | 107 |
| 비중 | 고졸이하 | 73.3 | 68.2 | 66.2 | 64.5 | 62.1 | 54.1 | 50.6 | 50.0 | 46.5 | 41.0 |
| | 전문대졸 | 11.4 | 13.3 | 14.7 | 16.0 | 18.4 | 20.7 | 22.8 | 25.5 | 29.0 | 29.8 |
| | 대졸 | 15.3 | 18.5 | 19.2 | 19.5 | 19.4 | 25.1 | 26.6 | 24.5 | 24.5 | 29.2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표 3-3> 부산 청년층 종사상 지위별 교육별 취업자 비중

| |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
| 전체 | 전체 | 446(100.0) | 452(100.0) | 451(100.0) | 438(100.0) | 426(100.0) | 367(100.0) | 343(100.0) | 364(100.0) | 354(100.0) | 368(100.0) |
| | 상용근로자 | 43.4 | 42.9 | 39.6 | 39.3 | 37.3 | 36.5 | 33.2 | 30.3 | 31.6 | 31.6 |
| | 임시근로자 | 41.4 | 43.6 | 45.7 | 46.3 | 47.8 | 47.4 | 49.0 | 49.3 | 47.5 | 45.1 |
| | 일용근로자 | 4.0 | 3.9 | 4.1 | 4.8 | 5.6 | 5.8 | 8.6 | 10.0 | 10.4 | 13.4 |
| | 고용주 | 2.5 | 1.7 | 1.8 | 1.6 | 1.3 | 1.0 | 0.9 | 1.7 | 1.5 | 1.0 |
| | 자영업 | 3.5 | 3.2 | 4.6 | 4.5 | 5.0 | 5.1 | 4.7 | 5.0 | 4.3 | 5.0 |
| | 무급가족종사자 | 5.2 | 4.7 | 4.2 | 3.6 | 3.0 | 4.3 | 3.5 | 3.8 | 4.8 | 3.9 |
| 고졸이하 | 전체 | 326(100.0) | 309(100.0) | 299(100.0) | 282(100.0) | 264(100.0) | 199(100.0) | 174(100.0) | 182(100.0) | 165(100.0) | 151(100.0) |
| | 상용근로자 | 37.1 | 35.5 | 32.9 | 32.0 | 30.1 | 28.5 | 25.4 | 23.0 | 24.9 | 21.5 |
| | 임시근로자 | 47.2 | 49.6 | 52.3 | 54.0 | 55.6 | 53.3 | 56.0 | 56.5 | 54.7 | 53.6 |
| | 일용근로자 | 4.9 | 4.9 | 4.9 | 5.2 | 6.0 | 7.0 | 9.2 | 10.6 | 9.1 | 13.4 |
| | 고용주 | 1.9 | 1.5 | 1.8 | 1.6 | 1.6 | 1.1 | 0.9 | 1.9 | 2.2 | 1.5 |
| | 자영업 | 3.4 | 3.3 | 3.7 | 3.2 | 3.4 | 5.3 | 4.5 | 4.3 | 4.6 | 5.9 |
| | 무급가족종사자 | 5.5 | 5.2 | 4.5 | 4.0 | 3.3 | 4.7 | 4.0 | 3.7 | 4.4 | 4.1 |
| 전문대졸 | 전체 | 51(100.0) | 60(100.0) | 66(100.0) | 70(100.0) | 79(100.0) | 76(100.0) | 78(100.0) | 93(100.0) | 103(100.0) | 110(100.0) |
| | 상용근로자 | 57.9 | 56.0 | 51.5 | 50.1 | 49.9 | 39.4 | 36.9 | 37.6 | 38.1 | 37.4 |
| | 임시근로자 | 31.3 | 33.7 | 37.6 | 39.9 | 39.7 | 49.7 | 52.3 | 48.7 | 45.6 | 43.9 |
| | 일용근로자 | 1.1 | 1.8 | 3.7 | 5.8 | 4.3 | 4.1 | 4.6 | 7.3 | 8.9 | 11.5 |
| | 고용주 | 1.9 | 0.8 | 0.6 | 0.6 | 0.7 | 0.7 | 0.7 | 1.2 | 0.7 | 0.5 |
| | 자영업 | 2.3 | 2.9 | 3.4 | 2.8 | 4.0 | 2.0 | 2.5 | 1.8 | 2.0 | 2.1 |
| | 무급가족종사자 | 5.5 | 4.8 | 3.3 | 0.8 | 1.5 | 4.1 | 3.1 | 3.3 | 4.6 | 4.6 |
| 대졸 | 전체 | 68(100.0) | 84(100.0) | 87(100.0) | 85(100.0) | 83(100.0) | 92(100.0) | 91(100.0) | 89(100.0) | 87(100.0) | 107(100.0) |
| | 상용근로자 | 63.1 | 60.7 | 53.9 | 54.6 | 48.3 | 51.3 | 44.7 | 37.4 | 36.7 | 39.7 |
| | 임시근로자 | 21.3 | 28.5 | 29.3 | 26.1 | 30.5 | 32.7 | 32.7 | 35.2 | 35.9 | 34.5 |
| | 일용근로자 | 1.8 | 1.8 | 1.7 | 2.4 | 5.2 | 4.5 | 11.1 | 11.5 | 14.5 | 15.4 |
| | 고용주 | 5.6 | 3.4 | 2.6 | 2.1 | 0.9 | 0.8 | 1.3 | 2.0 | 1.3 | 0.8 |
| | 자영업 | 5.0 | 3.0 | 8.6 | 10.1 | 11.3 | 7.2 | 7.2 | 9.6 | 6.1 | 6.6 |
| | 무급가족종사자 | 3.3 | 2.7 | 3.9 | 4.7 | 3.7 | 3.4 | 2.9 | 4.4 | 5.6 | 3.0 |

<부표 3-4> 부산 청년층 직종별 취업자 증가율 추이

| | | 93-96 | 96-99 | 99-02 |
|----|----------------------|-------|-------|-------|
| 전국 |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 -29.5 | -50.2 | 18.2 |
| | 전문가 | -1.3 | -12.3 | 109.5 |
| | 기술공 및 준전문가 | 21.8 | 1.1 | -14.4 |
| | 사무직 | 7.0 | -23.5 | 8.9 |
| |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 | 6.9 | 3.8 | 6.2 |
| |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 -38.1 | 20.0 | -49.1 |
|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3.0 | -35.3 | -19.0 |
| |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24.8 | -25.9 | -7.6 |
| | 단순노무 종사자 | 23.1 | 8.6 | -12.3 |
| 부산 |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 -43.6 | -53.8 | 205.7 |
| | 전문가 | -4.7 | 22.4 | 74.0 |
| | 기술공 및 준전문가 | 22.0 | -10.0 | -10.2 |
| | 사무직 | 1.6 | -37.1 | 1.5 |
| |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 | 4.9 | -10.9 | 33.5 |
| |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 -21.3 | 40.8 | -57.0 |
|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18.0 | -29.2 | -30.4 |
| |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63.5 | -23.4 | 30.0 |
| | 단순노무 종사자 | 49.7 | -17.1 | 1.0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표 3-5> 부산지역 청년층의 성별 직종별 취업자 구성

| |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
| 남 | 전체 | 219 (100.0) | 224 (100.0) | 217 (100.0) | 207 (100.0) | 201 (100.0) | 183 (100.0) | 172 (100.0) | 185 (100.0) | 176 (100.0) | 180 (100.0) |
| | 관리자 | 0.7 | 0.7 | 0.3 | 0.4 | 0.7 | 0.2 | 0.2 | 0.1 | 0.7 | 0.7 |
| | 전문가 | 3.3 | 3.2 | 4.4 | 3.6 | 3.1 | 4.1 | 5.9 | 4.0 | 3.3 | 4.5 |
| | 기술공/준전문가 | 9.3 | 11.3 | 11.8 | 13.3 | 13.2 | 16.1 | 16.5 | 14.3 | 12.9 | 14.0 |
| | 사무직 | 17.5 | 17.3 | 14.4 | 14.2 | 16.1 | 16.1 | 12.1 | 9.8 | 10.8 | 10.6 |
| | 판매서비스직 | 18.3 | 18.9 | 18.0 | 17.1 | 16.2 | 17.6 | 17.7 | 22.5 | 21.6 | 25.9 |
| | 농림어업종사자 | 0.6 | 0.9 | 0.6 | 0.3 | 0.1 | 0.2 | 1.1 | 0.7 | 0.9 | 0.5 |
| | 기능원 | 22.7 | 22.8 | 30.2 | 29.8 | 25.8 | 25.3 | 25.6 | 24.2 | 23.8 | 19.6 |
| | 조립원 | 23.4 | 19.4 | 12.4 | 11.2 | 13.7 | 10.6 | 10.9 | 14.1 | 15.2 | 12.7 |
| | 단순직 | 4.3 | 5.5 | 7.9 | 10.2 | 11.2 | 9.8 | 10.0 | 10.3 | 10.7 | 11.6 |
| 여 | 전체 | 230 (100.0) | 232 (100.0) | 239 (100.0) | 235 (100.0) | 230 (100.0) | 188 (100.0) | 176 (100.0) | 186 (100.0) | 185 (100.0) | 197 (100.0) |
| | 관리자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 전문가 | 5.6 | 2.9 | 4.8 | 5.0 | 4.4 | 6.6 | 7.7 | 9.9 | 14.5 | 16.6 |
| | 기술공/준전문가 | 13.1 | 14.5 | 14.3 | 14.6 | 17.4 | 17.0 | 15.6 | 14.6 | 13.3 | 12.6 |
| | 사무직 | 40.5 | 43.4 | 45.0 | 44.4 | 43.1 | 37.4 | 36.1 | 36.8 | 33.4 | 33.7 |
| | 판매서비스직 | 20.9 | 22.6 | 22.9 | 24.3 | 25.1 | 27.6 | 29.6 | 29.2 | 31.9 | 32.2 |
| | 농림어업종사자 | 0.2 | 0.3 | 0.5 | 0.3 | 0.2 | 0.0 | 0.0 | 0.0 | 0.0 | 0.0 |
| | 기능원 | 7.2 | 5.4 | 8.6 | 7.0 | 5.8 | 7.2 | 6.5 | 3.7 | 2.6 | 1.7 |
| | 조립원 | 8.0 | 6.8 | 0.8 | 0.9 | 0.7 | 0.5 | 0.5 | 1.4 | 1.6 | 1.3 |
| | 단순직 | 4.4 | 4.1 | 3.2 | 3.5 | 3.3 | 3.6 | 4.1 | 4.4 | 2.7 | 1.9 |

<부표 3-6> 청년층 업종별 취업자 증가율 추이

| | | 93-96 | 96-99 | 99-02 |
|----|-------------------|-------|-------|-------|
| 전국 | 농림어업광업 | -44.9 | 20.1 | -49.2 |
| | 제조업 | -12.6 | -32.6 | -3.2 |
|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1.7 | -18.3 | -9.4 |
| | 건설업 | 11.9 | -32.7 | -15.8 |
| | 도소매수리숙박 음식접업 | 12.0 | -5.6 | -4.1 |
| | 운수, 창고 및 통신업 | 4.9 | 5.0 | -6.0 |
| | 금융 및 보험업 | 10.6 | -22.1 | -3.6 |
| |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 43.1 | 3.8 | 30.2 |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5.1 | 3.1 | -47.6 |
| | 교육 서비스업 | 11.0 | -4.3 | 21.1 |
|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4.9 | 9.6 | 36.2 |
| | 기타 | 9.5 | -2.4 | 51.3 |
| 부산 | 농림어업광업 | -34.9 | 102.9 | -57.1 |
| | 제조업 | -29.7 | -33.5 | -15.5 |
|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52.2 | -96.7 | 6.7 |
| | 건설업 | 30.4 | -28.4 | -4.5 |
| | 도소매수리숙박 음식접업 | 10.1 | -18.9 | 13.0 |
| | 운수, 창고 및 통신업 | 5.2 | -40.5 | 14.3 |
| | 금융 및 보험업 | 20.3 | -11.8 | -20.1 |
| |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 46.5 | -10.4 | 39.6 |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11.3 | -29.4 | -64.5 |
| | 교육 서비스업 | 18.0 | -20.5 | 17.2 |
|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2.1 | -2.7 | 53.3 |
| | 기타 | -17.0 | 35.6 | 88.0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표 3-7> 부산 청년층 업종별 교육별 취업자 비중

|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
|------|----------------------|----------------|----------------|----------------|----------------|----------------|----------------|----------------|----------------|----------------|----------------|
| 전체 | 전체 | 446 (100.0) | 452 (100.0) | 451 (100.0) | 438 (100.0) | 426 (100.0) | 367 (100.0) | 343 (100.0) | 364 (100.0) | 354 (100.0) | 368(10 0.0) |
| | 농림어업광업 | 0.7 | 0.9 | 1.0 | 0.4 | 0.5 | 0.8 | 1.1 | 0.7 | 0.7 | 0.5 |
| | 제조업 | 34.2 | 29.4 | 26.8 | 24.5 | 21.9 | 21.0 | 20.6 | 18.7 | 18.0 | 16.3 |
|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0.2 | 0.4 | 0.4 | 0.3 | 0.2 | 0.0 | 0.0 | 0.2 | 0.1 | 0.0 |
| | 건설업 | 6.3 | 8.0 | 7.4 | 8.4 | 7.9 | 7.7 | 7.6 | 7.6 | 6.6 | 6.6 |
| | 도소매수리숙박 음식접업 | 29.0 | 31.6 | 32.5 | 32.5 | 33.2 | 33.0 | 33.6 | 35.9 | 34.9 | 35.3 |
| | 운수, 창고 및 통신업 | 4.8 | 4.7 | 5.1 | 5.1 | 5.8 | 4.6 | 3.9 | 4.4 | 5.2 | 4.1 |
| | 금융 및 보험업 | 4.0 | 3.9 | 4.8 | 5.0 | 5.6 | 6.1 | 5.7 | 4.2 | 3.4 | 4.2 |
| |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 3.5 | 3.6 | 4.0 | 5.0 | 5.9 | 5.7 | 5.8 | 6.2 | 6.9 | 7.7 |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2.9 | 3.2 | 3.3 | 3.4 | 3.0 | 2.6 | 3.1 | 2.5 | 1.5 | 1.0 |
| | 교육 서비스업 | 7.5 | 7.8 | 8.3 | 8.8 | 8.6 | 10.0 | 9.2 | 9.7 | 9.4 | 9.2 |
|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3.3 | 3.7 | 3.6 | 3.5 | 4.1 | 4.0 | 4.0 | 3.8 | 5.0 | 5.9 |
| 기타 | 3.6 | 2.8 | 2.7 | 3.0 | 3.3 | 4.5 | 5.3 | 6.1 | 8.1 | 9.2 | |
| 고졸이하 | 전체 | 326 (100.0) | 309 (100.0) | 299 (100.0) | 282 (100.0) | 264 (100.0) | 199 (100.0) | 174 (100.0) | 182 (100.0) | 165 (100.0) | 151 (100.0) |
| | 농림어업광업 | 0.7 | 1.1 | 1.4 | 0.7 | 0.7 | 0.8 | 1.5 | 0.6 | 0.6 | 0.5 |
| | 제조업 | 38.5 | 33.9 | 31.0 | 29.3 | 26.2 | 25.0 | 25.7 | 25.9 | 26.6 | 24.3 |
|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0.2 | 0.3 | 0.3 | 0.2 | 0.2 | 0.1 | 0.0 | 0.1 | 0.2 | 0.0 |
| | 건설업 | 7.1 | 8.7 | 8.4 | 9.0 | 9.7 | 9.7 | 9.7 | 8.6 | 7.8 | 8.5 |
| | 도소매수리숙박 음식접업 | 31.6 | 35.3 | 36.0 | 35.7 | 36.2 | 37.6 | 36.3 | 40.1 | 41.2 | 41.7 |
| | 운수, 창고 및 통신업 | 5.2 | 5.1 | 5.7 | 5.5 | 6.9 | 5.9 | 4.9 | 5.7 | 5.5 | 5.2 |
| | 금융 및 보험업 | 3.8 | 3.7 | 4.7 | 5.3 | 5.2 | 5.9 | 6.2 | 3.5 | 2.2 | 1.6 |
| |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 3.4 | 3.7 | 4.0 | 5.3 | 5.6 | 3.4 | 2.8 | 2.9 | 2.6 | 4.0 |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1.9 | 1.9 | 2.2 | 2.2 | 1.7 | 1.6 | 1.7 | 1.5 | 0.8 | 0.2 |
| | 교육 서비스업 | 2.6 | 1.4 | 1.6 | 2.2 | 2.0 | 1.7 | 2.5 | 2.0 | 1.1 | 0.7 |
|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1.8 | 2.1 | 2.2 | 2.0 | 2.3 | 3.6 | 3.4 | 2.9 | 3.2 | 4.1 |
| 기타 | 3.3 | 2.8 | 2.5 | 2.7 | 3.4 | 4.7 | 5.3 | 6.1 | 8.2 | 9.2 | |

|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
|------------------|----------------------|---------------|---------------|---------------|---------------|---------------|---------------|---------------|---------------|----------------|----------------|
| 전 문 대 졸 | 전체 | 51 (100.0) | 60 (100.0) | 66 (100.0) | 70 (100.0) | 79 (100.0) | 76 (100.0) | 78 (100.0) | 93 (100.0) | 103 (100.0) | 110 (100.0) |
| | 농림어업광업 | 0.8 | 0.1 | 0.1 | 0.0 | 0.0 | 1.2 | 0.9 | 1.1 | 0.7 | 0.5 |
| | 제조업 | 29.2 | 27.6 | 23.7 | 19.0 | 16.5 | 18.9 | 19.3 | 14.2 | 13.6 | 13.0 |
|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0.3 | 0.7 | 0.3 | 0.1 | 0.0 | 0.0 | 0.0 | 0.0 | 0.0 | 0.0 |
| | 건설업 | 5.6 | 8.7 | 7.9 | 9.9 | 5.8 | 7.2 | 6.9 | 9.1 | 5.6 | 6.0 |
| | 도소매수리숙박 음식접업 | 22.2 | 23.9 | 27.9 | 26.4 | 28.8 | 35.0 | 33.8 | 34.2 | 32.0 | 30.9 |
| | 운수, 창고 및 통신업 | 3.2 | 3.2 | 4.9 | 5.4 | 5.5 | 2.7 | 3.1 | 4.7 | 7.1 | 4.7 |
| | 금융 및 보험업 | 1.7 | 2.8 | 3.6 | 3.6 | 6.2 | 3.7 | 6.3 | 6.3 | 5.4 | 6.1 |
| |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 3.9 | 2.6 | 3.4 | 5.4 | 7.7 | 9.6 | 9.8 | 9.1 | 11.8 | 10.7 |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2.3 | 2.3 | 1.5 | 2.5 | 4.0 | 2.7 | 1.2 | 1.4 | 0.7 | 0.6 |
| | 교육 서비스업 | 12.1 | 12.2 | 14.9 | 16.9 | 14.6 | 10.6 | 8.3 | 9.1 | 8.0 | 8.7 |
|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13.1 | 12.4 | 8.4 | 7.0 | 8.2 | 4.5 | 5.5 | 5.4 | 8.1 | 8.6 |
| 기타 | 5.6 | 3.5 | 3.4 | 3.8 | 2.7 | 4.0 | 4.8 | 5.3 | 7.1 | 10.1 | |
| 대 졸 | 전체 | 68 (100.0) | 84 (100.0) | 87 (100.0) | 85 (100.0) | 83 (100.0) | 92 (100.0) | 91 (100.0) | 89 (100.0) | 87 (100.0) | 107 (100.0) |
| | 농림어업광업 | 0.5 | 0.7 | 0.4 | 0.0 | 0.5 | 0.5 | 0.6 | 0.6 | 0.7 | 0.3 |
| | 제조업 | 17.3 | 13.8 | 15.0 | 13.2 | 13.0 | 14.2 | 12.0 | 8.7 | 7.1 | 8.3 |
|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0.3 | 0.8 | 0.8 | 1.0 | 0.4 | 0.0 | 0.0 | 0.5 | 0.1 | 0.0 |
| | 건설업 | 3.0 | 4.7 | 3.7 | 5.0 | 4.5 | 3.9 | 4.3 | 4.0 | 5.4 | 4.7 |
| | 도소매수리숙박 음식접업 | 21.8 | 23.7 | 23.7 | 26.9 | 27.6 | 21.3 | 28.4 | 29.2 | 26.5 | 30.8 |
| | 운수, 창고 및 통신업 | 4.3 | 4.1 | 3.1 | 3.7 | 2.8 | 3.3 | 2.7 | 1.4 | 2.6 | 1.9 |
| | 금융 및 보험업 | 6.7 | 5.6 | 6.3 | 5.3 | 6.3 | 8.3 | 4.1 | 3.6 | 3.6 | 5.9 |
| |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 3.2 | 3.6 | 4.4 | 3.9 | 5.2 | 7.7 | 8.1 | 10.0 | 9.4 | 9.7 |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8.6 | 8.6 | 8.5 | 8.1 | 6.1 | 4.9 | 7.3 | 5.6 | 4.0 | 2.4 |
| | 교육 서비스업 | 27.5 | 28.3 | 26.4 | 24.1 | 24.1 | 27.2 | 22.8 | 25.8 | 26.6 | 21.8 |
|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2.9 | 3.7 | 4.8 | 5.3 | 5.9 | 4.4 | 3.9 | 4.1 | 4.8 | 5.7 |
| 기타 | 3.8 | 2.5 | 2.9 | 3.4 | 3.6 | 4.4 | 5.8 | 6.6 | 9.2 | 8.3 |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표 3-8> 전략산업의 적용범위(『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관련)

1. 성장유망산업

| 구분 | 적용범위 |
|----------|--|
| 항만물류산업 | 1. 관세법 제5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보세운송업 및 동법 제5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화물운송 주선업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 3.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 화물터미널사업 및 창고업 4.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과 항만구역을 이용하여 물자의 수송·보관·하역·포장·정보·용역에 관한 제반활동으로 재화를 얻는 사업 |
| 관광산업 | 1. 관광진흥법 제3조에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 가. 여행업 나. 관광숙박업 다. 관광객이용시설업 라. 국제회의업 마. 카지노업 바. 유원시설업 사. 관광편의시설업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 가.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나. 해양관광 및 자연생태의 개발사업, 자연생태의 관광자 원화 사업 다.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라. 시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
| 소프트웨어 산업 | 1.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유지보수 및 생산유통과 이와 관련된 정보화 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사업 2. 소프트웨어 개발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
| 금융산업 | 1.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2. 선물거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물시장과 선물거래 등을 영위하는 사업 3.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소와 증권거래 등을 영위하는 사업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신용보증재단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및 신용카드업 6. 보험업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7. 기타 예금·유가증권·선물거래 등에 관한 제반활동을 하는 사업 |
| 영상산업 | 1.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의 영상물에 의한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과 관련한 사업 2. 영상물관련 인력양성, 창업 등의 컨설팅 지원을 위한 사업 |

2. 구조고도화 산업

| 구분 | 적용범위 |
|----------|---|
| 자동차·부품산업 |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자동차·부품 제조업 2. 기타 자동차·부품관련 제조업 |
| 조선·기자재산업 |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조선·기자재 제조업 2. 기타 조선·기자재관련 제조업 |
| 신발산업 |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신발 제조업 2. 신발부품·소재 제조업, 신발관련 디자인 전문업 |
| 섬유·패션산업 |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섬유·패션 제조업 2. 섬유·패션관련 제조업 3. 염색관련 업체 |
| 수산·가공산업 |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산·가공 제조업 2. 기타 수산·가공산업 관련 사업 |

<부표 3-9> 부산 청년층의 부문별 취업자 수 추이

| |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
| | | 370,155 | 391,276 | 374,573 | 354,885 | 303,302 | 314,697 | 310,261 | 294,614 |
| 구조고도화 산업 | 자동차 | 2,134 | 1,819 | 6,750 | 6,795 | 5,459 | 1,407 | 1,275 | 1,280 |
| | 조선 | 1,118 | 1,433 | 2,335 | 2,322 | 2,208 | 2,129 | 1,399 | 1,620 |
| | 신발 | 10,958 | 7,241 | 5,725 | 3,428 | 3,255 | 124 | 230 | 140 |
| | 섬유 | 39,161 | 36,185 | 26,883 | 26,532 | 21,871 | 13,854 | 19,705 | 17,081 |
| | 수산가공 | 2,715 | 2,956 | 630 | 414 | 364 | 761 | 610 | 776 |
| | 소계 | 56,085 | 49,634 | 42,323 | 39,491 | 33,157 | 18,274 | 23,218 | 20,898 |
| 성장유망 서비스산업 | 영화 | 183 | 161 | 131 | 150 | 41 | 112 | 73 | 110 |
| | 관광 | 2,246 | 4,044 | 5,211 | 6,900 | 5,435 | 13,055 | 14,043 | 11,381 |
| | 소프트 | 253 | 367 | 381 | 456 | 469 | 321 | 454 | 501 |
| | 항만물류 | 9,985 | 12,598 | 12,824 | 10,169 | 8,665 | 12,313 | 11,736 | 11,372 |
| | 금융 | 19,275 | 22,121 | 25,097 | 22,343 | 16,839 | 15,259 | 13,785 | 12,995 |
| | 소계 | 31,943 | 39,291 | 43,644 | 40,018 | 31,449 | 41,061 | 40,091 | 36,359 |
| 정보통신 산업 | IT산업 | 3,933 | 5,289 | 6,407 | 6,088 | 5,683 | 6,646 | 7,734 | 6,098 |
| | IT제조업 | 3,018 | 3,068 | 3,106 | 2,306 | 1,935 | 2,968 | 2,128 | 3,018 |
| | IT서비스 | 604 | 1,160 | 3,007 | 3,820 | 3,527 | 3,821 | 5,959 | 1,544 |
| 기피업종 | 3D산업 | 85,296 | 83,875 | 66,394 | 62,463 | 45,710 | 35,559 | 35,093 | 33,773 |
| 규모별 근로자수 | 1-30 | 192,005 | 231,879 | 213,225 | 191,055 | 192,401 | 203,839 | 207,346 | 211,322 |
| | 30-1 | 67,496 | 61,323 | 58,490 | 55,861 | 47,684 | 45,380 | 43,427 | 45,127 |
| | 100- | 52,306 | 54,289 | 50,959 | 47,156 | 38,642 | 38,734 | 42,873 | 34,492 |
| | 500- | 35,187 | 35,807 | 36,327 | 35,454 | 27,692 | 28,208 | 14,234 | 25,974 |

<부표 3-10> 전국 청년층의 부문별 취업자 수 추이

| |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
| | | 4,648,742 | 4,970,668 | 5,207,228 | 4,712,431 | 3,966,022 | 4,094,597 | 4,133,164 | 4,041,933 |
| 구조고도화 산업 | 자동차 | 97,392 | 101,955 | 120,830 | 90,522 | 66,312 | 68,226 | 71,789 | 57,115 |
| | 조선 | 12,982 | 14,144 | 20,638 | 17,929 | 13,163 | 24,872 | 22,585 | 24,087 |
| | 신발 | 22,337 | 20,253 | 12,514 | 8,671 | 7,743 | 2,377 | 2,236 | 1,706 |
| | 섬유 | 361,582 | 332,004 | 285,817 | 225,751 | 190,439 | 178,877 | 173,227 | 159,924 |
| | 수산가공 | 11,020 | 11,767 | 7,017 | 6,104 | 5,267 | 9,904 | 7,335 | 7,472 |
| | 소계 | 505,314 | 480,122 | 446,817 | 348,977 | 282,924 | 284,255 | 277,172 | 250,305 |
| 성장유망 서비스산업 | 영화 | 5,926 | 6,317 | 5,132 | 6,056 | 5,140 | 5,326 | 3,340 | 4,426 |
| | 관광 | 55,927 | 64,150 | 110,527 | 107,779 | 97,073 | 109,237 | 115,664 | 109,042 |
| | 소프트 | 13,042 | 17,586 | 24,877 | 30,636 | 26,111 | 31,589 | 55,749 | 54,924 |
| | 항만물류 | 41,210 | 47,244 | 43,944 | 38,442 | 33,980 | 44,664 | 45,057 | 50,919 |
| | 금융 | 247,712 | 275,396 | 309,777 | 266,340 | 210,866 | 188,560 | 183,228 | 196,834 |
| | 소계 | 363,817 | 410,693 | 494,256 | 449,253 | 373,170 | 379,376 | 403,038 | 416,146 |
| 정보통신 산업 | IT산업 | 188,387 | 217,720 | 244,732 | 213,564 | 213,613 | 218,372 | 256,413 | 242,277 |
| | IT제조업 | 158,164 | 175,825 | 185,300 | 150,065 | 159,090 | 151,464 | 163,166 | 151,705 |
| | IT서비스 | 24,960 | 31,501 | 55,993 | 60,802 | 51,659 | 54,239 | 72,700 | 70,125 |
| 기피업종 | 3D산업 | 845,030 | 821,302 | 720,997 | 595,197 | 472,107 | 480,036 | 427,859 | 416,600 |
| 규모별 근로자수 | 1-30 | 2,638,718 | 2,769,315 | 2,708,740 | 2,513,353 | 2,285,638 | 2,491,392 | 2,558,943 | 2,457,054 |
| | 30-1 | 684,706 | 730,465 | 712,360 | 661,840 | 563,044 | 600,195 | 657,846 | 645,643 |
| | 100- | 684,818 | 718,885 | 736,621 | 670,525 | 551,338 | 546,507 | 547,594 | 542,617 |
| | 500- | 684,102 | 725,921 | 822,767 | 644,123 | 515,953 | 450,080 | 365,280 | 408,630 |

<부표 3-11> 부산 전연령층의 부문별 취업자 수 추이

| |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
| | | 1,113,956 | 1,152,092 | 1,137,990 | 1,095,718 | 1,010,827 | 1,045,176 | 1,049,241 | 1,117,981 |
| 구조고도화 산업 | 자동차 | 10,124 | 10,844 | 13,869 | 14,069 | 12,254 | 11,758 | 11,623 | 11,960 |
| | 조선 | 6,140 | 6,519 | 7,731 | 6,670 | 7,463 | 7,195 | 4,728 | 5,475 |
| | 신발 | 44,813 | 35,226 | 28,117 | 20,950 | 20,098 | 923 | 1,142 | 859 |
| | 섬유 | 66,162 | 60,294 | 52,829 | 49,853 | 45,441 | 47,307 | 45,232 | 46,374 |
| | 수산가공 | 5,227 | 5,323 | 5,100 | 4,968 | 4,312 | 6,229 | 5,599 | 7,598 |
| | 소계 | 132,466 | 118,206 | 107,646 | 96,510 | 89,568 | 73,412 | 68,324 | 72,266 |
| 성장유망 서비스산업 | 영화 | 809 | 679 | 708 | 690 | 628 | 803 | 532 | 902 |
| | 관광 | 17,707 | 18,823 | 18,379 | 18,550 | 18,297 | 24,880 | 27,423 | 27,031 |
| | 소프트 | 908 | 1,242 | 1,512 | 1,935 | 1,925 | 2,337 | 3,343 | 4,194 |
| | 항만물류 | 25,681 | 31,484 | 31,504 | 26,185 | 26,097 | 29,767 | 31,822 | 33,507 |
| | 금융 | 58,007 | 65,133 | 76,246 | 68,984 | 56,121 | 50,679 | 46,619 | 49,312 |
| | 소계 | 103,112 | 117,361 | 128,349 | 116,344 | 103,068 | 108,466 | 109,739 | 114,946 |
| 정보통신 산업 | IT산업 | 14,927 | 15,229 | 16,343 | 15,693 | 14,261 | 16,553 | 16,841 | 22,915 |
| | IT제조업 | 6,045 | 6,745 | 6,754 | 6,092 | 4,538 | 5,386 | 5,333 | 7,948 |
| | IT서비스 | 8,882 | 8,484 | 9,589 | 9,601 | 9,723 | 11,167 | 11,508 | 14,967 |
| 기피업종 | 3D산업 | 201,314 | 183,740 | 164,652 | 149,191 | 111,191 | 95,051 | 96,442 | 101,813 |
| 규모별 근로자수 | 1-30 | 648,845 | 689,369 | 689,164 | 672,512 | 629,177 | 661,804 | 687,323 | 712,487 |
| | 30-1 | 194,172 | 193,710 | 186,585 | 172,218 | 164,732 | 167,838 | 170,196 | 178,609 |
| | 100- | 178,746 | 177,138 | 161,065 | 153,617 | 140,563 | 140,733 | 138,836 | 152,098 |
| | 500- | 92,193 | 91,875 | 101,176 | 97,371 | 76,355 | 74,801 | 52,886 | 74,787 |

<부표 3-12> 설문조사에서 파악된 비정규직 활용 실태

| | 비정규직비율 10%이상 | 비정규직비율 10%이하 | 전체 |
|--------|-----------------|-----------------|------------|
| 광공업 | 66(30.4) | 151(69.6) | 217(100.0) |
| 건설업 | 21(56.8) | 16(43.2) | 37(100.0) |
| 사업서비스업 | 31(33.0) | 63(67.0) | 94(100.0) |
| 개인서비스업 | 50(31.9) | 107(68.2) | 157(100.0) |
| 사회서비스업 | 14(25.5) | 41(74.6) | 55(100.0) |
| 전체 | 182(32.5) | 378(67.5) | 560(100.0) |

| | 비정규직비율 10%이상 | 비정규직비율 10%이하 | 전체 |
|------------|-----------------|-----------------|------------|
| 200인 미만사업장 | 172(33.4) | 343(66.6) | 515(100.0) |
| 200인이상사업장 | 9(22.0) | 32(78.1) | 41(100.0) |
| 전체 | 181(32.6) | 375(67.5) | 556(100.0) |

| | 비정규직비율 10%이상 | 비정규직비율 10%이하 | 전체 |
|-------------|-----------------|-----------------|------------|
| 시장점유율 30%이하 | 41(26.6) | 113(73.4) | 154(100.0) |
| 시장점유율 30%이상 | 37(37.0) | 63(63.0) | 100(100.0) |
| 전체 | 78(30.7) | 176(69.3) | 254(100.0) |

| | 비정규직비율 10%이상 | 비정규직비율 10%이하 | 전체 |
|------|-----------------|-----------------|------------|
| 협력업체 | 59(38.8) | 93(61.2) | 152(100.0) |
| 모기업 | 20(37.0) | 34(63.0) | 54(100.0) |
| 해당없음 | 97(28.6) | 242(71.4) | 339(100.0) |
| 전체 | 176(32.3) | 369(67.7) | 545(100.0) |

| (전연령층) | 기간제 계약직 | 파견용역 | 시간제 파트타임 | 기타 | 전체 |
|--------|------------|----------|-------------|----------|------------|
| 광공업 | 51(38.6) | 12(9.1) | 50(37.9) | 19(14.4) | 132(100.0) |
| 건설업 | 10(43.5) | 10(43.5) | 2(8.7) | 1(4.4) | 23(100.0) |
| 사업서비스업 | 23(45.1) | 7(13.7) | 15(29.4) | 6(11.8) | 51(100.0) |
| 개인서비스업 | 29(31.9) | 17(18.7) | 28(30.8) | 17(18.7) | 91(100.0) |
| 사회서비스업 | 24(58.5) | 6(14.6) | 7(17.1) | 4(9.8) | 41(100.0) |
| 전체 | 137(40.5) | 52(15.4) | 102(30.2) | 47(13.9) | 338(100.0) |

| (청년층) | 기간제 계약직 | 파견용역 | 시간제 파트타임 | 기타 | 전체 |
|--------|------------|----------|-------------|----------|------------|
| 광공업 | 35(34.0) | 9(8.7) | 33(32.0) | 26(25.2) | 103(100.0) |
| 건설업 | 9(37.5) | 8(33.3) | 5(20.8) | 2(8.3) | 24(100.0) |
| 사업서비스업 | 26(55.3) | 3(6.4) | 9(19.2) | 9(19.2) | 47(100.0) |
| 개인서비스업 | 24(33.3) | 8(11.1) | 21(29.2) | 19(26.4) | 72(100.0) |
| 사회서비스업 | 21(61.8) | 3(8.8) | 6(17.7) | 4(11.8) | 34(100.0) |
| 전체 | 115(41.1) | 31(11.1) | 74(26.4) | 60(21.4) | 280(100.0) |

1단계: 산업별 취업구조의 전망

중장기 노동수요의 전망은 ① 산업별 취업자 전망, ② 산업·직종별 취업구조의 전망, ③ 직종별 취업자 전망의 세 단계로 구성된다. 첫 단계의 산업별 취업자 수의 전망은 산업별 중장기 성장전망을 토대로 필요한 취업자의 수를 계산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이론적 근거와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국내총생산은

$$Y(t) = F(L(t); K(t), A(t), \dots)$$

으로 표현되며, 여기서 $Y(t)$ 는 시점 t 에서의 국내총생산, F 는 생산요소를 이용하여 재화 및 서비스를 만드는 기술을 의미하는 생산함수, $L(t)$ 는 (필요로 하는) 취업 또는 고용, $K(t)$ 는 자본의 저장(capital stock), $A(t)$ 는 기술수준과 생산의 효율성을 반영하는 총요소생산성, 그리고 그외 고려되지 않은 요인들이 포함된다. (이후에서는 논의에 혼돈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 시점을 의미하는 $\bullet(t)$ 는 생략하기로 한다.)

일정 시점에 자본저량과 요소생산성이 일정할 때, 주어진 생산함수가 필요한 가정을 따를 경우 최적화의 해로 나타나는 최적의 고용량과 자본집약도(=초적점에서의 자본과 노동의 배합비율)는 k 가 결정된다. 생산함수가 1차동차(homogeneous of degree one)일 경우 자본집약도는 취업계수

$$\alpha = L/Y$$

와 1대1 대응관계를 갖게 된다. 즉 취업계수는 일정량의 생산에 필요한 최적의 고용으로 정의되며 당시의 기술수준을 총체적으로 반영하는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별 취업자의 전망은 산업별 취업계수의 전망과 산업별 성장전망을 필요로 한다. 산업별 성장 전망은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다부문모형에 의존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다부문모형에 따른 공식적인 산업별 성장 전망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국내총생산(GDP)의 과거 추세를 이용한 전망치를 얻을 수밖에 없었다.

전망의 대상이 되는 각 시점에서의 i 산업의 산업부문별 전망치는

$$Y^* = g(Y_{i(t-s)}; s=1, \dots, S)$$

로 표현되며, 추정되어진 전망치에는 모든 시점 t 에 대하여

$$Y_{t*} = \sum_i Y$$

의 제약을 만족시켜야 한다.

또한 전망의 대상이 되는 각 시점에서의 산업별 취업계수의 전망치는

$$a_{it*} = g(a_{i(t-s)}; s=1, \dots, S)$$

로 표현되는데, 과거자료를 이용하여 이를 추정한 후 이를 미래로 연장함으로써 취업계수의 전망치를 얻게 된다. 산업별 성장전망과 취업계수의 전망치로부터 산업별 취업자는

$$L_{it*} = a_{it*} Y_{t*}$$

로부터 도출되며, 이때 모든 시점에서

$$L_{t*} = \sum_i L_{it*}$$

의 제약을 만족하여야 한다.

2단계: 산업·직종별 취업구조의 전망

산업·직종별 취업구조의 전망은 소위 산업직종취업행렬(industry-occupation employment matrix)

$$B = (\beta_{ij})$$

을 추정한 후 이의 전망치를 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β_{ij} 는 취업행렬의 각 요소의 값으로 i번째 산업의 j번째 직종의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 중 차지하는 비중을 표현한다. 따라

서, $\sum_i \sum_j \beta_{ij} = 1$ 이 된다. 그러나, 이를 각 산업의 직종별 취업구조

$$\beta'_{ij} = L_{ij} / L_i$$

로 해석한다면, 모든 산업 i에 대해,

$$\sum_j \beta'_{ij} = 1, \quad L_i = \sum_j \beta'_{ij} L_{ij}$$

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는 다시 말하면 각 산업의 직종별 취업구조를 추정하고

이의 전망치를 산업별 취업자 전망치에 곱하여 산업·직종별 취업자 수의 전망치 L_{ij}^* 를 얻게 된다는 의미이다.

3단계: 직종별 취업구조의 전망

마지막 셋째 단계는 두번째 단계에서 얻어진 산업·직종별 취업자 수의 전망치로부터 직종별 취업자의 전망치를 계산하는 가장 단순한 과정이다. 즉, 각 직종 j에 대하여

$$L_j^* = \sum_i L_{ij}^*$$

를 얻게 된다.

[부록 3-3) 부산지역 청년층의 임금 현황]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부산지역청년층의 임금 수준을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2001년의 경우 부산 지역의 전체 청년 근로자의 평균임금 수준은 142만5천원으로(<부표 5> 참조) 전국 평균의 85.5% 수준이다. 시간당임금으로 볼 경우에도, 부산지역 청년층의 평균시간당임금이 6천1백원 정도로 전국 평균의 85.5% 수준이다. 남녀별로 볼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약간 높아서 88.1% 수준이고 여성이 82.6% 수준이다. 학력별로 볼 경우, 학력 수준이 낮을 수록 부산지역 청년근로자의 상대임금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졸 이상의 경우 96% 수준이지만, 고졸이하의 경우에는 86.2% 수준이다. 특히, 대졸자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는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었지만, 외환위기 이후 전국평균을 하회하고 있다. 한편, 업종별로 볼 경우, 운수창고업종이나 교육서비스업 등이 전국평균 대비 부산지역의 상대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최근 들어 고용이 늘어나고 있는 교육서비스업의 임금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반면 고용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사업서비스업의 임금수준이 전국평균의 60-7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즉, 부산 지역의 경우 사업서비스업의 업종구조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직종별로 볼 경우, 전문직이나 관리직, 사무직 등이 전체 평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수준을 보이는 반면, 기능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시간당임금으로 보아도 거의 비슷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표 3-13> 부산 지역 청년층의 전국 청년층 대비 평균 임금의 비중추이

(단위: %)

| |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
| | 전국 | 91.9 | 93.8 | 92.8 | 91.0 | 89.7 | 90.6 | 89.6 | 90.3 | 85.5 |
| 남녀별 | 남 | 95.3 | 95.8 | 93.1 | 94.1 | 91.2 | 93.3 | 94.1 | 93.4 | 88.1 |
| | 여 | 91.7 | 91.8 | 90.1 | 90.0 | 90.5 | 88.7 | 87.0 | 85.3 | 82.6 |
| 학력별 | 고졸이하 | 95.4 | 96.1 | 96.0 | 91.6 | 88.8 | 88.6 | 91.2 | 93.5 | 86.2 |
| | 대졸 | 96.9 | 96.2 | 94.5 | 93.3 | 95.1 | 96.4 | 92.5 | 95.5 | 92.4 |
| | 대졸이상 | 105.6 | 108.2 | 102.1 | 99.1 | 100.3 | 102.9 | 98.9 | 96.6 | 96.0 |
| 산업별 | 농림어업광업 | . | . | . | 125.9 | . | . | 109.7 | 111.8 | 119.7 |
| | 제조업 | 85.4 | 86.8 | 90.2 | 87.1 | 82.6 | 81.1 | 78.6 | 81.1 | 73.7 |
|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 | . | . | 97.1 | 97.6 | 98.8 | 84.8 | 79.6 | 94.7 |
| | 건설업 | 89.8 | 92.8 | 94.5 | 89.6 | 95.2 | 100.4 | 92.0 | 95.6 | 87.6 |
| | 도소매수리숙박 음식접업 | 92.8 | 98.0 | 101.2 | 90.0 | 92.4 | 93.1 | 91.6 | 83.5 | 95.1 |
| | 운수, 창고 및 통신업 | 106.3 | 101.9 | 95.8 | 106.3 | 105.3 | 102.2 | 116.8 | 128.7 | 113.7 |
| | 금융 및 보험업 | 112.4 | 114.7 | 115.8 | 92.8 | 101.3 | 100.0 | 82.0 | 99.3 | 82.7 |
| | 사업서비스업 | 89.7 | 84.2 | 77.2 | 73.8 | 74.6 | 81.3 | 72.6 | 59.2 | 60.5 |
| | 교육 서비스업 | 114.0 | 123.0 | 110.0 | 109.1 | 104.3 | 109.0 | 114.9 | 114.0 | 121.2 |
|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121.5 | 117.8 | 117.7 | 97.8 | 98.7 | 101.5 | 99.3 | 102.5 | 98.8 |
| | 기타 | 139.0 | 105.8 | 108.6 | 106.8 | 81.6 | 78.8 | 81.0 | 108.8 | 69.7 |
| 직종별 | 관리자 | 101.7 | 93.0 | 95.0 | 89.3 | 96.5 | 104.2 | 92.0 | 88.0 | 87.7 |
| | 전문가 | 112.3 | 114.3 | 103.0 | 96.7 | 99.4 | 103.4 | 114.2 | 109.2 | 103.6 |
| | 준전문가 | 89.8 | 97.7 | 105.5 | 97.5 | 96.6 | 99.7 | 92.8 | 92.5 | 88.9 |
| | 사무직 | 98.9 | 98.2 | 91.0 | 96.2 | 99.9 | 96.7 | 88.4 | 91.5 | 91.1 |
| | 서비스판매직 | 99.9 | 110.9 | 105.8 | 87.5 | 91.3 | 91.1 | 92.2 | 108.0 | - |
| | 농림업 | 86.2 | 70.2 | 87.8 | 121.1 | 76.0 | 80.1 | 123.6 | 98.8 | |
| | 기능원 | 90.2 | 89.2 | 85.1 | 90.6 | 82.3 | 81.2 | 74.4 | 73.8 | 74.3 |
| | 조립원 | 95.8 | 94.7 | 102.9 | 95.7 | 91.7 | 94.1 | 101.7 | 104.1 | 92.5 |
| | 단순직 | 106.1 | 103.4 | 100.9 | 96.9 | 88.1 | 87.4 | 100.1 | 87.9 | 91.2 |

자료: 노동부, 『임금구조기본조사』

<부표 3-14> 부산지역 청년층의 전국 대비 시간당 임금의 비증추이

(단위: 천원)

| |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
| 전국 | | 94.3 | 95.4 | 92.5 | 92.6 | 90.9 | 90.6 | 90.7 | 89.3 | 86.0 |
| 남녀별 | 남 | 97.9 | 97.7 | 92.8 | 95.6 | 92.6 | 93.3 | 95.1 | 92.5 | 88.9 |
| | 여 | 93.0 | 91.9 | 89.7 | 91.4 | 90.8 | 88.7 | 88.2 | 83.7 | 81.8 |
| 학력별 | 고졸이하 | 97.2 | 97.4 | 95.2 | 92.9 | 91.0 | 88.5 | 91.8 | 92.2 | 87.0 |
| | 대졸 | 99.8 | 96.8 | 93.1 | 94.4 | 93.2 | 93.0 | 94.5 | 94.4 | 94.2 |
| | 대졸이상 | 108.7 | 110.3 | 101.9 | 101.0 | 99.9 | 103.9 | 99.7 | 95.6 | 95.8 |
| 산업별 | 농림어업광업 | . | . | . | 108.6 | . | 0.0 | 110.6 | 108.8 | 112.9 |
| | 제조업 | 90.2 | 90.7 | 90.9 | 91.0 | 88.2 | 84.9 | 81.6 | 83.5 | 77.9 |
|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 | . | . | 96.2 | 98.6 | 101.5 | 74.7 | 76.7 | 100.6 |
| | 건설업 | 102.8 | 102.6 | 102.1 | 94.9 | 96.7 | 96.3 | 96.5 | 102.2 | 94.0 |
| | 도소매수리숙박 음식접업 | 96.6 | 99.1 | 100.4 | 87.4 | 90.6 | 91.9 | 96.2 | 84.9 | 92.1 |
| | 운수, 창고 및 통신업 | 100.5 | 96.9 | 90.0 | 101.6 | 95.0 | 94.3 | 105.5 | 108.3 | 100.7 |
| | 금융 및 보험업 | 110.4 | 111.0 | 115.2 | 94.9 | 99.5 | 102.3 | 89.9 | 102.0 | 94.1 |
| |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 93.4 | 89.0 | 80.7 | 80.9 | 85.4 | 89.5 | 73.1 | 67.6 | 63.1 |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 | . | . | . | . | . | . | . | . |
| | 교육 서비스업 | 113.2 | 124.4 | 109.7 | 107.0 | 99.5 | 108.1 | 108.6 | 108.7 | 117.2 |
|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118.8 | 116.2 | 113.7 | 100.2 | 100.2 | 98.8 | 99.6 | 97.7 | 93.9 |
| | 기타 | 120.8 | 95.3 | 102.5 | 104.7 | 88.6 | 86.2 | 80.0 | 99.0 | 68.6 |
| | 직종별 | 관리자 | 103.4 | 95.9 | 94.5 | 91.3 | 96.7 | 104.5 | 94.7 | 88.4 |
| 전문가 | | 113.4 | 116.3 | 103.7 | 99.5 | 100.7 | 103.4 | 111.5 | 105.1 | 102.5 |
| 준전문가 | | 94.2 | 98.7 | 104.8 | 99.6 | 96.9 | 102.4 | 95.9 | 94.8 | 91.8 |
| 사무직 | | 100.3 | 99.5 | 91.7 | 98.2 | 98.8 | 95.4 | 90.2 | 89.5 | 90.8 |
| 서비스판매직 | | 100.9 | 105.1 | 99.6 | 88.3 | 93.3 | 94.2 | 96.4 | 103.2 | |
| 농림업 | | 89.6 | 71.7 | 96.8 | 116.6 | 88.9 | 87.3 | 113.0 | 98.6 | |
| 기능원 | | 95.5 | 93.7 | 85.6 | 92.3 | 87.2 | 84.1 | 78.1 | 76.6 | 75.9 |
| 조립원 | | 96.2 | 95.0 | 101.3 | 95.2 | 93.1 | 90.7 | 98.1 | 98.3 | 91.6 |
| 단순직 | | 104.9 | 96.8 | 92.8 | 93.9 | 87.8 | 86.5 | 97.0 | 89.3 | 94.9 |

자료: 노동부, 『임금구조기본조사』

<부표 3-15> 전국청년층의 평균 임금

(단위: 천원)

| |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
| | 전국 | 862 | 944 | 1,081 | 1,234 | 1,353 | 1,392 | 1,418 | 1,531 | 1,667 |
| 남녀별 | 남 | 992 | 1,076 | 1,227 | 1,388 | 1,510 | 1,548 | 1,581 | 1,713 | 1,858 |
| | 여 | 547 | 616 | 723 | 838 | 938 | 970 | 1,019 | 1,103 | 1,209 |
| 학력별 | 고졸이하 | 735 | 814 | 919 | 1,039 | 1,136 | 1,152 | 1,151 | 1,246 | 1,352 |
| | 대졸 | 902 | 979 | 1,112 | 1,244 | 1,346 | 1,356 | 1,356 | 1,446 | 1,566 |
| | 대졸이상 | 1,377 | 1,474 | 1,666 | 1,873 | 2,032 | 2,059 | 2,117 | 2,307 | 2,464 |
| 산업별 | 농림어업광업 | 893 | 956 | 1,050 | 1,231 | 1,371 | 1,426 | 1,482 | 1,517 | 1,672 |
| | 제조업 | 773 | 850 | 976 | 1,114 | 1,226 | 1,247 | 1,238 | 1,335 | 1,464 |
|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1,175 | 1,251 | 1,278 | 1,535 | 1,677 | 1,735 | 1,897 | 2,019 | 2,239 |
| | 건설업 | 1,065 | 1,169 | 1,299 | 1,401 | 1,578 | 1,528 | 1,517 | 1,647 | 1,856 |
| | 도소매수리숙박 음식접업 | 834 | 908 | 1,045 | 1,209 | 1,319 | 1,346 | 1,345 | 1,444 | 1,567 |
| | 운수, 창고 및 통신업 | 765 | 850 | 965 | 1,126 | 1,199 | 1,240 | 1,326 | 1,520 | 1,651 |
| | 금융 및 보험업 | 1,278 | 1,384 | 1,618 | 1,785 | 1,916 | 1,948 | 1,950 | 2,214 | 2,467 |
| |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 802 | 856 | 1,012 | 1,132 | 1,252 | 1,301 | 1,360 | 1,453 | 1,645 |
| | 교육 서비스업 | 1,432 | 1,577 | 1,757 | 2,016 | 2,137 | 2,259 | 2,289 | 2,144 | 2,278 |
|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886 | 961 | 1,040 | 1,234 | 1,331 | 1,409 | 1,473 | 1,755 | 1,839 |
| | 기타 | 1,174 | 1,186 | 1,317 | 1,487 | 1,669 | 1,691 | 1,656 | 1,665 | 1,834 |
| | 직종별 | 관리자 | 1,827 | 1,932 | 2,217 | 2,587 | 2,757 | 2,682 | 2,651 | 3,032 |
| 전문가 | | 1,276 | 1,421 | 1,597 | 1,796 | 1,952 | 2,023 | 2,200 | 2,335 | 3,213 |
| 준전문가 | | 1,153 | 1,160 | 1,326 | 1,531 | 1,658 | 1,702 | 1,677 | 1,865 | 2,524 |
| 사무직 | | 899 | 983 | 1,123 | 1,270 | 1,341 | 1,368 | 1,374 | 1,477 | 2,052 |
| 서비스판매직 | | 653 | 718 | 849 | 952 | 1,018 | 1,030 | 1,010 | 1,120 | 1,517 |
| 농림업 | | 697 | 821 | 920 | 1,179 | 1,522 | 1,569 | 1,178 | 1,303 | 1,382 |
| 기능원 | | 682 | 797 | 879 | 1,037 | 1,158 | 1,181 | 1,172 | 1,285 | 1,386 |
| 조립원 | | 688 | 753 | 865 | 962 | 1,032 | 1,045 | 1,060 | 1,140 | 1,264 |
| 단순직 | | 558 | 615 | 686 | 737 | 803 | 793 | 813 | 840 | 858 |

자료: 노동부, 『임금구조기본조사』

<부표 3-16>부산청년층의 평균 임금

(단위: 천원)

| |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
| 전국 | | 792 | 886 | 1,004 | 1,123 | 1,213 | 1,261 | 1,272 | 1,382 | 1,425 |
| 남녀별 | 남 | 946 | 1,031 | 1,142 | 1,306 | 1,377 | 1,444 | 1,489 | 1,600 | 1,636 |
| | 여 | 502 | 565 | 651 | 754 | 848 | 860 | 887 | 940 | 999 |
| 학력별 | 고졸이하 | 702 | 782 | 883 | 952 | 1,009 | 1,021 | 1,050 | 1,165 | 1,166 |
| | 대졸 | 874 | 941 | 1,050 | 1,160 | 1,280 | 1,308 | 1,255 | 1,382 | 1,446 |
| | 대졸이상 | 1,455 | 1,595 | 1,701 | 1,857 | 2,039 | 2,119 | 2,094 | 2,228 | 2,365 |
| 산업별 | 농림어업광업 | . | . | . | 1,551 | . | . | 1,625 | 1,696 | 2,002 |
| | 제조업 | 661 | 738 | 880 | 970 | 1,013 | 1,011 | 973 | 1,083 | 1,079 |
|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 | . | . | 1,490 | 1,638 | 1,714 | 1,608 | 1,607 | 2,121 |
| | 건설업 | 956 | 1,085 | 1,228 | 1,255 | 1,502 | 1,534 | 1,395 | 1,574 | 1,626 |
| | 도소매수리숙박 음식접업 | 774 | 890 | 1,057 | 1,088 | 1,219 | 1,253 | 1,233 | 1,206 | 1,489 |
| | 운수, 창고 및 통신업 | 813 | 866 | 924 | 1,197 | 1,262 | 1,268 | 1,549 | 1,956 | 1,878 |
| | 금융 및 보험업 | 1,436 | 1,588 | 1,874 | 1,656 | 1,941 | 1,948 | 1,598 | 2,197 | 2,040 |
| |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 720 | 721 | 782 | 835 | 934 | 1,058 | 987 | 860 | 996 |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 | . | . | . | . | . | . | . | . |
| | 교육 서비스업 | 1,632 | 1,939 | 1,934 | 2,199 | 2,230 | 2,462 | 2,631 | 2,445 | 2,762 |
|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1,076 | 1,132 | 1,224 | 1,207 | 1,314 | 1,430 | 1,462 | 1,798 | 1,817 |
| | 기타 | 1,632 | 1,256 | 1,430 | 1,588 | 1,361 | 1,332 | 1,341 | 1,811 | 1,278 |
| | 직종별 | 관리자 | 1,859 | 1,796 | 2,107 | 2,310 | 2,662 | 2,795 | 2,440 | 2,669 |
| 전문가 | | 1,432 | 1,624 | 1,645 | 1,738 | 1,940 | 2,092 | 2,514 | 2,550 | 2,817 |
| 준전문가 | | 1,036 | 1,134 | 1,399 | 1,493 | 1,602 | 1,697 | 1,557 | 1,726 | 2,614 |
| 사무직 | | 889 | 965 | 1,022 | 1,222 | 1,340 | 1,323 | 1,214 | 1,352 | 1,824 |
| 서비스판매직 | | 652 | 796 | 898 | 833 | 930 | 938 | 932 | 1,209 | 1,383 |
| 농림업 | | 601 | 576 | 807 | 1,427 | 1,157 | 1,257 | 1,455 | 1,287 | 2,310 |
| 기능원 | | 615 | 711 | 747 | 939 | 952 | 959 | 871 | 948 | 1,030 |
| 조립원 | | 659 | 713 | 889 | 921 | 946 | 984 | 1,077 | 1,187 | 1,170 |
| 단순직 | | 592 | 636 | 693 | 714 | 707 | 692 | 814 | 738 | 782 |

자료: 노동부, 『임금구조기본조사』

<부표 3-17> 전국청년층 의 시간당 임금

(단위: 천원)

| |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
| | 전국 | 3.5 | 3.9 | 4.4 | 5.3 | 5.7 | 5.8 | 5.9 | 6.6 | 7.0 |
| 남녀별 | 남 | 4.0 | 4.4 | 5.0 | 5.9 | 6.3 | 6.4 | 6.6 | 7.3 | 7.8 |
| | 여 | 2.3 | 2.6 | 3.0 | 3.6 | 4.0 | 4.1 | 4.3 | 4.9 | 5.3 |
| 학력별 | 고졸이하 | 3.0 | 3.4 | 3.8 | 4.5 | 4.9 | 4.9 | 4.9 | 5.4 | 5.7 |
| | 대졸 | 3.7 | 4.1 | 4.6 | 5.4 | 5.7 | 5.6 | 5.6 | 6.3 | 6.7 |
| | 대졸이상 | 5.4 | 5.9 | 6.6 | 7.8 | 8.3 | 8.3 | 8.7 | 9.8 | 10.5 |
| 산업별 | 농림어업광업 | 4.3 | 4.6 | 5.0 | 6.1 | 6.8 | 6.9 | 6.1 | 6.7 | 7.3 |
| | 제조업 | 3.1 | 3.4 | 3.9 | 4.6 | 5.0 | 5.1 | 5.2 | 5.7 | 6.1 |
|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4.6 | 4.9 | 4.9 | 6.2 | 6.3 | 6.4 | 7.6 | 8.1 | 9.0 |
| | 건설업 | 4.5 | 5.0 | 5.5 | 6.2 | 7.1 | 6.7 | 6.8 | 7.6 | 8.3 |
| | 도소매수리숙박 음식접업 | 3.5 | 3.8 | 4.3 | 5.4 | 5.8 | 5.7 | 5.8 | 6.5 | 6.9 |
| | 운수, 창고 및 통신업 | 3.3 | 3.7 | 4.2 | 5.1 | 5.3 | 5.4 | 5.9 | 6.6 | 7.1 |
| | 금융 및 보험업 | 4.7 | 5.2 | 6.0 | 6.7 | 7.1 | 7.2 | 7.5 | 8.5 | 9.3 |
| |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 3.5 | 3.8 | 4.7 | 5.3 | 5.9 | 5.9 | 6.0 | 7.0 | 7.1 |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 | . | . | . | . | . | . | . | . |
| | 교육 서비스업 | 6.1 | 6.7 | 7.3 | 8.5 | 8.8 | 8.9 | 9.1 | 9.1 | 10.0 |
|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3.7 | 4.1 | 4.4 | 5.4 | 5.7 | 5.8 | 6.1 | 7.7 | 8.2 |
| | 기타 | 4.8 | 4.7 | 5.3 | 6.2 | 6.9 | 7.0 | 6.6 | 7.1 | 7.6 |
| | 직종별 | 관리자 | 7.4 | 8.0 | 9.0 | 11.1 | 11.7 | 11.3 | 11.4 | 13.2 |
| 전문가 | | 5.2 | 5.8 | 6.4 | 7.6 | 8.0 | 8.1 | 9.0 | 10.1 | 14.1 |
| 준전문가 | | 4.5 | 4.6 | 5.3 | 6.3 | 6.8 | 6.9 | 6.9 | 7.8 | 11.0 |
| 사무직 | | 3.5 | 3.9 | 4.5 | 5.3 | 5.5 | 5.5 | 5.6 | 6.2 | 8.6 |
| 서비스판매직 | | 2.8 | 3.1 | 3.6 | 4.2 | 4.4 | 4.3 | 4.3 | 5.0 | 6.4 |
| 농림업 | | 3.1 | 3.5 | 3.9 | 4.7 | 5.8 | 6.2 | 5.0 | 5.7 | 5.9 |
| 기능원 | | 2.8 | 3.3 | 3.6 | 4.5 | 4.9 | 5.0 | 4.9 | 5.5 | 5.8 |
| 조립원 | | 2.9 | 3.2 | 3.6 | 4.2 | 4.4 | 4.5 | 4.7 | 4.9 | 5.2 |
| 단순직 | | 2.6 | 2.8 | 3.3 | 3.6 | 4.0 | 4.0 | 3.6 | 4.3 | 3.5 |

자료: 노동부, 『임금구조기본조사』

<부표 3-18> 부산청년층 의 시간당 임금

(단위: 천원)

| |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
| 전국 | | 3.3 | 3.7 | 4.1 | 4.9 | 5.2 | 5.2 | 5.4 | 5.9 | 6.1 |
| 남녀별 | 남 | 3.9 | 4.3 | 4.6 | 5.6 | 5.9 | 6.0 | 6.3 | 6.8 | 6.9 |
| | 여 | 2.1 | 2.4 | 2.7 | 3.3 | 3.6 | 3.6 | 3.8 | 4.1 | 4.3 |
| 학력별 | 고졸이하 | 3.0 | 3.3 | 3.6 | 4.2 | 4.4 | 4.3 | 4.5 | 5.0 | 4.9 |
| | 대졸 | 3.7 | 3.9 | 4.3 | 5.1 | 5.3 | 5.2 | 5.3 | 5.9 | 6.3 |
| | 대졸이상 | 5.9 | 6.5 | 6.7 | 7.9 | 8.3 | 8.6 | 8.7 | 9.3 | 10.1 |
| 산업별 | 농림어업광업 | . | . | . | 6.7 | . | . | 6.7 | 7.3 | 8.2 |
| | 제조업 | 2.8 | 3.1 | 3.5 | 4.2 | 4.4 | 4.4 | 4.2 | 4.7 | 4.8 |
|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 | . | . | 6.0 | 6.2 | 6.5 | 5.7 | 6.2 | 9.1 |
| | 건설업 | 4.6 | 5.2 | 5.6 | 5.9 | 6.8 | 6.5 | 6.5 | 7.7 | 7.8 |
| | 도소매수리숙박 음식접업 | 3.4 | 3.8 | 4.3 | 4.7 | 5.2 | 5.2 | 5.5 | 5.5 | 6.4 |
| | 운수, 창고 및 통신업 | 3.3 | 3.6 | 3.8 | 5.1 | 5.0 | 5.1 | 6.2 | 7.2 | 7.2 |
| | 금융 및 보험업 | 5.1 | 5.7 | 6.9 | 6.4 | 7.1 | 7.3 | 6.8 | 8.7 | 8.8 |
| |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 3.3 | 3.4 | 3.8 | 4.3 | 5.0 | 5.3 | 4.4 | 4.7 | 4.5 |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 | . | . | . | . | . | . | . | . |
| | 교육 서비스업 | 6.9 | 8.3 | 8.0 | 9.1 | 8.7 | 9.6 | 9.8 | 9.9 | 11.7 |
|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4.4 | 4.7 | 5.1 | 5.4 | 5.7 | 5.7 | 6.1 | 7.5 | 7.7 |
| | 기타 | 5.7 | 4.4 | 5.4 | 6.5 | 6.1 | 6.0 | 5.3 | 7.0 | 5.2 |
| | 직종별 | 관리자 | 7.6 | 7.7 | 8.5 | 10.1 | 11.3 | 11.8 | 10.8 | 11.6 |
| 전문가 | | 5.9 | 6.7 | 6.6 | 7.5 | 8.1 | 8.4 | 10.0 | 10.6 | 12.7 |
| 준전문가 | | 4.2 | 4.5 | 5.6 | 6.3 | 6.6 | 7.0 | 6.6 | 7.4 | 11.3 |
| 사무직 | | 3.5 | 3.9 | 4.1 | 5.2 | 5.4 | 5.3 | 5.0 | 5.5 | 7.9 |
| 서비스판매직 | | 2.8 | 3.3 | 3.6 | 3.7 | 4.1 | 4.1 | 4.1 | 5.2 | 5.8 |
| 농림업 | | 2.8 | 2.5 | 3.8 | 5.5 | 5.2 | 5.4 | 5.7 | 5.6 | 9.1 |
| 기능원 | | 2.7 | 3.1 | 3.1 | 4.1 | 4.3 | 4.2 | 3.8 | 4.2 | 4.4 |
| 조립원 | | 2.8 | 3.0 | 3.6 | 4.0 | 4.1 | 4.1 | 4.6 | 4.9 | 4.8 |
| 단순직 | | 2.7 | 2.7 | 3.1 | 3.4 | 3.5 | 3.4 | 3.5 | 3.8 | 3.4 |

자료: 노동부, 『임금구조기본조사』

2. 4장 부록

<부표 4-1> 시도간 청년 남자 인구이동 (주민등록에 의한)

(단위: 만명)

| 구 분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
|----------|------|------|------|------|------|------|------|------|------|
| 전국 | 전출입 | 51.8 | 51.0 | 50.2 | 45.2 | 47.7 | 46.1 | 48.0 | 51.6 |
| 서울 | 전입 | 11.6 | 11.6 | 11.7 | 10.1 | 11.6 | 11.6 | 11.6 | 12.2 |
| | 전출 | 13.6 | 12.9 | 12.1 | 10.6 | 10.8 | 9.9 | 11.1 | 12.0 |
| | 순전입 | -2.0 | -1.2 | -0.4 | -0.5 | 0.8 | 1.7 | 0.4 | 0.2 |
| 부산 | 전입 | 2.3 | 2.4 | 2.2 | 2.2 | 2.2 | 2.0 | 2.1 | 2.3 |
| | 전출 | 3.5 | 3.4 | 3.2 | 3.0 | 3.0 | 3.0 | 3.1 | 3.4 |
| | 순전입 | -1.2 | -1.0 | -1.0 | -0.8 | -0.8 | -1.0 | -1.0 | -1.1 |
| 대구 | 전입 | 2.1 | 1.9 | 1.9 | 1.7 | 1.7 | 1.7 | 1.6 | 1.8 |
| | 전출 | 2.2 | 2.4 | 2.3 | 2.1 | 2.0 | 2.0 | 2.1 | 2.2 |
| | 순전입 | -0.1 | -0.4 | -0.4 | -0.3 | -0.3 | -0.3 | -0.5 | -0.4 |
| 경상 남도 | 전입 | 3.5 | 3.4 | 2.3 | 2.3 | 2.1 | 2.0 | 2.1 | 2.4 |
| | 전출 | 3.3 | 3.2 | 2.6 | 2.4 | 2.5 | 2.5 | 2.5 | 2.7 |
| | 순전입 | 0.2 | 0.3 | -0.3 | -0.1 | -0.4 | -0.5 | -0.4 | -0.3 |

자료: 인구이동통계(연보)

<부표 4-2> 시도간 청년 여자 인구이동 (주민등록에 의한)

(단위: 만명)

| 구 분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
|----------|------|------|------|------|------|------|------|------|------|
| 전국 | 전출입 | 54.5 | 53.7 | 52.2 | 48.1 | 52.4 | 47.1 | 48.6 | 51.6 |
| 서울 | 전입 | 12.1 | 12.3 | 11.9 | 10.8 | 12.6 | 11.4 | 11.6 | 12.1 |
| | 전출 | 14.4 | 13.6 | 12.6 | 11.0 | 11.8 | 10.3 | 11.3 | 11.9 |
| | 순전입 | -2.3 | -1.3 | -0.7 | -0.2 | 0.9 | 1.1 | 0.3 | 0.3 |
| 부산 | 전입 | 2.5 | 2.5 | 2.3 | 2.3 | 2.4 | 2.1 | 2.1 | 2.2 |
| | 전출 | 3.6 | 3.6 | 3.4 | 3.2 | 3.2 | 3.0 | 3.1 | 3.4 |
| | 순전입 | -1.1 | -1.1 | -1.1 | -0.9 | -0.8 | -1.0 | -1.0 | -1.1 |
| 대구 | 전입 | 2.4 | 2.3 | 2.1 | 2.0 | 2.1 | 1.9 | 1.8 | 1.9 |
| | 전출 | 2.4 | 2.6 | 2.4 | 2.3 | 2.3 | 2.1 | 2.2 | 2.3 |
| | 순전입 | 0.0 | -0.3 | -0.2 | -0.2 | -0.2 | -0.2 | -0.4 | -0.3 |
| 경상 남도 | 전입 | 3.6 | 3.5 | 2.4 | 2.4 | 2.3 | 2.1 | 2.2 | 2.5 |
| | 전출 | 3.4 | 3.2 | 2.7 | 2.6 | 2.8 | 2.5 | 2.6 | 2.7 |
| | 순전입 | 0.2 | 0.3 | -0.3 | -0.2 | -0.5 | -0.4 | -0.4 | -0.3 |

자료: 인구이동통계(연보)

3. 6장 부록

<부표 6-1> 연령별 참가율 비교

(단위: %)

| 구 분 | | 15-19 | 20-24 | 25-29 | 30-34 | 35-39 | 40-44 | 45-49 | 50-54 | 55-59 | 60-64 | 65- |
|----------|------|-------|-------|-------|-------|-------|-------|-------|-------|-------|-------|------|
| 부산 | 1993 | 13.6 | 61.9 | 67.1 | 72.0 | 77.3 | 79.1 | 75.8 | 71.0 | 60.7 | 41.3 | 16.1 |
| | 1994 | 12.6 | 62.9 | 68.4 | 70.8 | 78.9 | 78.5 | 75.9 | 72.1 | 62.0 | 46.9 | 17.2 |
| | 1995 | 11.0 | 64.1 | 70.0 | 70.2 | 78.4 | 80.3 | 75.7 | 72.9 | 61.8 | 50.2 | 17.4 |
| | 1996 | 10.4 | 63.0 | 69.2 | 72.6 | 76.5 | 81.1 | 76.9 | 72.5 | 63.4 | 50.3 | 16.9 |
| | 1997 | 10.6 | 61.5 | 70.7 | 74.0 | 78.4 | 82.7 | 77.1 | 73.3 | 63.8 | 50.4 | 17.5 |
| | 1998 | 10.1 | 56.8 | 68.3 | 73.2 | 76.8 | 79.6 | 77.8 | 69.1 | 60.5 | 47.5 | 17.2 |
| | 1999 | 8.4 | 54.8 | 65.6 | 73.9 | 77.7 | 79.1 | 79.1 | 69.4 | 63.0 | 44.6 | 18.2 |
| | 2000 | 12.6 | 56.3 | 66.7 | 71.8 | 78.6 | 79.3 | 78.8 | 70.1 | 59.5 | 43.7 | 16.9 |
| | 2001 | 11.5 | 55.6 | 66.7 | 72.4 | 79.4 | 78.5 | 78.0 | 67.6 | 59.2 | 43.6 | 16.6 |
| | 2002 | 11.4 | 58.2 | 70.8 | 72.8 | 79.8 | 78.5 | 76.3 | 69.4 | 60.1 | 48.2 | 18.5 |
| 경제 전체 | 1993 | 13.7 | 61.4 | 68.0 | 72.9 | 78.5 | 79.7 | 78.0 | 74.5 | 67.9 | 53.9 | 26.5 |
| | 1994 | 13.1 | 62.3 | 68.3 | 73.4 | 78.4 | 80.5 | 78.1 | 75.1 | 68.2 | 56.7 | 27.3 |
| | 1995 | 12.0 | 63.1 | 69.1 | 72.9 | 78.5 | 81.5 | 78.1 | 74.9 | 68.5 | 58.4 | 27.9 |
| | 1996 | 11.1 | 63.1 | 69.9 | 73.8 | 78.8 | 81.5 | 78.8 | 74.8 | 68.1 | 58.2 | 28.5 |
| | 1997 | 10.8 | 62.8 | 71.1 | 74.5 | 79.0 | 81.9 | 78.6 | 74.9 | 69.0 | 59.0 | 29.7 |
| | 1998 | 10.5 | 58.6 | 69.4 | 72.6 | 77.7 | 79.7 | 78.0 | 73.8 | 66.1 | 55.5 | 27.5 |
| | 1999 | 11.1 | 58.0 | 68.4 | 72.4 | 77.6 | 79.1 | 78.2 | 73.0 | 66.0 | 55.3 | 28.7 |
| | 2000 | 11.9 | 57.3 | 70.1 | 72.4 | 77.7 | 79.2 | 78.8 | 72.3 | 64.1 | 54.1 | 29.6 |
| | 2001 | 11.6 | 57.0 | 70.8 | 72.1 | 77.8 | 79.0 | 78.6 | 72.3 | 64.0 | 54.8 | 30.0 |
| | 2002 | 10.6 | 58.0 | 71.7 | 72.5 | 77.8 | 79.1 | 78.6 | 73.2 | 64.7 | 55.8 | 30.7 |

[부록 6-1) 중앙과 해외의 청년실업 원인 분석과 대책¹¹⁾]

□ 전국의 청년실업 현황

○ 전국의 청년실업률은 2002년 기준으로 6.6%로 전체 실업률 3.2%의 보다 배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부산의 청년 실업률은 대구나 서울, 인천, 대전 등 타 광역시에 비해 낮은 편이나 울산에 비해서는 높음.

<부표 6-2 > 청년실업률(2002년 기준)

단위 (%)

| | 평균이하 | | 평균이상 | |
|------|------|-----|------|-----|
| | 광역시 | 울산 | 4.5 | 서울 |
| | | | 부산 | 7.1 |
| | | | 대구 | 8.8 |
| | | | 인천 | 7.4 |
| | | | 광주 | 7.1 |
| | | | 대전 | 7.2 |
| 전국평균 | 6.6 | | | |
| 광역시도 | 경기 | 4.6 | 전북 | 8.5 |
| | 강원 | 4.7 | 전남 | 6.7 |
| | 충북 | 6.4 | | |
| | 충남 | 6.1 | | |
| | 경북 | 5.8 | | |
| | 경남 | 5.9 | | |
| | 제주 | 5.3 | | |

자료 : 통계청(www.nso.go.kr), 경제활동인구조사

○ 전국의 청년실업률은 91년에 비해 높아지고 있으나 부산의 경우 예전의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11) 이 부분은 다음 두 자료를 집중 검토한 것임. 첫째, 이병희 (2003.11), 청년실업의 원인과 대책, 『매월노동동향』, 한국노동연구원. 둘째, 관계부처 합동 (2003.9.22), 청년실업 현황과 대책.

- 그러나 부산의 청년 실업률은 1996년 이후 2001년까지 6년 동안 전국 최고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경제위기 이후인 1998년과 1999년에는 15.3%, 14.5%의 높은 실업률을 남김.
- 따라서 2002년 평균치에 근접하게 보이는 부산 청년 실업률이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임.

<부표 6-3> 주요 지역 청년실업률

단위 (%)

| | 91년 | 96년 | 2002년 |
|------|-----|-----|-------|
| 전체평균 | 5.4 | 4.6 | 6.6 |
| 울산 | — | — | 4.5 |
| 서울 | 5.9 | 4.4 | 8.0 |
| 경기 | 3.7 | 3.3 | 4.6 |
| 전북 | 6.1 | 7.1 | 8.5 |
| 부산 | 7.1 | 7.7 | 7.1 |

자료 : 통계청(www.nso.go.kr),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6-4> 부산지역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및 실업자수 추이

단위 (천명)

|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
| 청년경제활동인구 | 535 | 508 | 498 | 498 | 497 | 481 | 473 | 438 | 406 | 419 | 401 | 406 |
| 청년실업자수 | 38 | 37 | 49 | 42 | 39 | 37 | 39 | 67 | 59 | 47 | 40 | 29 |

자료 : 통계청(www.nso.go.kr), 경제활동인구조사

중앙정부의 청년실업 대책

- 중앙 정부나 중앙의 노동시장 전문가들은 청년 실업을 최근 경기 위축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경력 중시형 노동력 수요로의 변화 그리고 교육-노동시장간 괴리에 의한 인력수급의 양적·질적 불일치에 의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파악하고 있음.

- 먼저 청년층 노동력 수요의 구조적 변화의 측면에서 볼 때,
 - 경제위기 이후 대기업의 신규 채용 감소에 의해 청년층 일자리 감소하였고 주요 대기업에서 청년층 채용경향이 둔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력중시형 채용 경향으로 전환되었고
 - 이에 반해, 중소기업에서 청년층 일자리 창출이 활발하여 사업체의 규모가 작을수록 순일자리 창출이 발생하는 반면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1999~2001년 동안 청년층의 일자리가 순 감소하여
 - 중소기업의 적극 육성을 통한 고용 창출능력의 제고 및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청년층 취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나 대기업의 고용창출능력이 둔화되고, 중소기업에서 일자리 창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눈높이는 여전히 높은 상태라는 점이 구체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 그 다음으로 학교와 노동시장의 괴리가 지적되고 있는 바,
 - 학교교육이 노동시장의 인력 수요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여 인력수급의 양적·질적 불일치가 발생하고
 - 학교교육과 노동시장의 괴리에 따라 학교-노동시장 이행이 장기화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 이러한 원인 분석에 따라 정부는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지난 9월 22일 정부 관계 부처 공동으로 청년 실업에 대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음.
 - 2004년에 5,400억원을 투입하여 13만명에게 일자리·연수·훈련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산학협력 강화, 노동시장 인프라 확충을 도모하여,
 - 3~4년 후 청년 실업률 5%수준으로 안정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특별히 정부는 중기고용정책으로 청년층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위해 노동부와 교육

부를 중심으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원활화할 것을 추진하고 있음.

- 고용안정센터에 청년취업지원실을 설치하여 인터뷰를 통한 청년 구직자 특성 파악, 심층상담, 단기 일자리와 해외연수를 포함한 모든 취업지도 등 One-Stop 서비스를 제공
 - 모든 재학생에게 직업지도를 실시하고 취업성공까지 구직자 특성별로 취업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기 위해 학교별로 취업지원실 설치를 통해 취업지도 종합프로그램을 제공
 - 청소년직장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산학협력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위해 연수지원제와 취업지원제 등 참여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함.
 - 대졸 미취업자에게는 광통신, IT 분야, 고졸 미취업자에게는 제조업 등 국가기간 산업 분야의 훈련을 확대 실시하고 대학졸업예정자도 S/W 솔루션 등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필요한 직종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는 등 청년층 특성에 맞는 다양한 훈련을 제공함.
- 위와 같은 정부의 정책은 청년 실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인식하여 단기대책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산업정책과 교육정책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제시하여 과거에 비해 진전된 내용을 제시하였다는 평가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미진함이 지적되기도 함.
- 청년 구직자층이 동질적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특성별 대책의 마련
 - 산업수요에 부응하여 교육과정·정원의 자율적인 조정을 위한 유인의 제시
 - 범정부적인 추진·평가체제를 갖출 필요

□ 부산이외 지방정부의 청년실업대책 방안

- 부산보다 높은 지역인 대구와 인천을 제외하면 지방정부가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특별히 모색한 경우를 찾지 못함.
- 특히 서울의 경우 부산보다 청년실업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책방안을 아직 마

련하고 있지 않고 중앙정부의 방침에 맡겨놓은 상태임.

- 대구와 인천의 청년실업대책은 기업주도의 청년층 고용창출 대신 지방정부의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단기적이고 제한적인 보조방안인 취업연수생제도가 주요 방안이 되고 있음.
- 대구의 청년실업 대책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청년 취업연수사업이 주요한 방안으로 실시되었음(2001년~2003년)

- ※ 2003년 청년 취업연수사업

- 사업기간 : 2003. 4. 7 ~ 12. 27(3개월 단위로 시행)

- 연수비 : 월60만원 정도(1일 22,000원-수당19,000원, 부대경비3,000원)

- 신청대상

- 인력소요기업체: 대구 소재 5인이상 중소기업체, IT·BT산업, 벤처, 연구소등

- 구직희망자: 대구에 주소를 두고 '98년~'03년 전문대학이상 졸업자중 미취업자

- 배정 : 3개월 연수후 정규직원으로 채용조건 기업체 우선 배정

- 기업체에서 구직희망자 면접 후 배정요청 → 대상자 선발 배정

- 4월부터 매월 첫째 월요일부터 3개월간 근무

- 인천의 대책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대졸실업자를 위한 IT분야 2만명 교육실시(2001. 3월부터) 민간 IT 우수교육기관을 통한 IT 전문교육 : 당초 2,000명 → 18,000명

- 지원내용 : 교육생 1인당 50~300만원씩 교육기관에 지급

- 미국(카네기멜론大), 인도(Aptech) 해외교육 : 1,000명 (2001년)

- 지원내용 : 교육비의 약 50% 수준(500만원 한도)

- 일본취업 지원 정보화교육 : 1,000명 (2001년)

- 지원내용 : 교육비의 약 50% 수준(300만원 한도)

- 청년 인턴제 1만명 추가실시(2001. 4월부터): 당초 1.9만명에서 2.9만명으로 확대

- 지원내용 : 청년 인턴채용 기업에 월 50만원씩 3개월 간 지원

- 청년실직자 재취직훈련 1만명 확대(2001. 4월부터): 당초 5만명에서 6만명으로 확대

- 지원내용 : 훈련비 전액 및 훈련수당(월 10~35만원)
- 청소년 600여명에게 직장현장 체험연수와 지원금(60만원) 지급 (2002년)

□ 해외청년실업 해소 방안

- 외국 정부들은 청년층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적인 공공 수요의 창출의 방식이 아니라 기업의 수요와 청년층 공급을 장기적인 입장에서 매치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업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유럽의 경우 청년층 개인별 요구를 미리 파악하여 예방적인 측면에서 취업능력을 개발함으로써 청년층 실업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EU, The Employment Guidelines For 2001, 1997.11).
 - 모든 청년층 실업자는 6개월 이내에 직업훈련·재교육·현장실습·일자리 혹은 다른 취업가능성 제고 방안과 필요시 노동시장으로의 효율적인 통합을 위한 개인별 직업소개 및 상담을 제공받도록 함.
 - 이는 청년실업자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촉진함.
 - 이를 위해 공공취업알선 서비스의 현대화 및 타 서비스 제공자와의 연계를 추진하여 예방적·적극적 전략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
- 청년실업에 무관심하고 공공직업훈련에 대해 저개발국가인 미국의 경우에도 청년 실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실업해소를 위해 정책을 개발하고 있음.
 - 우리와 달리 16-24세 연령층의 증가율이 타 연령층보다 높은 현상을 맞이하여 청년층 고용기회의 증가를 통해 청년층 실업문제를 해소하려 함 (U.S. Department of Labor, Strategic Plan FY 2003 - FY 2008, 2003).
 - 구체적으로 보면, 고등학교에서의 직업훈련 강화에 초점을 두며 이 직업훈련에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여 현실적인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가능성을 높이도록 함.
 - 또한, 학교 중퇴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위해 교육부와 더불어 인력투자법 (Workforce Investment Act)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직업훈련에 대

한 재정지원을 중퇴자에게 집중하도록 함.

- 이외 정보기술과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중앙정부 (국방부와 국립과학재단)의 지원 강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고용효과를 제고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기도 함.
- 일본의 경우 청년층 고용의 문제가 독립적으로 거론된 것은 1973년 2차고용대책기본계획이며 이 당시에는 능력개발과 직업선택의 적절성이 문제로 등장하였으나 점차 고학력화에 따른 수급상의 불균형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1976년 3차대책, 1983년 5차대책), 1988년 6차 대책에서는 수급조정의 충실화 뿐만 아니라 새로운 취업형태와 청년층 직업의식연구, 직업지도의 충실화와 강화, 직업안정기관과 교육기관간 연계 강화가 추진되었음.
- 현재는 고령화에 따른 청년층의 부족과 15-29세 청년층의 실업이 심각하고 이·전직이 높으며 학교졸업 미취업자가 증가하는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여 일본정부의 고민이 증가하고 있음.
- 1995년 8차 대책에서 정부는 학교교육 초기 단계부터의 직업교육이나 진로지도의 충실화, 직업경험의 장 제공 확대, 개인별 직업상담체제 구축, 직업정보체제의 정비, 종합적인 취직지원 체제 구축 등을 추진할 것을 천명하였음.

[부록 6-2) 지역전략 산업·첨단 및 고부가가치 신산업·동북아 경제중심 도시 육성과
청년층 일자리 창출]

| 지역전략산업 | 내용 | 규모 | 해외연수 |
|-------------|---|--|--|
| 구조고도화 산업 | | | |
| 섬유와 패션산업 | - 염색가공 디자인 및 산업디자인 고급전문가 양성 | | |
| 신발산업 | - 고부가가치 기술인력 양성 | · 기능인력(18억 520명) · 전문인력(23억 658명) · 고급인력(20억 55명) | '04 20명씩 '05 20명씩 '06 30명씩 '07 30명씩 |
| 자동차 부품 | - 조립업체와 부품업체 연계 인력 양성 | | |
| 조선기자재 | - 고급기술인력 양성 | | |
| 성장유망산업 | | | '04 40명씩 |
| 영화·영상 | - 고급인력양성 | | '05 40명씩 |
| 소프트웨어 | - 현장 인턴십제도 강화 - 기업·대학연계 전문인력 양성 | | '06 60명씩 '07 60명씩 |
|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 | | | |
| 첨단산업 | - IT 인력양성 - 문화컨텐츠개발 전문인력 및 마 케팅 요원 양성 - 환경 전문인력 양성 | · 부산정보통신연구원 지원 연 359명 · 동의대 지원(전자세 라믹스 45억원) · 동아대 지원(가공청 정 14억원) | |
| 해양바이오 산업 | - 해양생물의약품산업 전문인력 양 성 - 핵심 연구 인재 양성 | · 생물산업인력양성센 터('02~'04년 2.7억) · 부경대지원(바이오기 업지원센터 2억원) | '04·'05 10명씩 '06·'07 15명씩 |
| 고부가가치신산업 | - 국제호의 유치전문가 양성 - 문화이벤트 기획·마케팅 전문 가 양성 - 실버산업 개발 및 전문인력 양 성 | | |
| 동북아 경제중심 도시 | - 국제비즈니스 전문인력 양성 - 지역관광 전문인력 및 문화산업 전문가 양성 - 해운·항만 물류 전문가 양성 | · 동아대지원(지능형통 합 항만관리) 19억원 · 부산기술거래소운영 (3.2억원) | 해외인턴십프로그램 '04·'05 10명씩 '06·'07 15명씩 국제예술기획전문가 '04·'05 2명씩 '06·'07 2명씩 |

부산지역청년층 인력수급 실태 및 수요전망 조사

ID

노동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과 부산광역시는 부산 지역 청년층의 인력 수급 실태 및 수요에 대한 전망을 하고 부산지역 청년층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개발하기 위해 사업체 설문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 조사는 부산 지역의 청년층의 취업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들의 원활한 직장 이행을 촉진하고 부산지역청년층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부산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청년 고용 문제의 해결을 위해 빠진 문항 없이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지의 모든 문항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므로 선생님의 솔직한 의견을 있는 그대로 대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에서는 응답자 및 응답한 기업에 대한 모든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모아진 설문지는 통계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이 조사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부산광역시청으로 (전화 888-4782~5, Fax 888-2749)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03. 9.

부산광역시청 · 한국노동연구원

| | | | |
|---------|--------|-----------|--------|
| 회사명 | | | |
| 사업장 창설일 | 년 월 | 회사 창립일 | 년 월 |

이 조사는 사업체의 부산지역청년층 인력수급 및 수요 전망을 파악하여 인력개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인력관리 책임자가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설문지를 받으시면 바로 작성하셔서 다음 주소로 보내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편번호 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000번지

부산광역시청 노동정책과 실업대책담당자

직업 분류 기준

| | | |
|-------|--------------|---------------------------------|
| 관리직 | 01 | 의회의원 및 정부 행정부서 관리자, 특수이익단체 고위임원 |
| | 02 | 기업 고위 임원 및 관리자 |
| | 03 | 일반 관리자 |
| 전문직 | 11 | 과학 전문가 |
| | 12 | 컴퓨터 관련 전문가 |
| | 13 | 공학 전문가 |
| | 14 | 보건의료 전문가 |
| | 15 | 교육 전문가 |
| | 16 |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 |
| | 17 | 법률, 사회서비스 및 종교 전문가 |
| | 18 |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 |
| 준전문직 | 21 | 과학관련 기술종사자 및 준전문가 |
| | 22 | 컴퓨터관련 준전문가 |
| | 23 | 공학관련 기술종사자 |
| | 24 | 보건의료 준전문가 |
| | 25 | 교육 준전문가 |
| | 26 |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 |
| | 27 | 사회 서비스 및 종교 준전문가 |
| | 28 |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 |
| | 29 | 기타 준전문가 |
| 사무직 | 31 | 일반사무 관련 종사자 |
| | 32 | 고객서비스 사무 종사자 |
| 서비스직 | 41 | 대인서비스 관련 종사자 |
| | 42 |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 |
| | 43 | 여행 및 운송 관련 종사자 |
| | 44 | 보안서비스 종사자 |
| 판매직 | 51 | 도소매 판매 종사자 |
| | 52 | 통신 판매 종사자 |
| | 53 | 모델 및 홍보 종사자 |
| 농림어업직 | 61 | 농업 숙련 종사자 |
| | 62 | 임업 숙련 종사자 |
| | 63 | 어업 숙련 종사자 |
| 생산직 | 71 |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 |
| | 72 |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 | 73 | 기계 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 |
| | 74 | 정밀기구, 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 |
| | 75 |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
| | 81 |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 종사자 |
| | 82 | 기계 조작원 및 관련종사자 |
| | 83 | 조립원 및 관련 종사자 |
| 84 |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 |
| 단순직 | 91 |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
| | 92 |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
| | 93 | 제조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
| | 94 | 광업, 건설 및 운송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

사업체 일반 현황

문 1. 귀 사업장의 주된 생산 또는 서비스 활동에 따른 업종 분류는 어떻게 됩니까?

표준산업분류코드(2000년 개정 신산업분류코드)

| | | | | |
|--|--|--|--|--|
| | | | | |
|--|--|--|--|--|

※ 잘 모르실 경우 주된 생산품 또는 서비스 활동 기재 : _____

문 2. 귀 사업체의 주요 생산품명 또는 영업종목에서의 시장점유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1. 70%이상, 2. 50~70%미만, 3. 30~50%미만, 4. 20~30%미만, 5. 10~20%미만
6. 5~10%미만, 7. 3~4%, 8. 1~2%, 9. 1%이하, 10. 잘 모르겠음

문 3. 귀 사업장은 협력업체이거나 협력업체를 가진 모기업입니까? ()

1. 협력업체 2. 모기업 3. 해당없음

문 4. 귀사에서 외국인 지분의 역할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1. 외국인 지분이 없다. 2. 지분참가만 하고 경영에 직접개입하지 않음
3. 지분참가와 더불어 경영에 참여하고 있음 4. 외국인이 경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음

문 5. 귀 사업장의 2003년도 매출액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_____ 백만원

문 6. 귀사는 지난 3년간 설비투자를 얼마나 하였습니까?

- ① 증가 _____%
② 감소 _____%
③ 현상 유지

문 7. 귀사는 향후 3년간 설비투자를 얼마나 할 계획입니까?

- ① 증가 _____%
② 감소 _____%
③ 현상 유지

문 8. 귀사에는 노동조합이 있습니까?

- ① 노동조합이 있고 활동이 활발하다.
② 노동조합이 있지만 활동이 활발하지는 않다.
③ 없다.

종업원 현황

문 21. 귀 사업장의 종업원 총수는 얼마나 됩니까? (_____ 명)

※ 본사를 포함하여 여러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도, 귀 사업장의 종업원 현황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문 22. 귀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_____ %

※ 정규직(상용직)은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와 '임시 및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통산하여 45일 이상 근로한 자'임.

※ 비정규직에는 전체 종업원에서 정규직을 제외한 임시직, 일용직, 인력공급업체로부터 파견받은 자, 시간제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이 해당함.

문 23 비정규직의 주요 근무형태는 무엇입니까?

1. 기간제 계약직 근무
2. 파견 및 용역 근로
3. 시간제 파트타임 근로
4. 기타 _____

문 24. 청년층(15-29세 근로자)의 경우 비정규직의 주요 근무형태는 무엇입니까?

1. 기간제 계약직 근무
2. 파견 및 용역 근로
3. 시간제 파트타임 근로
4. 기타 _____

채용 현황 및 전망

문 31. 최근 1~2년간 전체 채용(정시채용+수시채용)자 중에서 정시채용의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전체 채용의 _____%,
 이 중 청년층의 경우에는 _____ %

문 32. 향후 2~3년간 연도별로 정규직 채용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하실 계획입니까?

| | 2003년(실적) | 2004년(전망) | 2005년(전망) |
|------------------|-----------|-----------|-----------|
| 전체 | 명 | 명 | 명 |
| 청년층 (15-29세) | 명 | 명 | 명 |
| 청년층 중에서 남성 | 명 | 명 | 명 |

문 33. 앞으로 부족한 인원 또는 필요로 하는 인원이 발생할 경우 주로 어떠한 방식으로 충원하실 계획이십니까?

- ① 신규로 졸업한 청년층을 정규직으로 정시 채용
- ② 경력이 있는 청년층을 정규직으로 수시 채용
- ③ 경력이 있는 중장년층을 정규직으로 수시 채용
- ④ 비정규직으로 청년층을 채용
- ⑤ 비정규직으로 중장년층을 채용
- ⑥ 채용할 계획이 없음

문 34. 향후 청년층 인력 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하시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불경기가 아닌 경영실패 등 다른 이유로 인한 사업부진
- ② 불경기로 인한 사업부진
- ③ 사업내용의 자동화·전문화·고도화 등에 따른 유희인력의 감원
- ④ 생산성 향상 또는 경영합리화를 위한 조직개편
- ⑤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
- ⑥ 빅딜 등 기업의 통·폐합, 구조조정에 의한 감원
- ⑦ 생산시설의 해외이전
- ⑧ 사업의 전환이나 신사업의 추진
- ⑨ 기타

문 35. 향후 청년층 인력 채용을 늘릴 것이라면 판단하시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사업 확대에 따른 인력수요 증가
- ② 경기 회복에 따른 인력수요 증가
- ③ 사업 내용의 전문화·고도화에 따른 채용
- ④ 사업의 전환이나 신사업의 추진
- ⑤ 구조조정의 완료에 따른 신규 채용
- ⑥ 정년퇴직, 자발적 이직 등 자연 발생한 결원의 충원
- ⑦ 충원요인은 없으나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 ⑧ 연령별 인력구성을 젊게 가져가기 위해서
- ⑨ 기타

인력수급 현황 및 수요 전망(상용근로자 기준)

문 41 이 질문은 2003.10.1 현재 귀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
 - 임시 및 일용근로자로서 조사기준일 이전 3개월을 통산하여 45일 이상 근로한 자
- ※ 제외대상 : 인력공급업체로부터 파견받은 자, 시간제근로자, 외국인근로자

| | 전체 종업원 | | 청년층(15-29세) | |
|------------|--------|-----------|-------------|-----------|
| | 현원 | 1년내 증감 전망 | 현원 | 1년내 증감 전망 |
| 1. 관리직 | 명 | 명(증□감□) | 명 | 명(증□감□) |
| 2. 전문직 | 명 | 명(증□감□) | 명 | 명(증□감□) |
| 3. 준전문직 | 명 | 명(증□감□) | 명 | 명(증□감□) |
| 4. 사무직 | 명 | 명(증□감□) | 명 | 명(증□감□) |
| 5. 판매·서비스직 | 명 | 명(증□감□) | 명 | 명(증□감□) |
| 6. 농림어업직 | 명 | 명(증□감□) | 명 | 명(증□감□) |
| 7. 생산직 | 명 | 명(증□감□) | 명 | 명(증□감□) |
| 8. 단순노무직 | 명 | 명(증□감□) | 명 | 명(증□감□) |
| 계 | 명 | 명(증□감□) | 명 | 명(증□감□) |

문 42 귀사에서 향후 3년간 종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3가지만 적어주십시오.

※ 직업코드 및 직업명은 표지 뒷면 「직업분류 기준」 참조.

| 직업코드 | 직업명 | 청년층 비중(%) | 현원(명) | 2005년도 예상인원(명) |
|------|-----|-----------|-------|-------------------|
| | | | 명 | 명 |
| | | | 명 | 명 |
| | | | 명 | 명 |

인력 관리 현황

문 51. 채용 방법은 다음 중에서 어떤 것을 사용하십니까?

| | |
|-----------------------|-----------------------|
| 1순위 ………() | 2순위 ………() |
|-----------------------|-----------------------|

- 1) (공개)채용시험을 통하여
- 2) 특별채용(스카우트)에 의하여
- 3) 구직자가 직접적으로 문의/면담하는 경우 채용
- 4) 학교(학원) 선생님의 소개나 추천을 받아서
- 5) 가족이나 친지의 소개/추천을 받아서
- 6) 회사 내 종업원의 소개/추천을 받아서
- 7) 파견업체를 통해서
- 8) 공공/사설 직업소개기관(예, 고용안정센터 등)을 통하여
- 9) 학교내의 직업소개기관(예, 취업상담실, 취업정보센터 등)을 통하여
- 10) 신문, 잡지 등의 구인 광고를 내서
- 11) 인터넷에 구인광고를 내서
- 12) 직업훈련 과정 수료자를 뽑아서

문 52. 청년층에 대한 다음의 교육·훈련 중에서 귀사의 업무수행능력을 높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주십시오.

| 만족 사항 | | 아주 불만족 | 약간 불만족 | 약간 만족 | 매우 만족 | 해당 없음 |
|-------|-------------------|-----------|-----------|----------|----------|----------|
| 취업전 | | | | | | |
| 교육 | (1) 인문·상업계 고교 교육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 | (2) 공업계 고교 교육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 | (3) 전문대 교육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 | (4) 인문사회과학 대학 교육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 | (5) 자연계및이공계 대학 교육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 취업후 | (6) 사업내 훈련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 훈련 | (7) 외부 위탁훈련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 | (8) 현장훈련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문 53. 청년층을 채용하였을 경우, 귀사에서 다음 가운데 가장 필요한 교육훈련과정은 무엇입니까?

- ① 직업훈련생 모집에 의한 신규양성훈련
- ②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훈련
- ③ 사무직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 ④ 생산직 사원에 대한 기능향상훈련
- ⑤ 관리, 감독자훈련
- ⑥ 전문인력,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 ⑦ 기타()

문 54. 귀 사업장에서는 어느 분야의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을 선호하십니까?

- ① 컴퓨터·정보, 통신 분야(컴퓨터 시스템, 프로그래밍, DB, 통신장비 운용 등)
- ② 어학 분야
- ③ 서비스 분야(음식조리, 이미용기술, 관광 및 숙박서비스 등)
- ④ 업무관리 분야(재무, 경영, 생산사무, 사무비원 등)
- ⑤ 기계·장비 분야(기계가공, 선반, 밀링, 조립, 설계·제도, 운전, 용접 등)
- ⑥ 의료 분야(물리치료, 간호 등)
- ⑦ 예능계(음악, 미술, 디자인 등)
- ⑧ 전기·전자 분야(기계설비·제어, 조립, 전기공사 등)
- ⑨ 기타

문 55. 귀사는 노동조합이나 조합원 때문에 인력조정이나 인력구성의 변경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적으로 그렇다.
- ② 그런 편이다.
- ③ 중간 정도
- ④ 그렇지 않은편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문 56. 기존 인력의 구조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청년층의 신규채용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적으로 그렇다.
- ② 그런 편이다
- ③ 중간 정도
- ④ 그렇지 않은편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문 57. 귀 사업장에서 대졸 청년층 초임은 어느 정도입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1) 50만원 미만 | <input type="checkbox"/> 8) 200만원 이상~225만원 미만 |
| <input type="checkbox"/> 2) 50만원 이상~75만원 미만 | <input type="checkbox"/> 9) 225만원 이상~250만원 미만 |
| <input type="checkbox"/> 3) 75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 <input type="checkbox"/> 10) 250만원 이상~275만원 미만 |
| <input type="checkbox"/> 4) 100만원 이상~125만원 미만 | <input type="checkbox"/> 11) 275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
| <input type="checkbox"/> 5) 125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 <input type="checkbox"/> 12) 300만원 이상~325만원 미만 |
| <input type="checkbox"/> 6) 150만원 이상~175만원 미만 | <input type="checkbox"/> 13) 325만원 이상~350만원 미만 |
| <input type="checkbox"/> 7) 175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 <input type="checkbox"/> 14) 350만원 미만 |

문 58. 귀사는 고졸 청년층 초임은 어느 정도입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1) 50만원 미만 | <input type="checkbox"/> 8) 200만원 이상~225만원 미만 |
| <input type="checkbox"/> 2) 50만원 이상~75만원 미만 | <input type="checkbox"/> 9) 225만원 이상~250만원 미만 |
| <input type="checkbox"/> 3) 75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 <input type="checkbox"/> 10) 250만원 이상~275만원 미만 |
| <input type="checkbox"/> 4) 100만원 이상~125만원 미만 | <input type="checkbox"/> 11) 275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
| <input type="checkbox"/> 5) 125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 <input type="checkbox"/> 12) 300만원 이상~325만원 미만 |
| <input type="checkbox"/> 6) 150만원 이상~175만원 미만 | <input type="checkbox"/> 13) 325만원 이상~350만원 미만 |
| <input type="checkbox"/> 7) 175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 <input type="checkbox"/> 14) 350만원 미만 |

긴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지역 청년층 고용촉진을 위한 실태조사(취업보도실 조사)

개인 설문지

1. 대 상 자 : 부산시 대학졸업 예정자

2. 조사기간 : 2003. 9. 22~10. 21

3. 조사방법 : 개인면접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국가 정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부산지역의 청년층 고용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무작위로 본 조사의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무기명'으로 실시되어 통계법에 의한 '개인의 비밀이 보장'되며 응답결과는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이 됩니다.

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솔직하고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면 정부의 정책수립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9월

한국노동연구원

Tel (02)782-0141(交259)

Fax (02)782-381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518호

우편번호: 150-101

문의응답담당자: 박상수 연구원

※ 해당 항목의 □에 √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대학번호 | | |
|------|--|--|

| | | | |
|----|--|--|--|
| ID | | | |
|----|--|--|--|

1. 귀하의 어학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1) 영 어: □상 □중상 □중 □중하 □하 TOEIC:()점

2) 일 어: □상 □중상 □중 □중하 □하

3) 중국어: □상 □중상 □중 □중하 □하

※“상”은 현지 외국인 수준 “하”는 글자도 읽을 수 없는 정도를 말함.

2. 현재 직장을 주로 어떻게 알아보고 계십니까? (2개까지 복수응답 가능)

| | |
|------------|------------|
| 1순위 ………() | 2순위 ………() |
|------------|------------|

- 1) (공개)채용시험을 통하여
- 2) 회사측의 특별채용(스카우트)에 의하여
- 3) 본인의 직접적인 문의/면담을 통하여
- 4) 학교(학원) 선생님의 소개나 추천을 통하여
- 5) 가족이나 친지의 소개/추천을 통하여
- 6) 그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소개/추천을 통하여
- 7) 파견업체 등록
- 8) 공공/사설 직업소개기관(예, 고용안정센터 등)을 통하여
- 9) 학교내의 직업소개기관(예, 취업상담실, 취업정보센터 등)을 통하여
- 10) 신문, 잡지 등의 구인·구직 정보를 통해
- 11) 인터넷의 구인·구직 정보를 통해
- 12) 직업훈련 과정에 참가

3. (자주 찾는 사이트)

귀하께서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채용사이트는 무엇입니까?

- 1) 사설 온라인 채용정보업체 2) 노동부 고용안정 정보망(Work-net)
- 3) 신문사 취업관련 채용사이트 4) 기 타 ()

13. (업체 선택기준)

귀하께서 업체를 선택하실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 | |
|--------------|--------------|
| 1순위() | 2순위() |
|--------------|--------------|

- 1) 연봉수준 2) 복지혜택 3) 직무 적합성
4) 회사규모 및 인지도 5) 회사 발전전망 6) 기타()

14. 귀하는 생산직이라도 취업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1) 예 2) 아니오

15. 비정규직으로서의 취업도 원합니까?

- 1) 예 2) 아니오

16. (공공취업알선기관 취업관련 행사)

귀하가 다니는 대학 및 지역 공공취업알선기관에서 지방대생 취업촉진을 위하여 어떤 행사를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1순위() | 2순위() |
|--------------|--------------|

- 1) 취업설명회 2) 취업특강 3) 채용박람회
4) 취업촉진프로그램 5) 기 타 ()

17. 청년 고용촉진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정책과제는?

| | |
|--------------|--------------|
| 1순위() | 2순위() |
|--------------|--------------|

- 1) 인턴제 활성화
2) 해외취업촉진정책 강화
3)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무료 직업훈련프로그램의 확대
4) 구직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공공 직업소개 및 취업정보망의 확충
5) 실직자들에 대한 생계보호(예: 의료보험, 학자금, 생계비 대부 등) 강화
6) 정부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노력(중소기업, 창업자금 지원, 공공근로사업 등)
7) 기업의 고용안정 노력(예: 인력재배치, 휴업수당 등)의 강화 및 지원

18. 귀하는 직업훈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 1) 원함
- 2) 원하지 않음

19. 귀하는 학교교육 외에 취업을 위하여 학원에 다니거나 직업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19-1. 현재까지 직업훈련을 받지 않고 계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교육을 받아도 취업가능성이 낮을 것 같아서
- 2)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없어서
- 3) 생계 때문에 교육시간을 낼 수 없어서
- 4) 원하는 교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 5) 인근에 직업훈련원이 없어서

20. 어느 분야였습니까?

| | |
|-------------------------|-------------------------|
| 1순위() | 2순위() |
|-------------------------|-------------------------|

- 1) 컴퓨터?정보, 통신 분야(컴퓨터 시스템, 프로그래밍, DB, 통신장비 운용 등)
- 2) 어학 분야
- 3) 서비스 분야(음식조리, 이미용기술, 관광 및 숙박서비스 등)
- 4) 업무관리 분야(재무, 경영, 생산사무, 사무비원 등)
- 5) 기계?장비 분야(기계가공, 선반, 밀링, 조립, 설계?제도, 운전, 용접 등)
- 6) 의료 분야(물리치료, 간호 등)
- 7) 예능계(음악, 미술, 디자인 등)
- 8) 전기?전자 분야(기계설비?제어, 조립, 전기공사 등)
- 9) 기타

20-1. 직업훈련 수강 기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개월

21. 위 직업훈련 분야는 본인의 최종 학교 커리큘럼과 관련이 있습니까?

- 1) 전혀 없다
- 2) 약간 있다
- 3) 동일하다

22. 위 직업훈련 분야는 본인의 희망 업종이나 직종과 관련이 있습니까?

- 1) 전혀 없다
- 2) 약간 있다
- 3) 직접 관련되어 있다

23.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자 한다면, 원하는 교육기간을 적어 주십시오.

- 1) 1주 이내 4) 6개월
- 2) 1~4주 5) 1년
- 3) 1~3개월 6) 2년

24. 귀하의 직업교육 비용은 주로 누가 부담하였습니까?

- 1) 본인
- 2) 부모님이나 가족, 친지
- 3) 기업체(고용안정사업 보험료 포함)
- 4) 정부
- 5) 기타

25. 교육받기 전에 현재 받고 있는 직업훈련이 귀하에게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상담을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 1) 있다 2) 없다

26. 직업훈련 교육과정을 이수한다면 1년 내 취업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 1) 0% 2) 25% 3) 50% 4) 75% 5) 90% 이상

27.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직업훈련의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 | |
|-------------------------|-------------------------|
| 1순위() | 2순위() |
|-------------------------|-------------------------|

- 1) 교육훈련 대상직종이 다양하게 개설될 필요가 있다
- 2) 교육훈련과정이 내실화될 필요가 있다
- 3) 현실에 적합하지 않는 교과과정이 많다
- 4) 교육훈련 수강생들간의 수준차이가 크다
- 5) 기타

♣ 끝으로 통계처리를 위하여 귀하의 가족사항 등 개인적인 사항을 여쭙겠습니다.

28. 개인에 관한 사항

- 28-1. 귀하의 성별은?1) 남2) 여
- 28-2. 귀하의 나이는?만()세
- 28-3. 귀하의 병역사항은?
1) 병역필2) 미필3) 면제

29. 귀하를 포함한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1) 100만원 이하 | <input type="checkbox"/> 9) 275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
| <input type="checkbox"/> 2) 100만원 이상~125만원 미만 | <input type="checkbox"/> 10) 300만원 이상~325만원 미만 |
| <input type="checkbox"/> 3) 125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 <input type="checkbox"/> 11) 325만원 이상~350만원 미만 |
| <input type="checkbox"/> 4) 150만원 이상~175만원 미만 | <input type="checkbox"/> 12) 350만원 이상~375만원 미만 |
| <input type="checkbox"/> 5) 175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 <input type="checkbox"/> 13) 375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
| <input type="checkbox"/> 6) 200만원 이상~225만원 미만 | <input type="checkbox"/> 14) 400만원 이상~450만원 이하 |
| <input type="checkbox"/> 7) 225만원 이상~250만원 미만 | <input type="checkbox"/> 15) 45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
| <input type="checkbox"/> 8) 250만원 이상~275만원 미만 | <input type="checkbox"/> 16) 500만원 이상 |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산지역 청년층 고용촉진을 위한 실태조사(고용안정센터 조사)

개인 설문지

1. 대 상 자 : 부산시 청년층(15~29세)
2. 조사기간 : 2003. 9. 22~10. 21
3. 조사방법 : 개인면접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국가 정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부산지역의 청년층 고용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무작위로 본 조사의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무기명'으로 실시되어 통계법에 의한 '개인의 비밀이 보장'되며 응답결과는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이 됩니다.

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솔직하고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면 정부의 정책수립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9월

한국노동연구원

Tel (02)782-0141(交259)

Fax (02)782-381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518호

우편번호: 150-101

문의응답 담당자: 박상수 연구원

※ 해당 항목의 □에 √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고용안정센터번호 | | |
|----------|--|--|

| | | | |
|----|--|--|--|
| ID | | | |
|----|--|--|--|

1. 귀하는 다음의 어느 그룹에 속합니까?

- 1) 최종학교 졸업 후 아직 취업 못함
- 2) 최종학교 졸업 후 취업한 적이 있으나 현재 직장이 없는 상태로서 구직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임
- 3) 현재 취업 중이지만 다른 직장으로 옮기려고 노력 중임

2. 귀하의 어학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 1) 영 어: 상 중상 중 중하 하 TOEIC:()점
 - 2) 일 어: 상 중상 중 중하 하
 - 3) 중국어: 상 중상 중 중하 하
- ※ “상” 은 현지 외국인 수준 “하” 는 글자도 읽을 수 없는 정도를 말함.

3. 현재 직장을 주로 어떻게 알아보고 계십니까?

| | |
|------------|------------|
| 1순위 ………() | 2순위 ………() |
|------------|------------|

- 1) (공개)채용시험을 통하여
- 2) 회사측의 특별채용(스카우트)에 의하여
- 3) 본인의 직접적인 문의/면담을 통하여
- 4) 학교(학원) 선생님의 소개나 추천을 통하여
- 5) 가족이나 친지의 소개/추천을 통하여
- 6) 그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소개/추천을 통하여
- 7) 파견업체 등록
- 8) 공공/사설 직업소개기관(예, 고용안정센터 등)을 통하여
- 9) 학교내의 직업소개기관(예, 취업상담실, 취업정보센터 등)을 통하여
- 10) 신문, 잡지 등의 구인?구직 정보를 통해
- 11) 인터넷의 구인?구직 정보를 통해
- 12) 직업훈련 과정에 참가

4. (자주 찾는 사이트)

귀하께서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채용사이트는 무엇입니까?

- 1) 사설 온라인 채용정보업체 2) 노동부 고용안정 정보망(Work-net)
- 3) 신문사 취업관련 채용사이트 4) 기 타 ()

5. 취업을 원한다면 다음의 어떤 업종, 직종, 고용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본인의 능력과 현재의 위치를 감안할 때 가장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여깁니까?

| | | |
|---------|---|--|
| 5-1. 업종 | <input type="checkbox"/> 1) 농수축산업 <input type="checkbox"/> 2) 광업 <input type="checkbox"/> 31) 식?음료제조업 <input type="checkbox"/> 32) 신발?고무제품제조업 <input type="checkbox"/> 33) 섬유?의류제조업 <input type="checkbox"/> 34) 석유?화학제조업 <input type="checkbox"/> 35) 전기?전자제조업 <input type="checkbox"/> 36) 자동차?운송기기제조업 <input type="checkbox"/> 37) 제약?화장품제조업 <input type="checkbox"/> 38) 기타제조업 | <input type="checkbox"/> 4) 전기?가스?수도업 <input type="checkbox"/> 5) 건설업 <input type="checkbox"/> 6) 도?소매업 <input type="checkbox"/> 7) 음식?숙박업(호텔?레스토랑) <input type="checkbox"/> 8) 운수?창고?통신업 <input type="checkbox"/> 9) 금융?보험?증권 <input type="checkbox"/> 10) 공무원?정부투자기관 <input type="checkbox"/> 11) 무역 <input type="checkbox"/> 12) 출판?광고 <input type="checkbox"/> 13)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input type="checkbox"/> 14) 보건?의료 서비스업 |
| 5-2. 직종 | <input type="checkbox"/> 1) 경영?관리직 <input type="checkbox"/> 2) 전문직 <input type="checkbox"/> 3) 기술 및 준전문직 <input type="checkbox"/> 4) 일반 사무직 <input type="checkbox"/> 5) 서비스?판매직 | <input type="checkbox"/> 6) 농업 및 어업근로자 <input type="checkbox"/> 7) 숙련공, 기능공 <input type="checkbox"/> 8) 단순조립?기계조작근로자 <input type="checkbox"/> 9) 단순노무직 |

6. (취업 희망지역)

귀하께서 원하시는 취업 희망지역은 어디입니까?

- 1) 부산?경남?울산지역
- 2) 수도권?서울지역 > 6-1. 번으로 가시오.
- 3) 기 타 () > 6-1. 번으로 가시오
- 4) 어느 곳이든 상관없다

| |
|---|
| <p>6-1. (타지역 선택사유)</p> <p>귀하께서 부산지역(경남?울산 포함)이 아닌 타지역을 희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p> <p><input type="checkbox"/>1) 지원할 만한 마땅한 업체가 많지 않다 <input type="checkbox"/>2) 연봉수준이 낮다</p> <p><input type="checkbox"/>3) 미래에 대한 비전이 부족하다 <input type="checkbox"/>4) 근무환경이 열악하다</p> <p><input type="checkbox"/>5) 연고가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p> |
|---|

13. (업체 선택기준)

귀하께서 업체를 선택하실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 | |
|-------------------|-------------------|
| 1순위 ………() | 2순위 ………() |
|-------------------|-------------------|

- 1) 연봉수준 2) 복지혜택 3) 직무 적합성
4) 회사규모 및 인지도 5) 회사 발전전망

14. 채용박람회나 지방대생 취업축진을 위하여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효과가 있다. 2) 효과가 있다 3) 보통
4) 효과가 적다 5) 효과가 거의 없다

15. (재학 중 근로경험) 졸업 또는 중퇴 후 현재까지 한번이라도 일자리(직장)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 1) 있다 2) 없다

16. 근로경험이 있다면 모두 몇 번 취업하셨습니까? ()번

17. 한번 취업했을 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일하였습니까? ()년 ()개월

18. 귀하가 최종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시기는 언제입니까?

이직시기 년 월

19. 귀하의 전 직장에 관한 사항을 아래에서 표시해 주십시오.

20. 귀하께서 근무했던 직장의 종업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 1) 30인 미만 4) 300인 이상~500인 미만
2) 30인 이상~100인 미만 5) 500인 이상
3) 100인 이상~300인 미만

21. 실직한 직장에서 귀하께서 받은 월평균 급여(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평균임금)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 1) 50만원 미만 8) 200만원 이상~225만원 미만
2) 50만원 이상~75만원 미만 9) 225만원 이상~250만원 미만
3) 75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10) 250만원 이상~275만원 미만
4) 100만원 이상~125만원 미만 11) 275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5) 125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2) 300만원 이상~325만원 미만
6) 150만원 이상~175만원 미만 13) 325만원 이상~350만원 미만
7) 175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4) 350만원 미만

22. 귀하가 실직 후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를 받은 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 1) 받았음 : ()개월 2) 받지 않았음

23. 청년 고용촉진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정책과제는?

| | |
|------------------|------------------|
| 1순위() | 2순위() |
|------------------|------------------|

- 1) 인턴제 활성화
- 2) 해외취업촉진정책 강화
- 3)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무료 직업훈련프로그램의 확대
- 4) 구직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공공 직업소개 및 취업정보망의 확충
- 5) 실직자들에 대한 생계보호(예: 의료보험, 학자금, 생계비 대부 등) 강화
- 6) 정부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노력(중소기업, 창업자금 지원, 공공근로사업 등)
- 7) 기업의 고용안정 노력(예: 인력재배치, 휴업수당 등)의 강화 및 지원

24. 귀하는 직업훈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 1) 원함 2) 원하지 않음

25. 귀하는 학교교육 외에 취업을 위하여 학원에 다니거나 직업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1) 예 2) 아니오

26. 현재까지 직업훈련을 받지 않고 계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교육을 받아도 취업가능성이 낮을 것 같아서
- 2)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없어서
- 3) 생계 때문에 교육시간을 낼 수 없어서
- 4) 원하는 교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 5) 인근에 직업훈련원이 없어서

27. 어느 분야였습니까?

| | |
|------------------|------------------|
| 1순위() | 2순위() |
|------------------|------------------|

- 1) 컴퓨터?정보, 통신 분야(컴퓨터 시스템, 프로그래밍, DB, 통신장비 운용 등)
- 2) 어학 분야
- 3) 서비스 분야(음식조리, 이미용기술, 관광 및 숙박서비스 등)
- 4) 업무관리 분야(재무, 경영, 생산사무, 사무비원 등)
- 5) 기계?장비 분야(기계가공, 선반, 밀링, 조립, 설계?제도, 운전, 용접 등)

- 6) 의료 분야(물리치료, 간호 등)
- 7) 예능계(음악, 미술, 디자인 등)
- 8) 전기?전자 분야(기계설비?제어, 조립, 전기공사 등)
- 9) 기타

28. 직업훈련 수강기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개월

29. 위 직업훈련 분야는 본인의 최종 학교 커리큘럼과 관련이 있습니까?

- 1) 전혀 없다 2) 약간 있다 3) 동일하다

30. 위 직업훈련 분야는 본인의 희망 업종이나 직종과 관련이 있습니까?

- 1) 전혀 없다 2) 약간 있다 3) 직접 관련되어 있다

31.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자 한다면, 원하는 교육기간을 적어 주십시오.

- 1) 1주 이내 4) 6개월
- 2) 1~4주 5) 1년
- 3) 1~3개월 6) 2년

32. 귀하의 직업 비용은 주로 누가 부담하였습니까?

- 1) 본인
- 2) 부모님이나 가족, 친지
- 3) 기업체(고용안정사업 보험료 포함)
- 4) 정부
- 5) 기타

33. 교육받기 전에 현재 받고 있는 직업훈련이 귀하에게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상담을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 1) 있다 2) 없다

34. 직업훈련 교육과정을 이수한다면 1년 내 취업가능성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 1) 0% 2) 25% 3) 50% 4) 75% 5) 90% 이상

35.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직업훈련의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 | |
|--------------|--------------|
| 1순위() | 2순위() |
|--------------|--------------|

- 1) 교육훈련 대상직종이 다양하게 개설될 필요가 있다
- 2) 교육훈련과정이 내실화될 필요가 있다
- 3) 현실에 적합하지 않는 교과과정이 많다
- 4) 교육훈련 수강생들간의 수준차이가 크다
- 5) 기타

♣ 끝으로 통계처리를 위하여 귀하의 가족사항 등 개인적인 사항을 여쭙겠습니다.

36. 개인에 관한 사항

36-1. 귀하의 성별은? 1) 남 2) 여

36-2. 귀하의 연세는?만() 세

36-3. 귀하의 학력은?

| 학력 | 고졸 및 그 이하 | 전문대학 졸업(예정) | 대학졸업(예정) 이상 |
|----|-----------|-------------|-------------|
| 중퇴 | | | |
| 휴학 | | | |
| 졸업 | | | |

36-4. 귀하의 최종학교 졸업/중퇴/휴학 시기는 언제입니까?

년 월

36-5. 귀하의 혼인여부는?

- 1) 미혼
- 2) 유배우
- 3) 이혼, 사별

36-6. 귀하의 병역사항은?

- 1) 병역필
- 2) 미필
- 3) 면제

37. 귀하를 포함한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 1) 100만원 이하
- 2) 100만원 이상~125만원 미만
- 3) 125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 4) 150만원 이상~175만원 미만
- 5) 175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 6) 200만원 이상~225만원 미만
- 7) 225만원 이상~250만원 미만
- 8) 250만원 이상~275만원 미만
- 9) 275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 10) 300만원 이상~325만원 미만
- 11) 325만원 이상~350만원 미만
- 12) 350만원 이상~375만원 미만
- 13) 375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 14) 400만원 이상~450만원 이하
- 15) 45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 16) 500만원 이상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